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근대 한국 시각교육 미디어로서의
환등회 연구

A Study on Magic Lantern Shows
as the Media of Visual Education
in Modern Korea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범대학 협동과정 미술교육전공

조영희

국문초록

본 논문은 근대 한국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시각교육 미디어로서의 환등회(幻燈會) 연구이다. 인쇄술의 발전에 기반한 신문, 잡지, 사진엽서 등의 여러 인쇄매체와 박람회, 파노라마관, 영화 등 다양한 시각 미디어들이 근대 시기에 출현하였다. 근대에 출현한 이러한 시각 미디어와의 관계 안에서 환등회가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었으며, 환등회가 당시 조선인의 생활세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환등은 프로젝터의 전신으로 유럽에서 17세기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이후인 1860년대부터 영화가 등장한 1896년까지 커다란 호황을 누렸다. 한국에 환등회가 소개된 것은 1880년대로,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환등 슬라이드는 초기에는 손으로 직접 그렸던 유리슬라이드를 사용하였으나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사진이 주로 사용되었다. 환등회의 내용이 사진이기에, 사진이 가지는 ‘사실’ 혹은 ‘진실’ 효과는 환등회의 내용을 수용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서구에서의 환등회가 오락을 중심으로 성황을 이루었던 것에 반하여 한국에서의 환등회는 근대의 대표적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문맹률이 높았던 조선인들에게 환등회는 시청각교육 미디어로서 더 효과적으로 주최자의 의도를 교수할 수 있었다. 시각적 오락거리가 드물었던 당시에는 환등회가 사람들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그리고 환등회에서 보여준 조선 밖의 서구의 모습과 근대화된 신문물은 조선인들에게 환등회를 통하여 신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은 환등회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으로 미디어로서의 환등의 속성, 환등의 재료로서의 사진 아카이브, 근대 시각교육에 있어 환등의 도입 시기를 다루었다. 그리고 근대 한국 환등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미국과 일본의 환등회를 각각 오락과 선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의 환등회의 대표적 두 주최자는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과 조선총독부였다. 한국 환등회는 이 두 주최자와 1910년 일제의 강제합병 전후로 그 특성을 달리한다.

제 III장에서는 근대 계몽기의 환등회를 고찰하였다. 1876년 개항부터

1910년 강제합병 이전은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환동회의 주요 주최자로서 기독교 선교가 환동회의 주요 목적이었다. 이 시기에는 서구의 근대문물과 근대화 자체가 부국강병을 위한 지식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환동회는 서구의 근대문물과 근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즉 세계를 보여주는 창 역할을 하였다. 서울YMCA를 중심으로 하여 개최된 환동회는 세계 여러 나라의 풍경과 풍습, 서구의 공업 및 상공업의 현황, 생물학과 천문학 등의 과학교육 등의 주제로 열렸다. 이 당시 환동회의 내용과 이미지는 그 자체로 권력을 가진 지식으로 작동하였다. 주목해야 할 지점으로 이 시기는 선교사들이 환동회의 주최자였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환동회에서 선교사들의 눈을 통해 세계를 볼 수밖에 없었다. 즉 환동회에서 본 세상은 선교사들이 재현한 이미지와 선교사들의 프레임 안에 있는 지식이었다.

제 IV장은 일제강점기 환동회로 이 시기는 조선총독부가 환동회의 주요 주최자로 교육, 위생, 오락이라는 일상의 영역으로 환동회가 확장되었다. 1920년대가 되면 환동회는 조선 전역에서 개최되었고, 따라서 초기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디어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어 갔다. 반면에 환동회는 식민정부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교육미디어로 작동하였다. 일제강점기 환동회의 특징은 환동회가 일상의 삶에 깊이 관계된 주제로 열렸다는 점이다. 교육, 위생, 오락이라는 주제로 환동회가 열렸는데, 이 주제는 생활세계와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조선인의 일상적인 삶이 시각화되어 환동회를 통해 '교육'되었다는 의미이다. 습득해야 할 지식의 기준, 위생이라는 담론 하에 전통문화 및 풍습 중 버려야 할 것과 유지되어야 할 것이 정해지고, 즐겨야 하는 여가와 취향의 영역이 '선택'되어 환동회로 개최되었다. 즉, 일상 영역과 공공 영역이 모두 시각미디어인 환동을 통해 교육되었다.

제 V장은 미술교육에 있어 환동회의 함의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 장은 환동회의 해석 및 논의의 지점으로 환동회의 미술교육적 의미와 기능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근대 미술교육 연구는 학교 미술교과 연구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근대 미술교육이란 학교 미술교육이라는 등식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환동회 연구는 학교 밖의 비제도권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환동회는 학교 시각교육에서도 사용되었으나 대부분 학교 외부에서 개최되었다. 환동회의 주제 또한 순수미술과 관련되기보다는 위생 등의 일상의 영역과 관계되었다. 따라서 환동회 연구는 근대 미술교육이 미술교과 연구에서 시각교육 전체로 시야를 확장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한다.

근대는 여러 새로운 시각미디어가 출현하였으며, 시각매체의 기본 단위의 정보와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사진으로 교육적인 성향을 띠었다. 그 중 환등회는 무엇보다 설명자가 직접 환등의 내용을 교수하며 이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관람하게 되는 현장성을 지니는 특성이 있다. 환등회는 근대의 다른 어떤 시각미디어보다 관람객에게 직접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현장성과 직접성이라는 환등회의 특성은 주최자의 의도를 관람객에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게 함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교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환등이 적합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와 박람회와 같이 제작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사전 제작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환등기는 운반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슬라이드는 설명자가 직접 제작·구성할 수 있으며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환등회의 특성은 여러 근대적 시각 미디어 맥락 안에서 환등회가 교육미디어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였다.

주요어 : 환등, 환등회, 시각교육 미디어, 한국 최초의 시청각교육,
사진교육, 근대 사진 아카이브

학 번 : 2011-30421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연구 방법	5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12
II. 근대 미디어로서의 환등의 탄생	15
1. 환등의 작동방식	15
1) 미디어로서의 환등의 속성	15
2) 조응천의 환등 제작법	20
2. 용어 정의	23
3. 환등 재료로서의 사진	28
4. 근대 시각교육에서 환등의 도입	36
5. 근대 미국과 일본의 환등회	41
1) 미국의 환등회	41
2) 일본의 환등회	49
III. 근대 계몽기: 세계를 보여주는 창	53
1. 기독교 선교 - “耶蘇행적” 환등회	54
1) 감리교의 <Korea> 환등교본	56
2) 선교활동과 환등회	64
3) 환등회에서의 언어의 역할	74
2. 근대문물 소개 - “新문물” 환등회	79
1) 서울YMCA의 환등회	80
2) 근대문물 교육환등회	90
3. 소결: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시선으로 본 세계	92

IV. 일제강점기: 일상으로의 시각교육의 확장	96
1. 근대 시각교육의 확장 - “교육” 환등회	98
1) 환등을 이용한 과학수업	99
2) 문맹퇴치 환등회	104
3) 민족운동으로서의 환등회	108
2. 보건 위생의 시각교육 - “위생” 환등회	112
1) 의료선교로서의 “위생” 환등회	114
2) 식민의료로서의 “위생” 환등회	121
3) 조선인 지식인의 “위생” 환등회	126
3. 엔터테인먼트가 된 시각교육 - “오락” 환등회	130
1) 금강산 환등회	132
2) 버라이어티 쇼로서의 환등회	134
3) 식민지인의 환등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	136
4. 소결: 환등회의 자유로운 지위와 검열	140
V. 미술교육과 환등회	143
1. 환등회의 미술교육적 의미와 기능	145
1) 한국 최초의 시청각교육 미디어	146
2) 근대 시각교육 미디어와의 관계적 맥락	154
2. 근대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환등회	160
1) 환등회 신문기사의 재해석	160
2) 시각교육을 통한 식민사상의 이식	165
VI. 결 론	172
참고문헌	176
Abstract	191
도판	197

표 목 차

<표 1> <Korea> 환등교본 분류	61
<표 2> 환등회 개최 횟수, 1908.6.~1909.6.	86
<표 3> 환등회 개최 횟수, 1914.6.~1915.5.	88
<표 4> 연도별 환등회 신문기사 개수, 1900~1945	163

자 료 목 차

<자료 1> 趣味의 科學: 家庭用의 幻燈 만드는 법	21
<자료 2> 루신의 ‘환등사진’	39
<자료 3>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의 편지	65
<자료 4> 레이놀즈(William D. Reynolds)의 글	70
<자료 5> 번사의 호(好), 불호(不好)	75
<자료 6> 靑會演討	85
<자료 7> 博覽設院	90
<자료 8> 東亞日報 記者 地方巡廻 正面側面으로 觀한 鍾城의 表裏	105
<자료 9> 各面洞에 夜學部設置-宣川基督教 農村事業	106
<자료 10> 위생계의 대복음, 山根正次축탁의 강연	123
<자료 11> 西洋式을 가미한 혁신단 활동극, 처음으로 진화된 서양식 활동사진 ..	125
<자료 12> 경성고아원 기금마련 자선연주회 광고	128
<자료 13> 降仙樓	134
<자료 14> 자선공연회 광고	135
<자료 15> 활동사진 이야기	137
<자료 16> 佛像, 怪奇幻燈下 오래살고, 아들나케 해준다고 金錢詐取라 鐵窓行 ..	141
<자료 17> 幻燈留聲機의 効力	147
<자료 18> 地方費와 教育事業	157
<자료 19> 汽車博覽會	159
<자료 20> 隣光會幻燈團員 安東에서 火傷	162

<자료 21> 文化幻燈會社, 새 機構로 出發 168

도 판 목 차

<도판 1> 환등기 구조. 조응천. 「趣味의 科學: 家庭用的 幻燈 만드는 법」. 『朝鮮中央日報』(1935. 4. 5.). 23

<도판 2> 환등 구조. Willem's Gravesande(1720). *Physices Elementa Mathematica*. 24

<도판 3> 환등 유령쇼(Robertson's Fantasmagoria). F. Marion(1867). *L'Optique* 24

<도판 4> 환등기 구조. 早稻田大學坪内博士記念演劇博物館 編(2015). 『幻燈スライドの博物誌プロジェクション・メディアの考古學』. 青弓社 出版, p. 77. 25

<도판 5> 스테레옵티콘(stereopticon). *Catalogue of stereopticons, dissolving view apparatus, and magic lanterns*(1888). 25

<도판 6> Kodak Camera 광고, 1889년 11월. 29

<도판 7> 이응울의 초상사진. *William Henry Jackson Papers, 1894-1896*. New York Public Library. 31

<도판 8> 민영익, 홍영식 초상사진. *George Clayton Foulk Papers*. The New York Public Library. 32

<도판 9> “Korea” 입체사진 세트 케이스. Underwood and Underwood 社. 33

<도판 10> 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선교사. 우: 카메라를 지고 바위를 오르는 집꾼. *Mission Photograph Album <Korea # 3>*.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36

<도판 11> 한국 환등 슬라이드. Keystone View Company의 환등 슬라이드 “600 Set” 중 542번 슬라이드. *Peabody Magic Lantern Collection*. San Diego State University. 39

<도판 12> 한국 환등 슬라이드. Keystone View Company의 환등 슬라이드 “600 Set” 중 543번 슬라이드. *Peabody Magic Lantern Collection*. San Diego State University. 39

<도판 13> 후프를 뛰어넘는 개, 1800-1899. 46

<도판 14> 크로마트로프 슬라이드(chromatrope slide). 46

<도판 15> 우쓰시에 관람 풍경, 1832. 早稲田大學坪内博士記念演劇博物館 編 (2015). 『幻燈スライドの博物誌プロジェクト・メディアの考古學』. p. 36.	50
<도판 16> 함장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1848-1934). Terry Borton Collection.	51
<도판 17> 환등 슬라이드 세트 케이스. <i>Peabody Magic Lantern Collection</i> . San Diego State University.	57
<도판 18> 1919년 감리교 세계박람회 스크린. <Centenary Celebration Lecture> 환등교본. <i>Easterbrook Papers</i> .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58
<도판 19> “삼독” 한국인 기독교 개종자. <Korea> 환등회 강의교본 중.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61
<도판 20> “Clinic in Union Medical School, Seoul”. <Korea> 환등회 강의교본 중.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61
<도판 21> 환등 슬라이드 케이스 표지. 고베여자대학교 아카이브	69
<도판 22> 나의 조국(My Country Tis of Thee), 《American Voice 1》. 고베여자대학교 아카이브	69
<도판 23> Let Freedom ring!, 《American Voice 1》. 고베여자대학교 아카이브	70
<도판 24> Of thee I sing, 《American Voice 1》. 고베여자대학교 아카이브	70
<도판 25> I need thee every hour, 《American Voice 1》. 고베여자대학교 아카이브	70
<도판 26> 조지 올친의 환등회 광경. 山本 美紀(2005). 「興行としての宣教--G・オルチンによる幻燈伝道をめぐって」. 『特集 近代東アジア文化とプロテスタント宣教師--その研究と展望』. 日本研究, p. 285.	72
<도판 27> 돌아온 탕자. 환등 슬라이드.	72
<도판 28> YMCA 건물 1907년 공사 모습. K. Murakami 사진집, <Institutions in Seoul>. <i>William Elliot Griffiths Collection</i> . Rutgers University.	81
<도판 29> 서울YMCA 강당. <Korea #1>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81
<도판 30> 일본의 환등수업(사회과). 하와이대학 소장. 早稲田大學坪内博士記念演劇博物館 編(2015). 『幻燈スライドの博物誌プロジェクト メディアの考古學』. 青弓社 出版, p. 78.	101
<도판 31> 파리 성충, 유충, 번데기 슬라이드	103
<도판 32> 교과서에 실린 파리와 유충 그림. 朝鮮總督府(1923-25). 『普通學校理科	

	書: 兒童用』. 京城: 朝鮮總督府.	103
<도판 33>	글자공부 슬라이드. 제작사: Board of Education, Buffalo, NY Visual Division.	107
<도판 34>	숫자공부 슬라이드. 제작사: Board of Education, Buffalo, NY Visual Division.	107
<도판 35>	“Mass Education by lantern slides, Shanghai, China”, <CHINA> (revised 1928). YMCA환등교본. Harvard Yenching Library	107
<도판 36>	환등기와 영사기 겸용 옆 홀(Sherwood Hall) 의사. <i>Souvenir Album of the School of Hygiene for the Tuberculous-Haiju, Korea</i> , 1938.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116
<도판 37>	피터(W. W. Peter) 박사의 공중보건과 위생 강연 무대. F. Strother(1918). “An American Physician-diplomat in China”. <i>The World’s Work</i> . New York: Doubleday, Page and Co., p. 546.	118
<도판 38>	북경에서 열린 공중보건 박람회를 관람중인 군인들. F. Strother(1918). “An American Physician-diplomat in China”. <i>The World’s Work</i> , p. 550.	118
<도판 39>	위생 강연 중인 피터 박사. W. W. Peter(1931). <i>A Public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China</i> . YMCA Archives.	118
<도판 40>	“Washing Rice and Shoes”. <China> YMCA환등교본, 1928. Harvard Yenching Library.	119
<도판 41>	“Table Carried in Parade”. <China> YMCA환등교본, 1928. Harvard Yenching Library.	119
<도판 42>	에비슨(Dr. Oliver R. Avison) 의사의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수술 장면. 문화재청 소장.	120
<도판 43>	수술 장면. 장로교 아카이브	120
<도판 44>	에디스 마가렛 어린이 병동(Edith Margaret Children Ward). Korea, Medical Work, Mission Education,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120
<도판 45>	굿하는 장면.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編(1915). 『朝鮮衛生風習錄』. 京城: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p. 1.	122
<도판 46>	콜레라 감염 환자 격리병실의 모습. <(大正九年) 콜레라 病防疫誌>. 조선총독부. 1921.	124
<도판 47>	대만의 콜레라 감염 환자 격리병동 모습. Michael Shiyung Liu(2009). <i>Prescribing colonization: The role of medical practices</i>	

	<i>and policies in Japan-ruled Taiwan, 1895-1945</i> , p. 89.	124
<도판 48>	위생 환등회 모습. Michael Shiyung Liu(2009). <i>Prescribing colonization: The role of medical practices and policies in Japan-ruled Taiwan, 1895-1945</i> , p. 123.	124
<도판 49>	콜레라 예방 집중. <(大正九年)コレラ病防疫誌>. 朝鮮總督府. 1921.	124
<도판 50>	페디스토마 환자 기침가래 검사상황. <朝鮮衛生要覽>. 朝鮮總督府. 1929.	124
<도판 51>	일본의 전염병 예방 환등 슬라이드.早稻田大學坪内博士記念演劇博物館編(2015). 『幻燈スライドの博物誌プロジェクト・メディアの考古學』. 青弓社 出版, p. 90.	127
<도판 52>	일본의 전염병 예방 환등 슬라이드. 早稻田大學坪内博士記念演劇博物館編(2015). 『幻燈スライドの博物誌プロジェクト・メディアの考古學』. 青弓社 出版, p. 90.	127
<도판 53>	<위생 편치(衛生ポンチ)> 풍자만화 시리즈, 일본.	129
<도판 54>	<위생 편치(衛生ポンチ)> 풍자만화 시리즈, 일본.	129
<도판 55>	‘쥐 먹는 남자’ 환등 슬라이드, c.1870.	131
<도판 56>	‘쥐 먹는 남자’ 연속이미지, c.1870.	131
<도판 57>	교과서 삽화. 朝鮮總督府(1926). 『普通學校圖書帖 教師用. 第2學年』. 朝鮮總督府.	156
<도판 58>	교과서 삽화. 朝鮮總督府(1938-39). 『國史地理』上,下. 京城朝鮮書籍印刷. 1929.	156
<도판 59>	기차박람회(Exposition Train). <Korea> 환등교본 중,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158
<도판 60>	신안주 역에 정차 중인 기차박람회. <Korea #1> 앨범, p. 178.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15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논문은 근대 한국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시각교육 미디어로서의 환등회(幻燈會) 연구에 목적이 있다.¹⁾ 환등회는 근대 한국을 관통하는 시각교육 미디어로, 근대 계몽기에는 서구문명과 문물을 수용하는 창구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학교 수업뿐 아니라 보건 위생 담론 하의 조선의 전통문화와 풍습을 재편하고 오락이라는 취미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개최되었다.

환등(幻燈, magic lantern)이란 슬라이드 프로젝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17세기의 발명품이다. 환등의 원리는 사각형의 상자 안에 광원(램프 혹은 전등)이 구멍을 통해 상자 앞부분에 위치한 이미지판을 비추면 이미지가 영사되는 구조로 작동된다. 환등회는 환등으로 스크린에 이미지를 확대하여 영사하는 것으로 환등이 과학의 영역이라면, 환등회는 사람의 손으로 직접 이미지를 교체하고 음악과 조명, 변사의 스토리텔링까지 합쳐진 일종의 종합공연예술이라 할 수 있다. 환등회는 태생부터 오락과 교육, 과학과 구경거리 사이에 위치한 네 요소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다차원적인 미디어였다. 이 중 하나의 속성이 부각되어 환등회의 특징을 이루지만 어떤 주제의 환등회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서구에서 환등회는 오락적, 공연적인 특성이 강조되어 19세기에서 20세기 초 가장 대중적인 오락 미디어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영화의 등장과 동시에 환등회는 오락의 영역에서 사라졌으며, 이후 학교 수업에서 시각교육 미디어로 존재하였다.

19세기 서구에서 오락이 주요 목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 환등회는

1) 본 논문에서 ‘근대’ 시기 설정은 근대 계몽기와 일제강점기를 통칭한다. 근대 계몽기는 개항부터 ‘한일병합조약’ 이전 시기를, 일제강점기는 일제의 식민지 전 기간을 지칭한다. 국가명은 개항 이전에는 조선, 1897년부터 한일병탄 이전의 시기는 대한제국으로,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국가명은 ‘한국’, ‘조선’으로 구분 없이 사용하였고, 당시 사람들은 ‘조선인’으로 칭하였다.

처음부터 오락 미디어가 아닌 시각교육 미디어로 기능하였다. 한국의 환등회의 양상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전후로 구분될 수 있다. 개항부터 일제의 한국병탄 이전의 근대 계몽기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기독교 선교라는 목적 아래 서구의 근대문물과 문명을 알리는 창 역할을 하였다. 초기의 환등회는 내용과 상관없이 관람객에게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오락적 재미를 주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환등회의 주요 주최자로, 1920년대가 지나면 환등회는 조선 전역에 보급되어 학교 교육, 보건 위생 그리고 오락이란 주제로 일상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환등회의 주제가 생활세계와 깊게 관계를 맺는 것으로 조선인의 일상적인 삶이 환등회를 통해 시각 이미지로 재현되어 ‘교육’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환등회를 근대 다른 시각 미디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각교육 미디어라 지칭할 수 있게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환등회는 최초의 시청각교육 미디어로서 환등회 연구는 개항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부재한 시각교육 미디어 연구의 공백을 채운다. 더불어 오늘날은 일상의 삶으로 미술교육의 지평이 확대되면서 시각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등회는 근대라는 시공간 또한 일상의 삶 안에서 시각교육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또한 근대 한국에서 사진이 대중적인 접근성을 가지게 된 계기가 바로 환등회였다. 19세기 후반이 되면 사진은 대부분 환등 슬라이드로 사용되었다. 이는 당시 사진이 전지구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과 같은 선상에 위치한다. 제국주의로 새롭게 획득한 영토 및 타국을 ‘눈’으로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진이었다. 그렇기에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였던 일반인들은 사진을 통해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과 이를 이용해 지배자들이 자신의 의도를 확대, 전파하고자 하는 욕망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환등회였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환등회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보고 듣는 즐거움을 가진 환등회의 오락적인 기능과 더불어 환등회가 가진 강력한 메시지 전달 기능 때문이다.

본 연구를 준비하면서 연구자는 ‘근대’, ‘사진’, ‘교육’이 만나는 지점에 환등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환등회와 관련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그 실체

와 시각교육 미디어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였다. 그러던 중 가장 큰 의문이 든 지점이 바로 “왜 한국은 환등회에 관한 연구가 부재한 것일까?”였다. 근대시기 환등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면 그에 관한 연구가 없는 것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헌조사 결과 환등회에 관한 기록이 다수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이 발간되기 시작한 1890대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발행된 신문 기사를 조사한 결과 7백 건이 넘는 환등회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문 기록으로 남아 있는 환등회의 숫자가 이러하다면 기사화되지 않은 환등회는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왜 환등회는 한국 미술사와 사진사에서 그리고 교육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서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 이 논문의 의의는 본격적으로 근대 한국의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환등회를 연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 미술교육 연구는 학교 제도 안의 미술교육 연구에 대부분 한정되어 있다.²⁾ 그렇다면 학교 밖에서 이뤄진 시각문화와 시각교육은 근대 미술교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인가? 왜 근대의 미술교육 연구는 미술교과 중심의 학교 제도권의 연구에 국한되었나? 그 이유는 무엇보다 미술교육을 학교 미

2) 한국미술교육의 역사를 다룬 대표적인 저서인 박휘락(1998)의 『한국미술교육사: 미술교육 100년의 흐름(1895-1995)』(서울: 예경)은 한국의 미술교육을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제 1기는 1895년부터 1920년대 초로 기술, 훈린주의 미술교육기이며, 제 2기는 1920년 중반부터 1945년 광복까지로 근대 미술교육의 태동기로 보며, 제 3기는 광복과 정부 수립 이후 민주주의의 새로운 교육관에 따른 창조주의 미술교육기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미술교육사의 시대구분은 학교 미술교과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한국미술교육사는 결국 미술교과의 변천사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박소영(2010)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국 근대(1897-1945) 미술교육에서의 용기화(用器畵) 교육 연구』는 대한제국기에서 일제강점기 중등학교 용기화 교과서와 보통학교 미술교과서를 분석, 당시의 용기화교육의 내용 및 성격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에서 용기화교육의 태동 배경은 부국강병의 일환으로 실시한 식산홍업 정책을 위한 근대 도안 교육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근대 한국의 미술교육을 다룬 일본 츠클바대학 대학원(筑波大學大學院) 박사학위 논문으로 장동호(2002)의 『한국 근대에 있어서 미술교육의 변천(韓國の近代における美術教育の變遷)』이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미술교육의 역사의 출발점을 1895년 근대학교가 설립되고 소학교령 및 소학교교칙대령이 공포되면서 교과목에 <도화> 과목의 도입으로 설정, 한일병탄 이전과 이후를 근대, 현대로 구분하면서 미술교육의 변천사를 개괄하고 있다. 그의 김용권(2004). 「일제시대 미술교육 고찰-초등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조형교육』, vol.24과 심영옥(2005). 「일제강점기의 《普通學校圖畫帖》 학년별 내용분석」. 『조형교육』, vol.25 등이 있다. 이상의 근대 한국미술교육 연구는 학교 미술교육에 국한되어 있다.

술교육으로 한정시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 전시기에 걸쳐 조선 전역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시각교육이라 지칭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문, 잡지, 사진첩과 도화첩, 영화, 박람회와 같은 시각매체들이 근대에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련을 맺으며 근대 전시기와 조선 전역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환등회는 근대 계몽기와 일제강점기 전 기간에 걸쳐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여러 주제와 목적으로 열렸다. 그렇기에 환등회 연구는 근대 시기 시각교육 연구의 부재함에 있어 해방 이전의 시각교육 연구의 출발점이자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걸쳐 1960-70년대를 잇는 시각교육 미디어의 흐름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의 목적은 근대 한국에서 환등회를 통해 재현된 이미지가 무엇이며 이 이미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 수용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조선인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표상되어 환등회를 통해 ‘교육’ 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그리고 환등회는 당시 다른 시각미디어와의 어떤 관계적 맥락 안에 위치하는 지를 밝히며 이후 한국 미술교육의 역사적 의미와 환등회의 미술교육적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제 I 장에서는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연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제 II 장에서는 환등회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과 환등회의 선행연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 III 장과 제 IV 장에서는 미국 개신교 선교사 주최의 근대 계몽기와 일제 식민정부 주최의 일제강점기라는 각각 근대 한국의 환등회를 시기와 주최에 따라 나누어 전개양상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 V 장에서는 미술교육에 있어 환등회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였다.

2. 연구 문제

근대 시각교육 미디어로서의 환등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환등회는 시기와 주최에 따라 어떠한 다른 전개양상을 가

졌는가? 근대 미국과 동아시아의 환등회와 차별되는 한국 환등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는 근대 한국에서 환등회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세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본 토대가 된다.

둘째, 환등회는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근대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근대 한국에서 환등회는 서구와 같이 오락 미디어가 아닌 교육 미디어로 작동하였다. 시각교육 미디어로 환등회가 작동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으며 환등회를 통해 ‘교육’되는 지식과 정보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조선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셋째, 환등회 연구가 가지는 미술교육에서의 함의 및 의의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근대 미술교육사 연구는 학교 미술제도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환등회는 학교 밖에서 활발하게 개최되었던 시각교육이었다. 그렇다면 환등회는 한국 근대 미술교육사에 있어 어디에 위치할 수 있으며, 미술교육에서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가지고 근대 한국의 환등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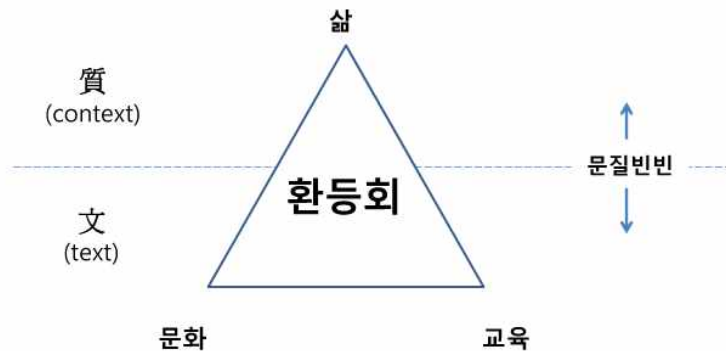
3.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질적 문헌연구로 질(質)은 영어의 ‘quality’에 대응한다. 질적 연구는 추상화, 개념화, 언어화, 이론화되기 이전 상태와 그 이후 상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사람, 사물, 현상의 성질을 통찰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으로 질적 문헌연구 역시 자료를 볼 때 문과 질, 문화와 자연 사이에 있었던 과정들을 파헤쳐 ‘해체’와 ‘(재)구성’의 역사를 읽어내하고자 한다.³⁾ 본 논문의 환등회 연구 또한 해체와 구성, 그리고 재구성 과정의 해석학적 순환 속에서 이루어진

3) 조용환 (2004). 「질적 연구와 질적 교육」. 『교육인류학회』 7(2), p. 61.

다.

구체적으로 도식화 하자면, <그림 1>과 같이 환등회는 ‘삶-문화-교육’이라는 세 개의 꼭짓점을 지닌 삼각형 안에 위치한다. 그 이유는 환등회는 학교 제도권 교육 안에서 주로 행해지기보다 학교라는 제도 밖에서 당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 맺으며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때로는 웃음과 불거리를 주고, 때로는 각성해야 한다는 민족의식을 일깨우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식민지 상황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대변하였다. 환등회는 삶과 문화 그리고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근대 한국의 여러 문맥 속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삶-문화-교육이 꼭짓점을 이루는 조용환(2012)의 ‘교육인류학과 질적연구’에 기초하여 환등회를 연구하였다.⁴⁾



<그림 1> 환등회 연구의 질적 접근

본 연구에서 1차 자료의 조사·수집은 환등회의 분석과 해석에 앞서 무엇

4) <그림 1>에서 질(質)은 컨텍스트(context)로서 근대 한국의 환등회가 위치한 모든 현상과 사태를 말하며, 문(文)은 환등회를 이론적 개념의 범주로 규정한 텍스트이다. 질에서 문을 구성(construction)하고, 문을 질로 해체(deconstruction)하고, 다시 질에서 문을 구성하는 구성-해체-재구성의 해석학적 순환과정 속에서 환등회의 속성을 파악하려 노력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환등회 연구란 문과 질을 넘나드는 문질彬彬(文質彬彬)의 과정으로서 질적 문헌연구를 구성한다.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 사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여야 하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중지하고 최대한 ‘낮선 눈으로’ 세상에 다가가야 한다. 조용환(2012).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p. 14.

보다 중요한 과정이었다. 1차 자료 없이는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등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1차 자료는 크게 미국 개신교 선교사 아카이브⁵⁾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발행된 국내 신문 기사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환등회에 관한 1차 자료는 물적 사료로서 환등 슬라이드와 환등기, 그리고 기록 사료로서 선교사 일기, 서신, 보고서, 사진 앨범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자료 수집 과정은 국내외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에서 환등회와 관련한 자료 수집의 한계로 미국과 일본의 대학 및 미술관 아카이브를 방문, 조사하였다.⁶⁾ 주요 아카이브는 미국의 선교사 아카이브, 대학과 미술관의 고문헌 자료실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1차 자료의 출처를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 아카이브는 소장처에 따라 선교본부, 국회·주립 도서관, 대학 도서관, 미술관, 개인 컬렉션으로 나눌 수 있다.⁷⁾ 아카이브의 생성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가장 많은 자료

5) 아카이브(Archive)는 공문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물건 또는 그런 것을 보관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근대적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문서관, 문서보관소, 고문서보관소, 기록보존소, 기록관리소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카이브는 ‘기록물 그 자체’ 또는 그 ‘기록물을 일정한 관리 체계에 따라 보존, 보관하는 장소’ 등 문맥에 따라 이중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경민(2010). 「사진 아카이브의 현황과 필요성 고찰: 한국 근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제국의 렌즈: 식민지사건과 ‘만들어진’ 우리 근대의 초상』. 서울: 산책자, p. 296.

6) 다음 연구자를 위한 아카이브 방문 및 자료 조사 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다. 우선 각 아카이브마다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배정하고 일정을 유동적으로 잡아야 한다. 자료를 직접 열람하기 전까지 그 자료의 양과 중요도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록만으로 일정을 계획했다간 시간 부족으로 꼭 필요한 자료를 놓칠 수 있다. 아카이브의 개방시간은 오전 9/10시에서 오후 5/6시로 짧기 때문에(출입증 발급, 자료 검색, 자료 출고, 점심시간이 합쳐지면 막상 자료를 보는 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할 수 있다.) 방문 전 아키비스트에게 필요한 자료를 설명하고 도착하자마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야 한다.

아카이브를 방문하는 동안 끊임없이 아키비스트에게 질문하여, 아키비스트의 도움을 충분히 받도록 하자. 전문적인 아키비스트는 각 아카이브의 특성 및 검색 목록에 나와 있지 않거나 목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자료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 주제와 찾고자 하는 자료를 정확히 설명하면 예상치 못한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아키비스트는 다른 아카이브와도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카이브를 방문했던 유사한 주제의 연구자를 소개해 줄 수 있다.

7) 미국 아카이브 조사 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7월 2일로 3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일본에서의 자료 수집은 2015년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졌다. 각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근대 한국 환등 및 사진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 모든 자료는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이후 한국에 도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방문 조사한 미국 아카이브 조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를 수집한 주체로 선교사가 있으며 그 외 인류학자, 상업 사진가, 여행가, 사업가 등으로 구분된다.

근대 한국의 환등회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미국 내 여러 아카이브 중 본 논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교사 아카이브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이전, 국내의 사진 및 환등회의 주축은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시 미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던 환등기와 환등 슬라이드를 국내에 반입하여 환등회를 개최하였다. 유럽과 미국에서 19세기 중후반은 환등회의 절정기로 환등과 관련된 슬라이드 제작 및 환등을 통한 오락, 교육 등의 활동이 왕성한 시

선교사 아카이브	The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Drew University, Madison, New Jersey.
	Kautz Family YMCA Archives , University of Minnesota, MN.
	The Moffet Korea Collection , Special Collections of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rinceton University, NJ.
	Presbyterian Historical Archives , Philadelphia.
	Union Theological Seminary Collection ,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국회·주립 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 Washington, D.C.
	New York Public Library , NY.
대학 도서관	Ham HoYoung Collection , Library of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Yenching Library, Fine Arts Library , Harvard University, Boston, MA.
	Peabody Magic Lantern Collection , Library of San Diego State University, CA.
	William Elliot Griffis Collection ,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J.
미술관	California Museum of Photography , Riverside, LA.
	Getty Research Institute , LA.
	Smithsonian National Anthropological Archives , Washington, D.C.
개인 컬렉션	Norman Thorpe Collection , Spokane, WA.
	Terry Borton Collection , East Haddam, CT.

그 외 일본의 아카이브는 고베여자대학교(神戸女學院大學)의 사료실, 요코하마 개항자료관(横浜開港資料館), 동경국립근대미술관 필름센터(東京國立近代美術館フィルムセンター) 자료실이다.

기였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육과정과 삶 속에서 이미 환등이 익숙하였고 한국 선교에서 환등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선교사들은 사진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편지와 일기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선교본부에 보내어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기록들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교과별 해외 선교사 파견 지침서에는 선교사들이 선교본부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⁸⁾ 이러한 선교사 아카이브는 선교본부와 선교지부, 선교사 개인의 상황 및 선교활동에서의 조선인과의 관계 등 여러 맥락 안에서 환등회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선교사 아카이브 이외 미국의 대학 및 미술관 아카이브들은 근대 한국 관련 환등회 및 사진 자료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이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행가, 사업가, 정치고문단, 인류학자, 상업사진사 등 여러 목적으로 조선을 방문한 미국인들이 많았다. 이러한 여러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근대 한국의 자료들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미국 아카이브는 한국 관련 사진 및 환등 슬라이드, 그리고 문헌 자료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또 하나의 자료는 19세기 말부터 국내에서 발행된 신문 기사와 잡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헌들이다. 환등회 신문기사는 『독립신문』 영문판인 “CHEMULPO NEWS” (1897년 10월 2일자)를 시초로 일제강점기 동안 700여 건의 기사가 발행되었다.⁹⁾ 700건이 넘는 환등회 신문기사

8) 미국 북장로교의 해외 선교 지침서를 보면, 각 지부는 격월로 활동사항에 대한 편지와 연말 연례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선교사는 한 해 동안 그의 사역에 대한 간단한 개인적인 보고서를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1889). *Manual of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for the Use of Missionaries and Missionary Candidates*. (Revised and Adopted Dec 16th, 1889). p. 16.; 미국 침례교 해외 선교 지침서는 해외 파견 선교사의 보고서 작성 의무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각 선교사는 집행위원회에 석 달에 한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연례보고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 시 읽기 쉽게 써야 하며 종이 규격, 종이 질, 양면 사용 금지, 여백 등 구체적인 보고서 규격 또한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보고서와 통계는 1월 1일과 15일 사이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라고 시기까지 정하고 있다. *Manual of the American Baptist Missionary Union: for the Use of Missionaries and Missionary Candidates*. 1908. pp. 59-62.

9) 19세기 말부터 일제식민기간 동안 발행된 신문은 각 신문의 발행 주최와 발행 시기에 따라 환등회 기사의 주제가 변하였다. 따라서 당시 환등회 기사를 담고 있는 신문

에 주목해야 할 지점으로, 신문에 환등회가 기사화되었다는 것은 환등회가 ‘특별한’ 일이었음을,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사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일이었음을 말해준다. 당시 신문기사는 환등회의 주최, 장소, 강연자, 내용 및 주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환등회는 특정 주제나 목적을 가지고 열리거나 또는 강연의 지루함을 환기시키기 위한 오락시간으로 강연 또는 토론의 중간에 삽입되기도 하였다.

의 발행 주최와 발행 기간,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문명	발행 기간 및 특징
독립신문	1896.4.7~1899.12.4 총 4면 (한글 3면, 영어 1면) 정부 지원으로 창간한 최초의 민간 신문.
皇城新聞	1895.9.5~1910.09.14 국한문체소형(小型) 4면으로 발간. 애국 보수층 신문.
帝國新聞	1898.8.10~1910.8.2 순국문.
大韓每日申報	1904.7.18~1910.8.28 국문판과 영문판 따로 발간(1905. 8. 11 이후). 구한말 대표적인 민족지.
每日申報	1910.8.30~1945.8.14 일제 식민지간 중단 없이 발간된 유일한 한국어 신문으로 일제의 기관지. 전신은 大韓每日申報.
東亞日報	1920.4.1~1940.8.30 민족주의 성향의 신문.
朝鮮日報	1920.3.5~1940 민족주의 성향의 신문.
朝鮮中央日報	1933.3.7.~1937.11.5 민족주의 성향의 신문.
時代日報	1924.3.31~1926.8.31
中外日報	1926.11.15~1931.6.19
朝鮮新聞	1908.12.1.~1942.2. 대표적인 일본인 민간지.
京城日報	1906.9.1.~1945 일본어로 발간된 총독부 기관지.

일제식민지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행된 『매일신보』를 제외하고 민족지 성향의 신문으로 환등회의 다양한 성격을 알 수 있는 기사를 실은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정간을 여러차례 당하여 정간기간 동안 환등회 기사가 공백으로 남은 아쉬움이 있다. 『동아일보』는 네 차례 발행정지 되었다.

1차 : 1920.9.25 ~ 1921.1.10 (108일)

2차 : 1926.3.7 ~ 1926.4.16 (44일)

3차 : 1930.4.17 ~ 1930.9.1 (138일)

4차 : 1936.8.27 ~ 1937.6.2 (279일)

신문의 발행 주체는 민족주의 성향의 신문과 일제의 기관지로 나누어진다.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주의 계열의 신문들 역시 친일적인 논조를 띄기도 하였다. 신문에서 환둥회의 중요 기사를 다수 실고 있는 신문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의 환둥회 기사는 YMCA를 비롯하여 선교사 주최의 환둥회에 관한 것이 중심을 이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신문이 폐간된 이후 선교사들이 개최하였던 환둥회 기사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 사실에 대해 단순히 두 신문의 폐간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기사로 확인할 수 있는 환둥회가 갑작스럽게 줄어든 것은 명확하다.

이에 반해 일제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는 위생환둥회, 농사개량환둥회, 식림·축산환둥회 등 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매일신보』의 논조와는 달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환둥회 기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층위에서 이루어진 환둥회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1920-30년대의 환둥회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한다.

근대 한국의 정치적 정세에 따른 지배주도권의 흐름에 따라 신문이 발행되었고, 환둥회의 주최 역시 지배세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바뀌었다. 일제강점 이전에는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주축을 이루었다면,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경무국이 주최가 되었다. 이 간극에 민족계몽운동으로서 조선의 지식인들에 의한 환둥회가 있었다. 신문의 발행주체와 시기에 따라 환둥회의 내용은 변화를 겪고 있으나 신문 또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둥회의 양상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분석 및 해석의 과정은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연구의 전 과정 동안 지속하였다. 우선 자료를 볼 때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차적으로 자료를 생성한 주체와의 거리를 두면서 보는 것이다. 생산 주체와 자료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주체의 특성에만 매몰될 경우, 자료가 말하는 다른 이면을 볼 수 없기에 자료 자체를 중심으로 보려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 자신의 시각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자료를 보려 하였다. 질적 연구의 해석은 ‘이해’ 지향적으로, 질적 연구가 추가하는 이해는 열린 ‘대화’이다. 그 이유는 이해는 생생하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체험의 공유를 추구하며, 질적 연구의 해석 작업은 바로 그러한

이해의 과정이기 때문이다.¹⁰⁾

자료를 자료 그 자체로 보는 시선만큼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환등회에 관한 글쓰기 자체이다. 환등회에 관한 단순 서술만으로는 근대 한국에서 환등회가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의 글쓰기는 환등회에 대한 다각도의 ‘깊이 있는 묘사(deep description)’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¹¹⁾ 이상에서와 같이 자료를 자료 자체로 보며 해석학적 순환 속에서 자료를 분석,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글쓰기 자체를 하나의 창의적 산물로 인식하며 심층적인 묘사를 견지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모두 환등회의 1차 자료로부터 기인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환등회에 관한 연구가 없는 지점에서 본 연구는 환등회에 관한 희귀 자료를 조사·수집하였다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 환등회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웠던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된 자료 조사·수집의 어려움에서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연구자가 발굴하지 못한 근대 한국의 환등회와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또한 환등회 연구에 있어 한계점이 될 수 있다.

10) 조용환 (1999).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2), p. 49.

11) 이미 1980년대 인류학자들이 문화기술지(ethnography)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을 “참여-관찰(participant-observation)”이 아닌 “쓰기(writing)”임을 자각했던 바와 같이 환등회 연구에서 또한 자료를 근거로 한 글쓰기 자체가 중요하다. 인류학자들은 문화기술지 글쓰기를 변화하는 창의적인(inventive) 영역으로 다시 바라보았다. 문화기술지 작성을 창작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는 역사는 글쓰기이며 글쓰기란 본래 창작의 기술을 요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문화기술지가 ‘사실’에만 기초한 지루한 글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읽힐 수 있고 따라서 문화기술지는 절대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류학자의 1980년대의 자성의 목소리는 문화기술지에만 국한되지 않은 모든 역사적인 글쓰기를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또한 반성적 글쓰기를 견지하는 한편, 환등회에 관한 글쓰기 자체가 하나의 창의적인 작업의 산물임을 밝힌다. James Clifford(1986). “Introduction: Partial Truths”. James Clifford and George E. Marcus(eds).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pp. 2-3.

1) 자료 수집의 어려움

이 연구에 있어 환등회 자료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만큼 국내에서 환등회의 자료를 발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환등회 자료 수집의 한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환등 슬라이드는 유리로 제작되어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의 혼돈과 미군정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격변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수 손망실되었다.

둘째, 환등회의 주요 주최자가 미국 개신교 선교사와 조선총독부로 자료의 생산주체가 한국정부와 한국인이 아니었다. 때문에 국내에 남은 자료의 수집에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

셋째, 해방 이후 정부 기관을 비롯하여 여러 단체들은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다. 자료를 보존,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쉽게도 부족했으며, 이는 전후 남아있던 환등회 자료의 손실을 가속화시켰다. 다시 말해, 무엇보다 환등회가 근대 한국의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환등회 관련 자료가 온전히 보존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¹²⁾

2) 한·중·일 비교 연구의 필요성

다양하고 많은 근대 자료를 조사한 후 확인할 수 있었던 지점은 한국, 일본, 중국이라는 동아시아의 아카이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 관련 사진 및 환등회 자료는 특별하게 생산된 것이기 보다 지리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틈 사이에서 제작되거나 수집된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서구인들은 일본에 첫발을 내딛고 일본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들의 이동경로를 보면 일본을 기점으로 한국을 경유하여 만주로 향하였다. 당시 동아시아를 방문한 서구인의 사진 앨범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서구처럼 깨끗하고 근대화된 일

12) 한국 근대 사진 아카이브의 현황과 필요성에 관한 제언은 이경민(2010)의 「사진 아카이브의 현황과 필요성 고찰-한국 근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앞의 책, pp. 295-326 참조.

본의 모습으로 시작하여, 문명화와는 거리가 먼 ‘흰 옷’을 입은 한국인과 비포장도로의 한국, 그리고 변발과 전족 차림의 미개한 중국의 모습이 그대로 사진앨범에 담겨졌다. 사진의 비중을 보면 일본과 중국에 비하여 한국을 촬영한 사진은 대단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서양인들이 수집한 한국 사진은 오랜 시간 한국에서 생활하여 기록한 것보다 ‘남만주철도’를 따라 일본에서 만주로 이동 중 잠시 정차한 한국에서 단편적으로 한국을 기록하였거나, 또는 당시 국내 거주 일본 사진사가 판매하는 사진엽서를 구입한 경우가 많았다.

선교사들의 활동에서도 한·중·일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당연히 같은 교단 아래 선교사가 각 나라로 파견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은 일본, 중국과 더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환둥회 연구를 비롯, 근대 한국의 사회, 정치, 문화 연구는 동아시아 삼국의 관계 안에서 파악될 때 실체를 깊이 있게 바라 볼 수 있다. 한·중·일의 환둥회를 비교하여 연구한다면 환둥회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보다 큰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근대 한국의 환둥회 연구에 한정하였으며 일본과 중국의 환둥회는 한국의 환둥회를 설명하기 위한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II. 근대 미디어로서의 환등의 탄생

이 장에서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가장 왕성하게 사용되었던 시각미디어인 환등을 다른 미디어와의 관계적 맥락과 역사적 관점이란 두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하나의 미디어는 다른 미디어들과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므로 다른 미디어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 미디어가 갖는 위상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미디어의 계보학적 발전을 고려한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역설적이게도 향후 미디어의 모습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³⁾

1. 환등의 작동방식

1) 미디어로서의 환등의 속성

환등회 연구는 미디어 이론, 근대 교육, 사진, 시각문화, 공연문화의 문제들이 중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환등회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각도로 연구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환등회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근대 사진을 논하면서 짧게 환등과 환등회가 언급되고 있다.

정영목(2013)은 『조선을 찾은 서양의 세 여인: 시선에 갇힌 진실』에서 간호사, 콜렉터, 화가인 서양의 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근대 한국의 사진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¹⁴⁾ 이 책에서 논하고 있는 환등회는 서구에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13) J. David Bolter & Richard A. Grusin(1999).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Cambridge, MA: MIT Press. 이재현 역(2006).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p. vii-viii.

14) 정영목(2013). 『조선을 찾은 서양의 세 여인: 시선에 갇힌 진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사용된 교육 목적의 환등회로, 한국의 사진이 환등 슬라이드로 제작되어 서양인들에게 한국을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으로 규정짓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서구에서 개최된 한국에 대한 환등회로, 근대 한국에서의 환등회를 탐구하는 본 논문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

환등회를 다룬 또 다른 글은 이경민(2011)의 『한국 근대 사진사 연구』가 있다.¹⁵⁾ 이 논문은 사진의 수용과 시각문화의 변용이란 장에서 ‘환등회의 열기’라는 제목으로 환등회를 다루고 있다. 한국의 환등회가 하나의 장으로 다루어진 것은 이경민의 논문이 유일하다. 환등회를 한국 근대 사진의 수용과 시각문화의 변용이란 주제 하에 환등회를 다루고 있어 근대 한국의 환등회의 맥락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초기 사진의 수용과정에서만 환등회를 다루고 있어 폭넓게 근대 한국의 환등회를 조망하지 않고 있다.

다른 국내에 환등에 관한 연구는 근대 한국의 초기 영화사에서 짧게 다루어진 정도가 전부이며,¹⁶⁾ 그 외 선행 연구나 연구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환등회와 인접한 분야의 연구들을 선행 연구로 검토하였다. 환등회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나 19세기 말 한국에 전기가 들어옴으로써 한국의 문화지형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쓴 손민서(2008)의 *Electrifying Seoul and the Culture of Technology in Nineteenth Century Korea*는 근대 신문물의 유입으로 전통문화의 위상이 서구문화에 위치를 내주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의미가 있다.¹⁷⁾ 서구 근대화의 중심 매체였던 전력의 도입은 단순히 전기의 유입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서구의 근대화가 국가의 목표로 설정되어, 서구식 오락문화와 생활문화가 들어오게 된다. 이것의 결정판은 영화의 인기로 귀결되는데, 1899년 통금이 사라지면서 밤 시간에 자유롭게 사대문을 넘나들 수 있게 됨으로써 영화는 판소리, 탈춤 등의 전통문화를 경시하는 풍조를 낳았다고 기술하

15) 이경민(2011). 『한국 근대 사진사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 유선영(2004). 「초기 영화의 문화적 수용과 관객성: 근대적 시각문화의 변조와 재배치」. 『언론과 사회』. 성곡언론문화재단, 12(1).; 유선영(2016). 「식민지 ‘미디어 효과론’의 구성-대중 통제 기술로서 미디어 ‘영향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회.

17) Son Min Suh(2008). *Electrifying Seoul and the Culture of Technology in Nineteenth Century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고 있다. 그러나 통금이 풀리고 영화의 대중성이 어떻게 전통문화의 위상에 서구 문화가 놓이게 되었는지에 관한 중간단계의 논리적 설명이 부족하다.

손민서(2008)의 논문의 의미는 전기의 도입이 근대 조선의 일상생활과 문화 지형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관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이는 하나의 미디어가 정치, 경제적인 맥락뿐 아니라, 일상의 문화로 들어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이라는 시기의 전력의 도입과 상용화 그리고 이로 인한 문화적 영향은 본 연구에 있어 선행연구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환등이 근대 한국에 도입되면서, 특히 환등이란 미디어가 교육의 형식으로 상용된 과정은 서구의 이데올로기를 직접적으로 조선에 이식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미디어로 작용한 지점이다.

환등의 미디어적 속성을 가장 잘 고찰하는 글은 바로 키틀러(F. A. Kittler, 2002)의 『광학적 미디어: 1999년 베를린 강의: 예술, 기술, 전쟁 *Optische Medien-Berliner Vorlesung 1999*』라 할 수 있다.¹⁸⁾ 키틀러는 이 책에서 카메라 옵스큐라는 이미지를 수신하고, 환등은 이미지를 송신하며, 카메라/사진은 이미지를 저장한다고 하였다. 환등을 ‘이미지의 이동’이란 측면에서 카메라 옵스큐라와 사진과의 관계적 맥락에서 파악한 것이다. 키틀러는 광학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각되는 이미지보다 그 물리적, 기술적 조건을 우선시하는 접근을 보여준다. 미학적 특성은 언제나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의존하는 변수로 보며, 이미지가 어떻게 저장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지를 기술의 역사를 통해 추적한다.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감각 기관을 변화시키고 예술의 위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벤야민(W. Benjamin, 1936)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¹⁹⁾

광학의 발전으로 인한 렌즈의 발달은 환등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예술가와 화가가 발명했던 것에 반해, 17세기 환등기를 발명한 사람이 수학자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키틀러(2002)는 지적한다. 환등은 1659년 네덜란드의 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인 하위헌스(C. Huygens, 1629~1695)가

18) F. A. Kittler(2002). *Optische Medien-Berliner Vorlesung 1999*. 윤원화 역(2011). 『광학적 미디어: 1999년 베를린 강의: 예술, 기술, 전쟁』. 서울: 현실문화연구, p. 29.

19) Walter Benjamin(1936).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Its Technological Reproducibility, and Other Writings on Media*. 최성만 역(2010).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서울: 길.

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²⁰⁾ 하위헌스는 빛의 파동설을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했으며 광학적 렌즈 장치를 발전시켜 망원경을 발명하였다.

여기서 환등기를 고안한 하위헌스가 또한 망원경을 발명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망원경은 “tele-scope”로 ‘멀리(tele)’ 있는 ‘대상(scope)’을 현전하게 한다. 이때 시각 보형물의 전형인 망원경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세계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그림으로써 세상의 움직임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다. 원근이 압축되어 만들어진 장소는 그곳의 이미지가 어디에서 운송되었는지 알 수 없게 하며, 동시에 우리가 감각하는 거리와 공간의 경험을 제거한다.²¹⁾

키틀러(2002)가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지가 언제 어떻게 왜 송신 장치까지 획득해서 우편 통신 같은 고전적 교통수단 없이 스스로 전송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²²⁾ 카메라 옵스큐라로 수신한 이미지를, 사진으로 저장하고 이 저장된 이미지는 환등을 통해 송신된다. 사람들은 환등회를 통해 먼 곳에 있는 이미지를 스크린의 이미지로 자신 앞에 가져온다. 그러나 망원경은 자연의 빛이 아닌 굴절된 빛이며, 망원경을 통해 관찰된 대상은 더 이상 실물의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환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송신된 이미지는 실재의 대상이 아니며, 사진 그 자체도 아니다. 환등이란 미디어로 재현되면서 이미지의 내용은 굴절되며, 또한 그 이미지는 환등회가 상영되는 시간과 공간에서 정치적, 문화적 텍스트로 변경된다.

사진의 내용을 담은 것이 환등이고, 환등과 영화는 텔레비전의 내용이 된다. ‘tele-vision’ 또한 멀리 있는 대상과 장소를 눈앞에 가져다 놓는다. 환등은 사람

20) 키틀러는 환등은 하위헌스와 덴마크인 토마스 발겐스테인(Thomas Walgenstein, 1627~1681)이 공동으로 발명하였다고 적고 있다. 토마스 발겐스테인과 크리스티안 하위헌스는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교(Leyden University)에서 함께 수학하였다. 하위헌스는 빛의 파동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여 TV 수상기의 과학적 밑거름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광학적 렌즈 장치를 실용적으로 개량한 장본인으로 실제로 사용 가능한 망원경을 역사상 처음으로 제작하였다. F. A. Kittler(2002). 앞의 책, pp. 114-115.

그러나 발겐스테인은 환등 발명자라기 보다는 환등을 가지고 유럽 전역을 돌던 랜턴리스트, 환등변사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L. Mannoni(2000). *The Great Art of Light and Shadow: Archaeology of the Cinema*. Exeter, England: University of Exeter Press, pp. 47-48.

21) Paul Virilio(1994). *The vision machine*. Julie Rose(t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 4.

22) F. A. Kittler(2002). *ibid.*, p. 111.

이 이미지를 실어 나른다면, 텔레비전은 전과가 사람을 대신한다. 전송 속도도 속력이 붙는다. 환등은 증기기관과 철도로 이미지가 운송되었다면, 이제는 전과와 인터넷 망으로 이미지의 운송에 따른 물리적인 거리가 사라졌다. 예를 들어, 생방송 뉴스 화면을 보는 시청자는 현장이 가까이 있거나 현전하는 듯한 강한 인상을 받는다. 즉 현장에 있는 기자의 모습을 통해 마치 우리가 사건 현장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현장감, 근접감, 현전감은 필연적으로 정보수집 및 처리에 잇든, 현대 저널리즘을 지배하는 모든 복잡한 물질적, 문화적, 상업적 과정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한다.²³⁾ 비릴리오(P. Virilio, 1994)가 말하는 바가 이 과정이 바로 시각의 환영이 출현하게 되는 배경이라는 것이다. 속도에 가속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 환영은 현실로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즉 이미지의 생산과 이송의 시간차가 없게 될수록, 다시 말해 이미지가 만들어진 곳과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사라질수록 현전감이 커지며, 이미지·영상의 환영이 현실로 감각되기 쉽다.

환등회에서 영사된 이미지는 환등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나라의 ‘문명화된’ 모습을 조선인의 눈앞으로 가져왔다. 이로써 ‘눈’으로 확인된 이 다름은 조선의 열등한 위치를 재인식하게 만들었다. 또한 근대 한국에서 환등이 송신하는 이미지, 즉 서구의 근대문물 사진은 이미지 자체가 지식으로 행사되었다. 그 이유는 이동의 제약을 받았던 조선인들에게는 조선 밖 세상의 모습은 신지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모든 재현에는 왜곡이 수반되며 선교사와 일제 식민정부가 보여주는 근대문물이란 이들의 눈으로 세계를 재현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현된 이미지는 환영일 수밖에 없다. 환영(illusion)과 실재(reality)의 혼재가 시작된 것이 바로 환등이라 볼 수 있다. 환영과 실재의 구분을 엷게 만든 환등의 속성은 그것이 이미지라는 특징을 가진다.

덧붙여 환등으로 투사된 영상이 사진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은 이미지의 환영을 실재로서 더 쉽게 받아들인다. 근대 한국의 환등회가 조선인들에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환등이 환영과 실재의 구분을 약하게 함으로써 환등으로 투사된 이미지를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점이다. 그리고 당시의

23) Ian James(2007). *Paul Virilio*. London; New York: Routledge. 홍영경 역(2013). 『속도의 사상가 폴 비릴리오』. 서울: 엘피, p. 101.

서구문물, 세계의 소식, 일명 환등으로 전해지는 ‘환등 뉴스’는 그 자체로 지식으로 작동하여 조선인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환등회가 전달하는 지식을 체득하려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저에는 신문물로서 환등이 주는 시각적 놀라움과 오락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국에서 환등회는 작동 방식 측면에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이자 프로파간다 미디어이며, 전달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근대 문물과 학문의 매개체이고, 미술교육의 관점에서 최초의 시각교육 미디어이며, 환등기의 작동원리와 기자재 측면에서는 광학과 전기, 사진술과 관계 맺고 있다. 요약하자면, 환등회는 그 자체가 근대 한국의 특징을 응축하여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이렇듯 환등회 연구는 학제 간 연구가 요구되며, 한 논문에서 환등회의 모든 속성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환등회를 교육과 미술교육이라는 중심축을 가지고 보려 하였다.

2) 조용천의 환등 제작법

단순한 원리를 가진 환등을 만드는 법을 소개한 조용천(曹應天) (1885-?)의 글을 보면 환등의 간단한 원리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환등을 이해하기 가장 쉽게 설명하면 프로젝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환등은 오늘날 수업의 보조수단으로 이미지를 상영하는 프로젝터 이상의 스펙터클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영화와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 즐길 수 있는 시각매체가 거의 전무하던 당시 환등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가장 대표적인 시각매체였다.

환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환등기 자체의 원리와 환등 영사기술인 환등회를 나누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환등 자체로는 과학의 영역이라면, 환등회는 사람의 손으로 직접 이미지를 교체하고 여기에 음악과 조명, 변사의 스토리텔링까지 합쳐진 하나의 종합적인 공연으로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환등은 19세기에 가장 인기를 얻어 전성기를 가졌지만 17세기에 발명된 매체로 광학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환등의 원리는 간단하다. 빛이 작은 구멍을 통해 어두운 상자 안으로 들어오면 밝은 외부의 이미지 상이 어두운 상자 안

에 거꾸로 맺히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안팎으로 뒤집은 것과 같은 이치다. 사각형의 상자 안에 광원이 작은 구멍을 통해 상자 앞부분에 위치한 이미지판을 비추면 이미지가 영사되는 원리이다. 스크린에 영사된 이미지의 크기는 광원의 밝기에 따라 차이가 나며, 광원을 모아주는 오목렌즈와 영사될 이미지의 초점을 맞추는 볼록렌즈가 각각 필요하다.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광원이 쉐 석회등(limelight)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석회등은 산소와 수소통을 각각 사용하면서 조작해야 해서 주의 부족 등의 조작 실수로 큰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²⁴⁾

조웅천 박사는 9년 간 미국에서 유학한 조선유일의 무전학자(無電學者)로 1928년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三極眞空管發振器의 出力條件」에 관한 논문으로 이학박사(理學博士)를 취득하였고 해방 후에는 군정청 경무부 통신국장을 역임하였다.²⁵⁾ 그는 귀국 후 교육에 종사하면서 무선전신에 관한 것을 알리고 싶다고 밝힌 바, 과학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가정용의 환등을 만드는 법」에 관한 기사를 『조선중앙신보』에 게재하였다. 가정용 환등을 제작하는 법을 알려주는 이 기사는 당시에 환등이 낯설기보다 친숙한 매체였음을 시사한다. 기사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趣味의 科學: 家庭用的 幻燈 만드는 법」

幻燈은 活動寫眞 다음에 가는 器具이다. 그림葉書나 其他寫眞을 幻燈으로 擴大하여 보면 그냥 보는 것보다 재미있을 뿐 아니라 一時에 大衆에게 보힐 수 잇는 것이다.

幻燈은 두 가지 方法으로 映寫할 수 잇는데 첫재는 硝子板에 寫書된 것을

24) John A. Davidson(2011). "Magic Lantern Optics: Their History and Development 300 B.C. to 2004 A.D". *The Magic Lantern Gazette*. The Magic Lantern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vol. 23, no.1, Spring 2011), p. 13.

25) 「朝鮮唯一의 無電學者 曹應天博士歸國」, 『동아일보』(1931.6.17)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조박사는 평양출생으로 금년 三十六세, 고향의 승실중학, 승실대학을 졸업하고 四년간 승실중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一九二二년 봄에 미국에 건너가 트라이 스테이트 대학에서 BS, 피어듀 대학에서 MS, 인디애나 대학에서 무선전신 연구의 논문으로 학위를 바든 것이 一九二八년, 그로부터 금년 귀국할 때까지 그 대학에서 텔레비시언(사진 무선 전송) 연구를 하다가 약 二주일 전에 만 九년만에 고국에 돌아왔다.” 저서로는 『百萬人의 電氣』, 『百萬人의 原子學』, 『라디오原理』, 『重架說法』, 『韓美會話之友』, 『파이나믹英語』, 『基礎無線工學』이 있다.

26) 1寸=4cm, 1尺=40cm

비치여 보이는 것이니 이것은 그 寫影이 特別하게 준비되지 아니면 할 수 없고 둘째로는 何等의 物形이던지 紙面에 記載된 것이나 혹은 實物을 그대로 비치여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데 쓰는 幻燈은 其 構造가 簡單하고 使用하는데 매우 便宜하다.

四方이 約六寸²⁶⁾되는 木箱 一個를 준비하고 前面에는 焦點의 長이 六七寸되는 『렌즈』를 代하되 進退를 自由롭게하여 映畫할 때에 焦點의 距離調節에 便利케하고 後面上部에는 현경을 부쳐 門적점의 裝置와 가티 하여 開閉에 自由롭게해서 寫眞交換에 便宜케하는 데 押釘과 가튼 것으로도 容易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렌즈』 筒直下에 電燈 一個를 두어 밝게함으로 映畫가 되는 것이다. 이 燈은 밝을수록 더 조흔 것이다. 故로 이 燈이 『렌즈』의 路에 障礙되지 안기를 注意할 것이다.

휘장이나 담벽 치밋여에 볼 수 있는데 먼저 四五尺 距里에 시험하여보고 경험하는 대로 더 잘할 수 있다. 其 映畫되는 理由는 圖에 暗示과 如히 燈光이 먼저 物形에 비치고 다음에는 『렌즈』를 通하여 휘장에 映하는 것이다. 그리고 針孔寫眞機에 理와 如히 映寫될 때는 각구리됨으로 그림葉書가튼 것을 너흘 때에는 받드시 각구루 너허야 正面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렌즈』의 焦點 求하는 법은 光이나 燈에 『렌즈』를 비치여 第一 밝은 點이 담벽이나 어는 곳이던지 便利한 곳에 現出케 하고 『렌즈』와 其 點의 距離를 尺으로 測하여 求하는 것이다. 이런데 쓰는 『렌즈』(火鏡)은 時計店이나 眼鏡店에서 買得할 수 있다. 『렌즈』는 클사록 조코 『렌즈』의 焦點距離가 必要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 (띄어쓰기는 필자)

출처: 『朝鮮中央日報』(1935.4.5.)

첫 단락은 “환등은 활동사진 다음에 가는 기구”로 “그림엽사나 사진을 환등으로 확대해 보면 그냥 보는 것보다 재미있고 일시에 대중에게 보일 수 있다”라며 환등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환등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이미지를 크게 확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으로 그림 또는 사진을 확대하여 볼 수 있는 매체는 환등이 유일하였다. 조용천 박사가 글을 쓴 1930년대의 환등 슬라이드는 대부분 사진으로 오늘날처럼 사진을 쉽게 찍고 소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환등으로 사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었을 것이다.

이어서 환등의 영사방법으로 초자판(유리판), 즉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비추

어 보이거나 실물을 그대로 비추어 보이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환등은 유리판에 그려진 그림 또는 사진을 영사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환등을 만드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6촌(약 24cm)되는 나무상자를 준비하고 초점거리가 24~28cm되는 렌즈를 상자 앞에 대고 상자 안에는 전등 한 개를 두어 전등의 밝기로 유리판의 이미지를 영사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에 사용되는 렌즈는 클수록 좋고 시계점이나 안경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응천 박사는 신문 기사에 환등기 구조<도판 1>를 함께 실어 이해를 돕고 있는데, 이 도판에서는 초점을 맞추는 볼록렌즈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등은 본래 상자 안에 광원의 빛을 모아주는 집광역할을 하는 오목렌즈와 이미지를 확대해 보이게 하는 볼록렌즈를 각각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그리고 영사되는 원리는 광원이 먼저 슬라이드에 비친 다음 렌즈를 통과하여 비춰지는 원리고 이는 바늘구멍사진기와 같이 거꾸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는 거꾸로 넣어야 정면으로 나오게 된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조응천 박사의 글은 환등이 영사되는 이치와 환등기의 제작 원리에 대하여 이해하기 용이하다. 그렇지만 제목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가정용 환등”으로 환등의 가장 단순한 구조를 보여 주었기에,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서구 및 국내 환등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환등과는 거리가 있다.

2. 용어 정의

1) ‘Magic Lantern’ 용어의 기원

환등은 17세기 중엽 네덜란드의 하위헌스가 발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위헌스는 환등으로부터 거리를 두려 했는데, 이는 그가 환등을 고안한 사람이라고 알려진다면 천문학자, 수학자, 자연철학자로서의 자신의 명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²⁷⁾ 당시 환등은 유령의 출현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는

27) John A. Davidson(2011). *ibid.*, p. 7.

장치로 여겨졌다.

환등이 라틴어로 ‘라테르나 마기타(laterna magica)’, 그러니까 ‘매직 랜턴(magic lantern)’으로, 불리게 된 연유 역시 초기 환등은 “마법 같은(magical)” 효과를 내는 즉 유령쇼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²⁸⁾<도판 2> 유령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미지가 크게 확대되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마법같이 느껴졌을 것이다. 이런 유령을 주제로 한 환등회를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라고 한다. 판타스마고리아는 고대 그리스어로 유령(ghost)을 뜻하는 “φάντασμα(phántasma)”와 집회(assembly)란 의미의 “αγορά(agorá)” 그리고 ‘대중 앞에서 말하다’란 의미인 접두어 “-ia”가 합쳐진 단어이다.²⁹⁾

어원 그대로 판타스마고라는 해골, 악령, 유령과 같은 무서운 이미지를 한 두 개의 이동식 환등으로 영사하는 환등회이다. 스크린 뒤에서 영사해서 관객이 환등을 조작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하며, 때론 연기 또는 반투명 스크린에 영사해 더 극적이고 공포스런 분위기를 연출하였다.<도판 3>

2) 일본 번역어, ‘환등(幻燈)’

영미권에서 환등은 일반적으로 magic lantern(또는 stereopticon)으로 불리나 환등기의 종류에 따라 보다 다양한 이름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근대 한국에서 환등은 영미권에서 다양하게 불렸던 것에 반해 “환등(幻燈)”이란 단어 하나로 일괄되게 통일되어 사용되었다. 환등의 ‘幻’은 한자로 “변하다, 허깨비, 요술”이란 의미로 환영을 만드는 등(燈)이란 의미이다. 영어를 한자로 번역할 때 요술, 환영의 의미를 갖는 환등이란 번역어는 유령과 같은 환영을 만들어냈던 “magic lantern”에 적절한 듯하다.

그런데 “magic lantern”에 대한 “幻燈”이란 번역어는 일본식 번역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처음으로 일본에 환등이 유입된 것은 18세기 에도시대로 네덜란드를 통해서였다. 에도시대 들어온 환등은 일본의 전통오락과 결합되어 일본화

28) F. A. Kittler(2002). 앞의 책, p. 111.

29) <https://en.wikipedia.org/wiki/Phantasmagoria>(방문일자 2017.9.2.).

되었으며 19세기 환등과 달리 이름 역시 우쓰시에(寫し繪)로 불리었다. 나무 상자
로 여러 사람이 스크린 뒤에서 공연하는 우쓰시에와는 별개로 명치시대에 들
어온 “magic lantern”은 “幻燈”으로 번역하여 에도시대의 환등과는 구분한다. 우
쓰시에는 그림극으로 일본화된 공연이었던 것인 반면, 환등은 교육, 계몽, 선전
등 근대적인 영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³⁰⁾

중국의 “magic lantern” 번역어를 살펴보면, 중국 역시 17세기 후반에 서양
에서 전래되었으나 환등이 대중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은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활
동을 하던 19세기였다. 닛전(John Hepburn Dudgeon, 1837-1901)이 처음 환등을
들여왔다고 기록되어 있다.³¹⁾

3) 스테레옵티콘

환등은 영어로 매직 랜턴(magic lantern)이 일반적인 명칭이지만 때론 시옵
티콘(sciopticon)으로 불린다.³²⁾ 그리고 매직 랜턴이란 명칭과 함께 스테레옵티콘
(stereopticon)으로 많이 불리었다. 일반적인 매직 랜턴이 이미지 구경이 하나라
면<도판 4> 스테레옵티콘은 매직 랜턴 두 개를 위 아래로 포개 놓은 것과 같은
구조로 두 장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디졸빙(dissolving views)과 움직임(moving
pictures)이 가능하다. 스테레옵티콘은 전문적인 환등으로, 강한 광원이 필요하
다.³³⁾<도판 5>

30) 관서지방에서는 니시키 카게 에(Nishiki-kage-e)로 불렸다.

岩本 憲兒(2002). 『幻燈の世紀—映畫前夜の視覺文化史』. 森話社, p. 125.

31) https://en.wikipedia.org/wiki/John_Dudgeon(방문일자 2017.9.2.).

32) 시옵티콘(Sciopticon)은 1868년 Lorenzo J. Marcy가 필라델피아에서 특허를 낸 환등
기이다. Lorenzo J. Marcy(1877). *The Sciopticon Manual*.(6th ed.). James A.
Moore: Philadelphia.

“sciopic”은 카메라의 “암상자의”란 의미로 환등이 카메라 옵스큐라의 구조를 안과
밖으로 뒤집은 것과 같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33) *Catalogue of magic lanterns, stereopticons, and moving picture machines*. 1899.
Montgomery Ward & Co.: Chicago, p. 2.

4) 환등회 변사

환등의 다방면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환등을 상영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양하였다. 영어로 lanternist, instructor, lecturer showman, stereopticon showman, entertainer, exhibitor, delineator 등으로 불렸으며 때론 professor로 지칭하였다. 이 단어들의 주된 특징은 무엇인가를 설명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란 의미를 가진다.

한국어 번역은 환등회 변사, 설명자, 교수자로 하였고, 이를 본문에서 교차 사용하였다. 'lanternist'를 '환등회 변사'로 부른 것은 당시 영화의 변사에서 가져왔다. 근대 무성영화에는 영화를 설명해 주는 사람을 변사라 호칭하였으며, 설명 변사와 연극변사가 나뉘어 있었다. 서양 활동사진이나 실사 활동사진을 상영할 때는 활동사진의 배경을 설명해주거나 타이틀을 읽어주는 식의 역할을 담당하는 설명변사가 독연을 했다. 연행방식도 초창기에는 웅변식이었다가, 점차 배역에 맞추어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들 설명변사는 일정한 지식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지식인으로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일본인 영화 변사들은 설명변사와 연극변사로 나뉘었지만 조선인 영화 변사들은 모두 설명변사였다.³⁴⁾ 환등회 변사는 영화의 변사와 유사함이 많다.

그 외 'lanternist'는 '환등사(幻燈師)'로도 번역하였는데, 이는 기존에는 없는 단어로 幻燈에 스승, 전문적인 기예를 갖춘 사람이란 뜻의 한자 '師'자를 붙여 환등을 통해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으로 조어하였다. 환등회에서는 이미지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환등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같은 슬라이드를 사용한 두 명의 환등사들이 결코 정확하게 똑같은 환등회를 보여줄 수 없다. 환등사들은 슬라이드의 순서와 포맷을 분류하고, 슬라이드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일한 이미지일지라도 환등사에 따라 다른 종류의 환등회가 될 수 있다. 환등사의 슬라이드 설명, 코멘트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환등회를 구성하는 데 이들의 의지가 개입한다.

34) 한상언(2010). 『활동사진시기 조선영화산업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99.

5) 환등교본

환등교본은 환등 슬라이드 설명서이다.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인 강연 환등회를 위해 제작된다. 보여줄 이미지(사진, 그림) 아래 그 이미지와 관련한 설명글을 적어 넣은 것으로 환등회의 순서에 따라 구성된 작은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환등교본은 환등 슬라이드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슬라이드만으로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알 수 없을 때 주요한 자료로, 환등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연구자가 찾은 환등교본은 미국 개신교 교단에서 20세기 초 개최하였던 환등회를 위한 환등교본으로, 이 중 한국에 관한 환등교본이 존재하여 당시 미국에서 한국을 어떤 이미지로 재현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주요한 자료이다.

6) 환등 영사

환등기 자체는 렌즈와 광원이 중요하기에 광학의 분야로, 그리고 환등 슬라이드는 19세기에는 사진이 사용되어 화학적 발전이 중요하지만, 환등은 여전히 카메라와 같이 진정한 광학적 미디어인 아날로그 미디어가 아닌 예술적 미디어로 손이 지배하는 매체라 정의할 수 있다.³⁵⁾

환등의 영사 기술은 환등이 예술적 미디어로 분류되는 이유라고 본다. 영화와 텔레비전은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영사기 또는 TV 수신기로 받으면 되는 것에 반해, 환등은 영사할 때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영사되는 속도와 내용, 그리고 영사된 이미지를 설명하는 변사 모두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에 의지한다. 이 지점이 환등을 단순히 오늘날의 프로젝트의 전신으로 볼 수 없게 한다.

35) F. A. Kittler(2002). 앞의 책, p. 27.

키틀러(2002)는 미디어를 예술적 미디어, 아날로그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예술적 미디어는 인간의 손이 지배하는 미디어이며, 아날로그 미디어는 진정한 광학적 미디어로, 이 시대는 시각적 묘사 활동이 인간의 손에서 해방되고, 시각적 지각 활동이 인간의 눈에서 해방된다고 각 미디어의 특성을 구분하였다.

3. 환등 재료로서의 사진

환등은 17세기 중반에, 사진술은 19세기 초중반에 발명되었다. 초기 환등은 손으로 직접 그린 슬라이드를 사용했으나, 사진술이 발명된 이후에는 사진 프로세스를 이용한 환등 슬라이드가 제작되었다. 질이 높은 그림 슬라이드를 얻기 위해서는 유능한 화가가 필요한 동시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 싼 가격의 그림 슬라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잘 그린 그림을 복사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때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사진기술을 이용한 슬라이드는 같은 이미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무한 복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이 되면 환등 슬라이드는 사진으로 대체되었다.³⁶⁾ 이로써 환등의 진보는 환등 슬라이드 생산에 사진술을 적용한 이후라 볼 수 있다.

19세기 중후반의 환등 슬라이드는 사진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당시 제작되어 유통되었던 사진은 바로 환등 슬라이드의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즉 근대 환등 슬라이드 연구는 결국 사진의 역사를 연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어떤 내용의 환등회가 열렸으며 한국에 관한 환등회가 국외에서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대 사진 아카이브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근대라는 시공간의 특성은 무엇이고 이 근대의 시공간 속에서 사진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자. 근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움직임의 시대, 유동성이라 할 수 있다. 바우만(Z. Bauman)이 ‘액체근대’라 명명한 바와 같이 지구상의 사람들과 자본이 유동적으로 흐르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근대이다. 근

36) 사진 슬라이드는 처음 랭겐하임 형제(William and Frederick Langenheim)에 의해 1849년 만들어져, 1850-51년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공연되었다. 또 다른 슬라이드 제작자인 아처(F. S. Archer)는 1851년 콜로디언 방식을 발명하여 슬라이드 제작 가격을 낮추면서 실물같이 보이게 하는 이미지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후 사진인화 방식으로 만들어진 환등 슬라이드의 발전은 지속되었다. 사진 슬라이드 제작 방식은 두 가지로, 하나는 슬라이드 유리판 위에 이미지를 밀착인화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복사 카메라를 사용하여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식이다.

Francisco Javier Frutos(2013). “From luminous pictures to transparent photographs: the evolution of techniques for making magic lantern slides”. *The Magic Lantern Gazette*. The Magic Lantern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vol.25, no.3, Fall 2013), pp. 6-9.

대는 그 시작부터 어떤 ‘액화’ 과정으로 ‘건고한 것들을 녹이는 것’이 근대가 성취한 핵심 요소이다.³⁷⁾ 근대의 유동성(fluidity)은 세계화의 포문을 열었고, 이 세계화는 지리적 불균등발전(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을 전제한다.³⁸⁾ 왜냐하면 서구와 비서구의 평행적인 쌍방향의 움직임이 아닌, 서구에서 비서구로의 움직임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서구에서 비서구의 흐름을 가속시킨 것은 바로 철도와 증기선이었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지구적 여행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여행자와 함께 사람의 이주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동아시아의 지리적 장애를 더욱 약하게 만든 것은 전신과 전기였다. 이 둘은 시간과 공간의 단축을 가져왔다. 전기는 전신과 전화의 번개선을 제공하여 전신을 통한 장거리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왔고 이는 정보를 수송과 분리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³⁹⁾ 수송과 정보 송신이 분리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정보혁명으로, 신문의 빠른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신은 철도와 함께 서양과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⁴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구 환등회에서 사진이 각광받았던 이유는 제국주의와 인류학의 발전과 함께 비서구 문화에 대해 알고 싶은 서구인들의 갈증, 그리고 여기에 증기선, 철도라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비서구 국가들에 대한 탐험여행의 폭발적 인기로 기인한다. 여기에 카메라의 발전도 사진이 대중성을 갖게 되는 데 이바지하였다. 1889년 11월 이스트만(Eastman) 회사의 코닥 카메라 광고문구 “버튼만 누르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판의 복잡한 처리과정이 보다 단순화되었다.<도판 6> 이후에 35밀리 카메라인 투어리스트 멀티플(Tourist Multiple)이 1913년에 판매되면서 사진은 해외 여행지에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과 인류학이 동시에 촉진되면서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

37) Zygmunt Bauman(2000). *Liquid Modernity*. 이일수 역(2009). 『액체근대』. 서울: 강, p. 9.

38) David Harvey(2000). *Spaces of hope*. 최병두 역(2001). 『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서울: 한울.

39) 조맹기(2004).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p. 327.

40) 일레로 일제는 조선 고적조사사업 중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조선총독부와 실시간 연결하면서 진행하였다. P. Hyung Il(2011). 「Navigating Modern Keijō-The Typology of Reference Guides and City Landmarks」. 『서울학연구』, (44).

다. 사진은 과학적 기록으로서 인류학의 주요 도구가 되어 공격할 수 없는 증거, 항상 세계의 사람들의 진정한 상태를 기록하는 수단으로서 “진실”이라고 보여졌다.⁴¹⁾ 이 사진의 ‘진실 효과’로 인해 환등회에서 사진이 더욱 각광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환등회와 관련하여 근대 한국의 시공간에서 만들어진 사진 아카이브의 특성은 무엇인가?

근대 사진 아카이브의 첫 번째 특징은 증기선과 철도의 개통이라는 교통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조선의 여행 사진 아카이브이다. 근대의 유동성이라는 특징은 고스란히 한국 사진 아카이브의 생성 과정과 연결되어 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철도가 개통되면서 내지까지의 접근이 쉬워졌다. 1910년대가 되면 일본에서 만주까지 철도로 4일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아시아는 같은 시간권 내 하나의 공간으로 작동하게 되었다.⁴²⁾ 이는 내지까지 착취가 가능해졌음을 뜻하며 조선의 식민지화를 용이하게 하였다. 당시 철도 이용자들은 일본인들과 타국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 이 철도의 이용자들은 조선인이 아니었다. 철도 개통으로 일본인이 조선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음은 서양인 또한 가능함을 의미하며, 이로써 조선 전역은 여행지가 되었다. 철도의 개통은 한국 기행문과 여행 사진 아카이브가 더 쉽게 생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서구 여행자들의 한국 여행기는 한국을 단독 여행지로 선정하여 온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일본에 먼저 입국하여 일본을 여행하면서 일본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조선의 정치·사회·문화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남만주철도를 따라 만주로 이동하면서 조선은 잠시 들르는 여행지였다. 한국의 사진 아카이브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이유가 한국은 서구 탐험가들의 사진 앨범 중 일본에서 만주로 가는 정거장에서 잠시 머물며

41) Jr. Morris L. Davis(2010). "Early Twentieth Century U.S. Methodist Missions Photography: The Problems of "Home"". *Methodist Review*, p. 35.

42) 1911년 11월 압록강 철도교가 준공되어 조선 신의주와 중국의 안둥이 철도로 연결되었다. 경의선은 압록강을 넘어 만철 소속의 안평선(안동-평탄)과 연결되었다. 1912년 일본 철도원(鐵道院)이 열차 시각표를 개편하면서, 일본 신바시에서 출발해 관부(關釜, 시모노세키-부산)항로를 건너 조선의 경부선과 경의선을 따라 압록강 대교를 통과해 만철이 관리하는 안평선, 남만선으로 선양과 창춘까지 이어지는 열차가 정식으로 개통됨으로써, 예전에는 일본에서 조선을 경유, 만주까지 약 한달이 걸렸지만, 사흘 반나절로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한중일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2012).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2』. 서울: 휴머니스트, p. 120.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대표적인 예로 폴 플뢰리(Paul Fleury)의 사진앨범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성공한 사업가인 플뢰리는 1896년에서 1918년에 걸쳐 중동,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칠레, 동아시아 등 전세계를 여행하면서 약 2천개의 사진을 담은 18개의 여행 앨범을 만들었다.⁴³⁾ 한국이 포함된 앨범은 12번째 앨범으로 중국 앨범 중 일부분으로 삽입되어 있다. 중국을 촬영한 사진은 대형카메라를 사용하였고 8×10인치의 비교적 크게 인화된 사진이었던 것에 반하여, 한국 사진은 손바닥 사이즈로 작았으며 직접 촬영한 것보다는 엽서사진이 주를 이루었다. 사진의 크기가 의미하는 바로 큰 사진으로 인화되었다는 것은 전문 사진가가 촬영하였음을 뜻한다. 이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사진으로 담겠다는 것이며 반면, 한국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일정 중에 짧게 다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미국인 사진가로서 예술가이자 작가인 윌리엄 헨리 잭슨(William Henry Jackson, 1843-1942)의 한국 여행 사진은 그대로 환등 슬라이드로 만들어진 예로 볼 수 있다. 잭슨은 미국의 철도와 지리학적 조사탐험을 목적으로 한 세계교통위원회(World's Transportation Commission)의 지원을 받고 1894년에서 1896년 사이에 한국을 방문하였다. 여행 사진가인 잭슨이 촬영한 한국 사진에서는 원주민인 조선인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이 담겨있다. <도판 7>은 잭슨이 촬영한 사진으로 인물 아래에 ‘이응율(YI UNG YUL)’이란 이름을 적어 놓았다.⁴⁴⁾ 이 사진은 열심히 ‘준비’하여 촬영된 것인데, 뒷마루에 병풍을 치고 돛자리에 앉아 있는 이응율 앞에는 그의 신발, 요강, 담뱃갑으로 보이는 작은 사각형 물건과 무엇인지 모를 원통이 놓여있다. 이 사진 구도와 사진의 소품들은 인류학자들이 원주민을 촬영한 사진들과 유사한 형식을 보인다.

다른 예로 미국 해군 수행원(Navy attache) 조지 클레이튼 폴크(George Clayton Foulk, 1856-1896) 아카이브에서 그가 조선 복무 시기(1883-1885)에 촬

43) *Travel albums from Paul Fleury's trips to Switzerland, the Middle East, India, Asia, and South America*. Creation Date: 1896-1918. Special Collections in Getty Research Institute.

44) *William Henry Jackson Papers*. Manuscripts and Archives Divis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Library in The New York Public Library.

잭슨의 환등 슬라이드는 미국 국회도서관 온라인 컬렉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loc.gov/pictures/search/?q=William+Henry+Jackson%2C+korea&sp=1>

영한 사진을 볼 수 있다.⁴⁵⁾ 폴크 아카이브를 통해서 19세기 말 미국과 조선의 관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⁴⁶⁾ 폴크의 사진 아카이브에는 뉴욕 사진관에서 촬영한 민영익과 서광범, 홍영식의 초상사진이 포함되어 있다.⁴⁷⁾ 이와 같은 사진은 한국의 근대사와 연관되어 사료적 가치가 있는 아카이브이다.<도판 8>

문화기술지(ethnography)의 역할을 하는 이들 서구 여행탐험가들의 조선 여행사진은 여행자의 계층과 여행 목적이 다양한 것만큼 여러 시선을 내포한다. 이들의 사진을 일률적인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으로만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근대라는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서구인들이 지니고 있던 동양을 바라보는 시선과 서구 문화를 담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근대 한국 사진 아카이브로서 다각도의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여긴다.

이상의 사진과는 조금 다른 측면의 상업사진으로 제작된 한국 사진 아카이브로 입체사진(stereograph)이 있다. 입체사진은 두 장의 동일한 사진을 입체경(stereoscope)을 통해 보면 사진이 평면이 아닌 입체로 보이는 시각 장치이다.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소비되었던 입체사진은 19세기 미국인이 거실에서 즐기는 대표적 오락물이었다. 입체사진 세트는 입체사진과 함께 촬영지의 지도, 가이드북으로 구성되어 판매되었다. 당시 입체사진 회사는 사진가를 전 세계로 파견하여 각 나라의 문화, 풍습, 자연환경을 촬영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사진가가 스스로 각 집을 돌면서 방문판매를 실시하게 하였다.⁴⁸⁾ 그만큼 자신이 촬영한 사진

45) *George Clayton Foulk Papers*. Rare books and Manuscripts Division, The New York Public Library.

46) Kim Joohyun(2015). *An Idealist's Journey: George Clayton Foulk and U.S.-Korea Relations, 1883-1887*. Senior Theses, Claremont McKenna College.

47)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은 1883년 최초로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이었던 보빙사(報聘使) 일행이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로 미국인 공사 푸트(L. H. Foote)가 조선에 부임해 오자, 고종은 그 답례로 민영익을 전권대신으로 하는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외부대신 홍영식, 종사관 서광범, 수행원 유길준·고영철·변수·현홍택·최경석 등과 중국인 우리탕(吳禮堂), 일본인 미야오카(宮岡恒次郎), 미국인 로웰(Lowell. P.) 등 모두 11인이 동행하였다. 폴크는 푸트 공사의 수행원이었기 때문에 보빙사 일원의 사진을 소장하고 있었다.

48)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에서 고객들은 입체사진을 방문판매, 지역 가게, 우편 주문으로 구입하였다. 한편, 1860년에서 1880년 사이의 미국인 입체사진 사진가는 12,000명에 달하였으며, 1939년에 마지막으로 입체사진이 발행되기 전까지 거의 1세기 동안 생산된 입체사진 네가티브는 적어도 사백만에서 육백만에 이른다. Judith Babbitts(1987). *"To see is to know": Stereographs educate Americans about East Asia, 1890-1940*.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p. 23.

을 판매까지 책임져야 했음은 입체사진가가 단순 사진가에 그치지 않고 사진의 판매율과 시장성을 염두에 두고 촬영하게 만들었다.

한국 또한 수많은 입체사진으로 제작되어 판매되었다. <도판 9>에서 보듯이 언더우드앤언더우드(Underwood & Underwood) 회사는 책 모양 케이스의 “Korea” 입체사진 세트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현재 한국 입체사진 네가티브 콜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 사진뮤지엄(California Museum of Photography, 약칭 CMP)이다. CMP는 가장 대표적인 입체사진 회사인 키스톤뷰사(Keystone View Company)와⁴⁹⁾ 로지 로스(George Rose, 1861-1942)의 한국 입체사진 네가티브 및 환등 슬라이드를 모두 소장하고 있다.

CMP의 *Keystone-Mast Collection*은 350,000장의 네가티브와 프린트를 소장, 세계에서 가장 큰 입체사진 콜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Keystone-Mast Collection*에는 키스톤뷰사의 네가티브 외에도 입체사진 판매 카탈로그와 다른 회사 출판물 그리고 다량의 학교용 입체사진 및 환등 세트가 포함되어 있다. *Keystone-Mast Collection*에 한국 입체사진 네가티브는 총 209개로 몇몇의 사진은 같은 장면을 2, 3차에 걸쳐 동일 촬영하였다. 사진은 제물포(16개), 제물포항구(12개), 건축물(19개), 결혼식(11개), 종교(8개), 인물(57개) 등으로 사진가가 조선에 짧은 기간 머물며 눈에 띄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촬영하였다.

환등회와 관련된 근대 한국 사진 아카이브의 두 번째 특징은 선교사 아카이브이다. 근대 한국으로 가장 많이 이주한 사람들은 개항 초기에는 미국인 선교사였다.⁵⁰⁾ 근대는 미션 사진앨범 아카이브를 생성시켰는데, 선교사들은 인류학자만큼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파견되었으며 이들은 선교지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밀도 있는 사진 아카이브를 만들었다. 이 미션앨범 아카이브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의 생활과 선교사업, 그리고 토착민들의 삶, 문화, 풍습을 기록한 사진 아

49) 1880년대와 1890년대는 미국에서 사진을 판매하는 회사가 급격히 성장한 시기였다. 키스톤뷰사가 1892년 창사했고, Universal Photo Art Company(1880), Underwood & Underwood(1882), H.C. White (1899), Griffith and Griffith(1896)가 각각 사진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입체사진 회사 중 키스톤뷰사는 1963년까지 가장 오랫동안 존재하였다.

50) 한국기독교연사연구소에 의하면 1884년부터 1945년까지 내한한 개신교 선교사는 총 1,529명이며, 그 중 미국국적의 선교사들은 69.3%(1,059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내한하였다. 김승태, 박혜진 역(1994). 『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카이브였다. 일부 선교본부는 선교사를 파견하기 전 사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선교교단은 선교활동의 기록이자 홍보로서 사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침례교는 선교지침서에 사진교육을 명시하였다. 침례교 선교지침서에는 “사진은 인쇄된 그 어떤 것보다 선교의 이야기를 말하는 데 더 효과적이므로 새로 부임한 선교사들은 가능하면 카메라를 가져가야 하며, 선교의 삶과 활동에 사진을 연결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다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필름 현상과 사진 인화와 같은 사진술을 확실하게 익혀 가야 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⁵¹⁾ 이 사진들은 환동회를 위한 슬라이드와 정기간행물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선명하고 명확하게 촬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침례교 사진 매뉴얼에는 사진의 소재까지 명시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선교지인들의 일상생활 모습 · 직업 · 특유한 관습, 우상 · 우상숭배,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선교사의 실제적인 활동으로 선교여행 · 원주민과의 활동 · 예배 · 침례교 전과 등 선교지의 실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진 주제로 삼을 것이 세세히 명시하였다.

침례교 사진 매뉴얼을 통해 확인했듯이 선교사 자신이 사진가가 되어 선교활동을 기록해야 함과 동시에 선교본부는 또한 보다 본격적인 사진 수집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진사를 고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은 선교지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선교기금 마련 및 선교활동 보고를 위해 사용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환동회는 선교본부의 중심적인 시각 보고서로서의 활동이자 교육이었다.⁵²⁾

그 중 특히 감리교는 대대적으로 선교지의 사진앨범을 제작하는 데 힘을 썼다. 현재 미국 연합감리교의 “*Mission Photograph Albums*” 컬렉션에는 257개 사진스크랩북 형식의 앨범이 소장되어 있다. 이 앨범에는 50개국 250,000장 이상의 사진이 담겨있다.⁵³⁾ 대부분의 사진 촬영 시기는 1890년에서 1930년대이며, 일

51) *Manual of American Baptist Missionary Union for the use of missionaries and missionary candidates*. Ford Building Boston, Mass. 1908.

52) *Ibid.*, p.41

53) *Mission Photograph Albums* 컬렉션의 목록은 아래의 홈페이지 참조.

<http://catalog.gcah.org/publicdata/gcah831.htm>

이 사진앨범은 맨하튼 남쪽 부둣가에 있는 옛 감리교 빌딩에 수 십 년 동안 보관되

부는 1948과 1950년대 초 사이에 제작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진은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속한다. 1910년대와 20년대는 세계 선교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점도 있으며, 1919년 감리교가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각 선교지의 사진을 수집하였기 때문이다.

“*Mission Photograph Albums*”의 사진은 교회활동, 선교지의 결핍된 이미지, 일상의 삶이라는 3개의 큰 카테고리 나뉘어 볼 수 있다. 첫째, 교회활동의 이미지는 선교지에 건설한 교회, 병원, 학교 등의 교육기관으로 이 사진에는 아이, 학생, 일반인들의 예배 모습, 일요학교 참여 모습 등이 포함된다. 둘째, 선교지의 결핍된 이미지로, 여기에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외롭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의 사진이 포함된다.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파괴된 모습과 전염병 발발로 고통받는 선교지의 원주민 사진들이다. 셋째,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각 지역의 사람들과 지역 모습을 보여준다. 이 사진들은 현재 연합감리교 아카이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일부 사진은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사진 앨범은 모두 온라인에 게재되어 있다.

미국 연합감리교가 소장, “*Mission Photograph Albums*” 중 한국 단독 사진 앨범은 7권으로, 여기에 일본사진과 섞여 있는 《Korea and Japan》 앨범 1권을 포함하면 총 8권이다.⁵⁴⁾ 한국 사진앨범은 1권부터 7권까지 연대기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사진 아래 다섯 자리 네가티브 숫자와 손으로 쓴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다. 대부분의 사진이 촬영연도와 사진가가 정확하지 않으나, 앨범 《Korea #5》는 사진에 관한 정보가 상세히 보관되어 있다. 이를 통해 《Korea #5》는 1929년부터 1940년대에 걸쳐 촬영된 사진임을 알 수 있으며 사진을 촬영한 일부 사진가의 이름 또한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사진앨범의 촬영연도와 사진가는 알기 어렵다. 단지 5권의 촬영시기가 밝혀졌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엮은 1권부터 4권은 1929년 이전에 촬영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앨범 1, 2권은 1890

어 오다가, 1960년대 드류대학교에 위치한 새로운 연합감리교아카이브 빌딩으로 옮겨졌다. 한국 사진앨범 8권은 모두 스캔되어 온라인에 올려져 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catalog.gcah.org/omeka/collections/show/32>

54) Korea에 관한 앨범은 총 8권으로 각 앨범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Korea #1》, 《Korea #2》, 《Korea #3》, 《Korea #4》, 《Korea #5》, 《Korea #6》, 《Korea OP #1》, 《Korea and Japan》
<http://catalog.gcah.org/omeka/collections/index/page/21>

년대에서 1920년대에 촬영된 사진이었으며, 선교사 또는 전문 사진가가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교사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도판 10>의 사진은 선교사 본인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보여준다. 선교사들은 개인 사진 앨범을 가지고 있는 등 사진을 적극적으로 사용, 수집하여 한국과 관련한 미션 사진 아카이브를 형성하였다. 사진은 과학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선교사업의 성공과 세계 선교임무를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근대가 지니는 속성에 따른 한국의 사진 아카이브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사진 아카이브가 중요한 지점은 바로 사진이 환동회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을 주제로 한 해외에서 열린 환동회와 국내에서 개최된 환동회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제작된 사진의 특성 파악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4. 근대 시각교육에서 환동의 도입

환동이 이미지의 송신을 위한 미디어라는 점을 명확히 기술한 키틀러(2002)는 환동회 연구를 위한 철학적 출발점을 제공한다. 이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가 중심이 아닌, 그 이미지를 송출하는 방식으로서 환동회를 보아야 한다는 지점이다. 이는 교육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가르치는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환동회는 교육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다. 환동회는 전달하는 내용에 앞서 환동회의 형식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적인 환동회를 오락을 위한 환동회와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때론 어렵다. 왜냐하면 심지어 아주 대표적으로 오락적인 환동회도 상당 부분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실,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환동사들은 그들의 환동회를 ‘교육적’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관람객들은 오락적인 요소와 함께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서구에서는 순회 환동사들은 극장과 공연장에서 환동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대학 등 유사 교육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순회공연을 하였다. 이들 순회 환동사들은 대중성을 가진 오락용 환동회를 중점으로 개최하였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때론 교육기관에서 조직적으로 계획된 커리큘럼 하에 정기 순회 환등회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환등회를 일반 오락 환등회와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환등회의 역사에 관하여 쓴 바버(X. T. Barber)는 교육적 도구로서 환등의 사용은 시각교육 매체(visual instruction materials)의 역사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⁵⁵⁾ 그는 박사학위논문에서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환등회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환등회는 오락을 위한 환등회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 맥락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적인 목적의 환등회는 서구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던 “마술적(magical)” 관점이 결핍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완전히 모든 환등회를 명확히 오락과 교육으로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환등회는 근대 교육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에서 환등의 사용은 스크린에 이미지를 투사하는 환등의 기본 원리로 시각교육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언어와 글만으로 가르치기 어려운 수업에서 환등은 효과적인 수업 매체였다. 특히 인류학, 세계 지리와 의학 수업에서 환등은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하였다. 제국주의와 함께 서구 밖 세계와 식민지를 기록한 사진은 환등회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였다.

환등이 본격적으로 학교의 수업에 사용되면서 환등은 전문적으로 학교용 시각교육이 되었다. 하버드 대학은 1765년 환등을 수업 도구로 구입하였으며 같은 시기 미국 대학들 역시 환등을 구입하였다.⁵⁶⁾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이후 환등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학교와 다른 교육적인 수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많은 교육자들이 수업에서 환등의 잠재적인 가치를 깨닫기 시작함에 따라 선생들은 학교와 다른 교육적인 수업에서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1869년 중요한 환등 딜러인 미첼 맥올리스터(W. Mitchell McAllister)는 주장하기를,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환등 슬라이드는 말로 하는 묘사보다 더 이해를 돕고,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였다. 1875년 당시 유명한 사진 잡지였던 *Anthony's Photographic*

55) X. T. Barber(1993). *Evenings of wonders: A history of the magic lantern show in america*. (volumes I and II).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56) I. Bernard Cohen(1950). *Some early tools for American science: an account of the early scientific instruments and mineralogical and biological collections i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 18.

*Bulletin*은 훌륭한 환등과 동반된 슬라이드는 모든 학교에서 필수품으로 간주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쓰고 있으며, 1881년 환등 판매 카탈로그 잡지인 *Exhibitor*는 환등은 상영되는 모든 그림들이 레디 메이드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칠판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마침내 1880년대와 1890년대 미국에서 환등은 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 그리고 미술관의 교육분과에서 정규 수업에 사용되었다. 일례로 미국 자연사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과 뉴욕공공교육부서(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가 공동으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이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슬라이드 세트, 강의교본, 프로젝션 장비를 제작하였다.

또한 입체사진 회사는 시각교육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에 따르면 1936년에 미국 학교 시스템의 3분의 2가 입체사진을 사용함에 따라 공립학교 학생들은 입체사진의 가장 큰 관객이 되었다.⁵⁷⁾ 더욱이 키스톤뷰사(1906)는 *Visual education; teachers' guide to keystone "600 Set"*(이하 "*600 Set*")로 알려진 교육용 환등 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키스톤사는 1902년에 공립학교 수업용으로 수천 장의 이미지를 팔기 시도했고, 또 다른 입체사진 회사인 언더우드앤언더우드사는 1895년에 이미 교육부서를 설치하여 교육용으로 입체사진의 판로를 확보하려 하였다.⁵⁸⁾ 키스톤과 언더우드 회사는 1906년, 1907년 각각 교사용 매뉴얼을 동반한 교육용 세트를 처음 출판하였다.⁵⁹⁾

미국 상업사진 회사인 키스톤뷰사는 1898년 교육 판매 부서를 구성하여 수업용 환등 슬라이드 매뉴얼을 만들었다. 키스톤뷰사가 중요한 이유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전 세계에 사진사를 파견하여 각국 사람들의 생활모습, 풍경을 입체사진으로 제작하였으며, 이 입체사진은 당시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오락매체가 되었다. 키스톤뷰사가 수업용으로 제작한 교육 환등세트는 입체사진을 환등 슬라이드로 복사하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키스톤뷰사가 세계를 사진으로 표상한

57) Cline M. Koon(1938). "School Use of Visual Aids, An Interpretive Study of the Data Collected in the National Survey of Visual Instruc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Interior, Office of Education), p. 6 .(Judith Babbitts(1987). *ibid.*에서 재인용, p. 7).

58) Judith Babbitts(1987). *ibid.*, p. 63.

59) *Ibid.*, p. 81.

방식 그대로 학생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모습을 교육받았다.

키스톤뷰사가 교육용으로 제작한 입체사진과 환등 슬라이드 “600 Set”에서 조선에 대한 이미지는 <도판 11>, <도판 12>로 지게에 옹기와 솥을 지고 있는 모습이다. 슬라이드 번호 542번과 543번은 각각 옹기를 지게에 지고 있는 남자의 옆모습과 솥을 등지게에 가득 지고 있는 남성의 사진이다. 설명서에서 이 두 사진을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기차 · 트럭 · 자동차 · 배달트럭 등 편만한 운송수단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여행과 물건운송 시 자신의 근육 힘에 의존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필리핀 섬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지닌다.”라고 적고 있다. 솥을 지고 있는 슬라이드 543번 설명글에는 “한국을 방문한다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이러한 남자들을 볼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⁶⁰⁾

일본에서 환등이 학교 교육용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중국 근대문학의 선구자인 루쉰(Lu Hsun, 魯迅, 1881-1936)의 일화를 통해 살펴보겠다. 루쉰은 의학을 공부하고자 1904년 일본 센다이(仙台)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본 일명 ‘환등사건’은 노신에게 있어 의학에서 문학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는 첫 작품집 『외침(吶喊)』 서문에서 정치적 혁명가로서 각성하면서 문학가이자 교육자로서 전향한 계기가 된 ‘환등사건’을 자세히 적었다. 이 글을 통해 당시 일본 의학대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등이 사용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사람의 신체 및 세포, 장기를 환등으로 가르치는 것은 당시에 아주 보편적인 의학수업 광경이었다.

<자료 2> 루쉰의 ‘환등사건’

미생물과 교수법이 지금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무렵엔 환등기를 이용해 미생물의 형상을 보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어떤 때는 한 시간 강의가 끝나고 시간이 아직 남았을 경우 선생은 풍경이나 시사에 관한 슬라이

60) Keystone View Company(1922). *Visual education; teachers' guide to keystone "600 Set"*. Meadville, Keystone View Company, p. 73. 이 가이드북의 초판은 1906년이며, 이후 1908년, 1911년, 1917년, 1920년, 1922년 개정판이 나왔다.; Keystone visual Instruction Series(1930). *Teacher's book Guide to Keystone New 600 Set*. Meadville, Penna.: Keystone View Company.

드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곤 했다. 때는 바야흐로 러일전쟁 당시였으니 전쟁에 관한 슬라이드가 많았음은 물론이다. 이 교실에서 나는 언제나 내 학우들의 박수와 환호에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번은, 화면상에서 오래전 헤어진 중국인 군상을 모처럼 상면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가운데 묶여 있고 무수한 사람들이 주변에 서 있었다. 하나같이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몽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해설에 의하면, 묶여 있는 사람은 러시아를 위해 군사기밀을 정탐한 자로, 일본군이 본보기 삼아 목을 칠 참이라고 했다. 구름같이 에워싸고 있는 자들은 이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구경꾼이었다.⁶¹⁾

출처: Lu, X., & 루선전집번역위원회(2010). 『루선전집. 2: 외침, 방황』. 서울: 그린비.

루선이 환등을 언급한 이유는 러일전쟁의 선전도구로 제작한 환등 중 참수당하는 중국인 스파이 모습을 ‘몽매하게’ 구경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어리석음을 개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학대학 수업에서 이를 보여주면서 동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박수와 환호성을 지르는 것에 중국인으로서 모멸감과 수치심, 그리고 중국의 국가적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루선의 고백에서 확인되는 것은 환등이 그만큼 보편적으로 수업에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환등은 제작 및 배급, 교수하기가 쉬웠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론 환등이 선전, 선동의 이미지로 아주 가치가 높았고, 그만큼 환등을 통해 획득한 교육내용은 사람들에게 충격 여파가 컸음을 뜻한다.

61) 이 번역본에서는 수업이 끝나고 보여준 것을 필름이라 번역하였으나 연구자는 환등 슬라이드로 수정하였다. 왜냐하면 환등기를 이용한 수업 이후 자투리 시간에 보여준 것이라면 영화가 아닌, 같은 환등기를 이용한 환등 슬라이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어 원본 역시 미생물 수업 이후에 본 이미지를 “畫片”이라 적고 있다. 그림 ‘화畫’자에 조각 ‘편片’자를 사용하여 그림으로 그린 조각이란 뜻으로 중국어로는 그림카드, 그림엽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환등 슬라이드를 일컫는다. 영화는 이어진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그림의 한 조각이라 묘사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지의 ‘해설’이라고 한 부분은 환등 슬라이드 설명문이다. 환등 슬라이드는 대체로 해설서인 강의교본이 함께 첨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일전쟁은 환등 슬라이드로 대량 제작되어 일본에서 전쟁의 선전도구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5. 근대 미국과 일본의 환등회

근대 한국 환등회에 대표적 두 주축은 미국의 선교사와 일제 식민정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기 미국과 일본의 환등회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등회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환등회는 본래 엔터테인먼트의 속성을 가장 크게 가지는 미디어였다. 태생적으로 오락적인 속성을 지닌 환등은 동시에 프로파간다의 주요 매체였다. 선전과 오락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움직인다. 이러한 환등회의 특징은 그대로 미국과 일본의 환등회의 특징으로 연결된다. 미국은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가 강한 반면,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승리를, 그리고 이후 태평양전쟁의 당위성을 알리는 프로파간다 미디어로서 환등회를 대대적으로 활용하였다. 오락과 선전이란 두드러진 특징을 지닌 미국과 일본의 환등회가 근대 한국에 유입된 환등회의 바탕이 되었다. 환등회를 받아들인 연대순으로 미국을 먼저 살펴본 후 일본의 환등회를 살펴보겠다.

1) 미국의 환등회

미국은 18세기 초 영국을 통해 환등회가 유입되었다. 미국에서 환등회는 오락으로서 영화가 출현하기 전까지 활발히 개최되었다. 영화 출현 이전 시기에 환등은 사람의 손으로 슬라이드를 작동시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등 자체를 본다는 것은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등 시각미디어가 부재하였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명 ‘마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18세기에는 기계기술의 발달로 영화 <휴고(Hugo)>에 등장하는 입력된 순서에 따라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자동인형이 인기였으며, 19세기에는 에드워드 머이브리지가 1897년에 고안한 주프락시스코프(zoopraxiscope)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각장치 장난감들이 등장했다. 주프락시스코프는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원형의 통에 달리는 동물 그림을 그려 넣고 통을 돌리면 이미지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동전을 넣고 작은 구멍으로 이미지를 보는 피쇼(peep

show), 그리고 입체사진이 대중적이었다.

그러나 이들 시각미디어는 혼자 즐기는 것이며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도 작았다. 이에 반해, 환등회는 커다란 스크린에 이미지가 투사되며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미디어였다. 움직임과 변사의 해설, 효과음 및 음악 연주로 구성된 환등회는 19세기의 가장 인기 있고 대중성이 강한 오락 미디어였다. 이동식 극장장치인 디오라마관과 파노라마관이 있었으나 이것은 배경 및 전시내용이 쉽게 변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환등회만큼 다양한 주제와 공연성이 뒷받침되지는 못하였다.

미국에서 환등회는 18세기 초반 순회공연자들(Touring exhibitors)의 환등회 공연을 필두로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환등기를 등에 메고 지방 곳곳을 누비는 순회공연자들이 초창기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미국 환등회의 전성기는 남북전쟁 이후인 1865년부터 무성영화(moving picture)⁶²⁾가 출현한 1896년까지 약 30년 동안이다.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환등은 무성영화가 뉴욕의 코스터앤바이얼 뮤직홀(Koster and Bial's Music Hall)에서 1896년 4월 23일 데뷔한 이후 영화에 그 전성기를 내어주었다. 영화가 등장하면서 환등회 열기는 곧바로 사그라졌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영화가 환등회의 경쟁자였다는 것이며, 이 경쟁에서 환등회는 무참히 참패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환등회는 영화 이전에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후 환등회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시각교육미디어로서 잔존하였다.

미국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구에서 환등회는 영화의 라이벌이었지만 근대 한국에서 환등회는 영화의 경쟁자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환등회의 도입은 초기부터 조선인들의 여가를 위한 오락 미디어로 수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3장과 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기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62) 20세기 초 'moving picture(무성영화)'가 한국에 수입될 때 '활동사진'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活動寫眞이라는 단어는 일본어 번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메이지, 다이쇼 시대의 일본에서는 '영화(映畫)'라는 명칭보다는 'moving picture'라는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 '활동사진(活動寫眞)'을 사용하였다. 본래는 활동사진은 환등기를 가리켰으나, 무성영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출처:

<https://ja.wikipedia.org/wiki/%E6%B4%BB%E5%8B%95%E5%86%99%E7%9C%9F> (방문 일자 2017.3.16.)

이 점은 바로 미국의 환등회와 한국의 환등회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 볼 수 있다. 유년 시절 환등회를 보면서 ‘즐거움을 가졌던’ 선교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의해 주최된 한국의 환등회에서는 어찌하여 오락의 목적은 사라진 것일까?

우선 미국의 환등회를 살펴보기에 앞서 미국 환등회에 관한 연구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환등회 관련 연구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역으로 미국 환등회의 속성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환등 슬라이드와 환등기를 비롯하여 환등과 관련한 여러 콜렉션과 환등보존 그리고 여러 정보를 나누기 위해 설립된 ‘미국과 캐나다 환등협회(Magic Lantern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가 있다.⁶³⁾ 이 협회는 격년으로 환등대회(convention)를 열어 환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환등의 역사를 보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계간으로 *The Magic Lantern Gazette*을 발간하여 과거의 환등에 대하여 꾸준히 발굴,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이 회보 성격의 계간지는 20쪽에서 30쪽 가량의 분량으로 전문적인 환등회 연구를 실기보다는 미국 전역의 환등에 관심을 가진 수집가와 비전문 연구자들의 글들을 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환등협회의 존재, 그리고 이 협회의 환등대회와 계간지 발행으로 미국에서 환등회의 역사가 꾸준히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뜨거웠던 환등회의 열기에 반하여서는 현재 환등회에 관한 체계적인 학문분야의 연구가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다.

그 중 바버(X. T. Barber, 1993)의 뉴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venings of Wonders: A History of the Magic Lantern Show in America*가 미국 환등회의 역사에 관하여 망라한 유일한 글이다.⁶⁴⁾ 이 박사학위 논문은 저자 개인의 열의로 미국 환등회 초기부터 쇠락기인 20세기 초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들을 다루고 있다. 논문 자체가 자료 목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은 이론적 분석의 틀을 가졌다가보다는 미국 환등회의 역사에 대한 백과사전식 자

63) 미국과 캐나다의 환등협회의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magiclanternsociety.org/>

그 외에 일본환등협회와 영국환등협회가 존재한다.

64) 바버(1993)는 공연적인(performance) 관점을 중심으로 환등회를 연구하였다. 그의 환등회 연구는 영화와 연극 사이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흥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에서 사용된 환등회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료 정리에 중점을 두었다. 이론적 해석은 약하나, 오히려 사료를 중심으로 한 이 논문을 통해 미국에서 얼마나 다채롭게 환등회가 열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테리 버튼(Terry Borton)은 미국에서 19세기 환등회가 그 무엇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등회가 미국의 근대 대중문화로 묘사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학계에서 무시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환등회를 지칭하는 너무 다양한 단어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버튼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미국에서 열린 환등회를 조사한 결과, 환등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총 41개에 이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⁶⁵⁾ 이처럼 환등회가 미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천문, 과학기술 등 전문적인 내용의 환등강연회에서 주최자가 “magic lantern show”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magic lantern”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환등회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아이들의 놀이나 오락적인 요소로 부각되는 경향 때문이다. 이는 환등이 아이들의 장난감이었고 사람들의 오락매체였음을 반증해 준다. <분류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각 이미지를 보여주는 강연은 모두 환등회를 뜻함을 알 수 있다.

<분류 1> 미국 환등회의 다양한 표현⁶⁶⁾

stereopticon show	illustrated lecture
stereopticon lecture	pictorial production
story of/in pictures	pictorially illustrated
pictorially told	picture drama
illustrated journey	illuminated views
illustrated	illustrated tours
best/new pictures	dissolving effects
lantern slides	dissolving views
beautiful lantern	50 views

65) Terry Borton(2015). “The Professional Life of “Magic Lantern” Illustrated Lecturers: With Introductions to Most Professionals Performing from the 1890s to the 1920s”. *The Magic Lantern Gazette*. Vol. 27. No. 1. (Spring 2015), p. 5.

66) Ibid.

colored views	with slides
with camera	with pictures
picture lecture	panoramic slides
fine illustrations	illustrated songs
projected views	travelogue
picture after picture	with photographs
(name), colorist	pictures from negatives
fine views	picture gallery
picture play stunning pictures	illus./illustr.
illuminated tours	colored slides
a lecturer who illustrates	platformist

이와 같이 여러 다양한 단어로 환등회가 불렸던 것은 당시 미국에서는 환등회가 그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드러낸다. ‘magic lantern’이 아닌 위의 <분류 1>의 명칭을 보면 그림, 사진, 일러스트, 칼라 슬라이드의 제목이 달린 환등회는 이미지 자체를 부각시켜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임을 광고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 이야기라는 제목은 소설 및 동화 등의 스토리텔링이 중심이 되는 환등회임을 알 수 있다. 트레블로그, 여행을 제목으로 한 환등회는 미국 안팎의 자연풍경과 타국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강연자(lecturer)를 달은 환등회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의 내용이 담길 것임을 짐작케 한다.

테리 버튼이 미국 환등회의 연구가 학문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유로서 찾아낸 41개의 환등회의 명칭은 단면적으로 미국에서 환등회가 시각적인 즐거움을 위해 열렸음을 드러낸다. 타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한 환등회 역시 사진을 중심으로 하면서 ‘낯선’ 나라의 자연과 사람들을 보는 즐거움의 연장선이었다. 특히 위의 환등회 제목 중 “dissolving effects”와 “dissolving views”가 있는데, 이 환등회는 전적으로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영어 단어 ‘dissolve’의 의미는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이 디졸브 효과는 환등 슬라이드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한 것으로 디졸브 이미지

는 magic lantern이라고 불리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하는 마술처럼 느껴지는 움직임뿐 아니라 오늘날 영화의 특수효과와 같은 ‘환영’을 만들어 낸다.

이런 특수효과는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한 환등 슬라이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미국은 환등기 및 슬라이드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하였으나 질이 더 좋은 영국산이 선호되었다. 영국은 왕립공과대학(Royal Polytechnic Institution)에 극장이 갖춰져 있었고, 여기서 광학을 기반으로 한 쇼들이 상영되었다. 환등 슬라이드 및 환등과 관련된 것들을 제작, 판매하는 왕립공과대학을 비롯하여 영국은 환등 관련 기계들이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디졸빙 슬라이드뿐 아니라 기상천외한 환등 슬라이드를 제작, 판매하였다. 일례로, 19세기 말경의 런던에서 살 수 있는 슬라이드의 종류를 보면 W. & F. Newton 사의 환등 카탈로그에 150,000개의 주제별 슬라이드가, E.G. Wood사의 카탈로그에는 200,000개의 주제가 있었다.⁶⁷⁾ 대부분의 슬라이드는 사진이었으나, 많은 대량 생산된 주제들은 다색 석판 그림과 무빙 슬라이드(moving slides)였다. 움직이는 슬라이드와 디졸빙 효과 슬라이드는 다른 슬라이드에 비해 가격이 비쌌으며 재미있는 슬라이드 자체가 환등회를 하나의 버라이어티쇼로 만들었다. <도판 13>의 ‘후프를 뛰어넘는 개’ 슬라이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유리를 좌우로 움직이면 광대의 머리 방향이 좌에서 우로, 강아지는 후프를 넘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이 바뀐다. 한 슬라이드에 유리를 덧대어 그 위에 다른 그림을 그려 넣어 유리를 좌우로 변경하면 움직이는 이미지가 연출되는 형식이다. 또 다른 유명한 움직이는 슬라이드는 환등회 마지막에 사용된 크로마트로프 슬라이드(chromatrope slide)로, 슬라이드 오른쪽 손잡이를 돌리면 각양각색의 기하학 모양의 회전판이 돌아간다. <도판 14> 이러한 재미있는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에서는 환등회 공연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미국의 오락환등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이 내용은 바버(1993)의 논문의 자료를 전적으로 바탕으로 함을 밝힌다. 바버(1993)는 연구에서 미국 환등의 전성기를 남북전쟁 이후의 약 30년간이라고 밝히면서, 환등회를 영화와 연극 사이의 상호관계성의 관심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서두에 쓰고 있다. 환등회를 무성영화의 전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환등회의 연극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67) L. Mannoni(2000). *ibid.*, p. 289.

수 있다. 미국에서 환등회는 여행, 과학, 종교, 사회개혁, 이야기 환등회로 크게 구분된다. 주제별로 나누었으나 미국의 환등회의 전제 조건은 우선적으로 공연적인 관점으로, 즉 엔터테인먼트였다.

1740년대부터 순회공연자들이 환등기를 메고 공연을 하러 다녔다. 당시 필라델피아는 퀘이커(Quaker) 지도자들이 연극 등의 공연을 금지시켰으나 환등은 배우가 없어, 종교적인 금지를 피할 수 있었다. 18세기에는 유령과 공포가 주가 되는 판타스마고리아로 불리는 유령쇼가 매우 인기가 많았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 판타스마고리아와 같은 환등회를 열 때 광고에 음악 연주의 내용도 공고하였다. 환등회의 주제와 내용만큼 어떤 음악이 연주되는 가도 인기의 주요 대목이었다. 이 점에서 보자면, 근대 한국의 환등회 신문 보도 및 광고에서는 환등회의 내용과 주제, 설교자는 적혀있지만 연주자 및 음악에 관한 공고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 환등회가 엔터테인먼트라는 점은 이런 음악 연주 역시 환등회의 주요 구성요소라는 점이다. 음악이 연주되려면 피아노 반주 혹은 악단이 함께 환등회의 일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환등회는 주제 자체가 기독교 복음, 보건 위생, 농산물 증산, 학교기부금 모집 등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음악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었다.

미국에서 1840년대가 지나면 판타스마고리아 쇼의 인기가 사그라지면서 대중은 과학적인 진보 등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등회에 관심을 보였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천문학, 지리학, 과학 전반 등에 관한 환등회의 강연자는 스스로를 '박사' 또는 '교수'라 자칭하기도 하였다. 이런 환등회가 주로 열리던 장소는 라이시엄(lyceum)으로 라이시엄은 대중공연홀 혹은 문화회관과 같은 곳으로 이곳에서의 환등회는 교육의 한 형식으로 개최되곤 하였다.

환등기의 렌즈가 거대해지고 광원이 세지면서 더욱 큰 이미지 쇼가 가능하게 된 것은 남북전쟁 이후의 일이다. 19세기 중반, 랭겐하임 형제(Langenheims)가 사진적인 방식으로 이미지를 쉽게 복사하는 방법을 발명함으로써 사진 슬라이드가 대량생산, 유통되기 시작했다. 사진으로 미국의 안팎의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것 외, 조각, 회화, 벽화 등의 유명한 예술작품이 슬라이드로 만들어져 환등회가 하나의 미술작품 박람회 또는 설명회의 형식을 갖기도 하였다. 이런 종류의 환등회를 통해 사람들은 직접 방문하여 예술작품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술

을 감상한다는 대리 만족감과 함께 예술에 대한 지적 충족감을 얻었다.

초기의 환등회는 순회공연자들에 의해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는 형태였다면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도시화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한 지역에서 관객을 유치하면서 환등회를 여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시기부터 환등공연은 더욱 미국적, 토착화 되었다. 이 시기에는 청중들의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슬라이드를 대여해주는 대여업도 성행하였다. 당시 환등회는 강연자에 따라 그 인기가 좌우되었다. 달변과 쇼맨십 그리고 여러 주제의 슬라이드에 관한 지식이 환등사에게 모두 요구되었다. 이미지의 새로움, 주제의 신선함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환등회에서는 더욱 더 환등사 자체의 명성이 환등회 인기를 좌우하였다. 유사한 내용이지만 환등사의 자질에 따른 오락적 효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등회 두 종류는 셔토회와 라이시엄이었다. 뉴욕주 서부의 셔토회(Chautauqua) 지역에서 연원한 ‘셔토회’란 이름의 여름주일학교 환등회와 더불어 ‘라이시엄’이라는 문화회관 환등회이다. 당시 주제로서는 여행 환등회가 가장 인기를 얻었다. 여행 환등회의 강연자는 여행 사진가이기도 하였다. 여행 사진가이자 강연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버튼 홈즈(Elias Burton Holmes, 1870-1958)를 들 수 있다. 홈즈 본인이 탐험, 여행한 곳의 사진을 환등회에서 상영하는 것은 생생한 경험담이 어우러진 그 자체로 다큐멘터리 쇼라 할 수 있었다. 버튼 홈즈는 1901년 경성을 방문, 고종황제에게 환등을 상영하였다. 이에 대한 기록이 그의 “Travelogue”에 쓰여 있다.

홈즈 이전에 여행사진가는 윌리엄 헨리 잭슨(William Henry Jackson, 1862-1942)이 있다. 그는 세계교통위원회(World's Transportation Commission)의 후원으로 세계여행 중, 1895년 전후로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사회상을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그의 한국 사진 슬라이드가 미국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근대 여행가들에게 환등회는 타국을 촬영한 사진과 그들의 여행담을 소개하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창구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 여행가들의 환등회는 한국을 서구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근대 계몽기 한국의 환등회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쳤던 사람들은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었다. 19세기 중후반 미국 내에서 또한 종교적인 주제로 환등회

가 일반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시각적인 상상과 대중적인 오락이 드물었던 당시에 환등회는 광학적인 오락의 한 형태로 많은 관객이 환등회에 매력을 느꼈다. 환등으로 영사될 때, 종교적인 이미지는 환등의 빛나는 광원으로 인해 더 극적이고 시각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한 성직자는 환등회가 종교적인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으며 특히 노동자 계층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종교 환등회를 옹호하였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성직자들은 교회 안에서 개최되는 환등회에 반대하였다. 이들에게 환등회는 오직 부수적인 시각적인 오락이자 아이들의 놀이로 보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성직자들이 환등회를 개최한 목적은 기독교 선교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환등의 오락적인 요소보다 환등의 교육적 속성에 집중하였다. 환등을 사용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당시 미국에서 환등회는 움직이는 이미지와 디졸빙 등의 특수 효과를 내면서 오락성을 담지한 미디어였다. 그렇지만 선교사들에게 환등의 오락성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환등의 여러 특성 중 계몽을 위한 시각교육 미디어로서의 요소만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주최한 환등회는 미국에서와 같이 움직이는 이미지, 디졸빙 등의 시각적 오락성은 제거된 채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계몽의 미디어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2) 일본의 환등회

미국에서 19세기 환등회가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으로 개최된 반면, 일본은 환등회를 제국주의의 선전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자국민에게 선전하면서 전쟁의 당위성을 확보해 나갔는데 이때 사용한 가장 대표적 미디어가 환등회였다.

일본의 환등의 역사는 18세기부터 시작된다. 일본이 개항한 후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한 환등은 우쓰시에(寫し繪)라는 이름으로 일본 전통 공연화되었다. 우쓰시에는 스크린 뒤에서 나무로 만든 랜턴을 여러 명의 공연자가 함께 상영, 공연

한다.<도판 15> 그림자 공연과 유사한 우쓰시에는 이미지, 나레이션, 음악이 혼합된 멀티미디어 공연으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 전설, 코믹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우쓰시에는 민중연극인 가부키(歌舞伎), 꼭두각시 인형극인 분라쿠(文樂), 만담 형식의 라쿠고(落語) 등과 함께 에도시대부터 20세기까지의 대표적인 일본 공연문화이다.⁶⁸⁾

19세기 전래된 환등은 우쓰시에와는 구분되어 사용된다. 환등회는 한 명의 변사가 스크린에 이미지를 상영하였으며 호칭도 ‘환등’으로 우쓰시에와는 다르게 불렸다. 19세기 일본 환등회의 특징은 환등회의 주체가 일본인이었다는 점이다. 근대 한국과 중국에서 초기 환등회의 주최자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인 선교사들이었다. 한국에서 환등기를 처음 들여온 사람도 선교사였다. 이에 반해, 일본은 1874년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일본인이 환등기를 직접 들여왔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⁹⁾ 이후 본격적으로 환등기를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활용한 사람은 동경공업학교장과 문부성 실업교육국장을 역임한 일본인 테지마 세이이치(手島精一, 1850-1918)였다.⁷⁰⁾ 근대 서구 문명 및 과학기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은 환등 역시 타자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받아들였고 환등의 장점을 빠르게 흡수, 활용하였다. 일본은 자국 내에서 활발하고 다양한 환등회를 열었다. 1930년대에 이미 일본 국제문화진흥회(현 국제교류기금)에서 전세계 교육기관에 일본을 소개하는 환등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⁷¹⁾

우선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의 환등회 연구는 2000년대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이 환등회라는 미디어의 이론적, 철학적, 미학적 관점에서 논하기보다는 대부분 환등회의 전개 양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중 이와모토 켄지(岩本 憲兒, 2002)의 『幻灯の世紀—映畫前夜の視覺文化史』는 일본의 환등회의 모든 양상을 다루고 있는 글로 자료모음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책을 통해 19세기에서 20세기 일본에서 환등회

68) <https://www.jpf.go.jp/e/project/culture/archive/information/1111/11-12.html>
(방문일자 2017.3.10.)

69) 岩本 憲兒(2002). 앞의 책, p. 125.

70) 테지마가 가져온 슬라이드는 천문 17장, 자연현상 12장, 인체해부 29장, 그리고 동물 21장으로 교육용이었다. 石井研堂(2004). 『明治事物起源』. 東京: クレス出版.

71) 일본 국제문화진흥회의 환등 컬렉션:

<http://digicoll.manoa.hawaii.edu/lanternslides/index.php?s=>

가 어떤 주제와 목적으로 그리고 누구에 의해 개최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책 역시 미국의 환등회의 역사를 다룬 글과 마찬가지로 환등회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아닌, 환등회의 양상을 자료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을 출발점으로 하여 일본의 환등회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⁷²⁾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일본은 환등회를 통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를 선전하며 태평양전쟁의 당위성을 확보해나갔다.⁷³⁾ 1984년에서 1895년의 청일전쟁은 일본에서 환등의 전성기로 중요한 시기였으며 1904년에서 1905년의 러일전쟁은 영화가 일본 내에서 급속히 인기를 끌었던 시기였다. 이 두 전쟁이 일어났던 일본의 명치 20-30년대(1887-1906)는 ‘제국일본’으로 기틀을 공고히 다지고 동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다. 이때 환등회는 두 전쟁의 실황보고를 전달하는 미디어로 사용되었다.⁷⁴⁾ 환등회는 전쟁의 승전보를 사람들에게 알려 전쟁을 옹호하고 이를 통해 전쟁의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선전의 미디어였다. <도판 16>은 러일전쟁의 해전에서 승리한 함장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1848-1934)의 환등 슬라이드이다.

신문, 잡지에서 전쟁의 소식을 듣는 것과 환등회를 통해 전쟁의 소식을 듣는 것은 달랐다. 인쇄매체로 접하는 전쟁은 개인 혼자서 전쟁에 관한 정보를 얻는

72) 古屋貴子(2006). 「明治初期の視覚教育メディアに関する考察—教育史における文部省発行教育用繪図の位地づけをめぐる—」. 『生涯學習・社會教育學研究』, 第31号; 青山貴子(2008). 「明治・大正期の映像メディアにおける娯樂と教育—寫し繪・幻灯活動寫眞」. 『生涯學習 社會教育學研究』, 第33号; 大久保遼(2009). 「明治期の幻灯會における知覺統御の技法—教育幻灯會と日清戰爭幻灯會の空間と客觀」. 『映像學』, 第83号; 佐藤知條(2012). 「幻灯利用における教育的な狀況に關する一檢討—動物を描いたスライドの分析から—」. 『湘北紀要』, 第33号; 上田學(2014). 「映畫以前の視覚文化の諸相—日清戰爭期の京都における幻灯と見せ物—」. 『立命館大學人文學會』.

73) 근대 일본이 환등회를 프로파간다 미디어로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의 연구로, 근대 독일의 환등회 연구가 있다. J. Short(2012)의 *Magic lantern empire: Colonialism and society in Germany*는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독일 식민정부가 자국 내에서 환등회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식민주의를 지원하면서 선전, 선동하는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독일의 식민지는 아프리카의 카메룬과 서남아프리카(현재 나미비아) 지역으로, 이들 식민지에 대한 환등회를 독일인에게 보여주었다. 이 환등회의 주최는 독일식민협회(German Colonial Society)와 해군협회(Navy League)였으며, 이외 개인 자격의 순회환등사들이 있었다. 환등회의 주최가 명확한 것처럼, 이 환등회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식민지 기업을 지원하고 식민지로 독일 노동자들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선전에 있었다. J. Short(2012). *Magic lantern empire: Colonialism and society in Germany*. Ithaca;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74) 岩本 憲兒(2002). 앞의 책, pp. 165-171.

것이었던 반면, 환등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공동의 체험을 하면서 서로 연대감이 강화되었다. 기본적으로 전쟁과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선전하는 미디어로서 환등회는 오락성을 담지하면서 이를 대중들에게 교육시키는 데 가장 적절한 미디어였다. 환등회에서는 음악이 사용되었고 변사는 분위기를 띄우며 전쟁의 승리를 찬양하고 전쟁을 옹호하는 프로파간다 미디어로 작동하였다. 어떠한 방식으로 일제는 환등회를 선전의 미디어로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보자.

청일전쟁 환등회의 변사는 약 100장에 달하는 환등 슬라이드를 약 5-6시간 동안 상영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환등회는 학교에서 빈번히 개최되었다. 청일전쟁 시기의 교육통계 중 ‘전시강화 및 환등회 개설 조사(戰時講話及幻燈會開設調)’라는 항목에 따르면, 에히메현(愛媛縣) 내 심상소학교, 심상고등소학교, 고등소학교에서 1894년에 1,250회, 1895년에 1,046회에 달하는 ‘전시강화 및 환등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청일전쟁 환등회는 단순한 오락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군사교육’의 명목으로 진행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인식되었다.⁷⁵⁾ 에히메현의 학교에서 청일전쟁 기간에 약 2,300회에 달하는 환등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은 환등회가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 전쟁을 선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환등회에서 학생들은 악기로 청나라 정벌의 군가를 연주하여 국가 만세, 육해군 만세를 외쳤다. 전쟁을 선전하는 환등회에서 음악과 합창이라는 청각적인 자극뿐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등 신체를 사용하여 집단적인 감정이 고양되게 하였다. 전쟁을 선전하는 환등회는 관객들이 조용히 영상만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를 외치고 박수를 치는 등 신체를 움직이게 하여 환등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다. 상영되는 환등에 대한 변사의 열정적이며 때로는 감정적인 열변이 빚어내는 이야기와 음악, 합창 등이 어우러진 환등회는 축제에 참여한 것과 같은 집단적인 일체감을 가져왔다.⁷⁶⁾

이와 같이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공연장 등 다양한 곳에서 제국주의를 선전하는 데 있어 환등회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경험은 강점 이후 조선에서 식민화 정책을 선전하는 데 환등회를 그 어떤 미디어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바탕이 되었다.

75) 大久保遼(2009). 「明治期の幻灯會における知覺統御の技法—教育幻灯會と日清戰爭幻灯會の空間と客觀」. 『映像學會』, 第83号, p. 14.

76) 앞의 논문, pp. 16-18.

Ⅲ. 근대 계몽기: 세계를 보여주는 다른 창

근대 한국의 환등회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 전후로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전개 양상이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1876년 개항부터 1910년 강제병합 이전 시기 환등회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 환등회의 특성은 주최자가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독교 선교가 환등회의 일차 목적이었다. 그러나 환등회의 주요 내용은 서구 근대 문물과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개항 초기 국내에서 기독교 선교활동 자체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았고 기독교 문화에 낯설고 반감이 있었기에 선교사들은 환등회를 통해 서구의 근대화된 모습과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포교를 하였다.

이는 근대 계몽기 열강의 각축장이 되며 기울어져가는 조선의 형세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서구 근대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국강병의 길이라 여긴 지점과 맞아떨어졌다. 조선은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른 개항으로 인해 일본을 비롯한 서구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개항(開港)’이란 한자 그대로 닫혀 있던 항구를 연다는 뜻으로 개항으로 인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조선인들은 개항과 더불어 조선 밖 세계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가 커져갔다. 이때 서구의 풍경 및 문물을 보여준 환등회는 당시의 조선인들의 세상에 대한 갈망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 주었다.

근대 계몽기 시각미디어인 환등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지식의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동시에 조선인들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창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환등회를 통해 ‘이미지로 보여준다’는 의미는 선교사의 시선으로 ‘재현’된 것으로 재현된 이미지는 언제나 선택과 배제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선교사들의 환등회는 조선인들에게 ‘선교사의 눈’을 통해 세계를 보여주는 창이었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절에서는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한 “耶蘇행적” 환등회를 먼저 다룬다. 야소는 그리스도의 한문 표기로 당시 기독교를 야소교라 표기하였다. ‘야소행적’ 환등회는 제목 그대로 선교사들이 주최가 된 환

등회이다. 이 절에서는 한국을 미국에 소개한 <Korea> 환등회, 한국 최초의 환등회와 조선인의 반응, 그리고 환등회에서의 언어의 역할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제 2절에서는 근대문물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新문물” 환등회에 관해 다룰 것이다. 근대문물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물’ 환등회는 황성기독교청년회(이후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이하 서울YMCA) 회관을 주축으로 상영되었다. 1903년 한국에서 창단한 서울YMCA의 환등회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근대문물 환등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구 근대화의 우월성을 교수하였는지 그리고 당시 한국에서 기독교 선교가 가지는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조선인들이 이 주제의 환등회에 열광하였던 이유를 함께 고찰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야소행적” 환등회라는 기독교 선교를 주제로 한 환등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기독교 선교 - “耶蘇행적” 환등회

선교사들은 선교를 위해 어떤 이미지를 조선인들에게 보여주었을까? 그리고 이 환등회를 관람한 조선인들은 누구였으며, 이들은 환등회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근대 한국에서 환등회를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바로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었다.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미국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중에서도 감리교와 장로교에서 가장 많이 파견하였다.⁷⁷⁾ 이들은 미국의 복음주의 영향 아래 파견되었으며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중심으로 한 선교본부의 정책으로 초기 파견된 선교사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미국의 중산층 문화가

77) 1884년부터 1910년 사이에 조선에서 활동한 개신교 선교사들은 모두 합쳐 약 499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 중에서 미국 북장로회와 북감리회 선교사는 각각 165명(33.1%)과 114명(22.9%)이며 남장로회와 남감리회 선교사는 각각 62명(12.4%)과 46명(9.2%)으로, 이들을 모두 합치면 전체의 77.6%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초기 개신교 선교사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은 미국 남·북 장로회와 남·북 감리회 소속의 선교사들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류대영(2001).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연구소, p. 112.

몸에 배인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미국 환등의 전성기를 몸소 겪으며 살았다. 미국은 문학 작품의 이야기, 세계 각지의 여행 등 오락 환등회와 종교, 과학, 사회개혁 등의 계몽 및 교육 목적의 환등회가 오늘날 영화가 담당하던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여가생활에 깊숙하고 광범위하게 파고들어가 있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환등회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로 환등회를 통한 교육의 강점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활동에 효과적인 미디어로서 환등회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근대 한국의 환등회 연구에 있어 미국 선교사들이 중요한 또 하나의 특성은 북미 선교본부가 사진을 선교 교육의 중심으로 사용하였다는 지점이다.⁷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환등회의 이미지는 사진이었다. 환등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사진이었기 때문에 동일 시기 사진의 역사 및 사진의 역할을 아는 것은 환등회 연구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진은 선교활동의 기록이자 증거로서 사진의 수집과 촬영은 공적인 영역으로 선교사들은 선교지 파견 전에 사진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사적으로 선교사들은 개인 사진 앨범을 가지고 있는 등 사진을 적극적으로 촬영, 수집하였다. 선교사들이 촬영하고 수집한 많은 사진 중, 환등 슬라이드로 만들어진 사진은 환등회라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다. 환등회로 상영된 사진은 선교사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환등회의 장점을 그 누구보다도 숙지하고 있었으며 환등회의 내용을 이루는 사진을 생산, 수집하였던 선교사들은 근대 계몽기 한국의 환등회 연구에서 있어 중요하다. 특히 선교교단의 아카이브에 선교사들의 한국 관련 환등 슬라이드와 환등교본이 자료로 남아있어 본 연구가 가능할 수 있었다.

이 절은 세 개의 연구 주제로 구성되었다. 우선적으로, 미국 연합감리교단의 <Korea> 환등교본을 분석할 것이다. 이 환등교본은 당시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대한 시선이 어떠하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미국 선교사들은 환등회를 통하여 한국에 근대문물을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이중의 역할을 하였다. 미국 내에서 한국에 관한 환등회를 개최,

78) Jr. Morris L. Davis(2010). *ibid.*, p. 33.

한국의 정치 상황은 물론 사회·문화·종교·자연 환경 등 한국의 근대화 수준을 알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조선의 이미지가 환등회를 통해 서구에서 표상되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선교활동의 시각교육 미디어로서의 환등회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한국 최초의 환등회는 1880년대 말 이화학당을 설립한 미국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 개최되었다. 당시 처음으로 환등회를 접한 조선인들은 환등회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환등회에 있어 언어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보겠다. 시각이 언어보다 보편적이고 쉽고 빠르게 수용되는 장점이 있으나 이미지가 가지는 의미는 언어에 의해 고정되고 개념화된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외국인이라는 점과 환등회는 교수자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환등회에서의 언어의 역할은 환등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중요할 수밖에 없다.

1) 감리교의 <Korea> 환등교본

미국 연합감리교가 20세기 초 한국을 미국 내에서 소개하기 위해 제작하였던 <Korea> 환등회의 교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환등회는 이미지와 함께 이미지를 설명하는 강의 텍스트가 동반된다. 현재 미국 연합감리교, 장로교역사협회, YMCA 아카이브는 모두 한국과 관련된 환등 슬라이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Korea>라는 제목의 한국에 관한 환등회 교본을 온전히 소장하고 있는 곳은 연합감리교 아카이브 센터(The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at Drew University, Madison, NJ, 이하 GCAH)가 유일하다.⁷⁹⁾ 연합감리교 아카이브가 소장한 <Korea> 환등교본이 중요한 이유는 환등회에서 사용한 사진과 이 사진에 설명이 적혀 있어 사진이 어떤 맥락에서 재현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⁸⁰⁾ 따라서 <Korea> 환등회의 목적과 개신교가 한

79) 한국을 환등회에서 다룬 예로, 연합 감리교 아카이브의 <Christ at Work in Asia>라는 제목의 환등교본이 있다. 이 교본에는 한국 관련 사진이 3장 포함되어 있다. <Korea>에서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지로서 한국을 다루었다면, <Christ at Work in Asia>에서 재현된 한국은 병들고 낙후된 결핍상태의 모습으로 표상되었다.

국을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게 한다. 이 <Korea> 환등교본이 한국 환등회 연구에서 가지는 의의는 첫째, 한국에 대한 선교사들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환등회를 열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 미국인 선교사들의 시선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에서 주최한 환등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들이 세상을 본 방식에 따라 한국에서 개최하였던 환등회의 내용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당시 국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환등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둘째, <Korea> 환등교본은 YMCA가 제작한 <China>, <Japan>의 환등교본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환등회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고 동시에 선교사들의 동아시아의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을 알 수 있게 한다. 셋째, 조선을 촬영한 이 사진들은 당시 조선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역사자료로서도 중요하다. 넷째, 이 교본에 실린 사진들은 당시 미국에서 조선을 묘사하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져 이 사진들이 다른 저서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⁸¹⁾ 이상과 같이 <Korea> 환등교본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이 환등교본의 의의는 현존하는 한국의 환등회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환등회에 관한 실체의 일면을 알려준다는 지점이다.

감리교는 “환등부서(Stereopticon Department, The World Service Methodist Episcopal Church)”를 설치하여 환등 슬라이드를 제작, 미국 내외 기독교 선교에 있어 환등회를 중요한 교육수단으로 삼았다. <도판 17>에서 알 수 있듯이 선교본부는 유리인 환등 슬라이드를 단단한 가죽 박스에 포장하여 전 세계 선교지로 배급하였다. 근대 계몽기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개최한 환등회에서 사용한 슬라이드 또한 선교본부에서 제작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한국에서 열린 환등회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선교본부에서 제작한 <Korea> 환등교본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Korea> 환등교본의 제작 연도와 제

80) 연합감리교 아카이브가 소장한 <Korea> 환등교본은 흑백사진과 사진을 설명하는 짧은 글로 이루어졌다. 이 환등교본의 흑백사진을 손으로 채색한 슬라이드는 *The Reverend Corwin & Nellie Taylor Collection*, Korean Digital Archive i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볼 수 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digitallibrary.usc.edu/cdm/landingpage/collection/p15799coll48>

81) "Chosen-Land of Morning Calm"에서 조선을 소개하는 사진으로 <Korea> 환등교본의 사진이 사용되고 있다. Mabel Craft Deering. "Chosen-Land of Morning Calm".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Oct., 1933), p. 447.

작 배경을 살펴보자.

이 환등교본은 감리교 선교앨범 콜렉션인 “*Mission Photograph Albums*” 중, 한국 사진앨범 《Korea #1》, 《Korea #2》에 수록된 사진을 사용하였다. *Mission Photograph Albums*은 감리교가 세계 각 선교지에 관한 거대한 사진 아카이브이다. 전체 사진앨범은 총 257개, 250,000장이 넘는 사진이 들어있다. 대부분 사진들의 제작연도는 1890년에서 1930년대 사이이다. 이 중 <Korea> 환등교본에서 사용한 《Korea #1》, 《Korea #2》의 사진은 1890년대에서 1920년대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Mission Photograph Albums*은 다른 교단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보적인 사진, 영상아카이브 생성작업이었다. 이 사진 아카이브의 목적은 1919년 미국감리교백주년 박람회(Centenary Celebration of American Methodist Mission, 1919년 6월 20일-7월 13일)를 위한 것으로 감리교단은 전 세계 선교지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 수집하였다.⁸²⁾ 이 박람회의 목적은 선교기금 모금과 전세계 선교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일명 감리교 세계박람회(Methodist World's Fair)로 불릴 만큼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37개 선교국의 기독교 개종자 500명 이상이 박람회에 참여하였고, 각 나라별 의복, 종교 도상, 마을 문화를 보여주는 물품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박람회 조직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군대의 성공적인 작동과 해외 지역의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진보를 연결하기 위한 모션 픽처와 환등 슬라이드의 형식으로 시네마를 사용하였다.⁸³⁾ 시각 미디어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박람회 기획자들은 10층 규모에 달하는 32m 높이의 스크린을 설치하여 환등회와 활동사진을 상영하였다.<도판 18> 이를 위해 조직위는 각 선교지의 토착민, 풍습, 종교관습을 기록해 오기 위해 손에 카메라를

82) 오하이오 주(Ohio state)에서 약 3주간 열린 감리교백주년 박람회 방문자는 백만 명이 넘었다. 주최자는 수만 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관람차를 타고 10층 규모의 스크린에 무성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오락을 제공하였고, 또한 점심을 교회가 후원하였다. 이 박람회는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박람회를 통해 남북 감리교는 세계를 문명화시키고 기독교화하는 수단으로서 미국과 해외 선교 파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박람회는 미국 개신교들을 교육시키는 장으로 기능했으며, 특히 세계를 기독교화하겠다는 작업에 바쁜 선교사들과 지구적 선교 조직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Christopher Anderson(2006). *The world is our parish: Displaying home and foreign missions at the 1919 Methodist World's Fair*. Ph.D.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83) Ibid., p. 8.

들려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⁸⁴⁾ 선교사들은 사용 가능한 최고의 카메라를 소유해야 했고 그의 성경만큼 많이 카메라를 사용해야 했다.⁸⁵⁾

<Korea> 환등교본은 미국감리교백주년 박람회의 환등회에서 선교지 한국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우선적으로 이 환등교본에 사용된 사진이 감리교백주년 박람회를 위해 제작된 사진 앨범에 속한 점이며, 다른 하나는 당시 기독교 민족운동가였던 신흥우(1883-1959)가 이 박람회에 참석하였다는 점이다.⁸⁶⁾ <Korea> 환등교본에는 신흥우를 ‘배재학교 교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신흥우는 1920년 1월 배재학교 교장직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기에 이를 통해 <Korea> 환등교본의 제작 시기를 1919년 미국감리교백주년 박람회 기간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Korea> 환등교본 분석을 통해 선교사들의 세계관 및 한국을 바라본 시각을 파악해 보겠다. <Korea> 환등교본은 70개의 주제로 각 주제마다 한 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강의 설명서이다. <Korea> 환등교본에 사용된 사진은 “*Mission Photo Album*” 시리즈 중 《Korea #1》, 《Korea #2》 앨범에 수록된 사진들로 스크립트에는 다섯자리로 된 네가티브 숫자가 적혀 있어 사진의 출처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게 하였다.⁸⁷⁾

앨범 《Korea #3》에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의 사진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선교사들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환등교본은 사진 아래 설명이 명시되어 있어 이 사진을 어떤 맥락 하에 상영하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더욱이 수천 장의 한국 사진 중, 70장을 선별하여 보여주었다는 것은 설명자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

84) Christopher Anderson(July 2005). “The World’s Fair of 1919: Ethnographic and Technological Exhibits on Display at the Centenary Celebration of American Methodist Missions”. *Methodist History*, 43:4, p. 284.

85) Jr. Morris L. Davis(2010). *ibid.*, p. 34.

86) 신흥우는 박람회 참여 후 약 1년 정도를 미국에 체류하며 1920년, *The Rebirth of Korea: The reawakening of the people, its causes, and the outlook*. London Central Board of Missions and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이란 제목의 책을 저술하였다.

87) <Korea> 환등교본에서 4장의 사진을 제외한 모든 사진은 《Korea #1》, 《Korea #2》 앨범에서 발췌한 것이다. 3장의 사진은 앨범의 출처를 알 수 없고, 1장은 《Korea #4》의 사진이다.

다. 이는 동시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한 시선 및 20세기 초 세상을 보는 관점을 뚜렷이 드러낸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환등교본을 범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Korea> 환등교본 분류

선교 활동	간접 선교 활동 (총 13개)	교육 관련 사업(8) 의료 관련 사업(4), 병원 건물(1)
	직접 선교 활동 (총 21개)	선교사 순례(itinerating)(3) 선교사 모습(2) 기독교 집회(7) 한국인 개종자(7) 교회 건물(1) 닥터 가우처 초상(1)
한국 소개	한국 소개 (총 25개)	한국의 종교 관련(5) 운송수단-지게, 소(6) 자연경관(2), 거리모습(1) 역사·문화재(3) 빨래(2) 농업(3), 노동(1) 오락(2)
	일본과의 관계 (총 6개)	운송수단-기차, 자동차(3) 일본 학교·일본 어린이(3)
	기타 (총 5개)	간판(1), 옛장수 소년(1), 달걀 꾸러미(1) 한국지도(1), ‘朝鮮/潮仙’의미(1)

()의 숫자: 환등교본의 사진의 갯수

<Korea> 환등교본 첫 항목은 동아시아에 학교를 설립하고 여성 교육을 중점으로 선교활동을 하였던 가우처(John F. Goucher, 1845-1922) 박사 소개로 시작한다. 가우처 박사가 선교사들의 정착 비용으로 서울에서 부동산 구입비로 5,000달러를 기부하였다고 구체적인 금액을 적고 있다. 초기 선교기금 5,000달러는 1919년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250,000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그 다음 사진은 선교지를 중심으로 한 한국 지도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한 후 한국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재, 경제활동, 생활, 운송수단을 차례로 소개한다. 70개의 주제 중 한국의 모습을 절반가량 할애하여 소개하였다면 환등교

본의 나머지 절반은 기독교 선교 활동을 소개하였다. 한국은 라틴아메리카, 필리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기독교 선교가 성공한 지역으로,⁸⁸⁾ 이 환등교본은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를 중심으로 교육, 의료, 그리고 한국인 기독교 개종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판 19>의 ‘삼독’이란 여인은 기독교 개종자이다.

<Korea> 환등교본의 가장 큰 기준은 한국에서의 기독교 선교 활동이다. 한국을 선교가 필요한 ‘미개하고 가난한’ 지역으로 묘사하지 않고 기독교 선교가 성공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문화 및 관습을 소개할 때에는 ‘유대인 족장의 시대(in the days of the Jewish patriarchs)’, ‘원시적인(primitive)’, ‘미신으로 가득 찬(full of superstitions)’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반대로 철도와 자동차는 대표적인 근대 문물로 일본의 진보적인 기술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특히 철도는 선교지를 확장하고 방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예를 들어 ‘약산은 철로로부터 21마일 떨어진 곳’이라고 선교지 위치는 철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환등교본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을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두 나라가 융합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중·일이 얼마나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는지를 사진으로 시각화하였다. 연출된 사진인 <Clinic in Union Medical School, Seoul><도판 20>은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정치적인 긴장감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기독교 선교활동이 한국에서 동아시아 3국의 조화로운

88) 반면, 인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은 한정된 수의 기독교 개종자를 가진다. Steven Kaplan(ed.).(1995). *Indigenous responses to western Christian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 1.; 민두기(2001). 『시간과의 경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pp. 88-89. 동아시아 세 나라는 기독교인수에서 심한 대비를 보인다. 한국은 1884년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이후 26년만인 1910년에 벌써 226,000여 명의 신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1859년 이래 21년만인 1880년에 신교도 총수가 3000명을 넘어서지 못하였고 중국에서는 제 1차 중영전쟁 이래 30여 년이 지나도(1876년) 신도수는 13,000여 명 뿐이었다. 20세기에 들어와 1910년대를 잡아 신도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10년에 226,000여 명인 데 비해, 중국은 1910년에 겨우 207,000여 명이며, 일본은 1916년에 107,000 여명에 불과하였다. 한국의 기독교 신도수는 이미 1910년에, 중국은 1949년까지,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도달하지 못한 전인구의 1%선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융합을 가져왔다고 선전한다.

<Korea> 환등교본을 보면,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기독교 선교에 있어 일본의 정책이 이로운지 아닌지에 따라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한국 내에서만 고립되어 활동하지 않았다. 이들의 본부는 미국에 있어 선교 본부의 아시아에 관한 정책 하에 놓여졌으며 동아시아 3국의 선교사들은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하였다. 선교사들의 일본에 대한 입장은 일본이 조선에서의 선교활동에 도움을 주는 장점에 집중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철도 건설이다. 이는 선교사들이 조선 내지의 순회활동 및 선교지 확장에 안전하고 빠른 이동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점이기에, 철도 및 일본의 근대식 발전된 이기가 선교사들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철도를 개통한 일제 식민정권의 정책을 긍정하고 찬성하는 논조를 띄었다. 선교사들은 처참한 조선의 식민지 상황, 긴밀한 정치적 상황은 배제시키고 있다. 선교사들의 시선에서 핵심은 “기독교회=근대화”이다. 그래서 <Korea> 환등교본의 일본 및 한국에 대한 선교사들의 관점은 기독교 선교를 중심으로 일본의 활동을 ‘근대적’, ‘진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독교 개종자 및 기독교 선교 자체가 ‘근대화’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선교사들의 시선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시기 미국 전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입체사진의 한국 표상방식과 <Korea> 환등교본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미국 내에서 입체사진의 인기는 근대의 산물인 사진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한 오락성과 제국주의 팽창이 빚어낸 타국에 대한 호기심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생겨났다. 삼차원 입체로 보이는 외국 풍경을 거실에 앉아 손쉽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입체사진의 장점이었다.⁸⁹⁾ 입체사진은 20세기의 전환기를 특징짓는 “소비문화”가 미국 전역으로 퍼진 첫 번째 예로 대중적으로 생산된 시각상품이었다.⁹⁰⁾

입체사진이 선교사들의 사진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지점은 무엇보다 철도, 자동차가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한국의 종교를 두드러지게 재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주를 이루는 사진은 거리 모습, 가옥, 농경,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이 사진들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2003)의 오

89) Judith Babbitts(1987). *ibid.*

90) *Ibid.*, p. 9

리엔탈리즘의 시선을 그대로 드러낸다.⁹¹⁾ 입체사진에서 조선은 전근대적인 모습으로 시각화되고 서구인의 환경과 삶의 모습 간 차이가 강조된다. 더 이국적이고 낯설게 보이는 이미지가 중심을 차지한다. 조선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지게 사진임을 보면 이들의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

이 지점이 바로 선교사들의 시선과 입체사진이 구분되는 곳이다. 한국을 찍은 입체사진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서구와의 자연환경 및 삶의 모습의 ‘다름’에 초점이 맞춰지고, 여기에는 ‘근대’ 또는 ‘진보적인’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반해, 선교사의 환등교본은 기독교와 근대화를 동일시하면서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설정한다. “기독교=근대화”란 등식 아래에 선교사들은 철도, 기차, 서구식 학교, 병원과 같은 근대적 이미지를 강조하며 이는 곧 기독교 선교가 가져다주는 이점이라 선전한다.

여기서 입체사진의 시선과 선교사의 시선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발생한다. 입체사진이 타국의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은 타국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지 혹은 다른 지이다.⁹²⁾ 각 나라별 발전의 차이는 기독교와 근대 문물의 수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지리적 다름에서 연유한 환경의 차이이고, 이 환경조건의 다름이 인종의 문화, 관습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본다.⁹³⁾

한편, 선교사의 환등회와 입체사진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 둘은 관객에게 오락과 정보라는 두 개의 지점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교육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그리고 환등회와 입체사진이 모두 이미지의 무한 재생이 가능한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의 재생산 능력을 통해 미국이 지닌 국가적인 시선을 미국 전역과 전세계에 퍼뜨릴 수 있었다. 이 미국의 국가적 시선이란 다름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식 ‘진보’ 사상이었다.

91) Edward W. Said(2003). *Orientalism*. London: Penguin.

92) Judith Babbitts(1987). *ibid.*, p. 84.

93) 입체사진이 묘사하는 문화는 “통계적(static), 시각적(visible), 단순화(simplistic)”이다. *Ibid.*, p. 108.

2) 선교활동과 환등회

한국 최초의 환등회는 19세기 말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9세기 말이면 환등회는 미국에서는 절정기를 지나 영화가 이를 대체하고 있던 시기였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환등의 세기’를 살았던 이들로서 환등회의 이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환등회를 자신들의 선교 수단으로 활용,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미국 연합감리교가 20세기 초 제작한 <Korea> 환등교본을 통해 선교사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은 기독교 복음과 서구의 근대화를 우선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선교사들은 어떠한 이미지와 내용의 환등회를 열었을까? 더불어 기독교 선교라는 목적의 선교사들이 개최한 환등회를 본 조선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 조선인들은 선교사들이 의도한 바와 같은 맥락으로 환등회를 수용하였을까? 초기 환등회에 있어 개최자인 선교사들과 관람자이자 교육의 대상이었던 조선인들의 반응의 간극을 함께 살펴보겠다.

사진과 마찬가지로 환등 또한 서구의 문물로서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제작, 생산되는 것이 아니었다. 초기 사진이 국내에 정착하려 할 때 서구와 일본의 문물이라는 인식으로 강한 저항감을 받았던 점과 비교해 보면,⁹⁴⁾ 환등회는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 강한 호기심과 함께 열렬한 지지를 받았음이 눈에 띈다. 이 두 매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의 온도차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환등회와 사진 모두 사진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카메라에 대한 반응은 반감이 크게 일었던 반면 환등회에 대한 반응은 환호였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어두운 공간에서 빛을 통해 흰 스크린에 투사되는 환등은 변사와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당시 조선인들로서는 난생 처음 접하는 스펙터클한 장관을 연출하였을 것이다. 음악이 생략되었더라도 스크린에 비춰진 이미지 자체가 호기심을 끌

94) 갑신정변 당시 사진관은 서구와 일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물로 인식되어 조선인들은 돌을 던지는 등 사진관을 습격·파괴하였다. 이에 1880년대 사진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진을 찍는 행위를 통해 (사진기의 렌즈가 눈처럼 생겨서) 아이를 유괴하거나 사람의 눈을 빼어간다고 해 서양인들이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다. 최인진(2000). 『한국사진사: 1961-1945』. 눈빛, pp. 119-135.

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사진 슬라이드는 실사 이미지로 조선 밖의 세상 및 서구 문물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음에 틀림없다. 초창기 환동회에서 상영된 사진은 인화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기도 하였다. 실물이 영사되는 “마법”같이 여겨졌다. 환동회의 스펙터클이 초기 환동회가 반감 없이 쉽게 수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 최초의 환동회 기록을 통해 환동회의 내용과 조선인들의 반응을 보자.

가. 스크랜턴과 한국 최초의 환동회

현존하는 문헌 자료 중 환동회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이화학당 설립과 관련된다. 이화학당의 설립자인 매리 스크랜턴(Mary F. Scranton, 1832-1909)이 환동회를 통하여 조선 관료들에게 호의를 얻어 ‘이화학당’ 교명을 하사받은 일화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한국이름 施蘭敦, 1856-1922)이 1887년 4월 17일 미국에 있는 레이드(J. M. Reid, 1820-1896) 목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자료 3> 윌리엄 스크랜턴의 편지

“……겨울이 끝날 무렵 외서(外署)의 관리인 어머니의 통역관은 어머니에게 외서 독판(督辦)과 그 관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야 한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또한 외서 독판과 그 밖의 사람들이 그녀의 집을 둘러보고 스크랜턴 부인의 일하는 목적을 좀 더 확실히 알기를 희망하였으므로 끝내는 그렇게 동의하였습니다. 초대장을 띄웠는데 통역관의 중개에 의해 그들의 초청이 어느 날 밤으로 정해졌으며 접대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독판과 그 밑의 관료 4명 가운데 3명이 왔습니다. …… 부인의 일을 돕기 위해 미국의 한 선교 지부에서 친절히 보내준 환동기로 미국과 유럽과 성경의 여러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사진들을 보고자 하였으며 몇 번씩 보고도 관심이 시들 줄 몰랐습니다. 이날 밤 문제의 손님들은 매우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고 저녁을 마친 후 그들은 여학생들을

불러 질문을 해보고는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독판과 관료들은 그들을 보고 참여한 것에 대해 대단히 만족해하였으며, 친절한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독판께서는 그녀의 사업에 만족해했으며, 그녀가 해 온 일에 대해 감사하며 아울러 며칠 내에 편견에 찬 이야기(서양인이 한국 아이들을 살찌게 한 다음 장차 그들의 피를 빨아 먹는다는 내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국왕에게 건의하면서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 후 종종 들었습니다. 몇 주일 후 국왕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름 하나를 학교를 위해 고르셨습니다. 국왕은 우리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다소 화려한 이화학당(梨花學堂)이란 이름을 외서에 명하여 한자를 쓰게 하고 이것을 보내왔습니다.” (밑줄은 필자)

출처: 이화백년사 편찬위원회(1994). 『이화백년사 1886-1986』. 이화여자고등학교, p. 63.

이 서한의 내용을 보면 ‘스크랜턴 부인의 일을 돕기 위해 미국의 선교지부에서 보내온’ 환등은 이화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사받는데 크게 일조했음을 알 수 있다. 환등회로 관리들의 관심을 얻었으며 이후 선교사들은 이화학당 운영을 왕실의 지지 하에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스크랜턴 여사의 환등기에 관해서는 아펜젤러(H. G. Appenzeller, 1858-1902)의 일기에서도 확인된다. 아펜젤러는 1887년 2월 21일자 일기에서 “스크랜턴 부인의 집에서 그(언더우드)를 만났는데, 그녀가 자기 집과 환등기를 보여 주려고 그를 불렀다.”⁹⁵⁾ 대목은 1887년 조선에 거주하는 선교사들 사이에서 환등기가 특별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토이 환등에서 대형 강의용 환등까지 다양한 종류의 환등기가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사용되었으나, 조선에서는 환등기가 생산되지 않고 미국에서 수입되어야 하기에 선교사들의 초기 정착기에는 환등기의 보급이 저조하였다. 한국에서 환등회가 경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는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가 된다.

위의 서한에서 환등회를 관대한 외서독판은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이었다. 그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인들과 친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다. 19세기 말 급변하는 조선의 정세 속에서 왕실은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중요

95) 경신사편찬위원회(1991). 『경신사 1885-1991』. 경신중고등학교, p. 124.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왕실은 서한의 내용에서 보이듯 오직 환등회에 매료되어 이화학당의 교명을 스크랜턴 여사에게 하사하고 선교사들의 안위를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조선 관료들은 환등이라는 신문물을 처음 접하면서 이것에 매혹되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안타깝게도 김윤식은 스크랜턴 여사가 보여준 최초의 환등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처음 환등회를 접했던 한국인으로서 김윤식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스크랜턴 여사가 김윤식과 관료들에게 환등회를 보여준 시기는 이화학당이 창설된 1886년 5월 31일과 서한의 발신일인 1887년 4월 17일 사이이다.

이후 환등회에 관한 기록으로 1895년 3월 10일(음력) 김윤식의 일기가 있다. 한문으로 적은 일기에서 김윤식은 환등회에 관하여 짧게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 일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김윤식이 환등회를 ‘幻燈會’로 적지 않고 ‘幻燈戲’로 기록했다는 점이다.⁹⁶⁾ ‘회(戲)’자는 ‘놀이, 놀다’라는 뜻으로, ‘幻燈戲’는 ‘환등놀이’ 혹은 ‘환등연회’로 풀이될 수 있으며 이는 즉 ‘즐거운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김윤식에게 환등회는 스크랜턴이 미국과 유럽의 근대화된 모습과 성경의 내용을 보여주려는 계몽적인 성격을 의도했다 할지라도 19세기 말 영화가 들어오기 전 환등회는 조선인에게는 하나의 유희이자 오락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김윤식의 1895년 3월 일기 이후 다시 등장하는 환등회 관련 기록은 『독립신문』 영문판 1897년 10월 2일자 “Chemulpo News”이라는 기사이다. 이 기사는 제물포 영국교회(Church of St. Michael and All Angels)에서 일본인 개종자를 위한 환등회 개최에 관한 내용으로 김윤식은 한국인으로서 가장 먼저 환등회를 관람한 자로 볼 수 있다.

스크랜턴 여사는 “미국 및 유럽과 성경의 여러 장면”을 보여주었다고 적고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지를 조선 관료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스크랜턴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즉 미국과 유럽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한편, 근대화된 서구의 사진 이미지는 선교사들이 조선보다 ‘발전된’ 위치에 있음

96) 初十日辛巳晴, 余復服粟米飲, 自今日始仕外署, 赴政府會同, 夜, 日人小川實, 與其女近衛及日人井上重雄·小田音吉來, 作幻燈戲, 慶熙川第二子觀行便, 付上箕營第七天書. 김윤식. 「續陰晴史上」. 국사편찬위원회(1960). 『한국사료총서 제11집』. (『續陰晴史』는 1887년 5월 29일부터 1921년 12월 31일까지 35년간의 일기이며, 총 18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이다. 성경 속 장면을 환등회로 보여줄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설명하고 나아가 기독교를 전파함에 목적이 있었다.

이 지점에서 눈여겨 볼 지점은 바로 스크랜턴이 연 환등회에서 보여주는 자와 보는 자 사이의 간극이다.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사진들을 보고자 하였으며 몇 번씩 보고도 관심이 시들 줄 몰랐습니다.”라는 대목에서 스크랜턴 여사의 의도와는 달리 환등을 처음 접하는 조선인들에게는 환등회의 내용보다는 시각적 환영 자체가 즐거움을 안겨 주었던 것 같다. 통역관을 통해 환등회를 개최하여 스크랜턴의 의도가 와전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 서한에서 확인되는 바, 처음 환등회를 접한 조선 관료들은 환등의 내용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칼라로 채색된 사진 이미지를 본다는 새로운 체험 자체에 반응하였다. 환등은 강력한 시각적 매력을 지닌 매체로서,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조선인의 시선을 끄는 데 일차적으로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윤식과 3명의 관료는 어떤 이미지를 보았을까. 선교사들을 “지치게 만들” 정도로 조선인을 사로잡은 환등 슬라이드는 무엇이였을까? 당시 김윤식이 본 해당 슬라이드는 현존하지 않지만 우리는 같은 시기 일본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개최한 환등회의 슬라이드를 살펴봄으로써 스크랜턴 환등회의 슬라이드 이미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나. 고베여자대학교 자료실의 슬라이드

일본의 고베여자대학교(神戸女學院)의 자료실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학교에서 상영하였던 환등 슬라이드가 보존되어 있다. 이 학교는 1875년 두 명의 미국 개신교 여선교사 텔컷(Eliza Talcott)과 더들리(Julia E. Dudley)가 설립하였다. 이들은 외국선교추진단 미국위원회(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 ABCFM)에서 파견한 선교사였다.

스크랜턴이 이화학당을 시작한 것이 1886년이었음을 감안하면, 고베여자대학교가 소장한 환등 슬라이드와 스크랜턴이 상영하였던 슬라이드는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스크랜턴은 미국 감리교 연합 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

MEC)에서 과격한 선교사로 이들과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당시 19세기 중후반의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미국 여성 선교의 영향 아래에서 텔컷과 더들리와 일본과 한국으로 각각 과견되었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역사적 배경이 드러난다.

스크랜틴이 사용한 환등 슬라이드는 미국 선교 본부에서 보내준 것으로 분명 감리교 연합 교단에서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고베여자대학교 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는 총 25세트의 환등 슬라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제작사가 명시되어 있는 일부 슬라이드에는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가 인쇄되어 있어, 감리교 해외 선교본부가 제작한 슬라이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판 21>

고베여자대학교 소장 환등 슬라이드 이미지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분류된다. 성경의 내용과 찬송가, 미국 이미지(풍경, 역사와 지도자) 그리고 일본의 풍물(학교와 학생, 거리 및 생활상)이다. 각 슬라이드 세트는 모든 슬라이드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한 세트에 6-10장 내외의 슬라이드가 들어 있다. 이 환등 슬라이드는 고베여자대학교의 중고부 사무장(中高部 事務長)을 역임했던 디자인 코우타로우(大仁 光太郎)가 1954년에 사망했을 때 유족이 학원에 기증한 것이다. 자료실을 방문한 시기는 2015년 여름으로, 슬라이드는 검은색 상자 안에 주제별로 나누어 들어 있었다.

이 고베여자대학교의 슬라이드 이미지 분석을 통해 김윤식이 보았을 슬라이드를 유추해 보자. <자료 3>에서 스크랜틴은 “미국, 유럽, 성경의 장면”을 환등으로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고베여자대학교의 환등 슬라이드에는 유럽 풍경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는 슬라이드는 없었지만 《American Voice》라는 제목의 세트가 3개, 성경의 장면을 일본어로 설명한 3개의 세트가 있다. 이 슬라이드는 찬송가를 부를 때 이미지로 사용한 것이다.

우선, 미국과 관련된 이미지를 살펴보겠다. 《American Voice 1》 세트의 한 슬라이드는 미국 지도 위에 라틴어로 ‘여럿이 모여 하나’라는 뜻으로 미국의 건국이념을 뜻하는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이란 글귀와 독수리 상징이 그려져 있다. <도판 22>의 슬라이드 아래에는 미국 최초의 국가 ‘나의 조국(My Country Tis of Thee)’이라는 곡 이름이 적혀 있다. ‘My Country Tis of Thee’는 미국에서 학교 아침 조회 시간마다 국가 다음으로 불리는 노래이자 미국 대

통령 취임식에도 불리는 곡으로, 이 곡의 가사는 미국 개국 이념을 상징하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찬양이다. 《American Voice 1》에는 총 7개의 슬라이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 역사상 상징적인 장면과 함께 각 슬라이드 아래 이 곡의 가사가 적혀 있어, 노래를 부르면서 환등을 함께 보았음을 알 수 있다.

《American Voice 1》의 슬라이드가 미국 성가와 관련된 이미지인 만큼 미국의 역사 및 풍경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Let Freedom ring!’이란 문장이 적힌 슬라이드는 미국의 산과 계곡을 보여주는 사진이며, <도판 23> ‘Of thee I sing’ 문장의 슬라이드는 미국의 독립혁명 이미지를 보여준다. <도판 24> 성경과 관련한 슬라이드는 성경의 한 장면을 나타낸 일러스트와 그 옆의 일본어로 표기된 문구가 있다. 이 슬라이드 또한 ‘I need thee every hour’라는 찬송가의 일본어 번역을 슬라이드 옆에 적어놓고 있다. <도판 25> 찬송가와 함께 성경의 내용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이다. 고베여자대학교의 미국인 선생들은 성경을 설명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으리라고 확실히 추정된다.

다.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선교활동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에 있어 환등회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장로교와 감리교를 망라한 한국에서의 선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The Korean Mission Field*에 실린 레이놀즈(William D. Reynolds, 한국이름 李訥瑞, 1867 - 1951) 선교사의 글을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복음을 생생하고 인상 깊게 전달하는데 환등과 비교할 어떤 것도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레이놀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자료 4> 레이놀즈의 글

본부가 휴회한 후에, 나는 군산과 전주 선교거점 두 곳을 방문할 기회를 잡았다. 우리의 군산 친구들과 가족을 떠나면서, 나는 삽화 복음 강연(illustrated evangelistic lectures)을 위해 전주에 내 환등과 성경 장면을 가지고 갔다. 그 교회는 3일 밤 동안 교회 수용능력을 넘는 사람들로 붐비, 우리는 교회 소유의 훌륭한 옛 활터에서

이후 환등회를 개최하였다. 수백 명,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은 환등의 도움 없이는 얻을 수 없었던 정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그리스도의 삶과 업적에 대한 선명한 관경을 보았다. 손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생생하고 인상적으로 전하는 수단으로서, 환등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군산 신자들의 진지한 요청에 나는 군산 지역의 올 가을 체계적인 순회공연에서 환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군산 신도들에게 환등을 맡겨두고 떠났다. 이후 테이트(L. B. Tate) 선교사가 그의 지역에서 환등을 사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선교는 버지니아주 노퍽의 두 번째 장로교 한인회의 환등 기부로 가능하였다.

출처: W. D. Reynolds(1905.11). "The Lantern in the Field". *The Korean Mission Field*. (VolⅡ. No.1), p. 20.

레이놀즈는 남장로교 선교사로 언어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한국인 김필수, 언더우드(H. G. Underwood, 1859-1916), 게일(J. S. Gale, 1863-1937)과 공동으로 한국어 신·구약 성경을 편찬하였고, 당시 활동했던 선교사 중 한국어를 가장 유창하게 구사하였다.⁹⁷⁾ 한국어에 능통하였기에 레이놀즈는 환등회를 진행할 때, 보다 정확히 자신이 의도한 바의 성경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20세기 초 가장 활발하게 환등회를 열었던 YMCA에서도 활동하였기 때문에 환등에 대하여 대단히 능숙하였을 것이다.

앞의 그의 글을 살펴보면, 전주 지역에서 환등회를 개최하였을 때 교회의 수용인원이 넘쳐 야외에서 환등회를 열어 수백, 수천 명이 관람하였다고 적고 있다. 1905년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그곳이 서울이 아니고 전주라는 지방이었음을 감안하면 환등회는 더욱 더 낯선 경험이었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처음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접하고 찬송가를 들었고 또한 처음으로 외국인을 보았을 것이다. 이런 요소들은 조선인들이 미국인 선교사의 환등회에 호기심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레이놀즈의 성경 환등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전적으로 기

97) 레이놀즈는 1892년에 내한하여 1937년 은퇴 후 미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는 1895년 성경번역위원회 남장로회 대표로 선임되면서, 한국어 선생 김필수와 공동으로 1900년 단권 신약성경을 출판하였으나 여러 오류가 발견되었다. 언더우드, 게일과 함께 이후 1910년 신·구약 성경을 재출판하였다.

출처: 한국컴퓨터선교회 기독교정보검색 http://kcm.kr/dic_view.php?nid=39704
(방문일자 2017.3.8.)

독교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락거리가 전무한 지방 소도시에서 환등회라는 시각적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1890년대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한 미국인 선교사 조지 올친(George Allchin, 1852-1935)의 환등회를 들 수 있다.<도판 26>

야마모토 미키(山本 美紀)는 「홍행으로 선교 - G. 올친에 의한 환등전도를 둘러싸고(興行としての宣教--G. オルチンによる幻燈伝道をめぐって)」 논고에서 올친의 환등회를 “환등전도집회”라고 칭하며 그의 집회의 “홍행” 배경에 대해 다루고 있다.⁹⁸⁾ 올친 선교사의 환등회가 기독교 설교, 즉 성경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환등회에 참석했던 대다수의 일본인은 기독교 교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닌 환등회가 주는 즐거움 때문이었다. 올친 자신도 “관객 대부분은 설교 때문이 아니라 환등 때문에 모였다.”며 그의 의도와 관객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고백하였다.⁹⁹⁾ 이어 그는 그럼에도 환등회를 보고 난 일본 관객의 마음에 “작은 음성”이 울릴 것이란 희망을 가진다고 적고 있다. 이와 같은 올친 선교사의 환등회는 레이놀드 선교사가 전주에서 개최한 환등회의 열기와 마찬가지로 환등회의 오락적인 성향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야마모토 미키는 올친의 환등전도집회에 관한 논고에서 올친은 일본인 관객을 모으기 위해 성경 이야기를 일본 문화에 맞게 구성하였다고 적고 있다.¹⁰⁰⁾ 예를 들어 <돌아온 탕자(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도판 27>의 영문 제목을 ‘放蕩息子’한자로 표기하기보다 ‘두견새’라는 의미를 지닌 비슷한 발음의 ‘ほととぎす’를 사용하였다.¹⁰¹⁾ 두견새라는 단어는 일본문학에 자주 등장하며 시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탕자의 뉘앙스를 가지기 때문이다.¹⁰²⁾

98) 山本 美紀(2005). 「興行としての宣教--G・オルチンによる幻燈伝道をめぐって」. 『特集 近代東アジア文化とプロテスタント宣教師--その研究と展望』. 日本研究, p. 284.

99) George Allchin(1900). "For Young People: Preaching With a Lantern in Japan". *The Missionary Herald of the A. B. C. F. M.*(1900 July)을 山本 美紀(2005)의 앞의 글, p. 286에서 재인용.

100) 山本 美紀(2005). 앞의 글, pp. 287-290.

101) ‘放蕩息子(방탕식자)’의 일본어 발음은 ‘호-또-(放蕩, ほうとう)’와 ‘무쓰코(息子, むすこ)’로 이 두 개의 단어와 유사한 발음인 두견새라는 의미의 ‘호또또기쓰(ほととぎす)’를 사용하였다.

102) 「富牧師 長白 巡回」. 『동아일보』 (1922.4.22.). 이 기사에는 장백지방을 순회하는 프록터(Samuel J. Proctor, 한국이름 富祿道) 선교사가 “예수와 사도, 그리고 탕자의

누가복음의 한 이야기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화(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역시 영문 제목을 그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善きサマリヤ人のたとえ)’로 번역하는 대신 당시 일본에서 유명한 노래 ‘여행은 길동무, 세상은 인정(旅は道連れ, 世は情け)’에서 따온 ‘世は情け’으로 번역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旅は道連れ, 世は情け’의 의미는 ‘여행은 동행끼리 서로 돕고, 세상살이는 서로 동정하면서 살면 좋다는 뜻’으로 서로 돕고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올친은 환등회에 상영되는 성경의 이야기의 제목을 일본인이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빠른 문구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슬라이드 또한 일본의 풍습을 배경으로 한 일러스트를 사용하였다. 선교사 올친이 환등회를 열 때마다 천여 명이 넘는 일본인 관객이 참여한 이유는 올친의 일본 대중에 대한 통찰력과 일본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¹⁰³⁾ 일본에서는 이미 200년 전부터 우쓰시에가 존재했고 일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환등회를 개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자신들만의 환등회의 강점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일본에서 근대 시기 환등회를 통해 선교활동을 펼쳤던 올친은 스스로를 엔터테이너로 지칭할 정도로 변사로서의 자질이 뛰어났던 것 같다. 무성영화 시대에 영화의 흥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변사였다. 이렇듯 환등회에서 변사의 역할은 흥미를 돋우면서 스타일과 즐거움을 관객에게 주어 환등회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등회를 주최하는 변사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올친처럼 특별히 재능을 가진 선교사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기독교 복음 주제의 환등회에서 오락성을 강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국에서 환등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했던 선교사들은 한국인 관객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한국문

행적을 환등으로 영사하여 도처마다 회중이 백여 명에 달하여 무한한 감상을 환기하였다.”고 적고 있다. 성경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조선의 환등회에서 또한 인기였음을 알 수 있다.

103) 올친의 ‘환등전도집회’가 19세기 말 일본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올친이 일본문화에 맞게 환등의 내용 및 삽화를 구성했던 것 이외, 올친 자신이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도 빼놓을 수 없었다. 또한 일본은 환등이란 매체가 낯설지 않아 더 쉽게 일본관객을 모집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우쓰시에’라는 17세기에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온 나무로 된 환등이 일본문화에 맞게 변경되어 여흥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쓰시에가 오락적인 성격만을 지녔던 것에 반해, 환등회는 화학, 역사, 지리, 교육 등의 내용을 다뤄 오락적인 면 이외의 교육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화 및 관습에 맞춰 환등회를 구성했을까? 이들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을 복음 환등회에 더 많이 모으기 위해 환등회의 오락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며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 환등 슬라이드를 구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당시 한국인들에게 시각적인 오락거리가 많지 않았다. 환등회와 같이 천연색의 사진 및 그림이 커다란 스크린에 보여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매력을 끌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환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조선인들에게 충분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다른 오락적인 요소나 즐거움, 한국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환등회의 변화를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라는 그들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도구로서 환등회를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근대 한국에서의 환등회는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과 복음 교수라는 “계몽적” 성격이 짙었다.

3) 환등회에서의 언어의 역할

환등회 변사는 고등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변사는 환등회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구술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환등 슬라이드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¹⁰⁴⁾ 영화는 제작된 필름을 상영하는 것으로 모든 조작이 끝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환등회는 변사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다. 환등 슬라이드의 구성도 설명자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르는 설명도 각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19세기 미국 환등회의 예를 보아도 변사의 유명세와 인기도에 따라 환등회의 성쇠가 좌우되었다.

환등회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기에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영사되는 이미지를 통해 관람객에게 상영자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다. 이미지는 일정 부분 보편성을 띄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쉽게 이해시키는 데 용이하다. 그러나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환등회 주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미흡

104) 변사는 자신을 스스로 교수(professor)라 칭하기도 하였다.

하다. 인간은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추상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¹⁰⁵⁾ 각 교과별 선교사 과견 지침서에서 언어교육을 중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선교지의 원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고,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는 의미 활동으로, 언어를 통해 조선인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온전한 교육을 통해 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시각이 아닌 언어로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환등회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각적인 정보를 주지만, 환등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은 언어로 구체화되고 개념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각 미디어인 환등회에서도 언어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환등회에서 설명자는 관람객의 흥미를 돋우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는 무성영화의 흥행이 변사의 역량에 달린 것과 유사하였다. 국내에서 상영되던 무성영화의 경우에도 그 영화가 어떤 작품인가라는 사실보다 설명을 담당하는 변사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화의 인기가 달라지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변사의 인기가 그만큼 높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⁰⁶⁾ 관객들 입장에서는 어떤 영화를 보러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어떤 변사가 그 영화를 설명하는가라는 점이였다. 변사들의 인기가 극장의 영업적 성패를 좌우 할 만큼 변사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만큼 변사는 무성영화 시대에 대중적인 인기를 갖는 전문직업인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¹⁰⁷⁾ 다음 진술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5> 변사의 호(好), 불호(不好)

“변사의 호(好), 불호(不好)는 곧 그 영화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이므로 없어서는 안 될 유력한 존재요 따라서 각 영화관에서는 사진 내용의 좋고 나쁜 것보다도 인기 있는 변사를 고빙하는 데 수고와 재물을 아끼지 않았다.”

출처: 류홍태 「음막암영 속에 희비를 좌우하던 당대 인기 변사 서상후 일대기」. 『조광』. 1938년 10월호, p. 120.

105) 김중우(2007). 『구조주의와 그 이후』. 살림, p. 51.

106) 조희문(1998). 「영화의 대중화와 변사의 역할 연구」. 『디자인연구』, vol.6, p. 229.

107) 위의 논문, pp. 236-237.

환등회 변사는 관객의 흥미를 돋우는 것이 목적인 영화의 변사와 차별된다. 환등회의 변사는 슬라이드의 선택 및 구성 등 환등회의 내용, 즉 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지루하지 않게 관람객의 관심과 집중을 끌어내는 강연자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환등회의 변사는 지식과 함께 일종의 쇼맨십이 요구되었다.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환등회의 변사도 어느 정도의 쇼맨십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신학대학에서 이미 웅변술을 배웠다. 19세기 말의 드류 신학대(Drew Theological Seminary)의 커리큘럼에는 웅변술이 포함되어 있다. “신학대의 전적인 목적은 젊은이들을 준비되고 유능한 설교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므로 웅변술은 체계적이고 진보적인 과정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적고 있다.¹⁰⁸⁾ 선교는 설교를 기반으로 하기에 선교사들의 변사로서의 자질은 신학교 때부터 학습된다고 할 수 있다. 웅변술을 익히고 설교가 익숙하다고 할지라고 선교사들은 외국인이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어로 환등회를 개최하거나 통역을 고용해야 했다. 한국어 소통이 어려웠던 초임 선교사, 미국 선교본부 또는 일본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한국을 일시적으로 방문, 국내에서 환등회 설교를 할 경우에는 한국어 통역을 동행하였다. 통역은 한국어가 가능한 선교사 또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한국인이 하였다.¹⁰⁹⁾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환등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크랜턴 역시 통역을 수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역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한국어 능력은 환등회를 포함, 기독교 선교 자체에 중요한 부분이었다. 미국 개신교 선교본부는 파견된 선교사들에게 한국어 시험을 치르며 언어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선교사들에게 포교지인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다. 각 교단이 참여한 1913년 서울 총회(Seoul Conference) 보고서를 보더라도, 한국의 문화와 관습과 더불어 언어교육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논의되고 있다.¹¹⁰⁾ 드레이크(Father Drake)는 “언어 없이

108) *Year Book of the Drew Theological Seminary*. 1884. p. 29.

109) 「米國長老教傳道局委員 밀쓰博士及 스펴스氏, 平壤神學校에서 幻燈會開催: 南亞米利加地方形便에 對해」. 『동아일보』 (1921. 9. 12.).

110) "Seoul Conference: Training of Missionaries 1913". *World Missionary Conference Records, 1883-2010*. The Burke Archives, 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Union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루푸스(Rev. W. C. Rufus)는 “언어를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젊은 선교사에게 과중한 임무를 지우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¹¹¹⁾ “젊은 선교사들에게 언어 공부가 전 부이게 하여라.”라는 지침은 선교사의 어학 실력이 선교에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¹¹²⁾ 이에 각 미션 본부는 파견된 선교사들에게 어학 시험을 부과하는 등 언어교육을 선교 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다.¹¹³⁾ 이를 통해 우리는 선교사들이 한국어로 환동회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환동회를 개최하는 선교사들이 통역을 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파견지의 언어로 강연을 하는 이유는 본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 과정에 더욱 치밀하게 침투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말은 곧 그의 행동이며,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사물’을 묘사하고, 이들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행위 자체가 곧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는 ‘행동’이 된다.¹¹⁴⁾

여기에서 환동회의 설명을 담당하는 변사의 역할과 언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고찰해 보면서, 이를 통해 이미지와 언어, 그리고 사고체계의 형성과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환동회라는 것이 단순히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환동회에서 ‘보고’, ‘들은’ 이미지는 서구의 문물 및 문화가 우월하며 이에 반해 우리의 고유의 전통 풍습과 문화는 열등하고 타파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록 했다. 서구 이미지에는

111) Ibid., pp. 5-6.

112) Ibid.

113) 침례교 선교지침서는 새로 부임한 선교사는 두 번의 선교국가 언어 시험을 보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1차 시험은 부임 후 1년 안에 보아야 하며 읽고 쓰고 대화 능력을 측정, 2차 시험은 그 나라 언어로 설교하고 연설할 수 있는 능력을 본다. 1차 시험 통과 후 12개월 이내에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선교지도착 후 2년 내에 1차 언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3년 내에 2차 언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선교본부에 보고 되며 선교사로서 복무할 수 없게 된다. *Manual of the American Baptist Missionary Union(1908)*. *ibid.*, p. 54.;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지침서 역시 선교사가 선교지의 언어로 쓰고 특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필요한 자질로 간주한다. 선교 본부는 새로운 선교사가 부임 후 1-2년이 지나면 언어 시험을 보게 해, 어학 능력을 필수 요소로 규정하고,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선교사는 임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명시 하였다.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1889)*. *ibid.*, p. 13.

114) 김종우(2007). 앞의 책, p. 50.

서구의 문물과 문화를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들인, 아시아의 서구를 자처한 일본도 포함된다.

환등회는 사진과 도판을 영사하는 동시에 변사의 강연이 어우러져 하나의 공연으로 완성되었다. 말하자면 환등회는 변사의 이야기 진행에 따라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술적 미디어’였다. 근대 한국은 영화 등 시각을 중심으로 한 오락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1900년대의 환등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용에 상관없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오락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점차 환등회에 대한 이해가 커져가면서 사람들은 환등회의 내용, 즉 이미지가 무엇이며 어떤 주제로 환등회를 여는지에 따라 관심이 달라졌다. 초기 환등회가 국내에서 거대한 영사막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에 반해, 점점 환등회는 변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변사에게 중요한 것은 매개체로서의 언어였다.

근대 한국에서 개최된 환등회는 주최자의 명확한 의도 하에 열렸다. 서구와 일본과 같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 오락을 목적으로 한 환등회가 아닌 기독교 선교 또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계몽’적 환등회였다. 그러기에 더욱더 전달되는 내용, 그리고 언어에 따라서 설명자의 역량 및 역할이 커졌다.

정리하자면, 환등회는 사진을 영사하면서 ‘실증적’ 성격의 신호인 시각의 토대 위에 언어를 통한 변사의 해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주최자의 의도를 관람자의 사고 깊숙이 각인시키는 것이다. 주최자의 의도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사고하게 하는 과정은 환등회 그 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며 환등회가 끝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나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교육의 특징이기도 하다. 교육이 학습자에게 일어나는 과정은 교육되는 순간 발생하는 한편으로, 학습자의 한평생 동안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란 형식’으로 열리는 환등회는 이를 본 조선인들에게 그 순간과 이후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진다.

2. 근대문물 소개 - “新문물” 환등회

개항 후 환등회가 조선에 처음 소개된 이후, 1910년대까지 환등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주제는 서구 문물을 소개하는 일명 “新문물” 환등회였다. 이런 종류의 환등회를 주도한 곳은 황성기독교청년회(이후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이하본문에서 서울YMCA로 표기)였다. 이는 기독교 선교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서구의 모습과 발전상을 보여주는 환등회를 통해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조선인들의 개신교 입회를 추진하는 선교 형식이였다.

“新문물”을 주제로 한 환등회에서 보여준 구체적인 사진을 보면, 하와이 · 워싱턴 · 뉴욕 ·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대도시 풍경과 인도 · 남아프리카 · 독일 · 영국 등의 세계 여러 나라의 풍경과 풍습이였다. 이런 종류의 이미지는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잡지가 사진을 이용해 전 세계를 보여주는 방식과 같았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창간된 해가 1888년으로 당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진을 통해 알고자 했던 이미지가 무엇인지가 명확하다. 또 다른 “新문물”을 주제로 한 환등회는 몸 · 질병 · 위생 환등회, 미국 공업과 상공업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는 환등회, 생물학 · 천문학 등의 과학교육 환등회였다.

근대 한국에서 이런 주제의 환등회는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다. 서울YMCA (Seoul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회원만 입회하도록 하여 관람객의 구분을 두었고 환등회의 정시 입장도 불허할 만큼 엄격하였다. 또한 이 환등회는 저녁 7시경에 시작, 4-5시간 동안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늘 넘쳐나 서울YMCA 강당의 수용인원을 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여행사진과 같은 형식의 뻔한 서구의 풍경사진, 또는 따분한 위생과 과학내용을 4시간 이상 강연하는 환등회에 이처럼 열광적인 호응을 보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당시 서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은 현재로 비유하자면 외계의 새롭게 발견된 행성, 우주인 모습, 줄기세포와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문물로 비추어졌다. 스크린에 영사된 실물 크기의 사진은 조선 안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하였으며, 당시 열강들과 일제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 안에서 서구문명을 수용하여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은 환등회 열기

의 바탕이 되었다.

다음에서는 서울YMCA의 서구 근대문물 환등회의 성격과 속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新문물” 환등회가 당시 조선과 조선인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겠다.

1) 서울YMCA 환등회

근대 한국의 환등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는 서울YMCA이다. 서울YMCA는 20세기 초 가장 활발하게 환등회를 개최하였으며 무엇보다 환등회에 관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YMCA의 활동은 중국과 일본 YMCA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국내의 YMCA의 환등회에 관한 부족한 자료를 중국 및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환등회는 스크린과 수백 명이 넘는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인 면에서 근대 계몽기 환등회에서 서울YMCA가 중요한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1908년 종로에 완공된 청년회관 건물에서 비롯된다.¹¹⁵⁾ YMCA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 또한 종로에 YMCA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YMCA만큼 큰 규모의 건물이 경성에는 드물었으며, 특히 대강당홀은 환등회를 비롯하여 연주회, 여러 강연대회를 열 수 있는 장소였다. 만약 이런 회관 건물이 없었다면 YMCA가 한국에서 위치를 다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종로의 이

115) 본래 미국 YMCA는 주제 환등회로 유명해진 문화운동단체(lyceum society)이자 교육운동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1850년대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였으며 남북전쟁 이후 광범위한 건물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을 펼쳤다. 이는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동을 펼쳤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뉴욕 지부는 1869년 시설을 구축하였고, YMCA는 종종 연합홀(association hall)이라 불리는 잘 정비된 강당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강당은 회의 및 환등회를 열어 YMCA 회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오락 용도로 사용되었다. 특히 20세기 초 YMCA는 재정적으로 풍족하였다. 미국 YMCA 운동의 주창자였던 존 모트(John Mott, 1865-1955)는 1차 세계 대전 당시 군대 매점인 PX를 운영하였고, YMCA의 운영자금을 위하여 235,000,000 달러를 벌었다. 이 자금은 전쟁난민과 전쟁포로 등 전쟁 구호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선교지의 건물과 선교자금으로 활용되었다.

YMCA 홈페이지

http://www.mfldymca.org/about_us/history_national.php (방문일자 2017. 11. 2.)

정표가 된 이 회관을 보면서 사람들은 미국의 힘과 선교사들의 재력을 실감했을 것이다. 서울YMCA 건물은 존 와너메이커(J. Wanamaker, 1838-1929)의 기부로 세워졌다.¹¹⁶⁾ 청년회관은 960평의 부지와 약 600평의 건물로서 강당, 실내체육관, 교실, 도서실, 공업실습실, 식당, 목욕장, 사진부, 사무소, 소년부 등의 광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¹¹⁷⁾ <도판 28> 『매천야록』의 저자 황현은 새로 건립된 YMCA회관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그 집의 높이가 산과 같고 종현의 천주교당과 함께 남과 북에 우뚝 마주 서서 장안의 제일 큰 집이 되었다.’고 했다.¹¹⁸⁾ <도판 2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층 구조의 서울YMCA의 신축 회관의 강당은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다양한 환등회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강당이 대관되어 다른 단체의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 청년회관 강당에서는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이 행해졌다. 20세기 초 서울에는 많은 수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황성기독교청년회관은 선교사들이 환등회를 개최하는 최적의 장소였다.

환등회 장소로서 서울YMCA의 강당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교육 공간의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넘어서 교육의 성격과 내용의 변화를 함의하기 때문이다. 형식의 변화 역시 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한 변수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환등회를 통해 한 교실 안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학습한다는 공동의 경험을 하게 만든다.

가. YMCA의 <Korea> 환등 슬라이드

서울YMCA가 개최하였던 환등회의 슬라이드는 현재 미네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에 위치한 YMCA아카이브가 소장한 <Korea> 환등

116) Report of G. A. Gregg, Seoul, Korea, For 2nd Quarter, 1907. *YMCA Archives*; 존 와너메이커(J. Wanamaker)는 재정능력이 없었던 초기 북미 YMCA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 사람으로, 1869년 John Wanamaker 회사를 창립하여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소유하였다. 민경배(2004). 『서울YMCA운동 100년사 1903-2003』. 서울YMCA, p. 58.

117) 서울YMCA 편(2004). 『(사진으로 보는)서울YMCA 운동 100년』. 월남시민문화연구소. p. 15.

118) 황현. 『매천야록』. 임형택 역(2005). 서울: 문학과 지성사.

슬라이드로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YMCA의 <Korea> 환등교본의 슬라이드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YMCA는 다른 어떤 교단의 아카이브보다 다양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아카이브에서 각 나라의 환등 슬라이드와 환등교본을 찾아 당시 YMCA의 환등회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미국에서 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네소타 대학의 YMCA 아카이브 영문 이름은 Kautz Family YMCA Archives로, 이곳에 소장되어 있는 환등 슬라이드 컬렉션은 다음과 같다.

환등 슬라이드

- Korea. ca. 1910-1930.
- China boys. ca. 1910-1930.
- Japan. ca. 1910-1930.
- Foreign Boys. ca. 1910-1930.
- Boys around the world. ca. 1920-1928.

환등교본

- <Foreign Boys>. 1925.
- <Physical Activities of the YMCA>. 1929.
- <The YMCA as a World Educational Force>. 1929.
- <Boys' China>. 1925(revised 1928).
- <Japan>. 1924(revised 1928).
- <Boys' India>. 1924(revised 1928).
- <Europe>. 1924.
- <Latin America>. 1924(revised 1928).

미네소타의 YMCA아카이브가 소장한 환등교본 이외에 하버드 대학의 옌칭 도서관(Yenching library)에 <China> (1925/revised 1928)라는 제목의 환등교본과 슬라이드가 존재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세기 초 YMCA는 각 선교국가에서 선교사들이 활동한 내용을 환등회로 미국에서 상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내에서 YMCA가 상영한 환등회의 주제는 크게 2개로, 각 나라 이름으로 된 환등회와 각 나라의 소년들(boys) 시리즈이다. 따라서 한국과 관련하여 <Korea>와 <Boys' Korea>라는 제목의 환등교본이 만들어졌을 거라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YMCA 컬렉션 중 아쉽게도 한국 관련 환등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Korea”라고 이름 달린 환등 슬라이드 총 46장이 이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어, 한국에 관한 환등회를 미국에서 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등교본의 마지막장은 슬로건으로 끝나기 때문에 슬로건이 적힌 슬라이드 번호가 55번인 것으로 보아, <Korea> 환등교본은 총 55개의 사진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장의 사진슬라이드는 사라졌다.

사진슬라이드만 존재하고 각 사진의 캡션 역할을 하는 교본이 사라져 정확하게 <Korea>환등회가 어떤 내용으로 개최되었는지는 면밀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제 3장에서 앞서 살펴본 감리교의 <Korea>환등교본의 내용과 중국, 일본의 교본을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을 보여주는 표상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 사진 자체만으로도 YMCA가 말하려는 한국의 표상방식이 나타난다. 사진 슬라이드는 흑백사진에 채색을 하였다. 사진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데, YMCA의 활동 및 교직원, 그리고 조선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나. 교육학감 G. A. 그레그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로 창단한 서울YMCA의 본격적인 환등회의 출발은 1906년 11월 15일 G. A. 그레그(George Arthur Gregg, 한국이름 具禮九, 1863-1939)가 교육학감(Industrial Secretary)으로 부임한 이후부터이다. 『대한매일신보』(1907.2.28.)와 『황성신문』(1907.3.1.)은 각각 “靑會幻燈”, “教育演說”이란 제목으로 교육학감 그레그의 환등회에 관한 기사를 내었다. 기사는 교육상의 필요로 미국에 주문한 환등기구가 도착하여 청년회에서 저녁 7시 반에 미국청년회교육정형(美國靑年會教育情形)에 대하여 50여 개의 도해(圖解)로 설명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¹¹⁹⁾ 이 기사를 통해 YMCA 환등회의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이 확

119) 『대한매일신보』의 “靑會幻燈”이라는 1907년 02월 28일자 기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皇城基督教靑年會에 教育上所用으로 精美한 幻燈器具를 美國에 注文以入하였는

인된다. 첫째, YMCA의 환등은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둘째, 1906년 교육부 학감으로 부임한 그레그에 관한 언급이다. 초기 YMCA의 독보적인 활동은 공상교육(Industrial Education)과 체육활동(physical activities)이었다.¹²⁰⁾

서울YMCA의 공상교육은 1906년 북미 YMCA 연합회 국제위원회의 산업교육부 전문가로 있던 그레그(G.A. Gregg)의 내한을 계기로 목공, 철공, 제화, 인쇄, 사진 등 공업실기 교육이 강화되었다.¹²¹⁾ 그레그는 26년 간 서울YMCA의 교육 및 운영을 담당하였다. 그레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43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내한하였다. 캐나다 출신인 그는 내한하기 전까지 공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그의 직업 경력은 한국 YMCA의 공상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YMCA 보고서에서 그는 기계기술 전문가로 호칭되고 있으며 사진에 대해서도 드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적고 있다.¹²²⁾

그레그는 자신의 경력을 살려 서울YMCA가 단순히 기독교 전파 및 종교 교육만 이루어지는 곳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는 공업 전반에 걸친 기술 교육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환등회와 사진 등 근대적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 교육하였다. 또한 다른 종교단체와는 다르게 YMCA는 공상교육이 교육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자체가 수익구조를 가지기를 의도하였다. 그레그의 주도로 1910년에 YMCA에 3개월에서 5개월 과정의 한국 최초의 사진과가 개설되었다. YMCA에 의한 사진과의 개설은 환등회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환등회에 사용되는 슬라이드가 YMCA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 今日下午七点半에 本會學監具禮九씨가 美國青年會教育情形을 五十餘種圖解로 演說홀터이니 磨榻에 有志青年은 來臨허심을 기圖한다더라.”

120) 서울YMCA 편(2004). 앞의 책, p. 28.

121) 그레그는 1863년 10월 14일 토론토에서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토론토에서 2년간 초등교육(primary school)을 받은 후, Toronto Middle School과 Toronto Collegiate Institute에서 각각 5년간 수학하였으며 Toronto University를 1년 다녔고 이때 고등수학을 수강하였다. G.A. Gregg's Biographical Data, *YMCA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122) 그레그의 업무경력을 보면, Toronto & Detroit의 기계 공장에서 도제로 4년간, 그리고 Detroit에서 1년 반 동안 기계 제도(mechanical drawing)를 했고 제도관(chief craftman)으로 뉴욕 Albany의 통합 차 난방 회사에서 8년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A sketch of the Industrial Work of the Seoul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From 1906 to 1913. *YMCA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pp. 3-4.

다. 서울YMCA의 환등회 특징

근대 문물을 알리는 “신문물” 환등회의 주축은 서울YMCA였다. 서구의 자연경관과 상공업을 알리는 환등회는 서울YMCA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서울YMCA의 환등회를 살펴보는 것은 당시 어떤 내용과 맥락 하에 서구의 근대 문물이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였는지 알 수 있는 주요한 지점이다. 더욱이 서울YMCA는 농구, 배구 등의 체육뿐 아니라 근대 서구의 음악도 적극적으로 수용한 중요한 단체였다. 음악과 환등회가 강당에서 동시에 열리기도 하여 음악과 환등회를 동시에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YMCA는 한국의 환등회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황성기독교청년회의 환등회에 관한 첫 기록은 『황성신문』의 ‘靑會演討’라는 제목의 1905년 4월 13일자 기사이다.

<자료 6> 「靑會演討」

皇城基督教靑年會에서 日前 渡韓한 印度靑年會總務 英人 巴頓氏가 印度에 各樣 物質을 幻燈으로 구경케 하며 演說하고 同八點半에 衛生之道는 溫突이 勝於煖爐란 問題로 可否便이 討論한다더라.

출처: 『황성신문』 (1905.4.13.)

환등회의 변사는 인도청년회총무인 영국인 “파돈”씨로 주제는 ‘인도의 각양 물질’로 인도의 풍경 및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영사하면서 설명한다는 내용이다. 19세기 중후반부터 YMCA는 일본, 중국의 동아시아뿐 아니라 인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YMCA의 활동 역시 간간히 환등회로 청년회관에서 상영되었다. 이 기사에서 확인되듯이 이미 1905년에 서울YMCA는 환등회를 개최되고 있었다.

우선적으로 서울YMCA에서 환등회를 얼마나 자주 열었는지를 다음의 표를 통해 살펴보겠다. 1908년 6월 1일부터 1909년 6월 1일 서울YMCA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YMCA 주최 환등회가 12회 열렸으며 총 참여인원은 4,911명이었다. 이는 한 환등회에 약 409명이 참여한 것이다.

<표 2> 환등회 개최 횟수, 1908.6.~1909.6.¹²³⁾

종 류	집회수(회)	평균 관람인원(명)	연 관람인원(명)
환등강연회 (Stereopticon lectures)	12	409	4,911명
강연회(Lectures)	51	501	25,552
토론회(Debatings)	31	481	14,987
친교회(Reception & entertainments)	9	201	1,810
월례회(Monthly meetings)	7	86	599
3일간의 개관식 (Opening exercises in three days)	7	1,233	8,632
낮에 회관에 온 사람 수 (Total No. of day attendance)		281(days)	66,884
밤에 회관에 온 사람 수 (Total No. of night attendance)		227(nights)	66,891

<표 2>를 보면, 환등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유독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908년 서울YMCA 총회원수는 1,160명으로, 좀 더 상세히 구성원의 계층을 살펴보면 상류층 557명, 중산층 509명, 관료 42명, 왕족 9명, 선교사 26명, 전문인 17명이다. 서울YMCA의 회원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이곳에서 개최되는 환등회와 강연회는 당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졌으리라 여겨진다.

이 보고서는 환등회의 횟수와 참가인원만을 적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환등이 상영되어졌는지에 대하여는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08년 6월 1일부터 1909년 6월 1일까지의 YMCA의 환등회 관련 기사는 총 16회로 치과, 신체 및 위생 관련, 인도 및 워싱턴, 뉴욕, 샌프란스

123) Annual Report of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Seoul. From June 1st, 1908 to 1st, June 1909. *YMCA Archives*.

코 등의 대도시에 관한 환등이 개최되었으며 또한 환등회의 입장권이 발매되기도 하였다.¹²⁴⁾ 몇몇 기사에서 환등회의 입장권을 발매한 것은 그만큼 환등회의 인기를 짐작하게 한다. 한편, YMCA 보고서와 신문의 기사의 횟수가 다른 것은 YMCA 내부 환등회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환등회가 취소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환등회에 있어 종교적인 내용은 제외되었음

124) 다음은 1908년 6월 1일부터 1909년 6월 1일까지의 1년 동안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YMCA의 환등 관련기사이다.

- 청회환등 (1908-06-09) 今日下午八點鐘에 鍾路青年會館에서 西양의士韓大衛씨를 請邀하여 齒科에 緊要함을 演說하고 兼하여 幻燈을 設行한다더라.
- 청년회환등 (1908-06-16) 今日下午八時에 青年會館에서 總敎師申愛道氏가 印度山川幻燈을 繼續하여 演說한다더라.
- 청년회환등 (1908-10-06) 今日下午七時三十分에 鍾路青年會館에서 幻燈會를 開하고 該會學監具禮九氏가 演說한다더라.
- 幻燈兼演 (1908-10-15) 今日下午七時三十分에 鍾路青年會館에서 幻燈會를 開하고 濟衆院醫士허시트를 請邀하여 演說한다더라.
- 靑會幻燈 (1908-11-17) 鍾路青年會館에서 今日下午七時三十分에 幻燈會를 開한다더라.
- 靑會幻燈 (1909-01-05) 今日下午六點半에 青年會館에서 幻燈會를 開하고 入場券을 使用한다는데 壹枚에 拾錢式이오 幻燈은 華盛頓, 紐育, 桑港及大都會景致이라더라.
- 靑會幻燈 (1909-01-12) 今日下午七時에 鍾路青年會에서 幻燈會를 開하고 醫學博士洪석厚氏가 身體에 對한 幻燈으로 演說한다더라.
- 靑又幻燈 (1909-01-13) 今日下午七時에 鍾路青年會館에서 幻燈會를 開하는데 前日에 桑港景致를 畢하였이고 今番에는 華盛頓紐育景致로 幻燈하는디 入場券을 使用한다더라.
- 청년회환등 (1909-01-26) 今日下午七時에 鍾路青年會館에서 幻燈會를 開한다는데 入場券을 使用한다더라.
- 청회환등 (1909-01-31) 明日下午七時에 鍾路青年會館에서 月例會를 開하고 去月壹日 報告를 接受한 後 具禮九氏가 幻燈會를 開하고 餘興으로 音樂과 唱歌를 奏하여 親睦하는 意를 表한다더라.
- 靑會幻燈 (1909-02-09) 今日下午七時에 鍾路青年會館에서 幻燈會를 開하고 英國倫敦及各處景致로 幻燈한다는데 入場券을 使用한다더라.
- 幻燈兼演 (1909-02-16) 今日下午七時에 鍾路青年會館에 醫學博士洪宗股氏가 身體에 對한 幻燈會를 開하고 兼하여 演說한다더라.
- 청회환등 (1909-02-28) 三月壹日月曜下午七時에 鍾路青年會館에서 月例會를 開하고 事務를 處決한 後 餘興으로 幻燈會를 開한다더라.
- 청회환등 (1909-03-02) 今日下午七時에 鍾路青年會館에서 幻燈演說한다더라.
- 청년회환등 (1909-03-16) 本일하오칠시에 鍾로청년회관에서 성서등회스적으로 범월씨가 환등한다더라.

그 외 『황성신문』(1909.5.4.)의 鍾로청년회관에서 특별환등회를 열고 입장권을 사용한다는 환등회 기사가 있다. 이 기사를 포함하여 1908년 6월부터 1년간 서울YMCA의 환등회 기사는 총 16건이다.

을 알 수 있다. 기독교와 관련한 환등수업에 관하여 이 보고서에는 성경관련 환등회(Illustrated Bible Lecture)가 3회 열렸고, 여기에 총 1,639명이 참여하였다고 적고 있다. 종교적인 내용의 환등회와 그 외의 환등회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08년 6월 1일부터 1년 간 YMCA에서 개최된 환등회에 참여한 사람은 성경 환등회 참여자를 합하여 총 6,550명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숫자에는 중복된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등회 참여 인원의 수는 20세기 초 YMCA 주최의 환등회가 단순히 YMCA의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치부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표 3> 환등회 개최 횟수, 1914.6.~1915.5.

종류	집회수(회)	평균 관람인원(명)	연 관람인원(명)
환등회	14	406	5,689
연설회	16	373	5,967
토론회	5	329	1,645
담화회	4	136	544

교육부 (간사 육정수 보고)

<표 2>와 <표 3>의 1908, 9년과 1914, 15년도 환등회에 참여한 인원수는 약 5천 명과 5천 7백 명이다. 1922년 경성의 조선인 인구수는 총 188,648명이었다.¹²⁵⁾ 경성 거주 조선인의 약 4분의 1일 이상이 환등회를 보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산은 동일한 사람이 여러 차례 환등회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성의 조선인 인구와 환등회 참여자를 비교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성 인구에 비례하여 보아도 다수의 조선인이 서울YMCA 환등회를 관람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환등회의 주제를 살펴보면, YMCA는 신중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독립 등에 대한 주제로는 어떤 환등회도 열리

125) 『朝鮮總督府官報』(1922.9.23.) 호외, p, 14.

지 않았다. 계일은 YMCA가 결코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안에서 정치적 행동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¹²⁶⁾ 일레로 스크랜턴은 고종의 기독교 정치 개입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일이 YMCA 설립과 더불어 생길까 걱정하였다. YMCA는 전적으로 정치적 활동에는 거리를 두었다.

YMCA의 정치의 중립성이란 개항 이후 한국을 둘러싼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 정치적 편향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으로, 합일병탄 이후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즉 반일(反日)노선을 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관여하지 않고, 이에 대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YMCA의 활동 보장일 것이다. 이들의 일차적인 목적이 식민지인의 고통을 배려하거나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선교에 있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당연하게도 YMCA 환동회의 주제는 정치적인 색채가 제거된 서구의 자연과 풍물 소개, 미국의 공업과 철공(鐵工) 소개 등의 근대문물에 관한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의 자연경관과 사람들의 모습, 공업 등의 근대기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 등을 주제로 하는 환동회는 당시의 정치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반면, YMCA의 환동회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조선인들은 선교사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일레로 1907년 1월 250명이 참여한 월례회에서 이상재는 “우리는 공부를 잘 하여서 우리나라 독립의 기초를 만드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¹²⁷⁾ 민경배는 YMCA의 활동은 의병 형태의 저항이 아니라 청소년 교육 진흥과 산업운동을 통해 국력을 배양하여 일제의 기반을 벗어나려는 최초의 운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¹²⁸⁾ 조선인들은 선교사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려는 것과는 상관없이 환동회를 통해 서구의 근대문물을 학습하여 일제에 저항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126) 민경배(2004). 앞의 책, p. 69.

127) 위의 책, p. 110.

128) 위의 책.

2) 근대문물 교육환등회

여기에서는 서울YMCA 이외의 곳에서 이루어진 서구 근대문물에 관한 환등회에 관하여 다루려 한다. 조선 밖 세계의 모습은 환등회의 가장 일반적인 주제였다. 조선이 아닌 다른 세계 사람들의 삶과 풍경을 그것도 사진으로 보여주는 환등회는 음악까지 어우러져 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 매체가 되었고, 이는 사람들의 크나큰 즐거움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조선을 벗어난 세상의 물정을 볼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서구의 모습과 근대 문물을 소개하는 환등회는 그 자체로 ‘교육적’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 밖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조선의 나아갈 길을 시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서구 근대 문물을 소개하는 환등회였다.

일제강점 이전, 열강들의 침략에 국세가 기울어 갈 때 조선의 지식인과 재력가들은 교육을 통해 난세를 타개해 보려 하였다. 환등회는 교수자(변사)와 수업내용(환등 슬라이드)이 기본 구성이므로 그 자체로 교육적이었다. 조선인을 교육시키겠다는 목적 하에 환등회가 다수 개최되었다. 물론 당시 교육을 주제로 한 환등회의 성격은 교육보다는 ‘계몽’에 가까웠다.

앞서 서울YMCA의 환등회의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근대 문물을 주제로 한 환등회에서 어떤 사진을 보여주었는지 알 수 있었다. 당시에 특히 근대 문물을 소개하는 환등 슬라이드로 사용된 사진은 공통된 점들이 있었으며 아래의 기사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중에 유통되던 사진은 대부분 환등 슬라이드로 만들어졌다.

<자료 7> 「博覽設院」

義州基督教信士朴永運氏는 其間京城에 逗留타가 浩然히 本郷에 歸호야다만 教育에 從事호고 民智開發을 自任하야 新世界寫眞博覽院을 義州西部에 設立호고 人民에 新識을 開導크져호는대 該院의 設備는 中央에 一大留聲器을 置호고 愛國歌와 讚美歌曲을 奏호며 各國寫眞圖影數百種을 顯微鏡으로 照覽케호는디 其形狀種類는 國國山川海岸舟舶車路都城港市及家屋花園遊戲場學校軍隊婚喪設禮等實地貞影과 及耶穌事蹟

筭을 遍覽케호는대 該寫眞機物等은 美國에서 購來호는 七百圓價値요 該院을 一覽호는 萬國新世界을 遊行博覽호는과 無異호는야 未開호는 人民으로호는야금 現世界景物에 如何호는을 知得케호는다더라. (밑줄은 필자)

출처: 『大韓每日申報』(1907.11.15.)

이 기사는 기독교 신도인 박영운씨가 경성에서 고향인 의주로 귀향하면서 의주지역 사람들의 지식개발을 위하여 “신세계사진박람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기사에서는 신세계사진박람원이 무엇을 보여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또한 이 박람원은 중앙에 유성기 한 대를 비치하여 음악을 연주하였다. 이곳에서 연주된 곡은 애국가와 찬미가곡이다. 환동회에서 축음기가 사용될 때 연주된 음악에 대하여 상세히 적고 있다. <대한제국 애국가>는 군악대 지휘자로 초빙된 독일인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 1852-1916)가 작곡하여 1902년 8월 15일 공포되어 1904년 각 학교에 배포되었다.¹²⁹⁾

축음기에서 연주되는 노래 제목을 알려주는 것 이외에 이 기사에서 주목할 지점은 각 사진의 내용을 아주 세세히 적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환동 슬라이드는 당시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박영운은 미국에서 700원 가량의 사진기물을 구매하였다. 사진 항목은 각국의 산천해안(山川海岸), 상선(舟舶), 도로(車路), 도성(都城), 항구와 시가지(港市), 가옥(家屋), 화원(花園), 유희장(遊戲場), 학교, 군대(軍隊), 관혼상제(婚喪設禮) 등 타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예수행적(耶穌事蹟)에 관한 것이다. 미국에서 구매한 각국의 이러한 사진은 환동회에서 상영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19세기 중후반부터 유통되기 시작해 미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진 입체사진의 주제와도 일치한다. 즉 이 기사에 언급된 사진의 주제는 근대 사진의 주요 키워드였다. 따라서 사진은 환동 슬라이드로 쉽게 만들어졌고, 환동 슬라이드의 사진은 당시 유통되던 사진이기에 환동회에서 조선인들에게 보여준 ‘근대 문물’ 환동회의 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으며, 이 이미지에 따라 어떤 내용의 설명이 덧붙여졌을지 짐작 가능하다.

이러한 ‘서구의 근대문물을 보여주는 사진은 만국 신세계를 여행 관람한 것

129) 이경분, 헤르만 고체프스키(2012). 「프란츠 에케르트는 대한제국 애국가의 작곡가인가?」. 『역사비평』. 2012.11. 이 논문에서 저자는 독일인 에케르트가 험버트가 그에게 제보한 <바람이 분다>라는 한국 민요를 편곡한 것이 <대한제국애국가>라고 고증하고 있다.

과 다르지 않기에 미개한 인민들이 세계 풍물 및 풍경을 알게 한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 이렇듯 근대문물을 보여주는 것은 신세계를 조선인들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사진에 보는 즐거움과 동시에 '교육'하는 역할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에서 현미경으로 이 사진들을 관람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이는 잘못 기술된 것으로 여기서 현미경은 환등기 또는 입체경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인들은 근대문물을 주제로 한 환등회를 시기별로 다르게 받아들였다. 1910년대까지 환등회는 주제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오락매체였다. 즉 어떤 내용을 선택해서 보느냐 보다 엔터테인먼트 그 자체로서 인기를 얻었다. 볼거리가 많지 않았던 당시 상황 때문이었다. 1910년대까지 근대문물을 주제로 한 환등회의 인기는 새로운 매체라는 환등회의 신선함만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920년대가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환등회 자체에서 오락적인 즐거움을 찾지 않았다. 환등회가 무엇인가를 주입하려 하는 '계몽'의 도구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최자도 대부분 조선총독부 산하 기관이었으므로 서구의 근대 문물을 소개하는 비중은 줄고 대신 위생교육과 농사개량, 축산과 임업이 주를 이루었다.

3. 소결: 미국 개신교 선교사의 시선으로 본 세계

근대 한국의 환등회의 성격은 개항부터 일제의 한국병탄 이전과 이후의 식민시기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일제강점 이전 시기 환등회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첫째, 주최자가 미국을 주축으로 한 개신교 선교사라는 점으로 미국 문화와 기독교라는 두 문화가 환등회의 주요한 내용이었다. 둘째, 이 시기는 환등회가 국내에 도입된 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등회 자체에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환등회 자체가 내용과 관계없이 오락적인 미디어로 인식되었다. 셋째, 이 시기의 환등회는 경성이 중심지였으며 그 외 평양, 개성 등 선교활동이 왕성했던 대도시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넷째, 환등회의 내용은 기독교와 관련된

것과 서구의 근대문물과 자연풍경 소개로 크게 구분되며 이 둘 모두 기독교 선교가 주목적이었다. 다섯째, 이 시기 환등회에 관한 기사는 모두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가 보도했으며, 그 외 『제국신문』의 기사가 소수 존재한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이 시기 환등회를 알리는 주요 매체였으며, 동일한 환등회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일병탄 이전 환등회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환등회를 통해 서구의 근대문물을 소개하였고, 그 목적은 기독교 선교였다. 19세기 말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 선교라는 간접 포교를 하였다. 그 이유는 대한제국의 기독교 선교활동 자체가 합법적으로 자유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환등회의 주요 주최자였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환등회를 통해 선교사들이 보여주는 세계를 볼 수밖에 없었다. 영화 이전, 조선인들은 환등회에서 처음으로 시각적인 환영을 경험했다. 이 ‘놀라운’ 경험은 그 자체로 새롭고 신비로웠고 이로 인해 환등회는 시각적 유희를 주는 오락 미디어로 받아들여졌다. 환등회가 오락으로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된 시기는 1910년대까지이다. 1920년대가 되면 환등회는 조선 전역에서 개최되었고, 초기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디어로서의 지위는 상실되는 반면, 식민정부의 프로파간다 미디어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일제강점 이전의 환등회에 대한 신문 보도를 보면, 환등회에 대한 열기를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언체로 쓴 신문기사에는, “회원에게 휴대회표(携帶會票)” 하고, “자기 회표를 휴대왕참(携帶往參)을 희망”와 같이 입장권을 발행하고, 입장표가 있는 회원만이 환등회를 관람할 수 있었다. 표가 없는 사람들은 “방청을 불허”한다고 적었고, 입장권이 필요 없는 경우 역시 신문으로 공지하였다. 환등회의 시간 엄수 역시 엄격하였는데, “환등회의 시작 시간은 5시 30분에 입장하고 5시 30분이 지나면 입장을 불허”하며, 심지어 저녁 7시 환등회에 “6시 50분이 지나면” 입장할 수 없다고 신문에 공고하고 있다. 서울YMCA는 환등회 입장에 있어 회원과 회원 가족만이 환등회를 관람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장권 사용을 공지하였다. 이는 환등회의 인기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YMCA는 환등회를 보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이들을 회원으로 등록시켰다.

이미 스크랜턴 여사의 최초의 환등회 기록에서,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환등회의 사진들을 보고자 하였으며 몇 번씩 보고도 관심이 시들 줄 몰랐습니다.”라는 글은 환등회의 흥행을 전조하고 있었다. 19세기 조선에서 전통공연은 사람들이 직접 출연해 관객과 대면하는 형태인 것에 반해, 환등회는 빛이 이미지를 비추며 스크린에 환영을 만들어 낸다. 환등의 메커니즘이 빚어낸 환영은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인들의 보는 형식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환등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보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할 수 있다. 이를 표현하는 한 방식으로 환등 이미지가 세계를 보는 다른 종류의 창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비릴리오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영화관의 등장으로 집단 바라보기 방식이 바뀌었다고 지적하였는데, 영화의 등장으로 인한 집단 보기 방식의 변화는 환등회가 그 출발 지점이라 볼 수 있다. 비릴리오는 뉴스영화나 기타 화면으로 전 세계 공간의 현실을 수백만이 볼 수 있게 되었고, 영화는 시간성과 공간성이 변형되는 감각적 외관 세계의 이미지를 제공하여 이미지는 공간적·물질적 외연을 상실하고 대신 영사되는 시간성에 따라 ‘집중’되었다고 하였다.¹³⁰⁾ 이와 같은 비릴리오가 지적한 이미지의 변화가 영화에서 비롯된다는 지점은 환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근대 한국의 환등회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미디어로서 환등의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한국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서구의 근대화와 산업화는 주권을 지키고 나라를 강병하게 하기 위한 모델이 되었다. 그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미국은 무시할 수 없는 열강 중 하나였다. 따라서 미국의 선교사들은 미국과 관계를 맺는 통로이자 네트워크였다. 선교사들이 환등회에서 보여주는 서구문물과 문화의 우월성은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무엇보다 획득하고 싶은 ‘지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조선 밖의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조선이 가야할 지향점이 어디인지 선교사들은 환등회를 통해 제시하였다. 서울YMCA은 그런 서구의 신문물을 소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창구였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선교사들이 환등회에서 보여주는 지식은 푸코가 말한

130) Ian James(2007). 앞의 책, pp. 86-87.

바로 ‘권력-지식’의 전형이었다. 권력 있는 자들이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환등회는 근대 한국에서 미국인 선교사들이 갖는 권력이 지식이 되고 또한 이들이 환등회에서 보여주는 지식이 권력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더욱이 환등회는 설명자가 중심이 되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강연하는 방식인 ‘교수-학습’의 형식을 취한다.¹³¹⁾ 이 지점이 환등회를 통해 권력과 지식이 교육으로 생산되는 과정이다.

근대 계몽기 미국 선교사들이 환등회에서 보여준 서구문물과 문명을 표상하는 이미지는 주권이 약해지던 조선에서 서구의 근대화를 뒤쫓아야 할 이미지로 수용되었다. 이는 세계사의 격동 속에서 서구의 것을 따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 주었다. 강요된 측면이 강하면서도 한편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체제에 편입하려 노력한 측면도 그에 못지않다. 대중적인 이미지 강연이었던 근대 환등회는 서구 문명에 대한 우월감을 이식시키고 전파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미디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등회는 선교사들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여주었던 하나의 창(窓)이었다. 환등회를 통해 교육된 서구 근대화의 우월함을 표상하는 이미지는 오늘날까지 그 힘이 지속되고 있다.

131) Stephen J. Ball(ed.).(1990). *Foucault and education: Disciplines and Knowledge*. 이우진 역(2007). 『푸코와 교육 : 푸코를 통해 바라본 근대교육의 계보학』. 고양: 창계.

IV. 일제강점기

: 일상으로서의 시각교육의 확장

1910년 한일합병조약으로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부분은 일제의 식민정책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 시기의 환등회 또한 식민정부를 중심으로 한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전환되었다. 근대 계몽기의 환등회가 미국의 선교사 중심의 서구 근대문명과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면, 일제강점기 환등회는 여러 층위의 다양한 양상들이 혼재하였다. 시기적으로 한일병탄 이후 10년이 지난 1920년대가 되면 환등이 국내에 처음 유입된 지 30년이 지난 시기로, 초기의 경성을 중심으로 열리던 환등회는 조선 전역에서 열리게 되었다. 또한 기독교 중심의 환등회에서 교육, 위생, 오락이란 주제로 다양해졌으며 환등회의 주최도 선교사, 조선 지식인, 식민정부로 확장되었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환등회의 특징은 환등회가 일상의 삶에 깊이 관계된 주제로 열렸다는 것이다. 교육환등회는 학교 수업에서 만이 아니라 문맹퇴치, 민족독립운동을 위한 사상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질병을 예방·억제하기 위한 목적의 위생환등회는 조선의 의식주 생활 전반, 민간요법, 전통풍습 등 물질적, 정신적인 영역에서 몸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열렸다. 그리고 여가·취미의 문화 영역에 관계하여 오락 환등회가 개최되었다. 19세기 말 기독교와 서구 근대문물을 주제로 한 환등회가 지식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쳤다면, 20세기 초중반의 환등회는 교육, 위생, 오락이라는 주제로 생활 영역 전반으로 깊이 파고들어 갔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조선인의 일상의 삶이 시각화되어 환등회를 통해 ‘교육’되었다는 것이다. 습득해야 할 지식의 기준, 위생이란 담론 하에 전통문화 및 풍습 중 버려야 할 것과 유지되어야 할 것이 정해지고, 즐겨야 하는 여가와 취향의 영역이 ‘선택’되어 환등회로 개최되었다. 일상 영역과 공공 영역이 모두 시각미디어인 환등을 통해 교육되었다.

부르디외(P. Bourdieu, 1979)가 문화취향이라 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인 미적 취향, 선호도, 개인의 아비투스(a)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바는, 근대 한국의 환등

회의 작동 방식에도 일정 부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¹³²⁾ 부르디외는 아비투스(Habitus)란 일정 방식의 행동과 인지, 감각과 판단의 성향체제로서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개인들에 의해 내면화, 구조화되고 육화되며 또는 일상적 실천들을 구조화하는 양면적 메커니즘이라 하였다. 아비투스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정한 기억과 습관, 사회적 전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교육제도에 의해 재생산된다. 따라서 교육 제도로 재생된 아비투스는 세대가 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형성된 생활세계, 개인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미적 취향, 선호도 등의 문화취향은 오늘날까지 잔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근대 조선인의 사적 영역에 깊게 영향을 미친 미디어가 바로 환등회였다. 당시 만들어진 조선의 표상은 시각교육 미디어인 환등회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이 장의 구성은 1절에서는 교육환등회로, 교육이란 주제로 학교 안팎에서 열린 환등회를 살펴볼 것이다. 환등회는 그 자체로 “교육”이나 “강습”의 일환으로 실시한 시각을 중점으로 한 교육활동으로 환등회는 시청각교육의 태동으로 볼 수 있다. 환등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관람하는 형태로 큰 규모의 교육 현상이었기에 조선인들에게 근대적인 ‘일반화된’ 시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2절에서는 질병과 위생이란 개념이 어떤 이미지로 표상되어 조선인들에게 교육되었는지를 위생 환등회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위생”은 근대의 키워드이기도 하며 따라서 위생환등회는 환등회의 초기부터 일제강점기 전체를 아우르며 그 주체도 조선의 지식인으로부터 선교사,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개최되었다. 위생환등회는 특히 1920년대와 30년대에 중점적으로 개최되었고, 그 주최자는 총독부 산하 경무국이였다. 시기와 주최자만 보더라도 위생환등회의 목적이 뚜렷해짐이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위생이라는 목적으로 포장되었지만 그것은 식민지인의 전통, 관습, 생활문화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활동의 일환이었다. 위생환등회는 시각을 앞세워 조선인을 격하시키는 차별화 정책의 일환임과 동시에, 질병으로부터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시혜’로 표상되었다.

3절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로서의 “오락” 환등회에 관하여 다루었다. 환등회는

132) Pierre Bourdieu(1979). *La Distinction*. 최종철 역(2006).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p. 13.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오락 및 교육적인 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환등회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모을 수 있었던 동기는 단연 환등회의 오락적 성격이었다. 근대 한국에서 환등회가 엔터테인먼트의 역할은 한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오락 환등회와는 질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차별을 이룬다. 한국에서 환등회는 1900년 초에 영화가 소개되기 전까지 그 자체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영화가 유입되기 전 커다란 화면의 총천연색의 실물과 같은 사진을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환등회도 엔터테인먼트로 받아들여졌다. 근대 한국의 오락 환등회는 목적이 오락이었음에도 여전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주최자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 장에서는 일상의 삶이 시각교육 미디어인 환등회를 통하여 이미지로 어떻게 표상되어 지배되는지를 교육, 위생, 오락이란 주제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대 시각교육의 확장 - “교육” 환등회

환등회는 그 자체로 시각교육 미디어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음악과 효과음 등의 소리가 환등과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시청각교육 미디어라 말할 수 있다. 근대 한국에서 환등기를 구입할 때는 축음기를 함께 구입하는 예가 많았으며, 미국과 일본 또한 환등회는 변사의 설명과 함께 음악, 노래, 효과음이 기본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모든 환등회에 음악 연주와 노래가 동반되지는 않았다. 특히 교육과 관련한 환등회는 시각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 없는 수업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음악이 없는 것이 때때로 수업 자체에 집중도를 더 높이기 때문이다.

근대 한국의 환등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바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는 “계몽적” 성격으로, 당시 열린 대부분의 환등회는 ‘위생교육’, ‘교육위생’, ‘사회교육’, ‘산업교육’ ‘교육장려’라는 제목에 “○○교육”이 달렸다. 그만큼 당시의 환등회는 한편으로 교육 환등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 “교육” 환등회라 명명한 환등회는 보다 직접적으로 교육활동과 관련된 환등회로, 첫째 학교 교육 안에서 실시된 시각교육으로서의 환등회 수업을, 둘째 문맹퇴치를 위

한 시각교육 미디어, 셋째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후원모금 환등회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학교 후원금 모집을 교육환등회로 분류한 이유는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장려” 환등회가 독립운동 진영에서 자주 열렸기 때문이다.

1) 환등을 이용한 과학수업

17세기 발명 당시 환등이 ‘유령쇼’ 및 오락 미디어였다면, 19세기에서 20세기 초 환등은 교실 안 다수의 학생들에게 동시에 이미지를 이용하여 가르치는 최초의 시각교육 미디어였다. 시각이미지를 투사하는 환등은 그 원리 자체로 시각교육에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말과 글로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을 환등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환등기를 구입하여 수업 기자재로 사용하려 함은 서구와 한국 모두 당연할 것이다.

1908년 7월 18일 기사에는 관공립과 보통학교 교감회의에서 “각 학교에 환등기를 설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¹³³⁾ 보통학교의 교감회의 협의사항에 환등기가 명시되어 있음은 그만큼 학교 수업에서 환등을 사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학교의 교감뿐만 아니라 지방 도청에서 지방비로 환등기를 구입하여 각 학교에 대여하려 하였으며,¹³⁴⁾ 독지가 개인이 학교에 환등기를 기부하기도 하였다.¹³⁵⁾ 이처럼 당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환등기가 학교 기자재로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환등을 사용한 시각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은 환등기를 구입

133) 「教監會提議件」. 『대한매일신보』(1908.7.19.). 각 학교에 환등기 보급 건의 외, 관공립과 보통학교 교감회의의 협의사항은 “학년말 학도 포상방법에 관한 건, 창가과(唱歌科)를 필요과(必要科)로 지정하고 학부(學部)에서 곡을 만들 건, 주산을 배울 필요가 있으니 몇 학년부터 가르칠지 정할 건, 학생의 훈련요목을 조사할 건, 필요한 도서기계를 조사할 건” 등이다.

134) 「地方費中購入」. 『황성신문』(1910.5.24.).

135) 「地方通信: 慶尙南道, 篤志寄附(咸陽)」. 『每日申報』(1914.6.26.) 기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함양군 安義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 李禎俊씨는 원래학계에 特히 有意하던바 今般 약 백 엔 가치의 환등기기 一組를 해교에 기부하였다는데 교육상 장래다수한 발전을 기하리라더라.”

하여 각 학교에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는 신문보도이다. 시각매체 미디어로 환등의 효과를 알고, 이를 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바람은 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인 교육 안에서는 시각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런데 근대 교과 교육을 보면 세계지리, 천문학, 식물학, 역사 등의 과목들이 커리큘럼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시각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

서구 교육의 수용 이후 전통교육과는 다른 교과과목의 변경과 함께 근대 학교와 전통적인 유학 교육기관과의 차이는 바로 수업공간의 변화이다. 칠판과 교수자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앞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수업 구도가 형성되었다. 교실이 교육의 중심을 이루는 공간이 되었고,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변화는 교육의 성격과 내용 변화를 동반한다. 교실을 중심으로 한 공간의 변화는 여러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환등회에서 중요하게 고찰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 교실 안에서 수십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학습하게 된 것이다.

교실에서는 스크린에 환등기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 학습 능률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환등기를 각 학교에 보급하길 건의하는 보통학교 교감회의는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으로, 이것이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각 학교 환등기가 보급되는 것은 별개의 일이었다. 환등기와 슬라이드, 광원(전기 또는 석회광), 스크린 등 환등세트 구매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보면, 1910년 지방비 중 교육에 관련한 예산안 항목에는 교육용 환등비, 교육품 전람회, 강습회, 학사시찰비 등이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각 지방에 배분된 비용은 한성 220원, 충남 430원, 전북 400원, 전남 650원, 경북 300원, 경남 500원, 함흥 300원으로 합계가 총 2,800원으로 할당되었다.¹³⁶⁾ 환등기 한 세트가 120원임을 감안하면,¹³⁷⁾ 이 지방비 예산으로는 환등기 구입이 어렵다는 것이 한눈에 확인된다. 한성에 배정된 220원의 교육비로는 환등기 세트 두 개를 사기에도 부족한 돈으로 당연히 각 학교마다 환등기를 보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이 예산은 환등 구입 비용 단독이 아니라 다른 교육 물품비의 합산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학교 수업에서 시각교

136) 「地方費와 教育事業」. 『황성신문』(1910.4.27.).

137) 「衛生幻燈映寫巡講」. 『동아일보』(1923.10.1.).

육을 위해 환등의 필요성은 절감하나,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각 학교마다 환등기를 구비하는 것은 20세기 초 한국에서는 요원한 현실이었다.

유사한 예로, 일본 문무성이 19세기 후반, 각 부현의 사범대학에 환등기를 배포하려 했으나 경비 부족으로 보급을 중단하고, 대신 환등기를 대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사례를 들 수 있다.¹³⁸⁾ 19세기 말이라 하지만 일본은 조선보다 교육 환경이 좋았고, 교육예산도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등을 각 일본 사범학교에 보급하는 것을 중단한 이유는 학교에서 환등으로 수업을 하려면 단순히 환등기와 환등 슬라이드만 구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스크린과 전기 설비 역시 요구된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일본의 학교에서는 석유램프 또는 밀랍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강한 밝기의 빛이 필요한 환등수업에 충분한 광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환등기 안에 사용하는 전구의 보급이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환등수업이 일본 전체 학교에 보급되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다만 일부 학교에서 환등수업이 이루어졌다. <도판 30>은 일본 사회과 환등수업 슬라이드로, 일본의 수업풍경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짧은 머리의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이들이 일본의 역사 그림을 숨죽이며 보고 있다. 교사의 환등 설명에 무엇보다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환등은 근대가 가진 가장 최적의 시각교육 미디어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19세기 말 일본 문무성의 환등기 보급 중단 사례를 비추어 보면, 20세기 초 조선의 모든 학교에서 용이하게 환등으로 수업하기는 쉽지 않았을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에서 환등을 사용한 기록들이 있다. 한국인 교사가 아닌, 미국인 선교사, 독일인 교사, 일본 학교 교사들이 환등으로 수업을 한 기사들이 다수 존재한다.¹³⁹⁾ 환등기와 환등회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고가여서 일반 보통학교에 보편적으로 시각교육으로 환등수업이

138) 岩本 憲兒(2002). 앞의 책, p. 147.

139) 「德校幻燈會」. 『황성신문』(1900.12.5.). 기사원문은 다음과 같다. “今日下午六時에 德語學校教師佛耶安氏가 德公使와 各部大官을 該校로 請하여 幻燈會를 行할터이다.”

「師設幻燈」 『황성신문』(1901.12.25.). 기사원문은 “仁港日語學校教師 巖崎厚大郎氏가 今日下午五時半 該家에서 諸般幻燈會를 設하고 學員과 有志人을 請邀하더라.”으로 인천항 일어학교 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학생과 유지를 불러 환등회를 열었다는 기록이다. 어떤 주제로 어떤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학교 교사가 환등기를 개인소지하고 있기에 이것은 학교에서도 환등으로 수업을 하였을 것이다.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기록들이 환등수업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 중 아주 구체적인 학교 환등수업 기록이 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 윌리엄즈(Frank E. C. Williams, 한국이름 禹利岩, 1883-1962)의 식물과 동물학 수업에 환등을 사용한 예이다.

선교사 윌리엄즈는 1906년에 공주 지역에 파송되어 영명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34년 간 교육 선교를 해왔다. 그의 공주 고등학교의 교육 보고서(1914-1915)에 따르면, 식물학과 동물학 수업에 환등 슬라이드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¹⁴⁰⁾ 환등 구입 경로를 보면 재교육 및 휴가 차 갔던 미국에서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환등기와 슬라이드 세트를 기증받아 왔다. 윌리엄즈는 덴버 대학(Denver University)에서 일 년 동안 과학과 신학부 수업을 들으며 미국에 체류하였고 이때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선교활동을 환등회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환등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미국에서는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보편적인 미디어였음을 알 수 있다.

윌리엄즈가 미국에서 환등기와 슬라이드 일체를 후원받아 왔다는 것은 윌리엄즈가 영명학교 수업시간에 사용한 슬라이드 모두 미국에서 제작, 유통된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윌리엄즈 보고서에는 오직 글로만 환등회의 기록이 남아있어 이미지의 공백이 생긴다. 이것을 동일 시기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유통되어 사용된 환등 슬라이드와의 비교를 통해 조선의 학생들이 본 시각이미지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시 미국 초중학교의 대표적인 시각교육 미디어는 환등과 입체사진으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입체회사 중 하나인 키스톤뷰사는 회사 내에 교육국을 설립, 미국 각 영역의 교육자를 운영위원으로 초빙하여 환등과 입체사진 수업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환등과 입체사진 각 600장은 *Visual education; teachers' guide to keystone "600 Set"*라는 이름의 가이드북과 함께 일선학교에 보급되었다. 이 가이드북 서문에 “키스톤뷰사는 물리적, 정치적 그리고 상업적인 지리, 미국 역사, 자연에 대한 연구, 예술과 공예, 가정학, 국제 산업과 건축을 도해로 설명하기 위해 환등과 입체사진을 학교에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⁴¹⁾ 이 “600 Set”

140) Frank Earl Cranston Williams. “East and West Kong Ju District, Educational Report 1914-1915”. *Kong Ju Higher Common School*. Korea Methodist Mission.

141) Keystone View Company(1922). *Visual education; teachers' guide to keystone*

에 사용된 사진은 입체사진 판매회사였던 키스톤뷰사의 사진 표상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세계 각국의 자연경관과 사람들의 모습을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으로 재현하였다. 이 "600 Set"에 한국(Chosen) 사진 슬라이드 2장, 중국 6장, 일본 12장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윌리엄즈 선교사가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수업용 슬라이드 종류는 무궁무진하였고 본인이 직접 슬라이드를 제작할 수도 있었다. 그 중 윌리엄즈가 구매한 슬라이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미국 풍경 슬라이드 60장과 함께 식물학 및 동물학 슬라이드 120장을 후원받았다. 여기에 커틀러 박사(Dr. Cutler)가 50장의 슬라이드를 더 주었다고 한다. 윌리엄즈 선교사는 이 슬라이드를 공주 학교에서 식물학과 동물학 수업 때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이 매우 흥미로워해 유익했다는 후기를 남겼다. 수업에서 환등으로 "사과나무의 횡단면 세포를 화면으로 보았는데 그 크기가 벌집의 구멍 같고, 파리 다리가 사람의 팔처럼 크게 보였다."며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묘사하였다. 파리 슬라이드는 <도판 31>과 비슷한 이미지를 보았을 것이다. 스크린에 사람의 팔만큼 확대된 파리의 다리를 보았을 때 학생들은 어떠했을까? 교과서에 실린 작은 크기의 파리와 유충 그림<도판 32>과 비교하여 환등으로 크게 확대된 파리 그림은 수업의 집중도를 높였을 것이다.¹⁴²⁾ 윌리엄즈 선교사가 동식물 슬라이드 이외 가져온 60장의 미국 풍경 슬라이드로는 자신의 출신국가인 미국에 대하여 알리기 위한 환등회를 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윌리엄즈 선교사가 동식물, 미국 풍경 슬라이드 이외의 다른 슬라이드를 구입하였다는 보고는 없다. 커틀러 박사가 준 슬라이드는 동식물 슬라이드였던 것 같다. 기독교 교리 등 성경 내용을 담고 있는 슬라이드 또는 오락용 슬라이드를 추가로 구입하지는 않은 것 같다. 수업 내용 이외에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오락용 슬라이드와 같은 것들은 없었다. 한편, 윌리엄즈 선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등으로 학교 밖에서도 환등회를 자주 열었다. "공주 거주 미국 선교사 우리암 씨는 교회발전상의 동서양 물질적 문명의 색채를 특히 일반 교우에게 환등으로써 감상케 하기 위하여 강경에 도착"하였으며 교회 안에서 개막된 환등회는 대갈채를 받았다는 기사이다.¹⁴³⁾ 그 외, 충남

"600 Set". Meadville, Keystone View Company, p. vii.

142) 朝鮮總督府(1923-25). 『普通學校理科書: 兒童用』. 京城: 朝鮮總督府 p. 21.

강경 교회 봉헌식에서 “미국과 조선 금강산 풍경 등의 환등과 활동사진을 영사, 천여 명의 군중은 무한한 감흥을 얻고 하오 11시에 산회”하였다는 기사로 보아, 여러 곳에 초청되어 환등회를 열었음을 알 수 있다.¹⁴⁴⁾

환등회가 시각교육 미디어로 유용하다는 것은 이미 당시의 교육 종사자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일례로 교육가인 유억겸(兪億兼, 1896-1947)은 동아일보사 주최 <科學데이 實行會主催 科學知識普及 座談會>에서 “활동사진은 글 모르는 분에게 매우 좋은 선전 방법인즉 신문사와 서로 연락하여 각 지방으로 순행하면서 활동사진 또는 환등으로 과학지식을 선전 보급하였으면 껍 유효할 것이올시다.”라 하였다.¹⁴⁵⁾

이상과 같은 윌리엄즈 선교사를 비롯하여 식물학, 동물학 수업 도구로서 환등은 그 자체로서 시각교육이었다. 따라서 시청각 교육의 시작을 해방 이후로 삼는 한국 시청각 교육사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2) 문맹퇴치 환등회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환등회는 1920년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최되었다. 학생들이 여름 순회환등회를 조직하여 학교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과 시골에서 단기적인 문맹퇴치 운동을 벌였다. 심훈의 『상록수』가 보여주듯이 문맹퇴치를 통해 조선인을 계몽시키고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환등회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식민정부 역시 문맹퇴치를 위한 환등회를 열었다. 총독부의 교육정책은 조선인의 고등교육을 금지시켰으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정도의 저급한 단계의 교육, 기술교육은 장려하였다. 문맹퇴치와 같은 기초적인 교육은 식민정책으로 정당화되었다.¹⁴⁶⁾ 이는 식민정부에 복무할 수 있는 조선인 육성과 동화정책이라는 식민정부의 허울 좋은 명목 하에 이루어졌다.

143) 「강경교회환등회」. 『동아일보』 (1921.3.24.).

144) 「교회당봉헌식」. 『동아일보』 (1925.5.29.).

145) 「科學데이 實行會主催 科學知識普及座談會」. 『동아일보』 (1934.4.24.).

146) 김한중(2009).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교과서 발행」. 『역사교육연구』 (9).

‘문맹의 퇴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제와 식민지 조선인 모두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였다. 그러나 한글의 보급이라는 차원에서는 일제와 식민지 조선인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문자의 보급이 필요한 새로운 변화된 시대’에 식민이라는 공간 안에 일제와 식민지 조선인은 동상이몽이었다. 글을 가르칠 때 일제는 일본어를, 식민지 조선인은 한글을 가르치려 하였다.¹⁴⁷⁾ 따라서 환둥회를 통한 문맹퇴치는 조선인이 주도했는지, 일제가 주도했는지에 따라 한글, 일본어라는 다른 언어를 가르쳤다.

일제의 언어정책에 대응한 민간의 한글보급운동은 조선어학회의 한글운동, 한글성경 보급 등 선교라는 차원의 기독교 문맹퇴치운동, 조선일보·동아일보의 한글보급을 들 수 있다.¹⁴⁸⁾ 이와 같이 한글보급을 통한 문맹퇴치라는 목적은 같으나 그 실행 주체들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실행 주체들의 공통점은 문맹의 퇴치에 환둥회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문맹퇴치와 한글보급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아닌, 환둥회가 문맹퇴치 운동에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즉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환둥회가 학교라는 제도권 밖의 시골 지역에서 이뤄진 교육활동에 사용된 매체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때 환둥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환둥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둥회의 오락성을 이용해 사람들을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기능이다.

다음의 자료는 문맹퇴치 및 교육장려에 환둥이 사용된 사례를 보여준다. <자료 8>은 동아일보 기자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교육계, 사상계, 경제계 인사를 만나 당시 사회적인 문제를 고발하는 내용 중 교육계와 관련한 면담의 일부이다.

<자료 8> 「東亞日報 記者 地方巡廻 正面側面으로 觀한 鍾城의 表裏」

군내에 변변한 중학교 하나가 없다. 관립의 고등보통학교나 농업학교가 없는 것은 산읍이니 부득기한 일이라 할지라도 보통학교 이상의 학동을 교양할 민간의 보습학

147) 박정우(2001). 『일제하 언어민족주의: 식민지 시기 문맹퇴치/ 한글보급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48) 위의 논문, pp. 27-34.

교와 흔히 있는 서양 선교사 경영의 중등학교조차 하나도 없는 형편이다. <중략> 향리에는 언문도 모르는 父老가 있고 市區에는 신문 한 장 못 보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교육열을 고취시키자면 정당한 학교교육을 받게 하는 것보다 신문 잡지 강연 등 보편적 사회교육을 시켜 발의케 할 것이다. 필요하고 가장 쉽고 빠른 길일 것이다. 이전에 함경북도 知事이던 帆足씨는 이 점을 깨닫고 자신이 환등과 통속강연을 하러 다녔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촌로들이 기억하고 그때의 개화를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자를 한글로 변경은 필자)

출처: 『동아일보』 (1925.4.20.)

이 글은 교육열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교육이 아닌 신문, 잡지, 강연 등의 사회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인 호아시(帆足)가 촌을 돌면서 환등으로 강연을 하였던 예를 들면서, 언문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환등 강연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말한 교육열의 고취를 위한 호아시의 환등과 통속강연은 일제 식민 정책과 같은 기조로 조선인을 일제의 ‘신민(臣民)’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선천기독교 청년회 주관의 문맹퇴치 운동에 대한 다음의 자료를 보자. 이 기사는 기독교 청년회의 농촌사업의 일환으로 야학을 통해 국문(한글)과 숫자를 가르쳤다는 내용으로 이후 사업의 육성을 위해 환등을 사용하여 농촌을 순회 방문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자료 9> 「各面洞에 夜學部設置-宣川基督教 農村事業」

선천기독교 청년회에서는 농촌사업에 착수하였다함은 기보한 바어니와 그동안 각 촌으로 순회하며 우선 야학부를 설치하여 문맹퇴치에 노력하였는데 벌써 십 여처에 야학생 수백에게 국문과 숫자 등을 교수하였다하며 앞으로 사업의 발전을 위해 환등을 휴지하고 각 촌으로 순회할 예정이라는 바 먼저 문맹퇴치에 주력하고 따라서 농촌문화계발과 산업장려에도 상당한 힘을 드리라는데 동회에서는 일반사회인사의 직간접 협동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선천) (한자를 한글로 변경은 필자)

출처: 『동아일보』 (1926.1.23.)

선천기독교 청년회가 야학에서 국문과 숫자를 가르치며 이후 환등을 사용해

문해교육 등의 농촌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초등학교의 글자와 숫자를 가르치는 데 사용했던 슬라이드인 <도판 33>과 <도판 34>는 그림 일러스트로 오늘날 유아용 수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로 낯설지 않다. 이와 유사한 그림의 슬라이드가 한글과 숫자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근대 한국에서 환등회를 이용하여 문해교육을 실시한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동일 시기인 1920년대 중국에서 환등을 통해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했던 사진이 있어 한국의 상황을 비교 유추해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1920년대 대중교육운동국가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Mass Education Movements)을 발기하여, 문맹퇴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운동의 중심인물인 제임스 옌(Y. C. James Yen, 晏陽初, 1890-1990)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국제 YMCA 활동에 참여한 후 귀국하여 중국 농촌재건운동을 펼쳤다. 환등을 통한 문해교육을 보여주는 사진 슬라이드가 중국 YMCA가 제작한 환등교본인 <China>에 삽입되어 있다. <도판 35>는 벽면의 커다란 스크린에 한자 ‘平’자가 환등으로 영사되어 있다. 이를 교수자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으며 학생들이 손가락으로 직접 글자를 써보고 있다. 이 사진을 통해 환등이 어떤 방식으로 문해교육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환등이란 한국 근대의 여러 사람을 동시에 교수가 가능한 최초의 시각미디어였다.

위의 두 기사에서 보면 ‘문맹퇴치 운동’이란 단순히 글자(한글,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식민정부 주최의 문맹퇴치는 일제의 식민 사상을 동시에 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민족운동과 기독교의 문맹퇴치 운동은 각기 독립과 기독교 선교라는 주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읽고 쓰기를 배우는 행위는 바로 세계를 읽는 행위에 대한 포괄적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으로, 문해라는 것이 지배적인 표준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기능만 가졌다고 할 수 없다.¹⁴⁹⁾ 결국 문맹퇴치와 문해교육에 있어 언어란 문화이며, 지식을 매개하는 힘이며 지식 그 자체이기도 하다.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교육이 실시하는 언어교육은 언

149) Paulo Freire and Donaldo P. Macedo(1987). *Literacy: reading the word & the world*. 허준 역(2014). 『문해교육: 파울로 프레이리의 글 읽기와 세계 읽기』. 서울: 학이시습, p. 141.

어의 내용보다는 언어적 형식에만 치중하며, 또한 식민 정권의 사상을 식민 권력의 언어를 통해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환등회가 문맹퇴치의 주요 시각미디어로 사용된다는 것의 의미는 물론 여러 대중을 한 곳에 모여 글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환등을 통해 그리고 언어교육을 통해 환등회 주최자의 언어/지식을 이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3) 민족운동으로서 환등회

근대 교육미디어의 새로운 출현인 환등회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환등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는 선언은 미디어 자체의 영향력이 그 미디어가 담고 있는 내용과 정보를 능가하는 강력함을 지니고 있음을 함축한다.¹⁵⁰⁾ 미디어가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닌 미디어 자체가 지니는 힘에 대한 것이다.

환등회라는 미디어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용하였던 대표적인 이들은 미국의 개신 선교사들과 일제 식민정부였다. 따라서 근대 한국의 환등회는 이 두 대표적인 지배자들에 의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민족주의 진영 또한 환등회를 통해 독립정신과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일례로, 김구는 “1909년 10월 환등기를 가지고 황해도 각 군을 순회하며 강연회를 열고 계몽운동에 힘썼다.”고 일기에 적고 있다.¹⁵¹⁾

민족운동을 목적으로 개최한 환등회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라고적환등회, 간도사정환등회(間島事情幻燈會), 천도교 주최의 민족주의 환등회, 그리고 한국의 식민지 상황을 알리려는 독립운동으로서 해외 환등회이다. 이 네 부류의 핵심은 “교육 장려”였다.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따라서 어

150) M. McLuhan(2003).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W. Terrence Gordon(ed.). CA: Gingko Press. 김상호 역(2011).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51) 김구 & 배경식 편(2008). 『백범일지』. 서울: 너머북스. p. 663.

린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 재정난에 허덕이는 간도의 동명학교와 경주 계남(啓南)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것, 천도교가 어린이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모두 “교육 장려”로 통한다. 단지 이것을 환등회로 보여주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은 환등은 시각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리며 사람들의 호응과 동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일제 식민치하에서도 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이에 경영난으로 위기에 처한 학교들은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경주 계남학교는 경영난에 처하자 학부형이 ‘경주고적환등사진대’를 조직하여 전국순회하였다. 이 순회단은 “신라 사천여년의 고적사진을 사진으로 영출(影出)하며 환등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 단원 중 독창”도 병행하였다.¹⁵²⁾ 신라 역사를 계남학교의 역사와 연결해 설명하며, 학생들의 독창도 넣어 하나의 공연으로 꾸렸다. 이 계남교사진환등회가 얼마나 성황을 이루었는지는 “관객이 700여 명이 넘었으며 오후 7시에 시작하여 무한한 호응 후 11시에 산회하였다.”는 기사로 보도되었다.¹⁵³⁾ 총 4시간 동안 열린 환등회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창이 섞여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도 하였겠지만, 환등이라는 미디어의 힘에 연유한다. 언어로만 전달되는 강연이었다면 장시간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경주에 위치한 계남학교가 학교 후원금 모금의 주제로 삼은 것이 바로 “경주고적” 환등회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경주에 자리하고 있기에 계남학교의 정체성을 경주의 문화재의 가치와 동일시하면서 학교의 존립 이유를 피력하는데 경주고적 환등회는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경주의 고적, 유물이 일본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것이며, 경주 유적지가 사진 이미지로 창출된 것도 바로 일본 사진가에 의해서이다. 경주의 유적과 유물은 도쿄와 교토 제국 대학의 훈련받은 건축가, 고고학자, 예술가 그리고 전문적인 사진가들에 의해 기록되었다.¹⁵⁴⁾ 일제 식민지 시기 초기 학문적인 기록이나 대중매체를

152) 「慶州古蹟幻燈寫眞」. 『조선일보』 (1924.1.5.).

153) 「啓南幻燈寫眞會盛況」. 『조선일보』 (1923.11.23.).

154) P. Hyung Il(2011). "Tracing Japan's Antiquity: Photography, Archaeology and Representations of Kyōngju". Shigemi Inaga(ed.). *Questioning Oriental Aesthetics and Thinking: Conflicting Visions of "Asia" under the Colonial Empires*. Kyoto: Internation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Publication, pp. 289-316. 경주 고적조사의 일본인 핵심연구자는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1868-1935),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3),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 구로이타 가츠키미(黑板勝美, 1874-1946)

통해 유포된 고고학적 사진들은 조선의 가장 오래된 유적지로서의 경주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창출되고 조작되는 데 공헌했다.¹⁵⁵⁾ 중요한 점은 일제의 의해 만들어진 경주의 이미지가 당시 사람들에게도 정서적이고 진정성 있는 호소력으로 다가갔다는 점이며, 경주가 가지는 이미지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한국의 관광 이미지 구축에 시각적인 가이드 역할을 한다.¹⁵⁶⁾

간도사정회의 시작일과 그 의의를 알리는 사설은 간도사정회가 어떻게 독립운동과 관련되는지 알게 한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재외동포가 생긴 연원을 세 단계로 설명하며 서두를 시작한다. 1단은 “일제의 무력 아래에서 침묵을 지키며 빛 없는 향국산천에서 남모르는 고통을 신음하던 중의 지사들이 최후의 눈물을 머금고 친척과 작별하여 정처없이 만리객토를 향해 나간 것”, 2단으로 “개중에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신생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자진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 중에 간 이도 있”으나 이들은 소수이며, 지금의 3단은 “경제적 구축을 당하는 생활난으로 인하여 떠나고자아니하여도 떠나지 아니할 수 없는 막달은 길에 다다랐다.”는 재외동포의 발생 연원은 재외동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의 생활은 “생명의 보장이 없고 활동의 자유가 없는 냉혹한 환경, 고독한 세월 속에서 얼마나 피가 끝었으며 눈물이 쏟아”지며 게다가 “황막한 지대 쉼없는 기근으로 아침에 저녁을 꺾할 수 없는 비경이야 보지 아니하여도 넉넉히 상상할 수 있다.”며 재외동포의 극빈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사설의 마지막은 간도사정회를 실시하는 이유와 시작일로 끝을 맺는다. 북간도가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북간도는 북만주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이들의 상세한 사정을 알고 동족의 가련한 생활 현상을 조사, 관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커 이번에 “간도에 있는 동흥중학의 주최로 간도 용정촌 부근과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의 광경이며 북경일대의 형세를 실사한 환등회를 전조선 지방에 순회 소개케 되어, 지난 28일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 한다.”

간도의 상황을 실사(實寫)한 환등회는 기부금 모금을 병행하였다. 간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어려운 생활을 동흥중학교 주최, 순회환등회를 조선 각지에서

이다.

155) 배형일(2016.12). 「경주 유적의 낭만: 일제식민지시기 고고학사진과 관광이미지」. 문옥표 외. 『동아시아 관광의 상호시선: 근대 한중일 관광지형의 변화』. 한국학 중앙연구소, p. 158.

156) 위의 논문.

열었다. 이 간도사정 순회환등회가 있는 지 2년이 지나선 다시 경영난으로 폐교 위기를 맞은 간도 동명학교 후원모금을 위한 순회환등회가 조선에서 열렸다. 「間道東明學校維持 故國巡映團來京」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간도실사영사단이 상영하는 환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¹⁵⁷⁾ 영사 종목은 간도의 현재모습과 역사라는 두 주제로 나뉘는데, 첫 번째 주제인 간도 60여 년간 사정(事情)은 간도의 지세, 개척과 명칭, 청과의 경계, 관청시설, 교육기관, 사회현상, 도시실상, 교통기관, 산물을 보여주고, 두 번째 주제로 반만년 북강형세 단국통일시대, 부여시대, 고구려시대, 발해시대, 여진시대, 김국시대, 만주사국사대, 그 외 고적을 상영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간도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후원금 모집을 위해 환등회가 개최되었다. 순회환등회는 보름에서 한 달에 걸쳐 각 지역에서 열렸다. 그럼, 왜 이 간도모금회가 환등회로 열린 것인가? 이는 환등회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미디어로 받아들여졌고, 동시에 환등회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간도의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는 사진은 사람들의 동의와 감흥을 얻어내기 쉬웠을 것이다. 이때 간도가 이국땅이 아닌, 조선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증거로 유적지 사진을 영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경주 계남학교가 학교 후원금 환등회에서 상영한 것이 바로 신라고적임을 상기한다면, 간도 동명교 후원모금환등회에서 만주지역의 고적사진을 보여주었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해외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한 환등회는 다음과 같다. 1년간의 독립운동의 경과를 보고하는 내용 중 “대통령 이승만박사는 미국인 와이더홀드씨를 대동하고 미주 각계에 순회하여 우리의 실력과 일인의 만행을 환등과 연설로 선전하여 다수의 한국독립후원회원을 모득하다.”¹⁵⁸⁾ 1919년 3.1운동 이후 해외 독립자금모금 환등회에서 이승만은 “조선민중의 시위운동의 실경과 일인의 잔인무도한 악행만행을 촬영한 것을 환등판으로 작성하여” 미국인들에게 보여주었다.¹⁵⁹⁾는 기사는 환등회만큼 당시 조선의 실상을 해외에 효과적인 미디어가 없음을 말해 준다.

157) 「間道東明學校維持 故國巡映團來京」. 『동아일보』 (1926.5.15.).

158) 「過去 一年間 우리의 獨立運動」. 『독립신문』 (1921.1.1.).

159) 「李大統領의 美國遊說」. 『독립신문』 (1920.2.5.).

2. 보건 위생의 시각교육 - “위생” 환등회

공중보건과 위생은 근대의 주요한 이슈였다. 이를 알리기 위한 위생환등회는 가장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열렸던 환등회의 주제였다. 위생환등회는 근대의 공중보건을 대중에게 교육시키는 핵심 미디어였다. 공중보건캠페인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다. 유럽 전역과 미국에서 공중보건운동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와 건강 문제의 대응으로서 사회 개혁자에 의해 촉발되었다.¹⁶⁰⁾ 철도와 운송수단의 발전에 따라 전염병이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빠르게 이동됨으로써 공중보건은 비단 유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¹⁶¹⁾ 공중보건캠페인은 제국주의 팽창으로 전락한 식민지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인의 건강은 식민지의 노동력, 세금, 제국의 운영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식민지에 병원과 위생시설 등의 보건과 관련된 인프라를 발전시켰다. 동시에 근대 병원의 출현과 근대 의학기술의 발달은 전쟁기간과 영토의 지리학적 팽창 시기 군대의 주둔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였다. 식민지의 공중보건캠페인은 시각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서구의 문명화와 사회진보 정신을 장려하는 이미지가 사용되었다.¹⁶²⁾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서구뿐만 아니라 비서구 식민지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공중보건캠페인은 시각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캠페인의 내용은 서구의 근대의학과 진보가 식민지국가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논리에 따라 식민지국의 전통의학과 문화는 서구학과 문화에 대하여 열등한 위치에 놓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교육되어졌다.

한국에서 위생의 문제가 주요하게 부각된 시기는 1876년 개항과 더불어 개

160) 특히 1832년 치명적인 아시아 콜레라가 유럽을 강타하면서 일으킨 공포는 전염병의 사회적 문제의 절정을 보여주면서 질병에 대한 본질적인 개혁을 가져왔다. E. Fee & R. Acheson(ed.)(1991). *A history of education in public health: Health that mocks the doctors' rul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5-16.

161) G. Rosen(1958). *A History of public health*. New York: MD Publications.

162) David Serlin(ed.)(2010). *Imagining illness: Public health and visual culture*. Minneapolis, MN;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xxi.

항장이라는 새로운 질병의 창구가 개방되면서이다. 개항으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 유통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는 전쟁과 질병 확산의 매개 고리가 되었다. 개항 이후 가장 대표적인 급성전염병으로는 두창, 콜레라, 페스트 등이 있었으며 만성전염병으로는 성병, 결핵, 한센병 등이 있었다.¹⁶³⁾ 이에 따라 질병 유행에 대한 근대적 질병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국가적 검역을 실시하고 법정 전염병을 제정, 제도화하는 질병관리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효과적인 질병통제를 위해 서양식 전염병예방법과 치료법이 적극적으로 채택되었다.¹⁶⁴⁾ 1894년 7월 30일 내무아문 아래 위생국이 설치되어, 전염병 예방, 의약, 중두시술, 검역, 의사, 약제사, 약품 판매에 대한 관리 업무 등의 보건의료 및 위생전반을 관장하게 되었다.¹⁶⁵⁾ 한일병탄 이후에는 경무총감부 경무과 산하에 위생과가 놓여졌다.

위생이란 개념은 19세기 후반에 생긴 것으로 일본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¹⁶⁶⁾ 전염병 등 질병의 창궐을 막기 위해서 개인의 주거공간까지 통제해 들어갔으며 이것은 생활풍습 전반에 대한 통제와 맞물려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선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당시 위생에 관한 강연이 확산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염병의 원인인 세균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존재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았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세균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었다.¹⁶⁷⁾

질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방식은 세균뿐만이 아니었다. 신체 장기

163) 대한감염학회(2009). 『韓國傳染病史』. 서울: 군자출판사, p. 319.

164) 위의 책, pp. 320-321.

165) 황상익(2013). 『근대 의료의 풍경』. 서울: 푸른역사, p. 68.

166) ‘위생’이란 단어는 독일어 ‘Gesundheitspflege’를 일본어 ‘위생(衛生, えいせい)’이라 번역한 신조어이다. 일본 메이지정부가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파견한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 1871-3)의 일원인 의사 나가노 센사이(長與專齋, 1838-1902)의 번역어이다. 위생이란 단어를 보면 ‘생명을 지킨다’라는 의미이다. 나가노 센사이는 1873년 문부성에 위생국을 설치하여 자신이 초대 위생국 국장이 되었다. 그는 전국 위생사무의 요령, 지방의 위생과 행정요원 배치, 장티푸스·콜레라·두창·마진(홍역) 등의 전염병 관리를 포함하는 공공의료, 의료교육, 병원의 기초와 투약의 규제, 약의 유통까지 제도화하려 하였다. 강성우(2015). 「개항기 조선에서 근대적 위생문화의 수용」. 『한일관계사연구』, 52, p. 319.

167) 권기하(2010). 『1910년대 총독부의 위생사업과 식민지 ‘臣民’의 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56.

역시 시각화되어 교육되었다. 또한 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 콜레라에 오염된 가옥, 그리고 ‘불결한’ 생활환경이 시각화되었다. 위생에 관한 담론이 시각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위생환등회였다. 위생환등회는 이미지를 동반한 위생 강연회로, 세균과 질병, 그리고 ‘불결한’ 환경을 눈으로 직접 보여줌으로써 위생의 문제를 실제적인 문제로 전환시켰다. 환등회를 통해 눈으로 직접 세균들과 질병들의 모습을 확인한 사람들은 ‘위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1) 의료선교로서 “위생” 환등회

한국의 의료선교의 시작은 1884년 의료선교사 알렌(H. N. Allen)의 입국과 이듬해 제증원이 설립되면서이다. 초기 선교사들이 바라본 한국은 ‘더럽고 불결한 오염된 곳’¹⁶⁸⁾이었으며 천연두, 말라리아, 장티푸스, 재귀열, 이질 등의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¹⁶⁹⁾ 19세기에 전염병 중 콜레라의 사망률은 압도적이었다.¹⁷⁰⁾ 콜레라를 비롯한 급성전염병 창궐에 대비한 질병관리체계와 질병보고체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1897년 내무아문 안에 위생국이 설치되었고 위생국은 전염병 예방사무, 의약, 우두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였다.¹⁷¹⁾ 그러나 위생국과

168) 선교사들이 묘사한 한국의 첫 이미지는 불결함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끼 낀 물웅덩이와 시궁창이 돌레에 있어서 불쾌한 냄새와 지독한 독성이 있는 수증기를 내뿜는다. 그곳은 야수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말라리아균이 습기 찬 밤공기에서 몸에 스며드는 곳으로 유명하다.” L. H. Underwood(1904).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Boston: American Tract Society. p. 42.

“좁은 진흙 도로의 여기저기에 파여 있는 웅덩이에는 썩은 물이 고여 유독한 냄새(poisonous odors)로 공기를 오염 시킨다.” J. S. Gale(1898). *Korean sketches*. Toronto: William Briggs, p. 27.

169) 대한감염학회(2009). 앞의 책, pp. 319-324.

170) 국내 콜레라 기록을 보면, 1821-1822년, 1859-1860년, 1862년, 1895년 네 번의 대유행이 있었다. 그 외 개항 이후 1879년, 1885년, 1886년, 1888년, 1890년, 1891년으로 1880년대 중반에는 매해마다 콜레라가가 창궐하였으며, 다시 1895년 대유행에 이어 1902년, 1907년, 1909년, 1910년의 유행이 있었다. 콜레라는 교역·교통의 발달, 불결한 위생환경, 도시의 성장과 인구의 밀집, 홍수와 청일전쟁 등에 원인을 둔다. 신동원(1989). 「조선말의콜레라유행, 1821-1910」. 『한국과학사학회지』, 11(1).

171) 대한감염학회(2009). 위의 책, p. 328

위생경찰은 콜레라의 유행에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낸 콜레라 퇴치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이들은 에비슨(O. R. Avison)을 중심으로 한 의료선교사들이었다.¹⁷²⁾ 이렇듯 의료선교사들은 개항 이후의 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서구의학의 발전과 필요성을 증명하였다.

의료선교는 무엇보다 의료를 통한 기독교 선교에 목적이 있었다. 이에 병원의 질병치료 사업을 우선으로 두면서 동시에 질병의 예방법과 올바른 건강 상식에 대하여 알리는 보건 위생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보건 위생 캠페인은 팸플릿 배포, 환동회와 활동사진 상영 등 시각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¹⁷³⁾ 이 중 환동회는 슬라이드를 상영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강의를 하기에 효과적으로 질병예방과 질병에 관한 지식을 교수할 수 있었다.

선교사의 위생환동회의 신문지상의 첫 기록은 1908년 3월 12일 서울YMCA에서 대한의원 의사 스크랜턴(W. B. Scranton)의 위생실험환동회이다.¹⁷⁴⁾ 석 달 후 치과 선교의사 한(D. E. Hahn, 1874-1923)의 치과의 필요성에 관한 환동회가 열렸다.¹⁷⁵⁾ 안과에 관한 환동회 역시 서울YMCA에서 열렸다.¹⁷⁶⁾ 1910년 이전의 선교사들의 위생환동회는 서울YMCA를 중심으로 하며 치과, 안과 등의 질병에 관한 소개에 머물렀다.

선교사들의 공중보건사업이 체계를 가지고 실시된 시기는 1920년대에 들어서이다. 공중보건사업으로 나환자사업과 폐결핵환자사업, 유아보건사업 등이 조직적으로 실시되었다. 당시 공중보건사업은 한국인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었으며 선교사들은 시각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20세기 초중반 보건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질병은 폐결핵이었다. 1928년 세브란

172) 이만열(2003). 『한국기독교의료사』. 서울: 아카넷, pp. 156-157.

173) 에비슨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포스터와 팸플릿을 제작하여 병원과 각 지방의 사경회를 통해 배포하였다. 사경회에서는 팸플릿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팸플릿의 제목은 많이 읽히기 위하여 눈에 띄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목은 천연두와 예방접종, 모기와 말라리아, 이와 장티푸스, 벼룩과 재귀열, 파리와 장티푸스, 이질과 인분을 사용한 논밭의 구충과 여러 장기생충들이었다. O. R. Avison(1939). "Some High Spots in Medical Mission Work in Korea - Part III". *The Korea Mission Field*, June 1939, p. 122.

174) 「청년회환동」. 『황성신문』 (1908.3.12.).

175) 「幻燈兼設」. 『황성신문』 (1908.6.9.).

176) 「靑會幻燈」 『황성신문』 (1908.10.15.).

스 항결핵협회(Anti-Tuberculosis Society)가 조직되었으며 해주 구세요양원이 개원하게 되면서 한국의 결핵퇴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¹⁷⁷⁾ 1928-1929년 항결핵사업 보고서에는 배화학교, 이화학교, 경신학교와 3개의 성경학교 학생 1,400명에 대한 폐결핵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74명의 학생에게서 폐결핵균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44명의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으나 17명은 중증으로 격리되었으며 이후 사망하였다고 적고 있다.¹⁷⁸⁾

이와 같은 폐결핵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폐결핵에 관한 계몽교육이 강조되었다. 세브란스 항결핵협회의 교육은 환등 슬라이드와 활동사진 상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세브란스의학교, 세브란스간호학교, 동대문병원의 학생들, 이화학교, 배화학교 및 다른 여러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정동교회와 복음센터의 학생들에게 환등회를 상영하였다. 이때 사용한 환등 슬라이드는 미국결핵협회(American National Tuberculosis Society)가 제작한 것으로 해주 구세요양원의 홀(Sherwood Hall) 의사를 통해 받은 것이었다.¹⁷⁹⁾

한국에서 최초로 결핵요양원을 세운 홀 의사는 결핵퇴치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더 많은 영양소와 무료 결핵병원 설립, 결핵 관련 연구기금 모금, 그리고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들었다. 홀은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결핵 관련 글을 번역, 출판하는 것과 다양한 신문과 인쇄매체로 기사를 싣는 것 그리고 결핵과 관련한 활동사진, 강연 그리고 라디오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⁸⁰⁾ 홀 의사는 무엇보다 환등회와 활동사진을 중심으로 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홀 의사가 환등회와 활동사진을 사용하여 환자와 학생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사진이 존재한다. 해주 구세요양원의 10주년 기념 앨범에 홀 의사가 환등기와 영사기 겸용 기기 앞에 서 있다.<도판 36> 이 앨범 속 홀 의사가 환등기를 잡고 있는 사진과 마틴(S. H. Martin, 1930)의 결핵 및 보건교육을 위한 환등회를 실시하였다는 글을 통해 선교사들의 위생환등회의 기록을 파악할 수 있다.

177) 이만열(2003). 앞의 책, p. 796.

178) S. H. Martin(1930). "Anti-Tubercular Work at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Seoul". *The Korea Mission Field*. Feb., 1930, p. 40.

179) Ibid., p. 41.

180) Sherwood Hall(1940). "The Progress of Missionary Anti-tuberculosis Work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Oct., 1940, p. 151.

그렇다면 세브란스 항결핵협회가 학생들에게 위생환등회에서 상영하였던 이미지는 무엇이였을까? 홀 의사는 어떤 슬라이드를 사용하였을까? 항결핵협회가 미국결핵협회에서 제작한 슬라이드를 상영하였다는 점과 선교사들은 한·중·일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지점에서 당시 한국에서 상영하였던 보건 위생환등회의 내용과 이미지를 추론해 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공중보건 캠페인은 미국 의료선교사들이 1910년대 중반 시작하여,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로 실시하였다. 한국에서 활동하였던 의료선교사들은 미국인으로서 같은 기독교단이 실시하고 있던 중국의 공중보건캠페인의 상황을 숙지하고 있었다. 일례로 맨스필드(T. D. Mansfield) 의사는 이미 중국에서 사진, 포스터, 리플릿과 강연을 통한 공중보건교육 캠페인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를 활용,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⁸¹⁾ 또한 당시 중국의 공중보건교육 캠페인에서 사용하였던 시각미디어는 미국에서 제작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선교사들의 보건 위생 캠페인 및 위생환등회에서 사용하였던 이미지는 중국에서 사용하였던 위생환등회의 이미지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의 공중보건교육 캠페인의 이미지를 살펴 보면서 한국에서 의료선교사들이 실시하였던 위생환등회의 내용을 추론해보자.

중국의 공중보건교육위원회는 1916년에 조직되어 1920년 재정비되었다. 공중보건교육위원회는 YMCA, 중국의료선교연합(China Medical Missionary Association)과 중국국립의료연합(National Medical Association of China)의 세 단체가 연대하여 조직한 중국의 첫 번째 공중보건 민간공익단체였다.¹⁸²⁾ 공중보건 캠페인은 미국의 의료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실시되었으며 내용은 서구식 의료 시스템과 질병 개념을 교육시켜 사람들이 질병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중국 공중보건 캠페인은 강연, 전시, 그리고 환등회와 활동사진 상영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¹⁸³⁾ 시각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공중

181) T. D. Mansfield(1922). "Tuberculosis: Its Menace and Its Cure". *The Korea Mission Field*. July 1922, p. 144.

182) 중국 보건 위생교육위원회의 주요 연합 주체가 미국 기독교단으로 YMCA는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중국의료선교연합은 여러 선교 단체의 광범위한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Liping Bu(2009). "Public Health and Modernization: The First Campaigns in China, 1915-1916". *Social History of Medicine*. 22(2), p. 308.

183) Ibid.

보건교육이 이루어졌다. YMCA 의료선교사로서 중국 공중보건교육위원회의 책임자였던 피터(W. W. Peter) 박사는 환등회를 비롯하여 전시와 시각미디어를 사용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도판 37>은 피터 박사의 공중보건 강연장의 모습이다. 강연장 무대를 보면 정중앙에 위생 캠페인 슬로건인 ‘위생은 이익을 가져온다’라는 문구를 한자 ‘衛生能生利’와 영어 ‘Health pays dividends’ 두 언어로 적어 놓았다. 그 아래의 다양한 인체 모형이 달려있는 판들이 보인다. 왼쪽에는 피터박사가 서 있고 그 위에 환등 스크린으로 여겨지는 천이 높게 걸려있다. 피터 박사는 공중보건교육 강연장을 위생 전시장처럼 꾸몄다. 그는 또한 위생 전시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도판 38>은 공중위생 박람회를 관람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시는 영어와 중국어 두 언어를 함께 사용하여 질병 이미지와 설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 전시 및 강연에서 사용한 매체들은 미국의료연합(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구입한 것들로 환등 슬라이드와 활동사진뿐만 아니라 지도, 차트, 다이어그램, 만화, 그림, 사진, 플래카드 등 다양하였다.¹⁸⁴⁾ 시각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유는 문맹률이 높은 상황과 이미지를 동원한 강연은 언어로만 이루어진 강연보다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공중보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피터 박사는 “위생은 개인과 국가에게 이익을 가져온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공중보건에 관한 과학적 지식은 사회 진보와 근대화를 촉진시킨다는 내용을 모토로 하였다. <도판 39>는 피터 박사가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대조하는 두 개의 차트를 보여주면서 “아픈 사람은 연기만 나는 램프와 같이 쓸모없으며 불결한 위생 상태는 무능력함을 반영한다. 건강한 사람은 깨끗하고 잘 정비된 램프와 같고 이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하다. 공중보건은 아픈 사람의 수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람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였다.¹⁸⁵⁾ 이는 공중보건교육의 핵심 개념이었다. 당시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개인의 건강과 위생이 곧 국가의 경쟁력과 힘, 나아가 사회적 진보와 연결된다는 지점은 중국인들이 의료선교사의 개념을 용이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YMCA가 제작한 환등교본인 <China> 중 “Washing Rice and Shoes” 사진

184) Ibid., p. 310.

185) W. W. Peter(1931). “A Public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China.” *YMCA Archives*.

<도판 40>은 당시 중국 공중보건교육에서 상영하였던 환등회의 내용을 보여준다. 내천에서 쌀과 구두를 동시에 씻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위생과 질병 예방법을 중국인에게 가르쳐야 한다. 많은 중국인들이 불결함과 질병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그들은 질병을 신의 노여움이라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적으며 중국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만연한 비위생적인 생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¹⁸⁶⁾ <도판 40>은 콜레라 등 오염된 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이 일상의 위생 개념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국의 공중보건교육 사진으로 이는 당시 한국의 위생환등회에서도 상영할 수 있는 이미지였다. 빨래를 냇가에서 하는 조선 여인들의 사진들은 당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위생교육에서 사용하였을 이미지이다. 중국 YMCA의 또 다른 슬라이드로 공중위생교육 강연용 식탁<도판 41>은 조리한 음식은 바로 먹어야 파리와 벌레들로 인한 오염을 피할 수 있다는 예로 제작되었다. 치사율이 높은 콜레라와 같은 질병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식은 반드시 끓여서 바로 먹어야 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의 의료선교사들이 중국인들에게 교육하였던 환등 슬라이드를 포함한 시각이미지는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것이었으나 파리와 모기를 멀리해야 하며, 전염병 예방을 위해 물을 끓여먹어야 하는 등의 내용은 유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역시 결핵예방 대책으로 ‘결핵예방법 제정뿐만 아니라 공개강연, 신문, 팸플릿, 설교, 전람회, 환등, 활동사진, 순회진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장문의 기사가 게재되었다.¹⁸⁷⁾ 당시 국내에서도 공중보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교육에 있어 전람회, 환등, 활동사진 등의 시각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의료선교사로 활동하였던 피터 박사와 같이 한국에서 의료선교사들이 박람회를 개최하지는 않았다. 일제강점기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사들이 중국의

186) <China> YMCA. 1925(revised 1928). *Special Collection of Harvard Yenching Library*. 이 환등교본은 YMCA가 미국에서 중국에 관한 교육용으로 제작한 환등교본과 슬라이드 세트(50장)이다. 피터 박사가 중국 공중보건교육 환등회에서 사용한 슬라이드와 같은 사진이 이 환등교본에 포함되어 있다. 당시 YMCA는 중국의 의료선교 및 기독교를 선교하고 있었기에 <China> 환등교본의 슬라이드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상영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187) 「결핵병예방문제」. 『동아일보』 (1932.12.8.).

경우와 같이 활동하는 데는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팸플릿을 제작하고 위생환등회를 개최하였다.

중국 YMCA가 제작한 환등교본에서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위생 문제를 다룬 이미지들을 볼 수 있었다. 근대 한국의 의료선교와 관련하여 현재 확인할 수 있었던 환등 슬라이드는 모두 의료선교사업 자체를 보여주는 사진들이었다. 이들 사진은 미국에서 의료선교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예비슨 의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환등 슬라이드를 소장하고 있다.<도판 42> 이 슬라이드 이외 현존하는 의료관련 환등 슬라이드는 미국 연합감리교 아카이브와 장로교 아카이브가 소장한 것으로, 의료선교사들이 수술하는 장면<도판 43>과 환자를 진료하는 슬라이드, 병리학 수업 모습의 환등 슬라이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해주 구세요양원의 홀 의사의 어머니인 로제타 홀(Rosetta S. Hall, 1865-1951) 의사가 설립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와 평양맹학교의 학생들, 에디스 마가렛 어린이 병동(Edith Margaret Children Wards)의 환등 슬라이드<도판 44>를 볼 수 있다.¹⁸⁸⁾

근대 한국의 위생환등회에서 어떤 이미지가 상영되었는지는 중국의 공중보건교육 캠페인과 중국 YMCA의 환등 슬라이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예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20세기 초중반의 동아시아는 천연두,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그리고 결핵 등 유사한 질병으로 고통 받았다. 이는 시대적인 생활환경의 유사성에 기인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생환등회의 내용과 그것을 설명하는 이미지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피터 박사가 공중보건교육에서 중국인들에게 강조하였던 것은 개인의 건강이 곧 부국의 길이며 서구 근대의학의 수용 자체가 근대화, 부국강병의 지름길임을 설교하였다. 이 논리는 한국 의료선교사들의 위생환등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188) 1898년 6월 18일, 광혜여원 개원과 함께 홀 부인은 병사한 어린 딸을 기리며 ‘에디스 마가렛 어린이 병동(Edith Margaret Children Wards)’을 1899년 신축하였다. 이 병동에서는 어린이 진료사업과 함께 한국 최초의 맹인학교가 시작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76586> (방문일자 2017.12.18.)

2) 식민의료로서 “위생” 환동회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에서는 조선인에게 위생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환동반을 조직하여 각 지방에 파견하였다.¹⁸⁹⁾ 이 위생반이 개최한 위생환동회의 입장권은 제한이 없었으며 가능한 많은 조선인이 보러 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¹⁹⁰⁾ 총독부가 위생사상 고취를 위한 환동회를 열기 위해 환동반을 조직하였다는 것은 환동회가 식민권력 유지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총독부는 위생, 질병에 대한 태도, 개념을 다시 설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위생환동회를 식민통치 전 기간 동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활용하였다. 의학은 그 자체 식민화하는 힘으로 정치적 권위와 사회적 통제의 강력한 자원으로 인정되어 왔다.¹⁹¹⁾ 총독부의 위생정책은 조선인의 몸과 생명을 통제하고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식민지배의 중요한 정책이었다.

총독부 경무국이 환동반을 조직하면서 실시한 위생환동회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일제가 조선인에게 실시한 위생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식민정권이 가진 ‘위생’의 개념은 단순히 조선인의 질병 치료와 예방에 관한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국강병, 문명개화, 식산흥업이라는 일제의 국가적 목적을 위해 1871년 파견된 이와쿠라 사절단에 동행하였던 나가요 센사이의 서구의 ‘위생’ 개념을 일본에 들여왔다. 나가요 센사이는 위생이란 개인의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가 국민 일반의 건강보호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 행정조직은 국가의 복지를 완성하기 위한 장치로 전염병 예방, 빈민구제, 청결과 상하수도 설치, 시가 가옥의 건축양식, 약품, 염료, 음식물 단속에 이르기까지 무릇 인간생활의 이해(利害)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망라한 행정기관이라 인식하였다.¹⁹²⁾ 나가요가 이해한 바와 같이 위생이란 인간생활 전반에 걸친 것으로 이는 그 나라의 자연환경과 역사에서 비롯된 문화 자체에 관한 것

189) 「衛生幻燈班歸朝」. 『매일신보』 (1920. 4. 18.).

190) 「衛生幻燈映寫」. 『동아일보』 (1920. 4. 24.).

191) Arnold and David. (1993). "Medicine and Colonialism" Bynum(et al.). *Companion Encyclopedia of the History of Medicine*, vol. 2. London: Routledge, p. 1393.

192) 小川鼎三·酒井ソヅ(1980). 『宋本順自傳·長與專齊自傳-松香私志-』. 平凡社, pp. 133-134를 김영희(2009). 「근대 일본 이행기의 위생행정-문부성 의무국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2), p. 117에서 재인용.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제는 위생정책이란 명목 하에 조선의 공중보건교육과 위생에 대한 태도를 재설정하였다. 그 일환으로 총독부 경무총감부 위생과는 조선 전역의 위생과 풍습에 관한 대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최초의 의료민속지인 『朝鮮衛生風習錄』을 1915년 편찬하였다.¹⁹³⁾ 이 책은 13개 도의 의식주 및 생활상태와 관련한 ‘격언, 속담, 민간치료, 미신치료, 관행, 일반풍습’에 관한 것으로 지방의 풍속에 따라 일상적·비일상적인 양생과 위생풍습, 질병의 예방과 민속적 치료행위를 담고 있다.¹⁹⁴⁾ 즉 위생이란 조선인의 몸에 연결된 일체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병 자체에서부터 의식주를 포함한 일상생활 모두를 총칭하게 된다. 총독부에 의한 위생정책이란 다름 아닌 식민지 조선인의 전반적인 생활양식과 민속 문화에 대한 규율과 지배라 말할 수 있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朝鮮衛生風習錄』 첫 번째와 두 번째 면에 실린 2장의 사진이다. 조선의 위생풍습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인 이 책을 대표하는 2장의 사진은 무당이 굿을 하는 장면이다. <도판 45>는 서울 각심절 지역에서 행하던 마을 도당굿으로 추정되며 중간 혹은 말미에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굿을 중단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굿 한 거리에 두 명의 무녀가 무복을 입고 굿을 진행하는 예가 없기 때문이다.¹⁹⁵⁾ 사진 속 모든 사람들이 경직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은 굿을 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 의도된 연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朝鮮衛生風習錄』에 실린 무당의 굿하는 사진은 일제의 조선에 대한 위생정책이 ‘조선인의 의료관습과 민간치료를 부패한 유생과 무당 무리의 속설이 만들어 낸 미신적인 행위’로 설파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¹⁹⁶⁾

193)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編(1915). 『朝鮮衛生風習錄』. 京城: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194) 『朝鮮衛生風習錄』은 격언, 속언, 민간치료, 미신요법, 관행, 부록으로 일반풍습이라는 총 6개 장과 37절로 이루어졌으며 2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 <격언>편과 <속언>편이 전체 분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책에는 건강유지와 양생을 위한 예방학적 차원에서 절기마다 행해지는 세시풍속, 경험처방, 주술적 치료, 금기, 속담, 격언, 관행, 놀이, 식숙, 의례, 질병인식과 관련된 민간신앙, 귀신관, 결혼·임신·출산·육아·사망 등의 통과의례 전체를 포괄하여 질병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과 대응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한지원(2012). 「1910년대 『朝鮮衛生風習錄』에 나타난 식민지 위생조사와 의료민속 실태」. 『역사민속학』, 39, p. 134.

195) 신종원, 한지원 역 (2013). 『조선위생풍습록』 (한국근대 민속·인류학자료 번역총서 6). 서울: 민속원, p. 33.

이상에서 총독부의 위생정책의 의미와 목적을 간략하게 고찰해 보았다. 다음의 기사를 통해 식민정부가 실시한 위생환동회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자료 10> 「위생계의 대복음, 山根正次축탁의 강연」

본월 4일 청년회관에서 조선부양소 위생환동회를 開함을 已報어니와 基時 山根축탁의 강연전문을 見한 즉 余는 明治四十年의 비로소 古한국시대에 위생축탁으로 渡韓하여 조선인민의 위생상 연구가 有호 았고 그 후 통감정치 이후로 今日에 至호 약는 총독부 위생축탁으로 총독부 경무국에 위생사무를 任호 약 조선 각 지방에 순회호 약 人民의 풍습과 위생의 여하를 시찰함도 有호 았더니 今夜에는 敬성조선부양성소의 親託으로 因호 약 滿傷諸君에게 위생利害를 약설하노라. (一) 조선의 조혼의 악풍 (二) 의사를 속성 (三) 산과의 양성 (四) 음료수를 택용할 사 (五)종두의 필요 (六) 조선에 대주의할 전염병이 있으니 此는 즉 나병 (중략)
출처: 『매일신보』 (1913.10.11.)

위의 위생환동회에 관한 기사는 경무총감부 위생과의 야마네 마사츠구(山根正次, 1859-1925) 축탁의 위생환동회 전문을 싣고 있어 일제가 실시한 위생환동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¹⁹⁷⁾ 조선부양성소의 요청으로 위생환동회를 개최하는 만큼 주제는 ‘여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1890년대 내부의 위생국이 강구하였던 위생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조혼의 악풍’이 야마네가 개최한 환동회의 첫 번째 주제이다. 이는 조선인의 위생 문제로 우선적으로 조선 풍습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 없이 조혼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야마네는 조선인의 문화와 삶이 미개함과 열등함을 드러내며 식민정권이 조선에 이롭다는 논리가 전개될 수 있게 한다. 야마네의 위생환동회의 내용을 보면 일제의 위생환동회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을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총독부 경무국이 주최한 위생환동회의 개요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196) 위의 책, p. 33.

197) 야마네 축탁은 동경제국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독일 등 유럽에 유학, 위생행정과 법 의학을 공부한 후 사법성 재판의, 중앙위생위원을 역임하였다.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전염병에 관한 예방이다.¹⁹⁸⁾ 야마네 또한 네 번째 주제로 음료수를 선택할 때의 주의사항은 당시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오염된 식수를 통해 전염됨을 주의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생환등회에서 경무국이 상영한 이미지는 “작년 호열자 유행의 실황을 영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방역사상을 보급하고자”하였다는 기사로 유추할 수 있다.¹⁹⁹⁾ <도판 46>와 같이 콜레라 감염 환자의 격리병실의 모습을 환등으로 보여주었을 것이다. <도판 46>은 일제의 식민지였던 대만의 콜레라 감염 환자 격리병동의 모습<도판 47>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제가 대만에서 말라리아 예방 등 위생교육에 있어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한 미디어가 바로 환등회였다.²⁰⁰⁾ <도판 48>은 대만의 타이베이 다다청(大稻埕)지역에서 열린 위생환등회 사진이다. 밤에 환등회를 개최하면서 야외에 영사막을 설치하고 이를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다. 대만의 환등회 사진은 환등회란 일제의 식민권력을 선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근대의 시각교육 미디어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의 민속문화와 의식주의 미개함을 선전, 이를 규율·지배하려는 식민권력이 조선인에게 강한 거부없이 수용되었던 이면에는 당시 총독부의 조선의 전염병 방역사업 자체가 식민정권의 위생정책에 명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도판 49>와 <도판 50>에서 확인되듯이 일제는 조선인에게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페디스토마 환자의 기침가래 검사를 진행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검사는 일견 조선인들에게 식민정권이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갖춘 것으로 선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일제의 식민의료는 과학으로서 의학에 대한 맹목적 신념으로 조선인에게 수용되었다.²⁰¹⁾

그러나 <도판 49>와 <도판 50>과 같은 전염병 예방 및 검사는 피식민지인의 생명 유지라는 소극적 범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일제는 자국 내에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보건 후생을 위한 조사와 연구기관의 설치는 물론, 방역과 청

198) 「活動寫眞과 幻燈으로 위생사상의 선전을 충다」. 『매일신보』. 1920. 3. 17; 「衛生幻燈會開催」. 『매일신보』. (1920. 3. 29.).

199) 「衛生幻燈會開催」. 『매일신보』. (1920. 4. 25.).

200) Michael Shiyung Liu(2009). *Prescribing colonization: The role of medical practices and policies in Japan-ruled Taiwan, 1895-1945*. Ann Arbor, Mich.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p. 122.

201) 김윤성(2004). 「몸, 질병, 근대성-근대의학과 개항기 한국사회」. 『한신인문학연구』 5, p. 302.

결을 위한 상하수도 설비, 오물처리 시설 등의 위생시설을 갖추는 것을 위생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으나, 조선에서는 일제 지배 말기에 이르기까지 위생시설의 설비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²⁰²⁾ 식민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과 전쟁을 수행할 군사력으로 조선인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1920년대가 되면 조선인들은 단순히 환등회만으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식민정부는 지속적으로 위생환등회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총독부는 위생환등회에 음악대와 가무를 혼합하여 조선인들을 끌어들이어야 했다. 다음의 기사는 위생환등회가 하나의 총체적인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11> 「西洋式을 가미한 혁신단 활동극, 처음으로 진화된 서양식 활동사진」

임의보도한 바와 갖치 일반사민들에게 위생사상을 고취하고자 부와 및 경찰서가 협력하여 가지고 지난 이십륙일 오후 한시부터 시내 우미관에서 위생활동 사진회를 열고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입장케하였는 바 시간 전부터 슈천의 군중이 몰밀듯이 모히들어서 송곳 하나 세울틈도 업시대 만원이 되얏섯는대 정각이 되매 종로경찰 서장이 연단에 올라서 간단개회사가 잇섯고 다음에는 총독부 속대구보[충북부속 대구보]씨의 위생강화가 잇섯스며 그 다음부터 환등과 및 활동사진 등과 또한 여흥 등에 옮기여서 처음에 환등이 잇섯고 다음에 장질부사의 발생과 병밧에 걸니여서 참혹한 경상을 당하는것과 또는 환자지잇던 집을 소독하는 것 등의 재미잇는 활동 사진 두 가지가 잇섯는대 군중은 때때로 재미 잇는 곳을 만나면 집이 문혀질듯이 박슈갈채하얏다. 다음에는 너머 위생에 과한 것만 하면 실증을 내일가하야 여흥으로 대정권번기생 여덟 명이 아름다운 장속으로 무대에올 나서 재미잇는 서양 무도들하얏 스며 다음에는 호텔자에 관한 환등이 잇슨 후 동관악대의 바이올립합주가 잇섯고 다음에는 호텔자 예방에 관한 활동사진과 및 서양 사진으로 요절할 희극 한권이 잇는 후에 폐회하얏더라. (밑줄은 필자)

출처: 『매일신보』 (1920.4.28.)

1920년대가 되어 활동사진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대중 교육은 환등회와

202) 社會衛生祖師會 編(1940). 『朝鮮의農村衛生 : 慶尙南道達里의社會衛生學的調査』. 岩波書店. 이상의 해제(2015). 『민속·인류학 자료대계』. 민속원, p. 677.

더불어 활동사진의 영역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등회와 활동사진 모두 위생을 주제로 함께 개최되었다. 위의 기사를 보면, 사람들은 “재미있는 곳을 만나면 집이 무너질 듯이 박수갈채”를 치고 반면에 위생에 관한 내용만 하면 싫증을 내었다고 적고 있다. 이 환등회의 목적이 위생임에도 불구하고 위생의 내용에서 사람들은 지루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생 환등회 중간에 기생들의 춤과 동악대의 바이올린 연주를 삽입하고 있다. 이는 총독부는 위생환등회를 총체적인 공연으로 만들어 조선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일제의 위생환등회는 식민지배 수단의 가장 효과적인 교육미디어였음을 반증한다. 위생환등회를 통해 일제는 조선인의 일상의 삶을 통제하며 조선의 전통문화와 풍습을 통제해 나갈 수 있었다.

3) 조선인 지식인의 “위생” 환등회

위생에 관한 환등회는 1906년이 되어서야 당시 위생국장이었던 민원식(1886-1921, 위생국장 역임 기간 1905-1907)의 개인 사비로 초연되었다.²⁰³⁾ 민원식은 1907년 『위생신문』을 발행하는 등 위생국장으로 활동하였다. 민원식이 첫 번째 환등회를 열기 3일 전 쓴 위생에 관한 논설을 통해 어떤 주제로 환등회를 열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는 “길가의 사람과 가축의 분노로 인한 오수로 공기와 음료가 오염되어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하수도와 상수도를 개축하고 도시의 공중변소를 설비해야 함”을 논하고 있다.²⁰⁴⁾ 그의 위생에 관한 내용은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일본에서 실시했던 전염병, 질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위생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민원식은 1899년 일본으로 입국, 후쿠오카 동아어학교에서 교사로 지내는 등 일본 물정에 빠른 사람으로 그는 환등기와 슬라이드를 일본에서 구입하였을 것이다. 민원식이 환등회를 초연했던 시기는 1906년 11월 겨울로 도로 위 사람과 가축의 오수, 이로 인한 식수의 오염 등 전염병의 발발을

203) 「衛生幻燈」. 『황성신문』 (1906.11.17.).

204) 「衛生要感」. 『皇城新聞』. (1906. 11. 15).

우려한 내용이었다. 여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였을 것이다.

일본 역시 1870년대 후반에서 1880년대 초에 콜레라를 시작으로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질병 예방과 위생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보급이 사회적인 과제였다. 이 시기에 환등은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사회교육에 사용되었다.²⁰⁵⁾ 일본에서 실시한 위생환등은 일본인의 삶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내용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밤에 빛을 밝히는 등불에서 발생하는 탄소중독, 겨울철 화석 화로 난방으로 인한 뇌출혈, 이질, 땀기열, 모기로 인한 전염병, 목욕탕과 이발소의 수인성 전염으로 인한 눈병 등으로 일상에서 쉽게 생길 수 있는 질병과 전염병을 보여준다. <도판 51>과 <도판 52>은 일본에서 이 시기에 위생교육에 사용된 슬라이드이다. <도판 51>은 모기장 밖으로 상반신이 탈의된 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자면 아이가 모기에 물려 전염병과 질병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일깨우고 있는 슬라이드이다. 슬라이드 하단에는 “모친의 부주의로 아이가 이불 밖에서 잔다(母親の不注意 小兒布團の外へ眼る).”라는 문장이, 상단 오른쪽에는 이질을 의미하는 적리(赤痢)가 쓰여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함을 보여준다. <도판 52>는 풀밭 위에서 자는 모습으로 하단에는 “초원의 늦더위에 낮잠을 잔다(草原殘熱の堺所假寐).”라고 쓰여 있어 여름철 노숙을 경계해야 함을 보여준다.

민원식이 사용한 위생환등회의 슬라이드는 일본에서 구입한 것일 것이다. 일본은 환등회를 통해 위생에 관한 사회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위생환등회를 열었을 것이다. 이는 쉽게 환등기와 슬라이드를 일본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식 이전에도 6명의 위생국 국장이 있었으나 이들은 환등회를 통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민원식이 이렇게 위생환등회를 실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년시절 오랜 기간 일본에서 생활하여 환등이 그에게는 익숙하고 친숙한 매체였을 것이며 환등회의 교육적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환등을 이용한 위생교육을 실시한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일명 일본통 민원식이 일본에서 입국하자마자 시행했던 것이 위생환등회였던 것에 반해, 경시청에서 경비비로 일반인민의 위생사상 고취를 위해 위생환등기구를 구입한 것은 민원식이 위생환등회 초

205) 早稻田大學坪内博士記念演劇博物館 編(2015). 『幻燈スライドの博物誌 プロジェクション・メディアの考古學』.青弓社 出版, p. 90.

연 후 만 2년이 지나고 나서였다.²⁰⁶⁾

민원식이 위생환등회를 실시했을 1900년도 말은 사람들에게 환등회는 불거리 중 하나인 오락이었다. 위생환등회도 내용과 상관없이 지루함이 아닌 환등이라는 신매체를 이용한 보는 즐거움 중 하나였다. 아래의 경성고아원 기금마련 자선연주회의 순서를 보자.

<자료 12> 「경성고아원 기금마련 자선연주회 광고」

本院經費補充하기 爲하야 慈善演奏會를 東大門內前光武臺에서 陰九月二十六日爲始 하야 限三日 開會하야 順序가 如左하오니 慈善하신 僉君子는 枉臨하시와 觀覽하심을 望함

順序

一 奏樂

一 有志紳士慈善演說

一 世界에 有名한 活動寫眞

一 衛生幻燈

一 奏樂

一 臨時하야 滋味잇는 演藝도잇소

京城孤兒院 告白 (밑줄은 필자)

출처: 「광고」. 『황성신문』. (1907.10.30.)

이 자선연주회의 순서를 보면 연주회인 만큼 첫 번째로 악기연주(주악)를 하고 경성고아원 자선의 필요성에 관한 주최측의 연설이 있는 다음 활동사진, 위생환등, 악기 연주, 공연 순으로 이어진다. 광무대는 본래 낮에는 독점 놀량패(경기와 서도의 선소리패)와 소리패들이 공연하고 밤에는 서양의 활동사진을 상영한 공연장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인 ‘재미있는 연예’는 창극 또는 판소리를 공연했을 것이다.²⁰⁷⁾ 광무대의 전신이 전기회사의 활동사진소로 밤에는 활동사진

206) 「幻燈鼓發」. 『황성신문』. (1909.1.19.).

207) 광무대라는 호칭은 1907년 6월부터 사용하였다. 광무대는 1898년 미국인 콜브란(Collbran)과 보스트윅(Bostwick)이 동대문 밖에 있던 한성전기회사(漢城電氣會社) 전차고 안에 설치한 가설무대가 그 전신으로 ‘전기회사 활동사진소’였던 만큼 1900년대 초 활동사진의 중심지이었다. 1908년 9월에는 조선인 박승필이 임대하여 전통적

을 상영하였기에 활동사진을 자선연주회에서 보여주는 것 또한 이상하지 않았다. 당시 유행하던 무성영화가 상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위생환등회는 자못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위생환등회란 사회교육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위생을 설교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이는 ‘재미’와 ‘연주회’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 환등회가 이처럼 자선연주회의 일부분으로 상영된 이유는 무엇인가? 환등회가 그것도 위생환등회가 재미있음을 담보로 해야 하는 자선연주회에서 공연된 이유는 환등회란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주는 오락 매체였음을 의미한다. 즉 환등은 지금껏 본적 없는 시각이미지에 변사(설명자)의 이야기가 덧붙여지는 동시에 유성기의 음악이 합쳐진 하나의 볼거리였다. 더욱이 변사가 감칠맛을 더하게 되면 어떤 내용의 환등이라도 1900년에는 그저 즐거움이었을 것이다.

위생환등 슬라이드도 다양하여, <도판 51>과 <도판 52>가 교과서적인 위생에 관한 이미지라면, <도판 53>, <도판 54>의 일본에서 상영된 위생슬라이드는 그 자체로 이야기를 만들면서 몰입시킨다. <위생 펀치(衛生ポンチ)>라는 제목의 풍자만화 시리즈로 흑(黑), 호(虎), 적(赤)이 적힌 요괴 세 마리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질병을 일으키는 내용이다.²⁰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모습을 보며 요괴들이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도판 53>과 ‘검역’, ‘위생조’라는 깃발을 들고 대포를 쏘면서 요괴들을 물리치는 <도판 54>는 그 자체로 볼거리이다. 이런 환등회는 풍자만화이기 때문에 만화를 보는 것만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경성고아원 자선연주회에서 위생환등은 이런 만화풍이 아닌 교과서적인 딱딱한 이미지였을 것이다. 환등 슬라이드도 같은 주제일지라도 그림의 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좋은 질의 환등 슬라이드를 사용했는지는

판소리와 창극을 중심으로 한 전통연희 전문극장으로 변모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5119> (방문일자 2017.11.3.)

208) 정확한 연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제작되었다.

출처: 현 國際交流基金의 전신인 國際文化振興會와 목사 타키에 오쿠무라(奥村多喜衛, Takie Okumura, 1865-1951) 가족의 기부로 이루어진 환등 슬라이드 콜렉션은 아래를 참조.

<http://digicoll.manoa.hawaii.edu/lanternslides/Pages/basicsearch.php?s=browse&tid=484&route=basicsearch.php&sterms=disease/>

의문이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00년대와 1910년대까지의 환등회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시각적 오락을 제공해주었다. 어떤 주제이든지 환등회를 보는 자체가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명백히 친일노선을 걸었던 민원식의 위생환등회 이외에, 조선인 의사들 또한 위생과 신체에 관한 환등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조선에서 의사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다. 이들의 위생환등회는 식민정부가 실시했던 환등회와는 차이가 있었다. 의사 유병필, 한민제의 위생환등회와 1923년 여름 평양의 대홍수로 인한 피난민에게 실시한 기성 의사회의 위생환등회를 개최하였다.

3. 엔터테인먼트가 된 시각교육 - “오락” 환등회

환등회에서 오락이 중요한 이유는 오락적 요소는 환등회의 본질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오락” 환등회는 서구에서 환등회의 기원으로부터 가장 고유한 영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락성이 중심이 되는 환등회의 성격이 변화된 양상을 살피는 것은 바로 한국에서 환등회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과 직결된다.

이와 동시에 “오락” 환등회의 규명은 근대 한국의 오락문화의 한 축을 보여줄 수 있다. 비교적 이동이 용이했던 환등기는 영화보다 광범위하게 보급되었고 또한 영화보다 쉽게 상영할 수 있었다. 서구에서 순회 환등사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초 한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환등회를 통해 삶의 한편을 즐길 수 있는 오락문화가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근대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였고 서구와 같이 오락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 오락환등회의 내용은 ‘새로운 지식’을 보여주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계몽적 요소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근대 한국의 오락환등회는 시각으로 보여지는 지식 자체가 ‘재미’로 작용하며 오락이 되었다. 그런데 환등회의 지식이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생산한 것으로, 이 지식이 오락이 됨으로써 문화, 취미의 영역에 권력이 개입하게 되었다.

근대 한국의 오락환등회는 서구와 일본의 오락환등회와는 그 결을 달리 한다.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이었던 오락 환등 슬라이드인 <도판 55>를 보면, 코를 골며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남자의 입 속으로 쥐 한 마리가 들어간다. 이 유명한 ‘쥐 먹는 남자’는 기술이 가미된 발전된 형태의 환등 슬라이드이다. 제작 방식은 두 개의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침대에서 잠을 자는 남자를 배경으로 그리고 그 위에 남자의 벌어진 턱과 쥐를 투명 유리에 따로 그려 넣은 방식이다. 벌어진 턱과 쥐가 그려진 유리를 좌우로 움직이면 쥐가 남자의 입 속으로 들어가는 연속동작이 된다.<도판 56> ‘쥐 먹는 남자’ 슬라이드는 여러 버전의 다양한 특수 슬라이드로 제작되었다. 특수 효과가 장착된 슬라이드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가 환등회에서 연출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환등 슬라이드의 발전 때문이 아니다. 여기서 환등사는 연극적인 상황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남자가 코를 골면서 이를 가는 효과음을 내는 동시에 쥐가 남자의 입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속도를 조절하며 극적인 상황을 배가시킨다. 이때 환등사는 영화의 변사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목소리 연출뿐만 아니라 환등기를 작동하는 기술적인 노련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락환등회에서는 엔터테이너로서의 환등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서구에서는 환등사의 명성에 따라 환등회의 인기도가 달라졌으며 인기가 높은 환등사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누렸다. 그렇다면 20세기 초 한국에 이런 환등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또한 고가의 특수효과를 내는 환등 슬라이드를 구매할 여건이 되었을까? 핵심은 환등회의 주최자들은 선교사와 식민정부, 그리고 계몽의식이 강했던 조선의 지식인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환등회를 통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오락 환등회로서 기능을 하였던 주제는 금강산, 백두산을 보여주는 환등회와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독자위문을 위한 환등회, 그리고 연회에 한 파트를 이루는 환등회로 나눌 수 있다. 이들 환등회는 서구, 일본에서와 같이 그림자극 또는 ‘쥐 먹는 남자’와 같은 영상과는 기본구조가 다르다. 그 근저에는 여전히 식민지 조선이라는 상황이 강하게 작용함을 부인할 수 없다.

1) 금강산 환등회

신라고적 환등회가 교육과 관련하여 개최되었다면 금강산 환등회는 오롯이 오락적인 영역이었다. 금강산 환등회는 1916년 6월 철도국의 영업과 주최로 최초로 개최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산인 금강산과 백두산이 일제에 의해 탐험되고 조사·발굴되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등반은 제국주의적 발견에서 지리적인 조사로 방향을 전환하였는데, 이는 정신적이며 낯설고 숭고하며 낭만적이었던 산의 개념이 1890년대 후반이 되면 속세적으로 변하면서, 산은 이제 정복되어야 할 무엇인가로 규정되었다.²⁰⁹⁾

남성 탐험가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산을 등반, 탐험하는 것은 제국의 개척자가 되어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시되었는데, 산의 탐험으로 나타나는 남성성의 발현은 제국주의를 강화, 정당화하였다. 남성 탐험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20세기의 “공백시대(blank spaces)”를 정복하고자 하는 의욕에 휩싸였는데, 이때 산은 서구 탐험가들이 탐험하고 발을 내딛는 남겨진 마지막 장소였다.²¹⁰⁾

제국주의와 남성성의 발로로서 산의 탐험은 토착민의 존재와 삶과는 전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토착민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지우면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게 한다. 금강산, 백두산을 탐사하면서 이를 촬영한 사진은 그 이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식민정부가 행한 ‘고마운’ 일이 되는 것이다. 금강산 사진은 전문 일본인 사진가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촬영하여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어 현재는 그 존재를 알기 힘든 유물과 유적이 사진으로나마 기록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일본의 금강산 발굴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탐사에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1868-1935)와 유적 전문 사진사 등이 함께했다. 금강산 자체는 아름다운 비경과 ‘금강’이라는 이름이 함유하듯이 불교사찰이 있으며 이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불상, 탑 등의 유적과 사찰의 건축물 등 모든 것이 한국의 문화재였다. 금강산 사진은 일본의 고적도보의 연장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에 의해

209) Reuben J. Ellis(2001). *Vertical Margins: Mountaineering and the Landscapes of Neoimperialism*.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10) Peter L. Bayers(2003). *Imperial Ascent: Mountaineering, Masculinity, and Empire*. Boulder, CO, USA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p. 15.

재현된 금강산은 고적도보 여러 권에 각각 주제에 따라 나누어 실렸다. 금강산의 풍경, 사찰, 유물, 유적을 사진으로 재현한 의미와 방식은 사진사에서 일제식민주의 시각적 표상의 방식에 관하여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금강산 사진의 식민학자와 사진가에 의한 재현방식이 아니다. 환등회가 금강산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다. 이것은 금강산의 재현방식만큼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금강산 환등회를 통해 조선인들은 그들이 가보지 못한 금강산을 접하게 되었고, 이는 서구의 풍경을 환등회를 통해 경험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풍경 환등회와 금강산 풍경 환등회를 보면, 금강산이 토착인인 우리의 것에서 분리되지 않았을까. 낯선 미국 도시처럼 금강산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금강산 환등회를 최초로 보여준 곳은 다름 아닌 철도국이었다. 철도관념을 고취할 목적으로 “各線沿路(연로, 큰길의 좌우근처)의 활동사진과 其他景致에 환등회”를 열었다. 이때 금강산 사진 환등회는 사람들을 철도국의 강연에 불러들이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한편으론 금강산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철도를 이용하여 금강산 여행을 선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음의 기사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적고 있다. “개성군에서는 6월 29일 오후 8시부터 당지 第一公立普通學校 庭園中에서 철도국의 주최로 일반 조선인에게 대하여 철도관념을 고취할 목적으로 各線沿路의 활동사진과 其他景致에 환등회를 개하고 관람자에게 무료입장을 여하였는데 觀光者가 顧히 多數하였더라.”²¹¹⁾ 이 기사의 내용을 보자면, 철도국이 철도를 홍보하기 위해 금강산 환등회를 열었음이 명확해 보인다.

다른 예의 금강산 환등회로 동아일보사의 독자위안 환등회를 들 수 있다. 내용은 “영명학교 내에서 교육에 필요한 활동사진 수종과 금강산 풍경, 미국문화에 관한 백여 종의 환등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근대문명에 대한 이익모 목사의 강연과 신문의 필요에 대한 임창수 변호사의 강연, 영명교 여교원의 음악이 성황리”에 거행되었다는 기사이다.²¹²⁾ 이 동아일보사가 독자위안을 위해 개최한 여러 환등회에 포함된 금강산 환등회는 하나의 지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보지 못한 금강산의 경관이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 내지만, 이 금강산 사진은 식민정부의 ‘개발’에 의해 탄생된 것이다.

211) 「開城통신: 활동사진과 幻燈」. 『매일신보』 (1913.7.2.).

212) 「독자위안회」. 『동아일보』 (1924.7.10.).

2) 버라이어티 쇼로서의 환등회

근대는 한편으론 버라이어티의 시대이기 한 것이 환등, 영화, 공연이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섞여서 공연되었다. 영화 전용관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1910년대 영화는 민요, 기생가무, 곡예, 사당패, 재담, 신파 연극의 1-2개 막, 마술 등 종목을 뒤섞은 ‘버라이어티’의 한 구성물이자 피날레를 장식하는 메인 프로그램이었다. 영화보다 극장 공연물이 중심이었던 버라이어티의 시대였다.²¹³⁾

대표적인 버라이어티 쇼로 강선루(降仙樓) 공연을 들 수 있다. 강선루는 단성사가 흥행을 위해 1912년 설립한 단체로, 강선루는 공연의 제목이기도 하였다. 이 강선루 공연에 금강산과 동경의 유명한 사진 환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 13> 「降仙樓」

과조교 단성사 강선루(降仙樓)에서, 오늘밤에 흥행할 연극은 좌와 7 더랏. 시곡기생(詩谷妓生) 일판의, 남무, 앵접무, 가인전목단, 포구락, 던기무, 승진무, 승무, 검무, 던기호접무, **금강산과, 동경의 유명한 사진의 환등**. 그 빗게 특별히, 장절쾌절하고, 지미가 잇나, 활동사진을 흥다 하니, 가히 관람자의, 흥미를 활발케 흥갓도다. (강조는 필자)

출처: 『매일신보』 (1912.5.22.)

강선루의 공연은 하나의 버라이어티 쇼였다. 여기에 환등이 포함되었다는 뜻은 환등회가 공연이자 오락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환등의 주제 중 ‘금강산 사진과 동경의 유명한 사진’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점이다. 예인들의 여러 공연 속에서 환등으로 금강산을 관람하고 이어 동경의 풍경을 담은 사진을 본다는 것은 직접 발로 가보지 못하는 곳을 사진으로 유람함에서 오는 즐거움일 것이다.

당시 강선루 공연평인 「단성사의 강선루를 보고 나서」에는 “금강산 환등은 가히 관람자의 정신을 화열케 하고 채련, 화향, 화봉(花鳳)의 전기춤과 점흥의 호

213) 김승구(2011). 「1910년대 경성 영화관들의 활동양상」. 『한국문화』, 53호, p. 141.

접무는 가히 관람자의 흥기를 요동케 하여 만장이 박수갈채할뿐더러 이것은 조선의 유래하던 가무음악이니 어디까지 발달하도록 찬성하는 바이로다.”²¹⁴⁾라 한 만큼 금강산 환등이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버라이어티 쇼로서 환등이 포함된 경우는 전(前)협률사에서 연 ‘경성고아원 자선 공연회’가 잘 보여준다.

<자료 14> 「자선공연회 광고」

本妓 等 百餘名이 京城孤兒院經費窘絀하여 維持極難之說를 聞하고 爛商協議하여 慈善演奏場을 夜珠峴 前協律社에 開催하여 收入金을 沒數이 該院에 寄附할테 옴고 順序는 如左하오니 慈善하신 仁人君子는 來臨玩賞하심을 伏望
順序

- 一 平壤탈당패
- 一 幻燈
- 一 倡夫땅재쥬
- 一 僧舞
- 一 劔舞
- 一 佳人剪牧壇
- 一 船遊樂
- 一 項莊舞
- 一 포구 樂
- 一 무고
- 一 향음영무
- 一 북춤
- 一 사자 舞
- 一 鶴舞.

其外에도 滋味있는 歌舞를 臨時하여 設行함. 陰十一月二十一日爲始하여 限三夜開場
함. 每日下午七時에 開場하여 至十一時閉場함. 發起人 宮內府行首妓生 桂玉 太醫院
行首妓生 蓮花 尙衣司行首妓生 錦仙 竹葉 桂仙 鸚鵡 採蓮 (강조는 필자)

출처: 『황성신문』 (1907.12.24.)

214) 「단성사의 강선루를 보고 나서」. 『매일신보』 (1912.4.26.).

이 기사는 광고로 경성고아원 자선 공연 순서를 자세히 일리고 있다. 내용인 즉 본기 등 백여 명이 경성고아원 경비를 군출하여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을 연설하고 난상협의하여 자선연주장을 야주현 전 협률사에서 개최하여 수입금 전액을 경성고아원에 기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자선공연의 순서는 평양랄탕패, 환등, 창부땅재쥬, 승무, 인무, 가인전목단, 선유악, 항장무, 포구악, 무고, 향음영무, 북춤, 사자무, 학무 순이다. 기생 주최로 경성고아원 기부금 행사를 개최하고 여러 춤들 사이에 환등을 넣었다. 여기서 환등회는 완전한 연회의 일부분이 되었다.

3) 식민지인의 환등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

지금까지 환등회의 주최를 중심으로 환등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당시 환등회를 관람한 사람들은 환등회에서 상영된 시각 이미지에 대하여 어떻게 느꼈을까? 관람객들은 상영 주최가 의도한 바 그대로 환등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안에서 수용 가능한 것만 받아들였을까? 또한 환등회를 통해 조선적인 것과 서구의 것에 대한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났을까?

환등회는 상영 주체들의 의도 역시 중요하지만 그보다 조선 민중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며 받아들였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선인들은 환등회를 통하여 어떤 시각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을까? 더불어 환등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관람하는 형태로 시각 교육의 단위 또한 컸기에 조선인들에게 근대적인 ‘일반화된’ 시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였음에 틀림없다.

우선적으로, 이 환등회의 관람자인 식민지 조선인은 어떤 주체로 규정되어야 할까? 이 주체의 규정이 있는 다음에야, 이들이 환등회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인식하였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환등회 기사에서 환등회의 관람객을 일컫는 단어로, ‘일반민중’, ‘일반시민’, ‘다수의 대중’ 또는 ‘수천의 군중’, ‘천여 군중’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빈도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오늘날과 같이 대

중매체를 소비하는 ‘대중(mass)’의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보다는 환등회 관람객을 일컫는 어휘로 농민, 부녀자, 학도 등 특정 계층을 뜻하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다.

환등회는 같은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공연 관람하면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환등회에 참여한 조선인, ‘군중’의 특성을 잠정적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환등회에서 피식민자이자 피지배자였던 조선인은 수동적 주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였다. 그 예로 환등회에서 입장권의 유무를 예로 들 수 있다. 초기의 환등회는 입장권을 판매하였고 입장권이 없으면 관람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20년대와 1930년대가 되면 환등회가 점점 식민정부의 선전 미디어가 되었기 때문에 거꾸로 식민정부는 다수의 조선인이 참여하길 원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가 되면 총독부 주최의 환등회에는 입장권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 무용, 탈춤 등의 공연이 환등 앞뒤로 행해져 흥미를 끌게 하였다.

다시 환등회를 본 조선인은 환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였을까? 환등회에 관한 대다수의 자료들이 환등회 주최를 중심으로 생산되었다면, 다음의 자료는 희귀한 환등회 관람평이다. 이 관람평은 『별건곤(別乾坤)』이라는 일명 ‘6전(錢)’ 잡지로 불렸던 통속잡지에 실렸다. 이 잡지에서 표방하는 ‘취미’나 오락 담론은 단순히 쾌락이나 유희가 아닌, 근대 계몽기부터 이어져 온 계몽 및 대중적 삶의 확산을 의미한다.²¹⁵⁾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일기자의 환등회 관람평을 보자.

<자료 15> 「활동사진 이야기」

무대에는 미국기와 조선기를 그린 휘장이 쳐있고 그 앞에서 소녀광대의 줄타기, 조선여인의 승무 등 춤공연이 있는 후 불이 꺼지고 한참이나 캄캄한대로 있다가 시커먼 외투를 입은 서양사람 한 때가 옷뚝뚝 서 있는 것이 환하게 비취었다. …… ‘나와 논다더니 어데 노나’, ‘밤낮 고대로 셋기만하네 그려’ 이렇케 수군수군하는 중에 아는체하는 한 분이 ‘아니야 저 허연 것은 눈이 와서 싸힌 것이고 추어서 어려죽은 사람들이라오’하였다. ‘올치 그릇킬네 저러케 꼼짝도 못하고 셋지’ 누구던지 이것

215) 정가람(2014). 「1920-30년대 대중잡지 『별건곤』의 역사 담론 연구-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재현 방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1), p. 79.

이 환등이라고 설명해 주었으면 조왓슬 것을 설명도 안하고 환등을 비치니까 나오는 것마다 어러죽은 사람이라고만 보고 잇섯다 몇 번이나 어러죽은 사람이 밧귀여 나오고 나서 통지도 없이 광고도 없이 그냥 환등 뒤 끝에 활동사진이 나왔다. 자막도 없이 댓자 곳자로 서양부인 하나가 방 속에서 빨래를 하는데 강아지가 들어와서 빨래를 더럽혀 닳는 고로 부인이 강아지를 내여 쫓으니까 어떤 키 큰 남자 하나가 길다란 산양총을 들고 들어와서 총을 노닛가 부인이 이리저리 쫓겨 다니느라고 발광을 하다가 호각소리가 후두룩 나고 불이 다시 켜지고 그만 그뿐이었다. 그나마 사진기사가 조선사람이었는데 기계를 들고 작란을 하는지 사진이 이구텅이로 달아났다 저 곳으로 쏠러 갔다가 야단법석이었다. 다만 그뿐이었다. 설명도 없시 소개도 없이 음악도 없시. 지금 생각하면 어느 희극사진이 못쓰게 되어 내어버린 것을 한토막 끊어가지고 나왔든 것이었다.²¹⁶⁾ (강조는 필자)

출처: 『別乾坤』 2권, 1926.

이 자료는 1926년에 작성된 것으로, 생생한 환등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글 자체가 흥미롭고 재미있다. 요약하자면 환등으로 비춰진 사진을 보고 실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관람자의 이야기이다. 더불어 환등회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자세히 적고 있다. 단순히 환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소녀광대의 줄타기와 조선여인의 승무 등 춤공연’이 있는 후 환등을 상영하고 마지막 순으로 활동사진을 보여준다.

여기서 관람객은 “환등을 비치니까 나오는 것마다 어러 죽은(얼어 죽은) 사람이라고만 보고 잇섯다”하는 것은 사진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모두 죽었다 여기고 있다. 특히 “얼어 죽었다”는 것은 흑백 사진의 흰 부분을 눈(雪)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면 한국에서 사람들은 사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환등을 통해 실물과 같이 확대된 ‘정지된 이미지’는 여전히 낯설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등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고 적고 있지만, 직접 환등을 보고는 그것이 환등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것이 환등이라고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설명도 안하고 환등을 비추니 나오는 것마다 얼어 죽은 사람이라고만 보고 있었다.”는 문구가 바로 정지된 이미지인 사진과 흑백 사진을 이해하지 못하고

216) 필자미상(1926). 「활동사진 이야기」. 『別乾坤』 2권, 개벽사. p. 91.

있음을 나타낸다.

도널드 윌리엄스(Donald Williams)가 이란에서 시각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청중에게 사람을 중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후 연이어 머리가 클로즈업된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청중들은 항상 웃었다고 하였다.²¹⁷⁾ 그 이유는 사진에 익숙하지 않은 이란의 원주민은 갑자기 머리가 커진 사진의 변화를 보고 왈차지껄하게 웃는 것이었다. 매체의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매체를 통해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보는 법을 가르치기 전까지 사진의 의도를 전달할 수 없다.

윌리엄스 실험의 반응처럼, <자료 15>의 환등회 관람평은 조선인들이 환등회의 이미지를 그 자체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¹⁸⁾ 그렇다면 환등회의 상영주최들은 그들이 원하는 교육 내용을 조선 민중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을까? 이 지점에서 환등회의 주최자가 의도한 메시지와 이를 해석하는 조선인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환등의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의 생활세계 안에서 해석하여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인들이 사진의 의미를 학습함에 따라 환등회는 단순 오락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환등회의 주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환등회의 인식의 변화 과정은 활동사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의 변화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활동사진의 예술적 가치는 변사의 설명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변사는 극의 성격과 성질을 자세히 안 뒤 출연하는 배우의 표정을 따라 설명을 틀림없이 해야 함을 추구하는 기사이다. “지금 조선인 측 활동사진 상설관 변사는 십여 년 전에 활동사진이 처음 광무대에서 영사케 되었을 때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지 일종의 신기한 것으로만 여겨 웃음거리만 알고 구경다닐 때나 십여 년을 지나서 깊은 인상도 얻고자 하며 혹은 그에 대한 미점(美點)도 취하고자 하는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구절에서 이제 사람들은 신기한 것으로만 여기던 상황에서 미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²¹⁹⁾

217) Edgar Dale(1954). *Audio-visual methods in teaching*. New York: Dryden, p. 243.

218) 여기에는 경성, 평양 등의 도시와 지방시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1920년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료 15>과 같이 환등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19) 八克生. 「활동사진변사에게, 예술덕 참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라」. 『매일신보』 (1919.8.22.).

환등회에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 또한 마찬가지로 1900년대는 커다란 화면에 비춰진 실물같은 사진을 보면서 신기함 그 자체였다. 환등회의 첫 기록이었던 스크랜턴의 환등회를 보고 김윤식 등 한국인 관료가 보인 반응은 낮설며 신기한 신문물이었을 뿐이었다. 스크랜턴이 소개하고 싶은 기독교와 미국이란 곳의 의미를 처음 환등을 본 조선인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와 30년대에 이르러서는 환등회를 자주 접하면서 그 신비함이 벗겨졌을 것이다.

4. 소결: 환등회의 자유로운 지위와 검열

일제강점기 환등회의 특징은 교육, 위생, 오락이라는 주제로 환등회가 조선인의 일상의 삶에 깊게 관련되어 열렸다는 점이다. 그만큼 환등회가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는 의미이다. 환등회가 일상의 다방면으로 열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환등회가 당시 식민정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환등회의 검열에 대하여 논하는 것으로 소결을 대신하려 한다. 환등회는 관람을 위해 회집하는 사람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식민정부는 환등회에 관한 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영사를 하는 환등의 특성상 환등회 시간은 대부분 저녁 7시에 시작하여 밤 11시 경에 폐회하였다. 밤 시간에 다수의 조선인인 모여 강연과 토론을 하는 환등회를 식민정부가 감시하지 않았을까?

환등회 검열은 다음의 두 기사에서 확인된다. 「평화회설행금지」라는 제목의 기사는 “조선인 두 명이 경성기생사진환등 평화회(評花會)를 열어, 각 기생의 재주와 경험을 설명한 뒤 일반 관람자에게 그 등급을 투표하여 상품을 주기로 계획한다하더니, 이것은 풍속을 괴란케하는 것으로 금지하였다.”는 환등회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상술하고 있다.²²⁰⁾ 이 금지된 환등회의 이름이 기생(花)을 평가한다(評)는 의미의 ‘評花會’이다. 사진은 실사의 이미지라는 면에서 초창기부터 포르노그래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생품평회는 이와 같은 사진의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 한편으론, 환등회가 단지 계몽의 미디어로만 작동하지 않았음

220) 「평화회설행금지」. 『매일신보』 (1912.3.6.).

을 알 수 있게 한다. 다음의 기사는 환등이 환영을 보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무지한 사람을 미혹시키는 신불환등을 금지한 내용이다.

<자료 16> 「佛像, 怪奇幻燈下 오래살고, 아들나케해준다고 金錢詐取라 鐵窓行」

[개성] 관상(觀相)을 보고 부귀장수(富貴長壽)를 비러준다고 우매한 부녀자의 금전을 사취한 자가 있다. 원적을 충북진천군(忠北鎭川郡)에 두고 현주를 부내 남산정(南山町) 三三四에 둔 안병수(安炳壽)는 지난 음력 九월 十일경 파주군문산(坡州郡汶山) 김만기(金萬基)에게 부귀장수를 기도해준다는 명목하에 五十원을 사취한 것을 비롯하여 개풍군청(開豐郡廳)에 근무중인 리병수(李炳壽)의 처 김씨(金氏)가 오래 병으로 신음하는 것을 보고 장수를 비러준다고 三十원을 사취하였고 十月 二十一일경에는 경성(京城) 안종만(安鍾萬)의혜 리씨(李氏)가 무자(無子)한 것을 알고 신불(神佛) 압해 아이를 비러준다고 三十원을 사취하는 등 사실이 잇는 것을 개성서에서 알고 검속취조한 결과 진귀와 가튼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의 집에는 불상(佛像)과 신불(神佛)의 환등을 장치하고 우매한 사람을 미혹식혀 오든 중인데 검속과 함께 전부 압수하였다. (밑줄과 띄어쓰기는 필자)

출처: 『매일신보』 (1937.2.5.)

신불환등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금전을 갈취한 환등회를 금지시켰다는 위의 기사는 당시 미신과 환등이 결합한 사례를 보여준다. 영어로 환등이 'Magic Lantern'이었음을 재고하며 17세기 서구에서 환등회가 유령을 주제로 하였음을 상기해볼 때, 이 기사와 같이 신불이라는 미신을 이용한 환등회가 얼마든지 가능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환등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두 기사는 풍기문란 환등회를 단속한 것으로 식민지의 특수성은 배제되어 있다.

환등회 검열과 관련하여 풍기문란으로 환등회를 금지시킨 예 이외에, 환등회 허가원을 얻어 합법적으로 실시된 환등회가 있다. 경주읍 사립학교인 계남학교의 경주고적환등회가 그 예이다. 1909년 설립된 계남학교는 재정난으로 조선각지에 순회환등회를 열어 기부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환등회를 열 계획이었다. 환등회의 주제는 경주고적으로, 순회환등회를 시작하기 전, 경북도청 학무과에 허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²²¹⁾ 환등회를 시작하기 전, 허가원을 제출하여 허

가를 받고 환등회를 실시했다는 사례는 계남학교의 예 밖에 찾아볼 수 없었다.

근대 환등회가 검열에서 자유로웠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총독부의 계몽 미디어로 사용된 환등회는 당연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환등회 또한 식민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 선교사들의 활동에서도 환등회는 허용되었고, 일제강점기 또한 환등회는 허용되었다. 일제강점기 수십, 수백 명의 조선인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이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환등회는 예외로 공공연하게 신문기사로 일정 및 내용을 알리었다. 국내에서 뿐 아니라, 환등회를 최초로 사용한 예수회 수사들이었다. 당시 환등회는 “유명쇼”로서 환영을 만들어 냈음에도 환등회는 허용되었다. 또한 19세기 미국에서는 오락을 금지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 하에 금주령과 더불어 영화 및 다른 오락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환등회는 유일하게 허용되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환등회가 검열에서 자유로웠던 까닭은 그것이 “교육”과 매개되어 작동하기 때문이었다. 이때 “교육”이라는 것은 지배 권력의 이익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욕구, 정책, 의도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다시 근대 한국의 환등회의 사회적 상황으로 되돌아가보자. 조선인이 운영하는 영화와 연극은 검열되고 제재를 받은 것에 반하여 환등회는 지속가능하였다. 물론 검열되고 일제의 식민정책과 반하는 환등회는 기사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환등회를 검열하였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한 예로 기생환등회는 금지되었는데 이는 풍속을 어지럽힌다는 뜻 아래 금지된 예로, 사회정책과 반하는 환등회 검열 및 금지와는 다른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다수의 조선인들이 모여 관람하고, 특히 환등회의 시간은 해가지고 난 오후 6-7시경에 시작하여 밤 10시에서 11시에 끝났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관람한다는 것 자체가 일제강점기에는 자유롭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등회가 검열되지 않았음은 환등회의 내용이 권력집단과 일치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는 환등회를 통해 식민지 사회가 요구하는 담론만이 환등회를 통해 선별, 확산, 전파되었음을 반증한다.²²²⁾

221) 「慶州古蹟幻燈 啓南校의 計劃」. 『동아일보』 (1923.7.7.).

222) Stephen J. Ball(ed.).(1990). 앞의 책, p. 19.

V. 미술교육과 환등회

이 장에서는 환등회 연구가 가지는 미술교육에서의 함의 및 의의에 대하여 논하려 한다. 서구와 일본에서 환등회는 학교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선전과 오락을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 시각미디어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한국의 환등회는 학교 밖에서 더욱 활발하게 열렸다. 환등회는 당시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갔던 시각교육미디어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환등회 연구는 미술교육이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과 순수미술을 위한 창작과 표현을 중요시하는 맥락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과 관련된 시각문화를 포섭하는 관점으로 미술교육의 지평의 확장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앤더슨(T. Anderson)은 *Art for Life: Authentic instruction in Art*에서 미술교육이 포괄하는 요소를 일곱가지로 들었다. 미술교육의 일곱가지 구성요소로는 미술을 포함한 시각문화의 연구, 사회적 맥락 속에서 창의적 자아 표현, 미학과 미학적 탐구, 미술 비평, 미술사, 미술 제작, 현대 테크놀로지이다.²²³⁾ 이 중 앤더슨이 시각문화 연구를 미술교육의 첫 번째 구성요소로 명명한 것은 그만큼 우리 일상의 삶이 인터넷, 광고, 텔레비전, 영화를 비롯한 시각미디어와 관계 맺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오늘날의 미술교육에서 시각문화를 제외하고 미술교육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폴 던컴(P. Duncum)은 일상의 미학적 경험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알리는 데 순수 미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²²⁴⁾ 이는 일상은 매일의 삶이라는 점에서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던컴은 일상의 미학적 특정 장소로 텔레비전과 컴퓨터 스크린에 있는 대중 매체 이미지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쇼핑몰, 도시풍경, 관광명소 등과 같은 환경을 포함시킨다.²²⁵⁾

일상에서 마주하는 시각문화가 순수미술보다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개인의 삶

223) Tom Anderson & Melody K. Milbrandt(2005). *Art for Life: Authentic instruction in Art*. New York: McGraw-Hi, pp. 7-8.

224) Paul Duncum(1999). A Case for an Art Education of Everyday Aesthetic Experiences. *Studies in Art Education*, 40:4, p. 296.

225) Ibid., p. 295.

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시각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미술교육계에 시각문화미술교육(Visual Culture Art Education, VCAE)은 2002년 던컴에 의해 명명되고 확산되었다. 같은 해 한국미술교육학회의 학술대회 명칭이 ‘시각문화와 미술교육’(2002)이었으며 문화연대에서는 ‘시각문화교육분과’를 조직하여 시각문화교육으로의 미술교육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²²⁶⁾ 이와 같이 이제 미술교육에서 시각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다시 말해 시각문화교육이란 학습자가 시각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삶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시각언어를 구성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²²⁷⁾ 학습자가 시각문화 현상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과거와 현재의 시각문화를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과거와 현재의 시각문화의 관계의 망을 이해함을 뜻한다. 현재는 과거의 경험과 행위의 역사적 결과물이며, 미래는 현재의 삶과 결단에 의해 선형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행위의 의미와 연관된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와 과거로 거꾸로 흘러가기도 하며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과거는 현재의 경험과 나의 존재방식에 따라 재구성되고 새롭게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는 과거는 지나간 사건의 닫힌 결정체가 아니라 현재에 의해 열려 있는 지평이기 때문이다.²²⁸⁾

다시 환등회 연구가 한국 미술교육에서 가지는 함의성과 의의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환등회 연구가 시각문화미술교육의 대두로 미술교육의 영역 안에서 연구되어야 할 주제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질문으로 환등회의 연구가 현재의 삶에, 현재의 미술교육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대 계몽기에 등장한 환등회는 해방 이후 슬라이드 프로젝터, TV, 영화 그리고 오늘날의 디지털 미디어라는 다른 형태의 시각미디어로 변경·발전하여왔다. 근대 한국에서 환등회가 지배자의 사상을 선전하고 교육하는 주요 시각미디어로 사용된 바와 마찬가지로 발전된 형태의 시각미디어 또한 한국의 근현대 역사와 함께 지배체제의 사상을 교육하는 시각미디어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환등회는 근대 계몽기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각교육 미디어의 역사를 연결해준다. 근대 환등회 연구를 통해 시각미디어가 ‘교

226) 안인기(2008). 『시각문화교육의 담론』.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4.

227) 위의 논문, p. 225.

228) 신승환(2008). 앞의 책, p. 143.

육'과 관계 맺는 방식을 드러내 준다.

한편, 근대 환등회에서 상영된 이미지는 대부분 사진이었다. 환등회에서 크게 영사된 사진은 그림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을 가진다. 그것은 사진의 '진실' 효과와 '객관성'이라는 요소로, 조선인들은 사진으로 보여지는 환등회의 내용을 보다 더 신뢰하고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환등회의 내용을 이루는 사진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대 한국 미술교육에서 참고자료 또는 보조자료의 지위에 머물렀던 사진의 역할과 위치를 재고하게 한다.

이 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환등회의 미술교육적 의미와 기능을 최초의 시청각 교육이란 측면과 근대 다른 시각교육 미디어와의 관계적 맥락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환등회의 의미를 시각교육을 통한 식민사상의 이식이란 관점으로 고찰하겠다.

1. 환등회의 미술교육적 의미와 기능

환등회가 미술교육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시각문화미술교육에서 미술은 삶의 외부에서, 승고나 승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정한 행위이기보다 생활세계의 곳곳에, 삶을 영위하는 지속적인 시간 경험 안에 함께 생성하는 끊임없는 이야기라는 미술의 지평의 확대에서 시작될 수 있다. 미술교육은 생활세계와 관계 맺는 모든 시각문화교육을 포괄한다.²²⁹⁾

시각문화의 확장에 따른 미술교육의 영역의 확장은 근대 미술과 근대 미술교육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근대 한국의 미술교육 연구가 학교 미술교과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이 시기 한국 학교 미술교육은 도화와 임화로 미술을 하나의 기술 또는 훈련으로 강조하는 기능주의 미술교육이 행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미술교육과 미술교과 연구는 용기화 연구, 근현대 미술교육의 시기 구분의 문제 등을 연구하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었다. 근대 환등회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미술교육을 학교 밖, 일상의 세계로 확장하는 첫걸음이라 여겨진다. 이 절에서는 환등회를 미술교육의 역사적 관점과

229) 안인기(2008). 앞의 논문, p. 235.

다른 미디어와의 관계적 맥락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려 한다.

1) 한국 최초의 시청각교육 미디어

가. 시청각교육의 기점 문제

환등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청각교육이자 시각적 오락 미디어였다. 환등회는 태생적으로 교육과 오락의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근대 한국의 환등회는 ‘오락’의 기능보다는 ‘교육’의 역할이 강조된 시각교육 미디어였다.

환등회는 시청각 미디어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학습효과가 컸다. 특히 근대 조선의 문맹률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朝鮮國勢調查報告』에 따르면 1930년 조선인 문맹률은 전체 조선인구(2천 5백만 명)의 77.7%에 달하였다.²³⁰⁾ 일본어와 한글을 모두 읽을 수 없는 인구가 80%에 육박하는 수준의 문맹률은 당연히 시각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식이 조선인에게 더욱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조선인의 교육방식으로 환등회가 유력한 수단일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YMCA의 교육학감으로 부임한 그레그(G. A. Gregg, 1863-1939)가 가장 먼저 구입한 것이 환등기였고,²³¹⁾ 관공립과 보통학교 교감회의에서 협의한 사항 11개 중 ‘각 학교에 환등기를 설비할 것’을 명시하였듯이 환등기는 당시 교육현장에서 구비되어야 할 교육기재였다.²³²⁾

230) 朝鮮總督府(1934).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查報告: 全鮮編』. 京城(서울): 朝鮮總督府, 1권, p. 72.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30년 전체 조선인(20,499,108명) 중 일본어와 한글을 모두 읽을 수 있는 조선인은 6.78%(1,387,276명), 일본어만 가능한 인구는 0.03%(6,297명), 한글만 가독 가능한 인구는 15.44%(3,156,408명)이다.

231) 「靑會幼燈」. 『대한매일신보』(1907.2.28.). 기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皇城基督教靑年會에 教育上所用으로 精美한 幻燈器具를 美國에 注文以入호얏는디 今日下午七點半에 本會學監具禮九씨가 美國靑年會教育情形을 五十餘種圖解로 演說호터이니 磨獨에 有志靑年은 來臨허심을 기圖호다더라”.

232) 「教監會提議件」. 『대한매일신보』(1908.7.19.). 관공립과 보통학교 교감회의의 협의사항은 “학년말 학도 포상방법에 관한 건, 창가과(唱歌科)를 필요과(必要科)로 지정하고 학부(學部)에서 곡을 만들 건, 주산을 배울 필요가 있으니 몇 학년부터 가르칠

환등기 구매는 오늘날 교육부에 해당하는 학부(學部)와 지방도청이 주도했다. 이들 외에 간간히 독지가가 환등기를 학교에 기부하기도 하였다.²³³⁾ 지방도청은 교육 장려비로 환등기를 구매하였고, 사용자는 각 지방도청에서 환등기를 대여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이 아닌 학부 또는 지방도청이 환등기를 구입한 이유는 환등 장비가 고가였기 때문이다. 1923년에 동래군 장안면 청년회에서 120원을 들여 환등기 한 대를 구입하였다.²³⁴⁾ 이 가격은 1909년 서울YMCA의 환등회 입장권이 10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고가였음을 알 수 있다.

환등기 구매 기사를 보면, 환등기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축음기를 세트로 공동구매한 것을 볼 수 있다. “학부에서 각 학교 학원(學員)의 지식과 활발한 기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백주환등기와 유성기(流聲器)를 구입”하였고,²³⁵⁾ “함북도청은 지방비로 환등, 유성기(留聲機) 등을 구입하여 각 학교에 순차 사용하도록 하였다.”²³⁶⁾ 지방비로 유성기와 환등기구를 구입하였다는 기사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다음 기사를 보자.

<자료 17> 「幻燈留聲機의 効力」

平南觀察使는 管下官公立各學校에 入學者 零星함을 憂嘆하여 焦心研究한 結果로 地方費로 留聲機와 幻燈器具等を 購入하여 平壤公立普通學校에 幻燈會를 開하고 日夜로 多數人士를 會同演說하더니 今番에 該普通學校에 男生徒百四十名 女生徒五十三名이 增加하였다더라.

출처: 『황성신문』 (1910.7.12.)

앞의 기사는 평안남도 관찰사가 관공립 학교의 입학자가 적어 고심 끝에 지

지 정할 건, 학생의 훈련요목을 조사할 건, 필요한 도서기계를 조사할 건” 등이다.

233) 「地方通信: 慶尙南道, 篤志寄附(咸陽)」. 『毎日申報』 (1914.6.26.). “함양군 安義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 李禎俊씨는 원래학계에 特히 有意호던바 今般 약 100엔 가치의 환등기기 一組를 該校에 기부호 얏다는대 教育上 將來多大호 발전을 期하리라더라.”

234) 「長安面青年會, 衛生幻燈映寫巡講」. 『동아일보』 (1923.10.1.).

235) 「學部の 白晝幻燈會」. 『황성신문』 (1909.7.3.). 축음기(蓄音機)와 같은 표현으로 유성기(留聲機)가 함께 사용되었다. 한자가 다른 流聲器 또한 축음기의 다른 표현으로 1910년 이전에 사용되었다.

236) 「地方費中購入」. 『황성신문』 (1910.5.24.).

방비로 유성기와 환등기구를 구입하여 평양공립보통학교에서 환등회를 주야로 연 결과, 남학생 140명, 여학생 53명이 추가로 입학하였다는 내용이다. 환등회 강연 주제는 다방면의 인사가 초청되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연설하였을 것이다. 이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통학교의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왜 환등기와 유성기를 그것도 구매까지 하여 환등회를 개최하였을까? 그 이유는 환등회가 그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힘과 그것의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성기를 사용해 음악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를 통해 환등회 주최자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이다. 위 기사의 제목 역시 ‘환등 유성기의 효력’이 아닌가.

일제 시대 또한 교육활동에 환등회가 음악과 함께 개최되었다. 경기도는 위생사상의 보급 등을 위하여 각 군에 환등영사기와 유성기를 구입 중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²³⁷⁾ 또한 서울에 있는 당진학생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강연단을 조직하여 환등과 음악을 준비하여 당진 10개 면에 교육사상을 선전할 목적으로 순회강연을 하였다.²³⁸⁾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환등회는 시각뿐만 아닌 유성기를 사용하여 음악이 연주되는 말 그대로 시청각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때론 음악 없이 환등만 영사될 때도 있었다.

근대 한국에서 환등회는 서구와는 달리 오락이 목적이 아닌 교육을 목적으로 한 시청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환등회 연구는 우선적으로 한국 교육사에서 시청각교육의 시작을 해방 이후인 1950년대로 설정하고 있는 지점을 1920년대로 정정하게 한다.²³⁹⁾ 이것의 의미는 개항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까지의 시청각교육사가 단절의 역사가 아닌, 하나의 흐름을 지닌 연결된 역사를 지니게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오늘날의 시각매체 교육의 뿌리와 흐름을 인식하게 한다.

현재 한국 교육사에 있어 ‘시청각교육(audiovisual education)’의 개념 도입은

237) 「경기도에 사회사업: 환등과 유성기를 각 군에 배부한다.」. 『조선일보』 (1921.5.19.).

238) 「在京唐津學生團」. 『동아일보』 (1921.7.22.).

239) 1920년대가 되면 환등회는 순회환등회 등 조선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개최되었다. 1910년대까지만 해도 환등회는 새로운 매체로 내용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주었다면, 1920년대가 되면 이제 사람들은 환등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환등회에 참여하였다. 그만큼 일제시대, 특히 3.1운동 이후 문화통치기 환등회는 총독부의 교육 미디어로서 적극 활용되었다.

1950년대로 보고 있다. 1960년대 말엽부터 ‘교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교육공학 안에 시청각교육이 포함되었다.²⁴⁰⁾ 이렇게 국내의 시청각교육의 도입 시기를 해방 이후로 설정하는 이유는 1945년에서 1950년대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운동인 “영화교실운동”을 중심으로 시청각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시청각교육위원회가 1951년 발족되었으며 이듬해 『시청각교육신문』이 발간되었고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시청각교육 강좌가 개설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의 시청각교육의 시작점을 1951년에서 1952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1950-60년대를 한국 시청각교육의 출발점으로 보는 관점은 대부분의 연구물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²⁴¹⁾

한국에서는 왜 1950년대를 시청각교육의 태동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학교 제도 안에서 ‘명확하게’ 시청각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육이 진행된 것만을 연구대상을 삼은 문제가 첫 번째 까닭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권 밖에서 행해진 시청각교육에 대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근대 계몽기 시청각교육을 공백기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경우 시청각교육의 시작점을 해방 이후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환등회의 시각교육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사진, 환등, 영화 등의 교육적인 활용에 대하여 논의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청각교육의 태동기를 1920년대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의 일환이었던 교육개혁기로 잡고 있다. 이는 북미유럽의 시청각교육의 영향을 받고 돌아온 교육자들이 영화, 라디오 등을 교육의 매체로 활용하였던 시기로 보기 때문이다.²⁴²⁾

240) 김정애(1994). 『한국 교육공학의 역사적 고찰』.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241) 1960년대에는 문교부에 시청각교육과(1961)가 신설되었고, 시범시청각교육원의 사업이 문교부 중앙시청각교육원(1963)의 사업으로 발전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시청각교육과(1962)가 설립됨으로서 시청각교육의 연구와 보급이 1960년대 초를 계기로 발전하였다고 보고 있다. 김정애. 앞의 글.

242) 강인해(2011). 『중국과 한국의 교육공학연구 동향에 관한 비교연구, 2001-2010』.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

한편, 미국 교육에 있어 슬라이드 프로젝션인 환등은 학습자의 시선을 끌며 오락적인 부분을 제공하였고,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1890년대 에디슨의 백열등

일본의 시청각교육의 역사를 보면, 일본시청각교육협회는 1928년 전일본영화교육연구회(全日本活映教育研究會)의 창립을 기점으로 한다.²⁴³⁾ 공식적인 시청각교육의 기점을 전일본영화교육연구소로 삼았으나, 일본은 환등이 1870년대 유입되어 교육과 오락방면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다. 특히 청일전쟁 당시에는 전쟁을 선전·선동하는 매체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일본시청각교육협회가 영화를 시청각교육의 효시로 명명하였지만 다수의 논문에서 영화 이전의 환등회를 시청각교육의 시작점으로 바라본다.

미국 또한 1860년대부터 약 30년간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환등회와 1894년 활동사진의 발명 이후 영화를 시청각교육의 시발점으로 잡는다. 예를 들어 키스톤뷰사는 이미 1905년 교육부서를 신설하고 환등 슬라이드를 미국 전역의 학교에 판매하였다. 이는 미국의 시청각교육사는 1920년대에 미국의 시청각교육과 관련된 연구회 및 단체가 생기기 이전이다. 미국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시각교육 기구가 최초로 성립된 것은 1919년에 생긴 미국시각교육연구회와 미국교육영화협회이다. 1920년에는 미국시각교육학회(The National Academy of Visual Instruction), 1922년 미국시각협회(The Visual Association of America)가 각각 설립되어 전국적인 시각교육 시범을 주도하였다. 이 단체들은 1932년에 미국교육학회(NEA)의 시각교육국(Department of Visual Instruction)으로 합병되었다.²⁴⁴⁾

환등을 발명한 서구뿐 아니라 근대 문물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흡수한 일본, 그리고 중국의 시청각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환등회는 영화 이전의 시청각교육의 주 매체이었다. 국내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활발히 전개된 환등회는 한국 시청각교육의 시작점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의 발명으로 전기로 슬라이드 프로젝션이 가능해져 19세기 말엽부터 환등은 교육에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J. Michael Spector(et al.)(ed.)(2008). *Handbook of research on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New York: Routledge, p.4.

243) 一般財団法人 日本視聽覺教育協會 홈페이지.

<http://www.javea.or.jp/aboutus/index.html> (방문일자 2017.9.25)

244) 강인혜(2011). 앞의 글, p. 2.

나. 교육방식과 교육내용의 변화

시청각교육이 환등회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의미는 기존의 교육방식, 교육내용의 변화가 동반됨을 시사한다. 시청각교육은 말 그대로 시각이 중심이 되는 수업 방식으로 교육 방식의 변화를 일차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환등회를 통한 시청각교육은 전통적인 교육과는 다른 교육 공간에서 진행되었고, 교육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환등회는 스크린이 보이는 한 수백 명의 학습자에게 동시에 교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교수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슬라이드를 사용하면 동일한 내용의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의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지식 전달에 있어 교수자의 능력과 자질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면 환등회라는 시청각교육에서는 슬라이드 등 시각 교재 자체의 질이 중요하게 되었다. 즉 환등 슬라이드라는 교재 제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것의 의미는 교수자와 슬라이드 제작자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슬라이드 제작은 지식을 가진 권력자가 일괄 제작, 배포가 가능하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수업의 매뉴얼이 만들어졌음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로 공주 영명학교 교장인 윌리엄즈가 식물학과 동물학 수업에 환등 슬라이드를 사용한 것이다. 동물학이란 수업 자체는 서양 선교사가 운영하는 근대 학교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커다란 스크린에 여러 식물과 동물 이미지를 영사하면서 수업하는 방식은 지금은 익숙한 수업 광경이지만 1920년대에는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반적이지 않았음에 확실하다. 새로운 교과목에 환등이라는 새로운 교육 기제가 사용된 것이다. 윌리엄즈는 이 수업에서 사용한 슬라이드를 미국에서 구입하였다.

한국의 최초의 시청각교육으로서 환등회는 수십 명에서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대중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교육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그 어떤 매체보다 ‘즐겁게’ 그리고 거부감 없이 관람객에게 수용되었기에 환등회의 교육적인 효과가 컸다고 여겨진다.

데일(E. Dale)은 프로젝터 수업방식의 장단점에 대하여 열거하였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같은 경험을 경험하게 한다. 둘째, 책에 삽입된 사진은 작기 때문에 상세한 이미지를 보기 어려운 반면, 때때로 200배 이상 확대된 스크린에 영사된 사진은 원본보다 훨씬 쉽게 볼 수 있다. 계

다가 인상적으로 확대된 이미지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한다. 셋째, 어두운 곳에서 상영하기 때문에 스크린에 더욱 집중하게 한다.²⁴⁵⁾ 반면, 단점으로는 어두운 곳에서의 수업은 노트 필기가 쉽지 않으며, 여러 명이 동시에 프로젝트를 보며 하는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학습이 충분히 만족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사되는 이미지의 수를 줄이고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²⁴⁶⁾ 이미지와 언어로 동시에 교육하는 시청각교육은 이미지만으로 혹은 언어만으로 이루어진 수업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환등회를 본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동아일보의 한 기자는 지방 순회 중 황주행 기차에서 사색에 잠기며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환등에 비유하였다. “비록 얼마 동안은 되지 못하나마 역두에서의 섭섭한 작별, 장차로의 무거운 사명, 환등같이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순간의 비애와 초조한 번민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일기자의 회고는 환등회에서 본 이미지가 불현듯이 그러나 명확히 떠오른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⁴⁷⁾ ‘환등같이 머릿속으로 떠오른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1925년 기사가 작성되던 시기에 환등은 일반사람들에게 친숙한 매체임을 시사한다. 환등회에서 본 이미지는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오르며 오랫동안 인상에 남았음을 알 수 있다.

시청각교육으로서 환등회는 교수방식을 바꾼 것 이상으로 그 내용 역시 전통적인 교육과는 차이가 있었다. 근대 한국에서는 특히 환등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선교사, 식민정권 그리고 조선의 계몽지식인이었다. 서구와 일본에서 역시 환등은 지배자의 선전 매체였지만 한편으론 일반인들이 집에서 가볍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오락매체였고 오늘날의 영화처럼 다양한 종류의 환등회가 존재하였다.

근대 한국의 환등회는 일방적으로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미디어였다. 이에 환등회의 주제는 대부분 당시 서구의 근대 문물을 소개하면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와 조선의 전통적인 풍습과 서구의 문물을 비교하는 내용이 많았다. 선교사를 비롯한 조선의 지식인은 근대 문물과 문명되

245) Edgar Dale(ed.).(1954). *ibid.*, p. 243.

246) *Ibid.*, p. 244.

247) 「東亞日報記者地方巡廻(동아일보기자지방순회) 正面側面(정면측면)으로 觀(관)한 黃州(황주)의 表裡(표리)」. 『동아일보』 (1925.1.26).

치 등을 중심으로 환등회를 개최하였다면, 식민정권은 위생교육이란 명목 하에 조선인의 일상을 지배하려 하였으며 1920년대에는 산미증산계획(産米増殖計劃)의 일환으로 농축산물의 개량법 등을 환등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렸다. 즉 환등회의 내용은 상영 주체(선교사, 대한제국 내각, 개화 지식인, 한일병탄 이후 조선총독부 등)에 따라 19세기 당시의 ‘근대적’이라거나 ‘계몽적’이라고 여겨지는 바가 교수(教授)되었다.

환등회가 시청각교육 매체로서 계몽의 이미지를 심고 계몽적인 내용을 교수하는 데 용이한 지점은 중국의 문맹퇴치 사업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중국 문맹퇴치교육은 옌(Y. C. J. Yen)이 1920년대에 조직한 대중교육운동국가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Mass Education Movements)의 핵심 사업이었다.²⁴⁸⁾

이 대중교육운동의 일환으로 환등회를 통해 글자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도판 35>에서 볼 수 있다. 교수자는 스크린에 영사된 ‘平’자를 쓰는 방법과 글자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 환등 슬라이드 왼쪽에는 ‘28. CHINA Shanghai, Mass Education by Lantern Slides’라고 쓰여 있다. 이 도판은 YMCA가 제작한 <China>라는 제목의 환등교본으로 1928년 개정판에 삽입되었다.²⁴⁹⁾ 이 사진은 환등회가 어떻게 시청각교육의 역할을 하면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시사해주고 있다.

요약하자면, 최초의 시청각교육으로서 환등회는 전통적인 교육방식과는 다른 내용과 형식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환등회의 주제는 대부분 서구 근대 문물 및 풍경에 관한 것과 이를 조선의 전통과 비교하는 내용이 많았다. 또한 환등회는 문맹률이 80%에 육박하는 조선인들에게 시각을 중심으로 하는 동시에 음악이 연주되는 형식으로 그 어떤 계몽매체보다 효과적이었다. 이에 1910년대까지 조선인들은 환등회가 열리면 입장료도 마다하지 않고 환등회를 관람하였고 이는 일회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관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환등 슬라이드는 여러 개를 동시에 제작하는 것이 용이하였고, 이를 강의교본 형식으

248) Y. C. James Yen(1926). "Chinese Mass Education Movement Progresses Strongly". *News Bulletin*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12.

249) Foreign Committe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CHINA>. Harvard Yenching Library(1925년 초판/ 1928년 개정). 이 컬렉션에는 환등교본(script)과 이 교본에 사용된 50개의 환등 슬라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로 만들어 판매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환등 슬라이드 세트를 구매한 후, 서로 다른 세트에서 원하는 슬라이드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강의를 구성할 수 있었다.

환등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이미지를 동시에 관람하면서 공동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동일한 환등 슬라이드를 사용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환등회가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하나의 이미지가 공동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근대 시각교육 미디어와의 관계적 맥락

환등회는 무엇보다 내용을 설명하는 교수자가 존재한다. 변사, 강연자, 환등사 등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교수자는 환등회 구성의 기본 요소로, 환등회는 관객인 학습자에게 정보, 지식을 전달하는 근대의 대표적인 시각교육 미디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환등회의 교육적 속성은 사진을 주요 내용으로 사용하였다. 사진의 기본적인 속성인 ‘사실적 증거’ 능력과 기록성은 환등회 주체자의 논지를 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신뢰를 가지게 하는 힘이 있었다.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근대 한국 환등회의 속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당시 다른 시각교육 미디어와 환등회와의 관계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근대 한국 사회는 신문사진, 사진첩, 사진엽서, 담배카드 등 인쇄사진의 등장과 더불어 서양화를 비롯한 삽화, 표지화, 만화, 광고그림 등의 인쇄미술, 그리고 환등기, 파노라마, 활동사진 등 광학적 오락매체 등 다양한 시각매체들이 출현하여 서로 경쟁하고 영향을 주면서 시각세계를 확대하던 시기였다.²⁵⁰⁾ 이와 함께 박람회도 근대의 대표적인 시각매체에 포함된다. 이처럼 근대에 출현한 여러 시각매체 중 환등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시각교육 미디어로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교육이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50) 이경민(2011). 앞의 논문, p. 57.

교육이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 형성의 과정으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에너지와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에너지의 조화로운 만남이며, 그 ‘만남 (communication)’을 통해 최선의 공존방식을 더불어 모색하는 ‘공동체 형성 (communization)’의 과정으로 조용환은 정의한다.²⁵¹⁾ 교육에서는 만남, 즉 의사소통의 과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배움이란 현재의 자신에서 출발하며 교육매체를 통해 스스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순간이 아닌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바라보자면 모든 시각매체를 통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환등회에서는 교수자가 반드시 존재하였다. 이 지점은 다른 교육매체와 환등회와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에 있어 참지식으로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은 부단한 반성을 통해 능력과 품성의 향상을 추구하는 인간이며, 다른 사람들과 단순히 ‘함께 있는(並存, being together)’ 존재가 아닌 ‘어울려 나아가는(相生, becoming together)’ 존재로, 교사는 발명가가 아니지만 발명가를 길러내기 때문이다.²⁵²⁾ 진정한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조화로운 만남이 기본이 된다. 이때 시각교육 미디어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매개체가 되는 것으로 ‘교수자-(시각교육 미디어)-학습자’의 관계가 형성된다. 물론 근대의 다른 교육매체와 비교하여 환등회는 항상 교수자가 존재하였고 하여, 환등회의 모든 내용이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교육은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지식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²⁵³⁾

이 글에서는 환등회와 그리고 다른 시각교육 미디어가 진정한 교육 미디어 인지론을 논하기보다는 근대의 어떤 시각미디어를 교육미디어로 볼 수 있는가에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근대 한국에 있어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각매체이어야 한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교육이란 목적성이 분명하며 교수자가 존재하고 사전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각각 교과서의 삽화와 근대 박람회나 환등회 이외의 또 다른 대표적인 시각교육 미디어라 할 수 있다.

251) 조용환(2001).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 관계」. 『교육인류학 연구』. 4(2), p. 2.

252) 위의 논문. p. 3.

253) 이영옥(2015). 『21세기 교육, 중재교육과 비교초기』. 서울: 한국중재교육연구소. p. 100.

먼저, 교과서를 살펴보면, 교과서의 삽화는 수업이라는 확실한 교육적 목적을 지녔다. 당시 교과서에는 그림 도판이 많이 실리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림의 수준은 조악하였다. 예를 들어 1907, 8년에 발행된 최초의 미술교육서인 『도화임본圖畫臨本』과 1921년에 발행된 『보통학교도화첩普通學校圖畫帖』은 초등미술교육의 목표가 도안교육이라는 기능주의 교육이 목표였기 때문에 꽃, 나무 등의 식물류와 곤충, 동물 등을 포함한 자연물의 단순한 도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 근대시기 초등미술교과서는 대부분 총독부 발행으로 교과서의 내용은 크게 자재화(自在畫)와 용기화(用器畫)로 구성되어 있다. 자재화는 임화(臨畫), 사생화(寫生畫), 기억화(記憶畫), 사상화(思想畫) 등을 의미하며, 용기화는 기하학적 작도법이 사용되는 도안 및 투영도법과 투시도법으로 그려지는 그림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²⁵⁴⁾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린 그림들은 미술교육에서의 ‘감상’의 영역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도판 57>

미술교과 이외의 『초등지리』 교과서를 보면, 칼라로 인쇄된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식민지의 교과서 중 가장 많은 사진과 그림이 실린 교과서인 『國史地理 上·下』를 보면 교과서 자체로서 시각교육 매체의 역할은 부인할 바가 아니다.²⁵⁵⁾ 『國史地理 上·下』는 당시 일본과 한국의 도시, 철도, 항구를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실고 있어 그 시기 도시의 모습들을 시각화하였다.<도판 58> 여기서 조선과 일본을 시각화하는 기제는 조선을 일본제국에 속하는 하나의 지역으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의 도시와 조선의 도시를 비교하는 사진들로 치밀하게 구성되었다.

일제강점기 교과서가 시각교육 매체로서 환등회에서 영사되는 이미지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환등회에서 영사되는 이미지는 교과서와 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윌리엄즈 선교사가 환등으로 수업시간에 보여주었던 파리 및 파리유충 이미지<도판 31>와 『보통학교 이과서』 교과서에 실린 파리 그림<도판 32>과 비교하면 전자의 환등 슬라이드가 더 정확한 파리의 모습을 제시한다. 또한 환등의 확대된 이미지는 하나의 스펙타클을 만들어 낸다. 이 지점이 바로 시각교육 미디어로서의 교과서와 환등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54) 박소영(2012). 「근대 초등미술교과서 다시 읽기-도안영역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26(1), p. 62.

255) 朝鮮總督府(1938-39). 『國史地理』 上, 下. 京城朝鮮書籍印刷.

다음으로 근대 시각교육 미디어라 할 수 있는 박람회에 대하여 살펴보자. 19세기는 박람회의 시기라고 할 정도로 제국의 열강들은 박람회를 자신들의 힘을 선전하고 과시하는 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였다. 강점 이후 일제는 박람회를 통해 조선의 식민지화에 대한 자신들의 업적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 교육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박람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를 철저하게 계산하였고 이를 조선의 식민정책을 위한 시각 미디어로 활용하였다. 일제가 가장 대표적인 선전 미디어로 활용한 박람회의 예로 1915년 <시정오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始政五年記念 朝鮮物産共進會)>와 1929년 <조선박람회(朝鮮博覽會)>를 들 수 있다. 이 두 박람회 모두 경복궁에서 개최되었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가장 공식적인 법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제는 이곳을 가장 많이 변형, 훼손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식민지의 합법화를 선전하는 박람회를 이곳에서 열었다.

일제강점기 박람회를 통해 일제는 식민화된 조선을 다른 나라에 알리려 함과 동시에 일본 내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식민지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었다.²⁵⁶⁾ 근대 박람회는 그 자체에 교육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박람회의 교육적인 효과를 정확히 알고 있던 식민 정부는 학교교육에 있어 환등뿐만 아니라 시각을 활용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것이 바로 교육전람회이다. 1910년 지방비와 교육사업 기사를 보면, 총독부는 박람회를 교육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18> 「地方費와 教育事業」

地方費와 教育事業 地方費 中 教育에 關한 豫算은 如左하다더라.

(甲) 教育機關에 補助할 金額

(乙) 教育 勵費 卽 教授用幻燈費、教育品展覽會、講習會、學事視察費 等

道別 金額 圓 道別 金額 圓

漢城 二二〇 忠南 四三〇

全北 四〇〇 全南 六五〇

慶北 三〇〇 慶南 五〇〇

256) 국성하(2003). 「박람회의 교육적 성격연구(1889-1940)」. 『연세교육연구』. vol. 16. no.1, p.198.

威北 三〇〇 合計 二 八〇〇

(강조는 필자)

출처: 『황성신문』 (1910.4.27.)

각 지방별 교육사업 예산을 보여주는 이 기사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교육 장려비용에 교수용환등기와 교육품전람회”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제는 조선인의 식민화 교육에 있어 환등회와 더불어 전람회 및 박람회를 가장 효과적인 미디어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환등회와 박람회는 근대의 대표적인 시각교육 미디어로서의 공통점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두 미디어 모두 시각을 중심으로 한 오락성에 기초하며 당시 해외에서 조선을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육박람회의 또 다른 예로 연합감리교 아카이브의 <Korea> 환등교본에 소개된 조선의 기차박람회를 들 수 있다. 이 환등교본은 산업박람회기차가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 한국의 각 지역을 운행하며, 학교들은 휴교하여 학생들이 이 박람회에 참석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기차가 정차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기차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덧붙였다. 환등교본에는 이 기차박람회가 “진정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도판 59>는 기차박람회의 외관이 어떻게 꾸며졌는지를 보여준다. 기차의 외관에는 이 박람회를 후원하는 인천탄산수 회사와 영미연초회사(British-American Tobacco Company) 등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다. <Korea> 환등교본에서는 교육적인 목적의 기차박람회의 외관에 영미연초회사의 광고가 붙어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보통 박람회가 특정 공간을 전시장으로 정하여 사람들이 찾아가는 방식이었다면, 이 기차박람회는 기차가 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보다 능동적인 행보를 보인다. 근대 한국에서는 기차박람회가 빈번하게 개최되었는데,²⁵⁷⁾ <도판 59>의 기차박람회는 1914년 4월경으로 추정된다. 이 박람회 기차가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도판 60>을 보면 <도판 59>의 기차박람회

257) 「瀛車博覽會」. 『大韓每日申報』 (1906.11.8.); 「觀光博會」. 『大韓每日申報』 (1907.4.4.); 「瀛車博覽會」. 『大韓每日申報』 (1910.4.2.); 「평양」. 『每日申報』 (1914.4.16.); 「巡回 汽車 博覽會」. 『每日申報』 (1922.4.18.); 「기차박람회 상황」. 『每日申報』 (1924.7.14.); 「汽車博覽會 東京商議가 開催」. 『中外日報』 (1927.5.8.).

는 조선신문사가 주최한 것으로 사진에서 정차한 역은 신안주역임을 알 수 있다. 기차를 박람회장으로 꾸며 직접 각 지역을 순회하는 이 기차박람회는 그만큼 박람회를 조선총독부가 식민정권의 산업을 선전하는 데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차박람회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전시하였는가? 다음의 자료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자료 19> 「汽車博覽會」

朝鮮新報社에 發起로 汽車博覽會를 開호는디 汽車博覽會는 汽車로 各市場을 巡迴호야 地方에 商品을 陳列호고 處處에 호야 博覽會를 開호는것이니 大韓에 敷設호는 鐵道에 各線을 利用호야 韓日貿易과 農商業等經濟上의 利益을 發達호라함인디 商品陳列車三臺와 貨車一臺를 三千五百圓에 借得호야 室內를 改造호며 軌道布設과 列車運轉等을 設備호야 三車를 三十五區에 分호고 一區域의 陳列請願金을 一百圓으로 定호고 出品호기를 請願호는 期限은 本月十日까지오 各出品人이 其列車에 乘行호는 食費는 各各自擔호야 本月十五日로부터 十二月十五日까지 繼속호터인디 開會場과 日數는 如左

龍山에서 一日 開城에서 二日 新幕에 一日 黃州에 一日 平壤에 三日 車輦館에 一日 新安州에 一日 定州에 一日 宣川에 一日 新義州에 一日 兼二浦에 二日 南大門에 一日 永登浦에 半日 水原에 半日 太田에 半日 金泉에 一日 大丘에 一日 釜山에 一日 馬山에 一日 仁川에 一日

출처: 『大韓每日申報』 (1906.11.8.)

위의 기사는 조선일보사가 개최한 최초의 기차박람회에 관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일제민간지로 1908년 조선신문사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기차박람회는 한일무역과 농상업의 경제적인 이익의 발달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상품진열을 위해 기차 3대와 화물운송을 위한 기차 1대를 3천 5백원에 대여하였고 여기에 출품하여 진열을 원하는 자는 100원의 진열청원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 기차박람회의 일정은 용산에서 출발하여 북부지역인 황해도 검이포까지 운행 한 후 다시 남부지역으로 순회하여 부산과 마산을 끝으로 인천으로 돌아오는 총 23일이었다. 이 기사의 기차박람회는 11월에 운행되었으나 이후의 기차박람회는 대부분 4월에 출발하여 약 2달여간 각 지역을 순회하

며 개최되었다.

박람회와 환등회는 주최자의 목적에 따라 전시되고 설명되는 형식이지만 기본적으로 오락성을 전제로 한다. 자발적으로 박람회와 환등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주는 재미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대 박람회는 직접 상품을 진열하거나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산업의 발전을 제시하였다. 반면 환등회는 사진이라는 이미지로 상영되어 보다 다양한 주제가 가능하였다. 근대에는 산업물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보다 스크린에 빛으로 투사되는 환등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차박람회가 사람들을 찾아가는 적극성을 띄었다 하더라도 환등회의 이동의 편리함과 유동성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환등기는 운반이 쉬웠다. 환등 슬라이드는 주체자가 직접 제작, 구입하기가 용이하였으며 환등회 현장의 반응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박람회는 이미 정해진 전시방식을 변경하기가 어려웠다.

2. 근대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환등회

근대 한국에서 환등회는 서구에서와 같이 영화가 경쟁자가 아니었다. 이는 한국의 환등회가 오락 미디어가 아닌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작동하였음을 말해준다. 이 절에서는 환등회 신문 기사를 해석하고 환등회의 형식과 내용을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각도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환등회 신문기사의 재해석

환등회 관련 기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갑자기 신문지상에서 사라졌다. 1897년에서 1945년에 걸쳐 약 700건에 달하던 신문기사가 홀연히 자취를 감춘 것은 근대 한국에서 환등회가 그만큼 근대의 가장 적합한 교육 미디어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당시 환등회 신문기사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환등회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 환등회 신문기사의 해석을 말할 때는 재해석이라 할 수 있다.

신문기사를 해석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바로 환등과 환등회는 근대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기에 가장 용이한 미디어였다는 점이다.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률이 매우 높은 조선에서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특히 그림은 더 적은 시간 안에 더 많이 가르치며 생생하고 매력있는 그림은 적은 설명을 해도 된다. 또한 하나의 그림은 명확한 생각의 시각적 재현이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언어로 말할 수 있다.²⁵⁸⁾

환등회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집단이 동일한 이미지를 봄으로써 공통의 경험을 만들며 시각정보를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보급하였다.²⁵⁹⁾ 이것이 뜻하는 바는 환등회 주최자가 의도한 정보와 지식을 그 어떤 매체보다도 빠르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같은 환등회를 관람한 다수의 관객들이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에는 같은 내용으로 조선 전국을 도는 순회환등회가 성황을 이루었는데, 주제는 위생사상 고취와 농사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환등회가 주를 이루었다. 이렇게 환등회는 같은 이미지로 반복하여 개최하는 것이 용이하였고, 특히 이미 제작된 환등 슬라이드는 주최자가 의도한 바에 맞추어 생산된 것이었다.

환등회가 조선 전역에서 열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환등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이동이 편리했고 간편했으며 조작성이 어렵지 않았다. 특히 영화는 상영을 위해 전기가 필요했던 반해, 환등은 광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어디서나 환등회를 열 수 있었다. 전기로 광원을 공급하는 환등기는 전구의 빛이 강해서 더 크고 선명한 이미지를 스크린에 투사하는 것이 가능하여, 20세기 초 서구에서는 대부분 전기를 사용하여 환등기를 켜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여전히 전기보다는 석회광을 이용한 환등기가 사용되었다. 1920년대에 조선 구석구석 전기가 상용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최초로 전기설비가 국내에 들어온 것은 1886년 경복궁이며, 용산에서 남대문까지의 전차가 1899년 개통되었으나 경성에 전기가 들어

258) Horace G. Brown(November 1913). "Efficiency in Teaching by Pictures". *Education*, 34:3, p. 171을 Judith Babbitts(1987). *ibid.*, p. 86에서 재인용.

259) X. T. Barber(1993). *ibid.*, p. 45.

온 것을 의미할 뿐, 조선 전역에 전기가 들어가게 된 것은 강점 후기에나 가능하였다.

일례로 1923년 8월 30일자 『조선일보』에 환등회 화재 기사가 났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 안동군 하회면에서 경성인광회 순회환등단이 개최한 환등회의 화재 사고로 다음과 같다.

<자료 20> 「隣光會幻燈團員 安東에서 火傷」

(중략) 환등을 영사하려고 까쓰에 불을 켜고 렌스를 딱다가 왼편 손에 든 양초불이 까쓰로부터 폭발되어 불꽃은 교실 텨덩까지 다이어 관객은 대소동이 되며 박그로 쪼겨 나오다가 걸상에 부드치여 경상을 만히 당하고 박게서는 안에 불이 난다하야 놀랐스나 곳 진화되고 단원 박치병 김일영 량씨의 낫과 손에 증상이 되엇슴으로 폐회케한 후 즉시 일리 거리나 되는 풍산풍화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일췌일 이상이나 된다하며 이 일행을 동정키 위하야 우리 청년회와 하회 유학생구락부와 본보 하회출장소 세 단테가 련합하야 활동을 한다더라.(하회) (띄어쓰기는 필자)

출처: 『조선일보』 (1923.8.30.).

환등기의 가스를 잘못 다루어 일어난 사고로 1920년대에도 여전히 전기를 사용하기보다는 가스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등 영사를 준비하던 중 환등기 가스가 폭발하여 환등 단원 2명이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기사를 보면 환등회가 열렸던 장소는 보통학교 교실이였다. 야외가 아닌, 학교 안임에도 여전히 전기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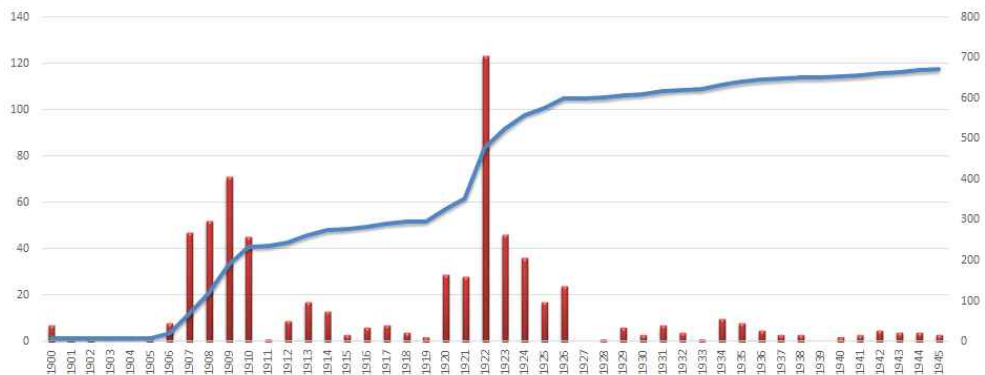
다른 주목할 사항은 이 환등회는 경성에서 온 경성인광회 소속 순회환등단이 개최한 것이다. 경성인광회는 경성 시내 수표정 조선교육협회 안에 기숙하는 고학생으로 조직된 환등단으로, 여름 방학동안 순회 환등영사대를 조직하여 조선 남부 각지를 순회할 목적이었으며 이들이 순회환등회에서 보여줄 내용은 “승지와 위인들의 사진이 박힌 환등”이었다.²⁶⁰⁾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환등회의 주요 주최자는 선교사와 조선총독부였다. 주최자로서 조선 지식인은 이들 사이에 위치하거나 이들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환등회를 열었다.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

260) 「인광회의 하기 순회 환등」. 『동아일보』 (1923.7.17.).

환등회 주최에 따라 환등회의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시기에 따라 환등회 주최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19세기 말에서 일제식 민통치 전 기간 동안 환등회의 주최를 알려주는 자료는 당시 신문기사이다. 1897년부터 1945년까지 신문에 게재된 환등회 기사는 총 700여 건이다. 700개에 달하는 환등회 기사를 연도별 개수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연도별 환등회 신문기사 개수, 1900~1945



막대: 연도별 환등회 신문기사 개수
선: 누적 환등회 신문기사 개수

<표 4>는 연도별 신문에 게재된 환등회 기사 개수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당시 발행된 환등회 신문기사 개수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신문의 성향에 따라 성격이 다른 환등회 기사가 게재되어 신문기사의 횟수만 가지고는 환등회의 연도별 차이를 찾기 어렵다. 둘째, 여러 신문은 발행되는 시기가 달랐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전 기간 동안 발행된 신문은 없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지속적으로 발행된 신문은 『매일신보』가 유일하다. 따라서 시기에 따라 발행된 신문의 종류가 많으면, 그에 따른 환등회 횟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셋째, 1910년 한일합방 이전까지 발행되었던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는 서로 동일한 환등회 기사를 자주 실어, 세 신문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다수 존재한다. 이는 각 연도별 환등회 숫자가 개별 환등회 숫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1922년 환등회 수(123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높은

이유는 『동아일보』가 재외교포를 위한 기금모금 순회환등회를 그 해 동안 전 조선 주요지역에서 열어 이에 관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실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신문에 게재된 환등회의 개수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4>는 근대 한국 환등회에 대해 중요한 지점을 말해준다. 우선, 그래프에서 보면 환등회 횟수가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시기가 두 개의 구간으로 명확하게 나뉜다. 1907년에서 1910년 사이와 1920년에서 1926년 구간이다. 앞 구간에서 환등회 신문기사는 서울YMCA의 환등회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룬다. 1903년 창단한 서울 YMCA의 환등회는 교육학감 그레그가 1907년 2월 환등기를 구입한 후 서울에서 환등회를 연 가장 대표적인 곳이었다. 특히 1908년 완공된 건물의 강당은 수백 명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환등회장이었다. 그런데 1910년에 갑자기 기사가 줄어든 이유는 한일병탄 전후로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가 발행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신문의 폐간과 더불어 한일병탄 이후에는 이전처럼 자유롭게 환등회가 개최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두 번째 환등회 기사가 증가한 1920년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3월, 4월 창간한 해로 신문가지의 발행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환등회에 대한 기사가 표면적으로 늘어났다. 물론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창간만이 이 시기 환등회의 신문기사 횟수 증가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1920년은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가 문화정치로 지배정책을 전환한 시기와 일치한다.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 그 시작은 자산계급·지식인·종교인 등의 일부를 친일세력으로 포섭하는 일이었다. 조선지식인이 주축이 되어 문맹퇴치, 교육장려와 같은 환등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는 조선에서의 쌀 생산량을 높여 일본의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미증식 계획(産米増殖計劃)을 실시, 이와 관련된 환등회를 다수 개최하였다. 이보다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일제는 병탄 초기부터 총독부 경무국에서 위생에 관한 환등회를 통해 조선인의 생활전반에 관한 감찰, 감독을 행사하려 하였다.

1907년에서 1910년 기간 동안에 열린 환등회는 서울YMCA가 주축이었기 때문에 경성에서 열린 환등회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1920년에서 1926년 개최된 환등회는 경성에 국한된 것이 아닌, 조선 전역에 광범위하게 열린 환등회에 관한 기사이다. 그만큼 1920년대가 되면 환등회는 초기 미국인 선교사 중심의 경성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 각지에서 열리면서 환동회는 이제 내용과 관계 없이 무조건적인 시각적 오락을 주었던 미디어라는 인식에서 벗어난다. 사람들은 1920년대가 되면 환동회가 단순 오락이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

<표 4>에서 환동회의 갑작스런 증가폭을 보여주는 두 개의 구간은 근대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었던 주치의 영향력을 그대로 대변한다. 한일 합병 이전에는 YMCA를 중심으로 한 미국인 선교사, 한일합병 이후에는 식민정권에 복무하기 위한 환동회였다.

이렇듯 선교사와 총독부가 환동회 주치의 중심축으로 이들이 서로 다른 내용의 환동회를 열었지만 그들의 목적과 방식은 명실상부한 교육이라 볼 수 없다. 다른 듯하지만 선교사와 식민정권의 환동회는 권력과 지식을 소유한 지배세력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다 자세히 이들이 개최한 환동회의 내용을 교육의 눈으로 들여다보자.

2) 시각교육을 통한 식민사상의 이식

서울YMCA의 환동회는 III장 2절에서 다루었듯이,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서구문물과 풍경 소개가 주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YMCA 환동회 주제를 보면, 인도 풍경, 하와이 경치와 하와이 재조선인 삶, 워싱턴·뉴욕·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풍경, 남아프리카 산천 및 흑인전쟁 상황, 독일 각처 경치, 영국 런던 및 각처 경치, 세계의 유명 폭포 등 조선 밖 세상의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다수를 차지한다. 다른 주제로는 치과의 필요성, 안과, 신체, 위생에 관한 환동회와 미국 최초의 공업과 진보 과정, 공업의 요점, 기계 개량의 중요성, 유럽과 미국의 상공업 현황과 진보를 들 수 있다. 그 외 혜성 및 우주의 역사, 그리고 항성의 위치와 모양 구별법을 환동회에서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환동회 주제를 보면, 표피적으로 조선 밖을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상 물정과 서구의 근대 공업의 상황 등을 가르쳐주어 정치적 어려움에 처한 조선인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듯하지만, 이는 당시 통감부의 정책과 일치한다. 식민지기 총독부는 종교적인 목적이나 실용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강연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거나 장려하였다.²⁶¹⁾ 그러나 정치적인 성격과 목적을 띤 집회는 허가되지 않았다.

서울YMCA 보고서를 보면, 운영진들은 절대적으로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강경하게 언급하고 있다.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황에서 열린 서울YMCA의 환등회는 조선의 정치, 사회와는 사실상 관계가 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환등회의 설명자는 당시 서울YMCA에 근무했던 선교사들이었거나, 한국을 잠시 방문한 인도 등 타국의 선교사들이었다. 한편, YMCA 지도부의 탈정치적 자세유지와는 달리, 조선인들은 YMCA의 환등회에 열렬히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치성을 띄었다. 조선인들은 YMCA 주최측의 의도와는 달리 새로운 것, 근대적인 것을 배워 당시 조선의 상황을 타개하려 하였다. 주최측과 관객,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다른 의도 하에 YMCA 환등회는 진행되었다.

단순히 실용적 지식과 학술적인 내용을 환등회로 교수하였던 YMCA는 스스로를 일본과 한국 사이에 중립적인 위치를 갖기를 원했다. 그러나 교육의 중립성은 불가능하다. 중립적이라 말하는 교육자는 결국 지배 권력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²⁶²⁾

YMCA의 서구의 풍경과 근대문물을 소개하는 환등회는 당시 조선인을 ‘얕’의 주체로 여기며 개최된 것이 아니라, 지식의 우위에 선 서구의 선교사들의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라고 여겨진다. 선교사들이 환등회를 통해 생산한 지식은 권력과 관계를 맺고 있기에 조선인들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권력은 본래 지식을 창출하며, 권력과 지식은 상호 직접 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지식의 영역과의 상관관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권력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동시에 권력적 관계를 상정하거나 구성하지 않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²⁶³⁾

YMCA의 지도부가 행한 환등회가 진정 핍박받는 이들을 위한 교육이었다면 YMCA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비판적 교육학자인 프레이리(P. Freire)에 따르면, 근대 조선은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

261) 송민호(2014). 「일제강점기 미디어로서의 강연회의 형성과 불온한 지식의 탄생」. 『한국학연구』 제 32집, p. 134.

262) Paulo Freire and Donald P. Macedo(1987). 앞의 책.

263) M. Foucault(1975).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고광식 역 (2009).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파주: 다락원.

계가 명확한 상황이었으므로 정치적 중립을 통한 교육은 진정하게 교육적일 수 없다.²⁶⁴⁾ 일제의 침탈 앞에서 조선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주제로 환등회를 보여주었어야 명실상부한 교육이라 할 수 있었다. 서구의 풍경을 보여준들 그건 단순한 시각적 오락과 호기심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여 입회자수를 늘려 조선에서 YMCA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환등회를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인들은 YMCA와 선교사들, 그리고 조선지식인 심지어 일본총독부가 연 환등회에 열광하였던 것인가?

첫째, 기울어져가는 조선의 정세에서 미국과 일본이 설파한 근대문물을 배운다는 것이 당시 조선이 주권을 가질 수 있게 되거나, 또는 개인의 입장에서 나름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한 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들은 환등회를 통해 근대문물을 접하면서 이를 열심히 배우려 한 것이다. 의식화되지 못한 피억압자는 해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억압자나 ‘아류 억압자’가 되기 위해 애쓰기 마련이다.²⁶⁵⁾ 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담론을 선별하여 확산, 전파시키는 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며 교육제도는 개인이 여러 종류의 담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에,²⁶⁶⁾ 환등회를 통한 교육은 “근대문명”이 곧 발전이라는 가치관이 조선 깊숙이 파고들게 하였다.

둘째, 근대 한국의 환등회는 학교라는 교육제도 외부에 위치해 있었지만, 신매체와 오락이라는 특성이 합쳐져 오히려 학교 밖에서 더욱 강력하게 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환등회는 조선인의 삶과 문화의 하나의 형식이었다. 환등회는 단순히 강습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음악이나 춤 등과 어우러진 하나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따라서 환등회를 관람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유희를 즐기고 지식을 얻는 근대의 하나의 문화였던 것이다. 문화와 교육은 둘 다 삶의 중요한 형식으로,²⁶⁷⁾ I 장의 <그림 1>에서 보듯이 환등회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조선인의 삶이라는 삼각형 안에 위치한다. 이렇기 때문에 환등회에서 학습된 내용은 훨씬 더 조선인의 삶과 밀착되어 일상에 뿌리내리기 쉬웠다. 바꿔 말하면

264) Paulo Freire(1968/2000). *Pedagogy of the oppressed*. 남경태 역(2010). 『페다고지』. 서울: 그린비.

265) Paulo Freire and Donald P. Macedo(1987). 앞의 책, p. 53.

266) Stephen J. Ball(ed.)(1990). 앞의 책, p. 19.

267) 조용환(2001). 앞의 논문, p. 5.

환등회에서 얻은 지식과 내용은 사람들의 삶과 사고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뜻한다.

특히 위생에 관한 환등회는 조선인의 삶에 강력하게 그리고 다방면에 침투할 수밖에 없다. 위생이란 주제는 무엇보다 식민지기 식민정부가 조선인 일상의 삶을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렇다고 위생 환등회가 오직 조선총독부에서만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 선교사들, 그리고 대한제국 내각, 조선의 지식인 역시 당시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 등의 발명으로 인해 위생교육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차이라면 조선총독부는 위생교육을 통해 조밀하게 그리고 한국의 전통을 폄하하며 말살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이 환등회라는 미디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조선인들에게 이식되었다. 대표적으로 일제시대 말에는 조선문화환등주식회사(朝鮮文化幻燈株式會社)가 설립되어 문화환등회를 열었다.

<자료 21> 「文化幻燈會社, 새 機構로 出發」

시국하 국민의 오락과 선전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도마터 오든 영화가 시국에 따라 『필립』의 부족으로 제작수효가 주러서 그 배급이 또시에 멈치고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게 됨에 그 대용품으로서 환등이 시국의 각광을 받고 다시 등장하였다. 조선문화환등주식회사(朝鮮文化幻燈株式會社)에서는 영화가 미치지 못하는 농산어촌 광산 등의 산업전사와 지방민중의 건전한 오락과 국책의 선전을 위하여 환등을 리용하고자 그 동안 기구의 정비를 급히 하여 오든 바 이지음 진용이 완비되어 부내 종로(鐘路) 二정목 七번지에 사무소를 두고 드디어 제작에 착수하기로 되었는데 그 제작진용은 다음과 같다. (띄어쓰기는 필자)

출처: 『매일신보』 (1942.10.10.)

이처럼 환등은 영화보다도 비용 및 제작, 그리고 운영(교육)면에서 효과적인 미디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2년이면 영화가 선전·선동의 영상 미디어로, 교육과 오락 미디어로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던 시기임에도 식민정권은 조선문화환등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자신들의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설교하려 했음을 이 기사는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주목하자면, 프레이리가 말한 바와 같이 피억압자인 조선인에게 억압자의 문

화와 사상을 내면화시키는 ‘의사소통’ 매체가 바로 환등회였다.²⁶⁸⁾ 환등회는 “교육”의 형식과 더불어 시각을 이용하여 오락적 요소가 합쳐져 피억압자였던 조선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쉽게 지배자의 “신화”를 퍼뜨릴 수 있었다. 환등회는 푸코(M. Foucault)가 말한 ‘권력-지식’의 밀착을 교육이란 매개방식으로 ‘권력-교육-지식’으로 공고히 사람들에게 이식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²⁶⁹⁾ 환등회는 시각과 언어가 함께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음악이 가미된 시청각교육으로서 권력이 ‘생산한’ 지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사실상 권력은 감추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한다. 현실적인 것을 생산하고, 객체의 영역과 진실에 관한 의식을 생산하며 이때 개인과 개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지식은 이러한 생산의 영역에 속한다.²⁷⁰⁾

환등회가 ‘권력-교육-지식’을 매개하는 시각교육 미디어였다는 증거로는 영화, 연극 등 다른 어떤 예술과 달리 검열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한 찾을 수 있다. 환등회가 검열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의미는 환등회의 내용이 권력 집단과 일치하였음을 반증한다. 즉 식민지 사회가 요구하는 담론이 환등회를 통해 선별, 전파, 확산되었음을 뜻한다. 검열의 대상으로서 환등회가 작용하였기보다 환등회는 식민지기간 동안 장려된 시각교육 미디어였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 초기 환등회는 입장권을 발행, 판매하였다면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주관한 환등회는 무료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환등 전후로 기생의 가무, 활동사진을 덧붙여 흥미를 더욱 유발하려 하였다.

환등회의 형식은 사진 및 광학을 기반으로 한 신매체로서의 환등을 통한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개척되었으나 피억압자이자 학습자였던 조선인에게 그리고 그 자체로서도 내용과 방식 면에서 진정한 교육이 아니었다. 교육이란 가르

268) 프레이리는 억압자는 그들의 신화들을 잘 만든 선전과 구호에 담아 대중 ‘의사소통’ 매체를 이용해서 피억압자에게 전달하여, 자신들의 신화를 피억압자에게 내면화 시킴으로써 그들을 정복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가 ‘의사소통’ 매체로서의 비판하는 것은 대중 매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Paulo Freire(1968/2000). 앞의 책, p. 167.

269) Stephen J. Ball(ed.).(1990). 앞의 책, p. 11.

270) M. Foucault(1975). 앞의 책, p. 302. 푸코는 권력의 효과를 기술할 때, ‘배제한다’, ‘차별한다’, ‘억누른다’, ‘검열한다’, ‘고립시킨다’, ‘숨긴다’, ‘가린다’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왜냐하면 사실 권력은 ‘생산’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침과 배움을 통하여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을 형성하고자 하는 변증법적 해석과 실천의 과정이기 때문이다.²⁷¹⁾ 조용환은 교육의 본질은 첫째 가르침과 배움의 상징적 상호작용, 둘째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 셋째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이라는 세 가지 성질에 있다고 하였다.²⁷²⁾ 이와 같은 세 가지 교육의 정의를 통해 환등회가 명실상부한 교육이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자.

첫째,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의 상징적 작용으로, 무엇보다 먼저 가르침만 있고 배움이 없는 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라 할 수 없다.²⁷³⁾ 여기서 배움이란 누구를 위한 배움인지가 중요하다. 교육은 교수와 학습,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보완적 만남이다.²⁷⁴⁾ 그러나 근대 한국의 환등회에서는 일방적으로 교수자의 이데올로기가 주입되었으며 이는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무력화시켰다. 또한 식민지기 조선인 학습자의 자발적인 동기로 교육이 촉발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를 답습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 안에서 상층으로 신분상승하고 싶은 욕구의 반영으로, 이때 일어나는 교육을 우리는 진정한 교육이라 부를 수 없다. 지배자의 지식이 일방적으로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은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이다. 그러나 환등회를 통해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지향이 아닌 ‘식민지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환등회는 기독교 선교와 식민지 가치관을 주입하면서 인간의 도구화를 가져왔다. 환등회에서 직접적인 교육은 교수자인 환등회 변사와 학습자인 조선인이다. 교육의 질과 수업의 방향과 질을 전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바로 교사가 가진 학습에 대한 개념이다. 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습개념에 따라 가르친다. 교사가 가르치는 방법은 학습자가 배우는 방법이 되고, 그것은 학습자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되어 학습자의 삶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교사가 가진 학습 개념은 학습자 개인의 지적수준과 사고의 수준을 결정지으며,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생존을 결정짓는 요인이다.²⁷⁵⁾ 그러므로 교사의 수업에 대한 개념과 지향성은 결국 학습자의 인간형성의 존재를 결정한다. 당시 환등회의 핵심 두 주축였던 선교

271) 조용환(2001). 앞의 논문, p. 5.

272) 조용환(2012).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새로운 공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273) 위의 논문, p. 10.

274) 위의 논문, p. 11.

275) 이영옥(2015). 앞의 책, pp. 220-221.

사들과 식민정부의 대리인들은 조선사람들의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을 위하여 환등회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식민정부의 대리인들은 지배하기 위한 식민지인으로서 조선인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선교사들은 기독교 개종자,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식민지인으로서 조선인을 받아들였다.

셋째, 교육은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으로 무엇을 볼 때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함께 보고, 하나를 생각할 때 다른 둘과 셋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교육적인 태도이다.²⁷⁶⁾ 대화는 답을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설득과 달리 대화에는 내 내 새로운 질문이 있는 것으로 대화는 참여자 모두를 존중하는 여러 방향의 열린 소통이다.²⁷⁷⁾ 환등회에 있어 교육의 과정인 대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주최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환등회의 내용에 반하는 열린 의견은 수렴되지 않으며 허용되는 질문은 상영되는 환등의 내용 안에서만 용인된다. 변증법적 과정으로서 진정한 교육이란 교수자의 의견에 부정 또는 반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위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환등회의 형식은 주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형태였다. 환등회에서의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설득이지 대화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교육적이지 않다면 그 활동을 ‘온전한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이라 할 수는 없다.²⁷⁸⁾ 식민지기 교육의 한 형식으로 바라본 환등회는 교육의 본질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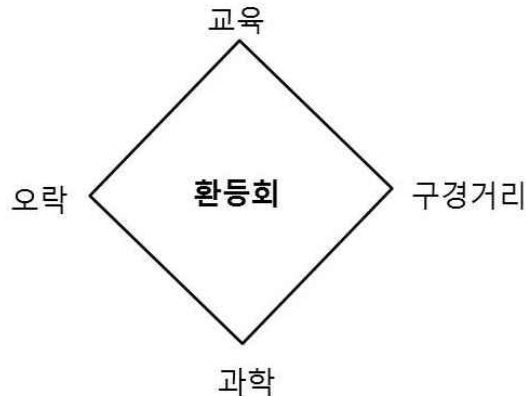
276) 조용환(2012). 앞의 논문, p. 13.

277) 위의 논문.

278) 위의 논문.

VI. 결 론

근대 환등은 오늘날 교육의 보조수단으로 이미지를 상영하는 프로젝터 이상의 스펙터클을 가지고 있었다. 환등회는 단순히 이미지만을 보여주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등을 상영하면서 음악도 동시에 사용한 하나의 완전한 ‘공연’이었다. 특히 영화와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 즐길 수 있는 시각매체가 거의 없었던 시기에 환등은 일상의 삶에서 시각적인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근대의 대표적 미디어였다. 따라서 환등은 태생부터 교육과 오락 사이, 과학과 구경거리 사이에 위치하였다. 다시 말하면 환등회는 교육, 오락, 과학, 구경거리의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등회는 이 네 요소를 꼭지점으로 갖는 마름모 안에서 어느 한 요소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그림 2> 환등의 다차원성

서구에서는 <그림 2>과 같이 네 요소가 균등하게 환등회의 주제 및 목적, 장소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환등회는 계몽의 미디어로 작동하였다. 한국에서 환등회는 오락 미디어가 아닌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교육’의 성격이 강하였다. 근대는 환등회뿐만 아니라 사진과 인쇄술의 발전에 기반한 신문, 잡지, 사진첩, 도화첩, 교과서, 사진엽서

등의 인쇄매체와 박람회, 파노라마관, 영화 등의 여러 시각미디어가 출현하였으며 그 영역을 확대해가던 시기였다. 특히 이들 시각미디어는 오락과 예술의 목적보다는 교육이 중점을 이루는 경향이 강하였다. 근대는 문자에서 시각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시대로, 당시 시각미디어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은 사진이었다.

환등회는 무엇보다 설명자가 직접 환등의 내용을 교수하며 이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관람하게 되는 현장성을 지니는 특성이 있다. 환등회는 근대의 다른 어떤 시각미디어 보다 관람객에게 직접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현장성과 직접성이라는 환등회의 특성은 주최자의 의도를 관람객에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으며 더불어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교수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환등이 적합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와 박람회와 같이 제작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사전 제작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등기는 운반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슬라이드는 설명자가 직접 제작·구성할 수 있으며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환등회가 여러 근대적 시각 미디어 맥락 안에서 교육 미디어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였다.

국내에 환등회는 개항과 더불어 유입되었으며 최초의 환등회는 19세기 말 미국 개신교 의료 선교사로 내한한 스크랜턴에 의해 개최되었다. 근대 계몽기 환등회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기독교 선교라는 목적 아래 서구의 근대 문물과 문명을 알리는 창 역할을 하였다. 초기의 환등회가 선교사 중심의 기독교 포교가 목적이었던 것에 반하여 일제강점기 환등회는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 위생, 오락이란 주제로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근대 계몽기 환등회의 특징을 우선 살펴보면, 환등회는 서구의 근대문물과 근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즉 세계를 보여주는 창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는 서구의 근대문물과 근대문화는 그 자체로 한국의 부국강병을 위한 지식으로 수용되어졌다. 서울YMCA를 중심으로 하여 개최된 환등회는 세계 여러 나라의 풍경과 풍습, 서구의 공업 및 상공업의 현황, 생물학과 천문학 등의 과학교육을 주제로 열렸다. 이 당시 환등회의 내용과 이미지는 그 자체로 권력을 가진 지식으로 작동하였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기는 선교사들이 환등회의 주요 주최

자였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환등회에서 선교사들의 눈을 통해 세계를 볼 수밖에 없었다. 선교사들의 세계관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여 서구의 근대화를 우월하게 여기는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이었다. 환등회의 시각적인 환영은 처음에는 ‘놀라운’ 경험이었고 그 자체로 새롭고 신비로운 즉 시각적인 유희를 주는 오락 미디어로 수용되었다. 이 시각적 환영이란 다름 아닌 선교사들이 표상한 세계였다. 환등회에서 본 세상은 선교사들이 재현한 이미지와 선교사들의 프레임 안에 있는 지식이었다.

이렇듯 일제강점 이전 시기의 환등회는 절대적인 시각 오락 미디어로 그 내용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면, 1920년대가 되면 환등회는 조선 전역에서 개최됨에 따라 단순히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미디어에 그치지 않았다. 환등회는 식민정부의 프로파간다 미디어로 작동하였다. 일제 식민통치기간의 환등회의 특징은 환등회가 일상적인 삶에 깊이 관계된 주제로 열렸다. 교육, 위생, 오락이란 주제로 환등회가 열렸는데, 이 주제는 생활세계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조선인의 일상적인 삶이 시각화되어 환등회를 통해 ‘교육’되었다는 것이다. 습득해야 할 지식의 기준, 위생이란 담론 하에 전통문화 및 풍습 중 버려야 할 것과 유지되어야 할 것이 정해지고, 즐겨야 하는 여가와 취향의 영역이 ‘선택’되어 환등회로 개최되었다. 즉, 일상 영역과 공공 영역이 모두 시각미디어인 환등을 통해 교육되게 되었다. 환등회의 주최, 즉 일제 식민정권에 의해 풍습과 전통문화, 취향의 영역이 지배되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 환등회의 대표적인 두 주최자는 미국 선교사와 식민정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간극에 조선 지식인의 환등회가 존재하였다. 당시 환등은 서구와 일본을 통해 들어온 그 자체로 신문물이었으며, 환등회는 변사 또는 강연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이들은 환등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했다. 그야말로 권력과 지식을 가진자가 환등회의 주최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지식인은 때론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거나 식민정권의 하수인으로서 통역을 담당하거나 또는 각 주최의 기조에 따라 환등회를 열었다. 물론 그 간극에서 민족운동의 한 방편으로 환등회가 조선 지식인에 의해 열리기도 했으나 그 범위는 선교사와 식민정부가 주최한 환등회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환등회는 교육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환등회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내용은 더 깊게 사람들에게 내재화되어 수용, 확산되었다. 근대 환등회로 재현된 이미지는 서구와 일본의 근대화를 우위에 놓고 우리의 전통을 열등한 위치에 놓게 만들었으며 우리 자신을 타자화하면서 스스로를 패배자로 바라보게 하였다.

당시 환등회 이외의 시각교육 미디어로서 교과서를 비롯한 인쇄매체, 영화, 그리고 박람회도 있었다. 박람회는 사진과 전시품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식민정권의 당위성과 일제의 우월함, 지배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한마디로 말해, 시각교육 자체였다. 박람회는 사진을 주요 매체로 사용하여 식민정권을 선전하였다. 박람회와 환등회의 내용이 사진이란 점이 동일하다. 그러나 환등회는 박람회보다 더 강력하게 지배자의 논리와 사상을 이식하는 미디어로 작동했다. 그 이유는 빛으로 영사되는 이미지의 환영은 사람들에게 실제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이와 동시에 그 이미지를 규정하는 설명자의 언어, 그리고 수많은 대중이 동시에 설명자에 집중하면서 관람하는 형식에서 비롯된다. 박람회는 이미 짜여진 동선에 따라 이미지를 관람하나 이때 관람형태는 개개인으로서 일어나며 관람객은 전시된 모든 것들을 균등하게 각인하지는 않는다. 반면, 환등회의 어둠 속에서 스크린에 비춰진 이미지는 관람객들을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

환등회는 한국의 근대를 관통하는 시각교육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항기와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배자의 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식할 수 있었던 미디어였다.

참고 문헌

1차 자료

아카이브

1. The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Drew University, Madison, NJ.

환등 슬라이드

- Korea: General. *Records of the Mission Education and Cultivation Program Department of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축약 Mission Education)*.
- Korea: Medical Work. 1926. *Mission Education*.
- Korea: Deaf and Blind Work. *Mission Education*.
- Hymns, Scriptures, Bible scenes, Missions. *Eben Samuel Johnson Collection*.

환등교본

- <Korea>. *Mission Education*
- <Christianity and World Democracy>. *Mission Education*
- <Into all the World-Why Spread the Gospel?>. *Mission Education*
- <Methodist Centenary Celebration Lecture> 1, 2. *Edmund Pepperell Easterbrook Papers*, 1919

사진 앨범

- 《Korea》 #1, #2, #3, #4, #5, #6. *Mission Photograph Albums*
- 《Korea OP》 #1. *Mission Photograph Albums*
- 《Korea and Japan》. *Mission Photograph Albums*
- 《Souvenir Album of the School of Hygiene for the Tuberculous, - HAIJU, KOREA》. 1938. *Mission Geographical Reference files*

카탈로그 외

-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42). *The Methodist Catalog of Audio-Visual Materials*. Nashville: Methodist Publishing House.
- *Year Book of the Drew Theological Seminary*. 1884.

2. Kautz Family YMCA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MN

환등 슬라이드

- Korea. ca. 1910-1930. *YMCA Lantern Slide Collection*
- China boys. ca. 1910-1930. *YMCA Lantern Slide Collection*
- Japan. ca. 1910-1930. *YMCA Lantern Slide Collection*
- Foreign Boys. ca. 1910-1930. *YMCA Lantern Slide Collection*
- Boys around the world. ca. 1920-1928. *YMCA Lantern Slide Collection*

환등 교본

- <Foreign Boys>. 1925. *YMCA Lantern Slide Collection*
- <Physical Activities of the YMCA>. 1929. *YMCA Lantern Slide Collection*
- <The YMCA as a World Educational Force>. 1929. *YMCA Lantern Slide Collection*
- <China Boys>. 1925(revised 1928). *YMCA Lantern Slide Collection*
- <Japan>. 1924(revised 1928). *YMCA Lantern Slide Collection*
- <Boys' India>. 1924(revised 1928). *YMCA Lantern Slide Collection*
- <Europe>. 1924. *YMCA Lantern Slide Collection*
- <Latin America>. 1924(revised 1928). *YMCA Lantern Slide Collection*

한국 YMCA 연간 보고서 및 서신

- Annual Reports, 1902-1937
- Correspondence and Reports, 1900-1930

A Public Health Education Program. *China: Health Education Gregg, Gorge Arther's Biographical Records*

3. California Museum of Photography, Riverside, LA

George Rose Collection

Keystone-Mast Collection

- Korea, Japan, China 입체사진(stereograph)
- Korea Japan, China 환등 슬라이드(lantern slides)

Letters of Philip Brigandi (입체사진가)

4. Presbyterian Historical Archives, Philadelphia.

Annual Meeting Reports

Adams Family Papers
Eugene Bell Papers
William M. Baird Papers

5. Union Theological Seminary Collec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George Heber Jones Papers
"Seoul Conference: Training of Missionaries 1913". *World Missionary Conference Records, 1883-2010.*

6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Korea, Stereographs

7. New York Public Library, NY.

George Clayton Foulk Papers.
William Henry Jackson Papers
Horace N. Allen Papers.

8. 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 Boston.

Foreign Committe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CHINA(1925/1928).*
George Ashmore Fitch papers, 1909-1950

9. Peabody Magic Lantern Collection, Library of San Diego State University.

Korea, Magic Lantern Slides, Keystone View Company.

10. William Elliot Griffis Collection,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J.

한국 사진과 환등 슬라이드

11. Getty Research Institute, LA.

*Travel albums from Paul Fleury's trips to Switzerland, the Middle East, India, Asia,
and South America.* Creation Date: 1896-1918
Views of Korea and Japan-Album, 1910.

12. Smithsonian National Anthropological Archives, Washington, D.C.

Knez Papers

13. Kobe College 神戸女學院大學

Kobe College Lantern slides

神戸女學院 寫眞資料集

14. 영명고등학교 자료, 공주

Williams, Frank Earl Cranston. "East and West Kong Ju District, Educational Report 1914-1915". **Kong Ju Higher Common School**. Korea Methodist Mission.

15. The Moffet Korea Collection, Special Collections of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rinceton University.

사진앨범, 환등 슬라이드

신문

『독립신문』, 『皇城新聞』, 『帝國新聞』, 『大韓每日申報』, 『每日申報』, 『東亞日報』, 『朝鮮日報』, 『朝鮮中央日報』, 『時代日報』, 『中外日報』, 『朝鮮新聞』, 『京城日報』.

조선총독부 출판물

朝鮮總督府(1916). 『畜産教科書』. 京城: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1923-25). 『普通學校理科書: 兒童用』. 京城: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1926). 『普通學校圖書帖 教師用. 第2學年』.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1934).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查報告: 全鮮編』. 京城: 朝鮮總督府, 1권.

朝鮮總督府(1938-39). 『國史地理』 上,下. 京城朝鮮書籍印刷.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編(1915). 『(朝鮮)衛生風習錄』. 京城: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선교지침서 및 카탈로그

Catalogue of magic lanterns, stereopticons, and moving picture machines.
Montgomery Ward & Co.: Chicago. 1899.

Catalogue of stereopticons, motion picture machines, projection apparatus. McIntosh
Stereopticon Company. 1915.

Marcy, Lorenzo J.(1877). *The Sciopticon Manual*(6th ed.). James A. Moore:
Philadelphia.

*Manual of American Baptist Missionary Union for the use of missionaries and
missionary candidates.* Ford Building Boston, Mass. 1908.

*Manual of the American Baptist Missionary Union: for the Use of Missionaries and
Missionary Candidates.* 1908.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1889). *Manual of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for the Use of
Missionaries and Missionary Candidates*.(Revised and Adopted Dec. 16th).

단행본

강상중(2004).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경덕, 임성모 역. 서울: 이산.

강상중, 요시마순야(2004). 『세계화의 원근법: 새로운 공공공간을 찾아서』. 임성모, 김경
원 역. 서울: 이산.

경신사편찬위원회(1991). 『경신사 1885-1991』. 경신중고등학교.

김구. 『백범일지』. 배경식 편(2008). 서울: 너머북스.

김승태, 박혜진(1994). 『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金允植 著 & 국사편찬위원회(1955). 『續陰晴史 上,下』. (한국사료총서 ; 11(1-2)). 서
울: 國史編纂委員會.

- 김은우(1964). 『映畫·幻燈을 통한 教育技術』. 서울: 현대교육업서출판사.
- 김종우(2007). 『구조주의와 그 이후』. 서울: 살림.
- 대한감염학회(2009). 『韓國傳染病史』. 서울: 군자출판사.
- 루션전집번역위원회(2010). 『루션전집. 2: 외침, 방향』. 서울: 그린비.
- 류대영(2001).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연구소.
- 민경배 (2004). 『서울YMCA운동 100년사 1903-2003』. 서울YMCA.
- 민두기(2001). 『시간과의 경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민병록(2001). 『세계 영화영상기술 발달사』. 서울: 문지사.
- 박휘락(1998). 『한국미술교육사: 미술교육 100년의 흐름(1895-1995)』. 서울: 예경.
- 社會衛生祖師會 編(1940). 『朝鮮の農村衛生 : 慶尙南道達里の社會衛生學的調査』. 岩波書店. 이상희 해제(2015). 『민속·인류학 자료대계』. 민속원.
- 서울YMCA 편(2004). 『(사진으로 보는) 서울YMCA 운동 100년』. 월남시민문화연구소.
- 신승환(2008).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지평』. 광주: 한길아트.
- 에밀 벤베니스트(1966). 『일반 언어학의 제문제 1』. 황경자 역 (1991). 민음사
- 이경민(2010). 『제국의 렌즈: 식민지사진과 '만들어진' 우리 근대의 초상』. 서울: 산책자.
- 이만열(2003). 『한국기독교의료사』. 서울: 아카넷
- 이영옥(2015). 『21세기 교육, 중재교육과 비교즈키』. 서울: 한국중재교육연구소.
- 이화백년사 편찬위원회(1994). 『이화백년사 1886-1986』. 이화여자고등학교.
- 전택부(2002). 『이상재 평전』. 서울: 범우사.
- 정영목(2013). 『조선을 찾은 서양의 세 여인: 시선에 갇힌 진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맹기(2004).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최인진(2000). 『한국사진사: 1961-1945』. 눈빛
- 한중일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2012).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2』. 서울: 휴머니스트.
- 황상익(2013). 『근대 의료의 풍경』. 서울: 푸른역사.
- Anderson, T., & Milbrandt, M.(2005). *Art for life : Authentic instruction in art*. New York: McGraw-Hill.
- Ball, Stephen J.(ed.)(1990). *Foucault and education: Disciplines and Knowledge*. 이우진 역(2007). 『푸코와 교육 : 푸코를 통해 바라본 근대교육의 계보학』. 고양: 청계.
- Bauman, Zygmunt(2000). *Liquid Modernity*. 이일수 역(2009). 『액체근대』. 서울: 강.
- Bayers, Peter L.(2003). *Imperial Ascent: Mountaineering, Masculinity, and Empire*. Boulder, CO, USA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 Benjamin, Walter(1936).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Its Technological Reproducibility, and Other Writings on Media*. 최성만 역(2010).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서울: 길.
- Bolter, J. David & Grusin, Richard A.(1999).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Cambridge, MA: MIT Press. 이재현 역(2006).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Bourdieu, Pierre(1979). *La Distinction*. 최종철 역(2006).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 Clark, Richard E.(2014). *Learning From Media: Arguments, Analysis, and Evidence*. Charlotte: IAP- Information Age Publishing, Inc.
- Clifford, James(1986). "Introduction: Partial Truths". Clifford, James, and George E. Marcus(eds).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Dale, Edgar(ed.)(1954). *Audio-visual methods in teaching*. New York: Dryden.

- David Fresko(2013). *Muybridge's Magic Lantern. Anima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8.
- Debord, Guy(1983). *Society of the spectacle*. 이경숙 역(1996). 『스펙타클의 사회』. 서울: 현실문화연구.
- Ellis, Reuben J.(2001). *Vertical Margins: Mountaineering and the Landscapes of Neoliberalism*.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Fee, E., & Acheson, R.(ed.).(1991). *A history of education in public health: Health that mocks the doctors' rul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oucault, M.(1975).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고헌식 역(2009).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파주: 다락원.
- Freire, Paulo(1968/2000). *Pedagogy of the oppressed*. 남경태 역(2010). 『페다고지』. 서울: 그린비.
- Freire, Paulo and Macedo, Donald P.(1987). *Literacy: reading the word & the world*. 허준 역(2014). 『문해교육: 파울로 프레이리의 글 읽기와 세계 읽기』.서울: 학이시습.
- Gale, J. S.(1898). *Korean sketches*. Toronto: William Briggs
- Ganong, L. H., & Coleman, M.(2014). *The Social History of the American Family: An Encyclopedia*.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Harvey, David(2000). *Spaces of hope*. 최병두 역(2001). 『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서울: 한울.
- Herbert, Stephen(ed.).(2000). *A history of pre-cinema: selected and with a new introduc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 I. Bernard Cohen(1950). *Some early tools for American science: an account of the early scientific instruments and mineralogical and biological collections i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 Michael Spector(et al.)(ed.).(2008). *Handbook of research on educational*

-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New York: Routledge.
- James, Ian(2007). *Paul Virilio*. London; New York: Routledge. 홍영경 역(2013). 『속도의 사상가 폴 비릴리오』. 서울: 엘피.
- Keystone View Company(1922). *Visual education: teachers' guide to keystone "600 Set."*. Meadville, Keystone View Company.
- Kittler, F. A.(2002). *Optische Medien-Berliner Vorlesung 1999*. 윤원화 역(2011). 『광학적 미디어: 1999년 베를린 강의: 예술, 기술, 전쟁』. 서울: 현실문화연구.
- Lillias Underwood(1904).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Boston: American Tract Society.
- Liu, M. S.(2009). *Prescribing colonization: The role of medical practices and policies in Japan-ruled Taiwan, 1895-1945*. Ann Arbor, Mich.: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Lyons, James(2007). *Multimedia histories: from the magic lantern to the internet*. Exeter, England: University of Exeter Press.
- Mannoni, Laurent(2000). *The Great Art of Light and Shadow: Archaeology of the Cinema*. Exeter, England: University of Exeter Press.
- McLuhan, M.(2003).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W. Terrence Gordon. (Critical ed.). CA: Gingko Press. 김상호 역(2011).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Rosen, G.(1958). *A History of public health*. New York: MD Publications.
- Rosina Herrera(2007). *Alfred Stieglitz's Lantern Slides: History, Technique and Technical Analysis*. George Eastman House.
- Said, Edward W.(2003). *Orientalism*. London: Penguin.
- Serlin, David(ed.).(2010). *Imagining illness: Public health and visual culture*. Minneapolis, MN;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hort, J.(2012). *Magic lantern empire: Colonialism and society in Germany*.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Steven Kaplan(ed.).(1995). *Indigenous responses to western Christian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Underwood, L. H.(1904).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Boston: American Tract Society.

Virilio, Paul(1994). *The vision machine*. Julie Rose(t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William Welling(1978). *Photography in America: The Formative Years. 1839-1900*. New York: Thomas Y. Crowell Co.

Yoshimi, Shunya(1995). 『「聲」の資本主義 : 電話・ラジオ・蓄音機の社會史』. 송태욱 역(2005). 『소리의 자본주의: 전화, 라디오, 축음기의 사회사』. 서울: 이매진.

石井研堂(2004). 『明治事物起源』. 東京: クレス出版.

岩本 憲兒(2002). 『幻灯の世紀—映畫前夜の視覺文化史』. 森話社.

早稻田大學坪内博士記念演劇博物館 編(2015). 『幻燈スライドの博物誌プロジェクト—メディアの考古學』. 青弓社 出版.

논문

강성우(2015). 「개항기 조선에서 근대적 위생문화의 수용」. 『한일관계사연구』, 52.

국성하(2003). 「박람회의 교육적 성격연구(1889-1940)」. 『연세교육연구』, vol. 16. no.1.

김경리(2016). 「전쟁의 학습과 대중성 획득의 방법론-청일전쟁스고로쿠(繪双六)와 환등회(幻燈會)를 중심으로」. 『일본학회』, 제107집.

김성균(1941.6). 「영화를 통한 내선문화의 교류. 삼천리」. 김영식 편(1995). 『三千里』, 26. 서울: 한빛.

- 김승구(2011). 「1910년대 경성 영화관들의 활동양상」. 『한국문화』, 53호.
- 김영희(2009). 「근대 일본 이행기의 위생행정-문부성 의무국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2).
- 김용권(2004). 「일제시대 미술교육 고찰-초등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조형교육』, 24.
- 김한중(2009).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교과서 발행」. 『역사교육연구』, (9).
- 박소영(2012). 「근대 초등미술교과서 다시 읽기-도안영역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26(1)
- 송민호(2014). 「일제강점기 미디어로서의 강연회의 형성과 불온한 지식의 탄생」. 『한국학연구』, 제 32집.
- 심영옥(2005). 「일제강점기의 《普通學校圖畫帖》 학년별 내용분석」. 『조형교육』, 25.
- 유선영 (2004). 「초기 영화의 문화적 수용과 관객성: 근대적 시각문화의 변조와 재배치」. 『언론과 사회』. 성곡언론문화재단, 12(1).
- 유선영 (2016). 「식민지 ‘미디어 효과론’의 구성-대중 통제 기술로서 미디어 ‘영향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회.
- 이경분, 헤르만 고체프스키(2012). 「프란츠 에케르트는 대한제국 애국가의 작곡가인가?」. 『역사비평』. 2012.11.
- 이성도(2013). 「한국 미술교육 연구의 제 문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 『미술교육논총』, 27(2).
- 정가람(2014). 「1920-30년대 대중잡지 『별건곤』의 역사 담론 연구-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재현 방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1).
- 조용환(1999).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2).
- 조용환(2001).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 관계」. 『교육인류학 연구』, 4(2).
- 조용환(2004). 「질적 연구와 질적 교육」. 『교육인류학회』, 7(2).

- 조용환(2012).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새로운 공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 조용환(2012).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 조희문(1998). 「영화의 대중화와 변사의 역할 연구」. 『디자인연구』, vol.6.
- 피터 스미스(2003). 배재한 역. 「시각문화와 미술교육」. 『미술과 교육』, vol.4.
- 한용진(1994). 「개화기 한국교육의 시기구분론」. 『안암교육학연구』, 1(1).
- Arnold and David(1993). "Medicine and Colonialism" Bynum(et al.). *Companion Encyclopedia of the History of Medicine*. vol. 2. London: Routledge.
- Allchin, George(1900). "For Young People: Preaching With a Lantern in Japan". *The Missionary Herald of the A. B. C. F. M.* July 1900.
- Anderson, Christopher(July 2005). "The World's Fair of 1919: Ethnographic and Technological Exhibits on Display at the Centenary Celebration of American Methodist Missions". *Methodist History*, 43:4.
- Duncum, Paul(1999). "A Case for an Art Education of Everyday Aesthetic Experiences". *Studies in Art Education*, 40:4.
- Francisco Javier Frutos.(2013). "From luminous pictures to transparent photographs: the evolution of techniques for making magic lantern slides". *The Magic Lantern Gazette*. The Magic Lantern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vol.25, no.3, Fall 2013.
- Hyung Il, P(2011). "Tracing Japan's Antiquity: Photography, Archaeology and Representations of Kyōngju". Shigemi Inaga(ed.). *Questioning Oriental Aesthetics and Thinking: Conflicting Visions of "Asia" under the Colonial Empires*. Kyoto: Internation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Publication.
- Hyung Il, P.(2011). 「Navigating Modern Keijō-The Typology of Reference Guides and City Landmarks」. 『서울학연구』 (44).
- John A. Davidson(2011). "Magic Lantern Optics: Their History and Development 300 B.C. to 2004 A.D.". *The Magic Lantern Gazette*. The Magic Lantern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vol.23, no.1, Spring 2011.

Liping Bu(2009). "Public Health and Modernization: The First Campaigns in China, 1915-1916". *Social History of Medicine*. 22(2).

Mabel Craft Deering(1933). "Chosen-Land of Morning Calm".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Oct., 1933.

Morris L. Davis, Jr.(2010). "Early Twentieth Century U.S. Methodist Missions Photography: The Problems of "Home"". *Methodist Review*.

Schaefer, S. C.(2017). "Illuminating the Divine: The Magic Lantern and Religious Pedagogy in the USA, ca. 1870 - 1920". *Material Religion*, 13(3).

Sherwood Hall(1940). "The Progress of Missionary Anti-tuberculosis Work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Oct. 1940.

S. H. Martin(1930). "Anti-Tubercular Work at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Seoul". *The Korea Mission Field*. Feb. 1930.

Terry Borton(2015). "The Professional Life of "Magic Lantern" Illustrated Lecturers: With Introductions to Most Professionals Performing from the 1890s to the 1920s". *The Magic Lantern Gazette*. A Journal of Research, vol.27. no.1, Spring 2015.

T. D. Mansfield(1922). "Tuberculosis: Its Menace and Its Cure". *The Korea Mission Field*. July 1922.

W. D. Reynolds(1905.11). "The Lantern in the Field". *The Korean Mission Field*, vol II. no.1.

Y. C. James Yen(1926). "Chinese Mass Education Movement Progresses Strongly". *News Bulletin*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12.

大久保遼(2009). 「明治期の幻灯會における知覺統御の技法—教育幻灯會と日清戦争幻灯會の空間と客觀」. 『映像學』, 第83号.

山本 美紀(2005). 「興行としての宣教—G オルチンによる幻燈伝道をめぐる」. 『特集 近代東アジア文化とプロテスタント宣教師—その研究と展望』. 日本研究.

학위논문

- 강인해(2011). 『중국과 한국의 교육공학연구 동향에 관한 비교연구, 2001-2010』.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 권기하(2010). 『1910년대 총독부의 위생사업과 식민지 '臣民'의 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성(1994). 『개항기 개신교 의료선교와 몸에 대한 인식들의 '근대적' 전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정애(1994). 『한국 교육공학의 역사적 고찰』.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박소영(2010). 『한국 근대(1897-1945) 미술교육에서의 용기화(用器畵)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정우(2001). 『일제하 언어민족주의: 식민지 시기 문맹퇴치/ 한글보급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인기(2008). 『시각문화교육의 담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경민(2011). 『한국 근대 사진사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동호(2002). 『韓國の近代における美術教育の變遷』. 筑波大學大學院芸術學研究科 박사학위 논문.
- Anderson, Christopher(2006). *The world is our parish: Displaying home and foreign missions at the 1919 Methodist World's Fair*. Ph.D.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 Askari, Kaveh(2005). *Moving Pictures before Motion Pictures: The Pictorial Tradition and American Media Aesthetics, 1890 -1920*. Ph.D. Dissertation, Chicago, Illinois.
- Babbitts, Judith(1987). *"To see is to know": Stereographs educate Americans about East Asia, 1890-1940*.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 Barber, X. T.(1993). *Evenings of wonders: A history of the magic lantern show in america*. (volumes I and II).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Joohyun Kim(2015). *An Idealist's Journey: George Clayton Foulk and U.S.-Korea Relations, 1883-1887*. Senior Theses. Claremont McKenna College.

Min Suh, Son(2008). *Electrifying Seoul and the Culture of Technology in Nineteenth Century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웹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일본 국제문화진흥회의 환등 콜렉션

<http://digicoll.manoa.hawaii.edu/lanternslides/index.php?s=>

一般財団法人 日本視聽覺教育協會 홈페이지

<http://www.javea.or.jp/aboutus/index.html>

The Reverend Corwin & Nellie Taylor Collection, Korean Digital Archive i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ttp://digitallibrary.usc.edu/cdm/landingpage/collection/p15799coll48>

Abstract

A Study of Magic Lantern Shows as the Media of Visual Education in Modern Korea

Cho, Yeong Hee

Major in Art Education, Interdisciplinary Progra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is a study of magic lantern shows as the first media of visual education for the public in modern Korea. Based on the development of printing methods, a variety of visual media such as exhibitions, panorama theaters, and motion pictures as well as newspapers, magazines, and photo-postcards emerged in modern 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ignificance of magic lantern shows as a visual education media in relation to the other visual media that were emerging in the modern era. This study also elucidates the influence of magic lantern shows on the life of the Korean people at the time.

The magic lantern, which was a predecessor of the projector show, has

begun to be used in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in Europe, and it enjoyed a great boom in the United States in the period from 1860s after the Civil War to 1896 when the motion picture appeared. Magic lantern shows were introduced by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in 1880s. In the beginning stage, the lantern slides were produced using glass slides with hand-paintings, but after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photographs were usually the content of the show. The 'Truth' effect which photographs evoked brought about public interest in magic lantern shows from late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Photographs used as lantern slides had educational characteristics, because they consisted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s basic unit of visual media. Therefore, modern archives of photographs relate deeply to content of magic lantern shows, which need to be examined in this paper.

While the magic lantern shows were mainly used for entertainment in Western society, in modern Korea they were used mostly as a media of visual education, which had a great impact on the Korean people in various aspects. Especially, the magic lantern show was a very effective educational tool to deliver the intention of speakers or teachers because a good portion of Koreans were illiterate at the time. Also, because there were rare opportunities for visual entertainment at the time, the entertainment elements of the magic lantern shows were a good reason for the people to be attracted. In addition, a glimpse of Western society and modernized new culture made Koreans recognize the magic lantern shows as opportunities to learn new knowledges. The structure of this paper goes as follows.

Chapter II, where the preliminary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the magic lantern show is investigated,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gic lantern show as a media, photo archives as a content of the magic lantern show, and the introduction period of the magic lantern show in modern visual education. We will also look into the magic lantern shows of America and Japan in the aspects of entertainment and propaganda,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Korean magic lantern shows. The two main organizers of magic lantern shows in Korea were Protestant missionaries from America an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Korean magic lantern shows had changed its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se two organizers and in the context of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Chapter III examines magic lantern shows in the age of Enlightenment in the Modern era. From 1876 opening of the trade ports to 1910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spreading Christianity was a main purpose of the magic lantern shows because protestant missionaries from the United States were organizers of the magic lantern shows in most cases. During this period, modern cultures of Western Europe were accepted as a knowledge for enhancing the wealth and strength of the country. Especially, the magic lantern shows served as a window which showed the world through, that is, the modernized Western cultures. Magic lantern shows that were mainly based on Seoul YMCA were held with themes such as the landscape and customs of many countries in the world, present state of Western industry development, and the science education including biology and astronomy. The contents and images of magic lantern shows at the time worked as knowledge with power. It should be noteworthy that at this time the missionaries were the organizers of the magic lantern shows, so the Koreans had only to see the world through those missionaries' eyes. In other words, the world Koreans saw at the magic lantern shows was the image reproduced by the missionaries, and was the knowledge put in the missionaries' frame.

In chapter IV, the magic lantern shows of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discussed. During this perio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the main organizer of the shows, which resulted in the spread of the magic lantern shows into various aspects of daily life such as education, sanitation, and entertainment. In the 1920s, magic lantern shows were held throughout Korea, therefore, it started to lose its status as a media to stimulate the curiosity of the

early people. Rather, the magic lantern shows worked as an educational media for the colonial government's propaganda.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gic lantern shows in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that the shows were held with a theme deeply involved in everyday life. The themes such as education, sanitation, and entertainment were deeply related to the scenes of daily lives. What this means is that the shows were a visualization of daily lives of Koreans and those images were 'educated' onto the people. What needs to be abandoned and what needs to be maintained, or what type of hobbies should be enjoyed, were 'selected' to be the content of magic lantern shows, based on the discourse of the knowledge to be learned and hygiene to be kept. In other words, both the daily and the public realms were educated through the magic lantern shows as a visual media.

Chapter V discusses the implication of the magic lantern show in art education, including the interpretation and discussion on its art-educational meaning and function. So far, the modern art education research has been limited to the curriculum for schools. What this means is that the perspectives have been limited to the formula that the modern art education equals modern art curriculum. Therefore, a research on magic lantern shows can be a starting point for studies on art education in non-institutional areas outside the school. Most magic lantern shows were held outside of school boundary, although there were some used in school. The themes of magic lantern shows were also related to topics of everyday life such as hygiene. Therefore, researches on magic lantern shows will suggest that we expand our perspectives from the art curriculum towards the whole visual education realm in studies on modern art education.

In modern era, there were various new visual media emerged. The basic information and knowledge of the visual media was composed mainly of photographs, and they had educational elements. The magic lantern show, among all those, had a characteristic of on-site activity where the commentator taught or educated of the contents in person, and multiple people watched and liste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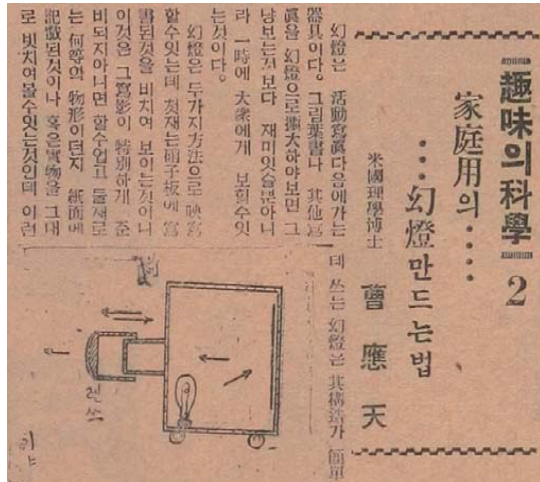
to the explanation in one place together. The magic lantern show was a media that could deliver more information and knowledge directly to the viewers than any other visual media.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magic lantern show, as an on-site and direct interaction, made it possible for the organizer to deliver the messages clearly to the viewers and to educate multiple people at the same time. One reason why the magic lantern show was suitable was that it did not cost much or a lot of efforts in preparation, compared to motion pictures or fairs. The equipment was comparatively easy to carry around and the slides were editable or composable depending on various settings. These factors made the magic lantern shows work as an educational media effectively in various contexts of modern visual media.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he magic lantern show as a modern visual educational media has evolved to 35mm film, to projectors, and to all kinds of audio-visual media including TV.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on the modern magic lantern show is that it really looks into the starting point of the media of Korean visual education. What can be suggested from this study is that the modern art education has been expanding its realm, and modern art education has been practiced not just within the institutional sphere and has also influenced greatly and actively the non-institutional sphere including the magic lantern shows.

**Keywords : magic lantern, magic lantern shows, visual education media,
the first audio-visual education of Korea,
photography education,
archives of photographs in modern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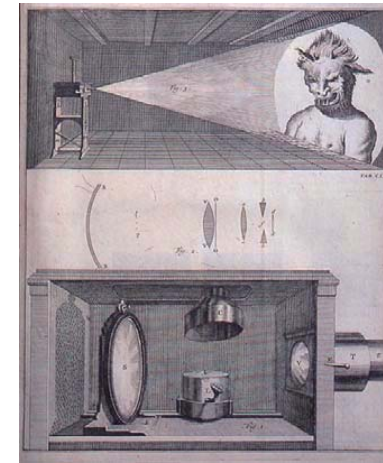
Student Number : 2011-30421

도 판



<도판 1> 환등기 구조

조응천, 「趣味의 科學: 家庭用的 幻燈 만드는 법」, 『朝鮮中央日報』(1935. 4. 5).



<도판 2> 환등 구조

Willem's Gravesande(1720). *Physices Elementa Mathemat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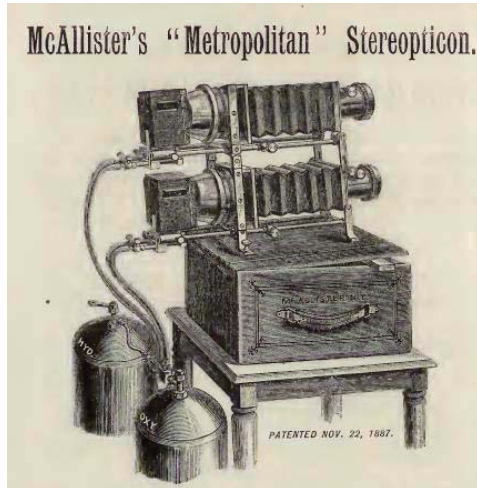
<도판 3> 환등 유령쇼(Robertson's Fantasmagoria)

F. Marion(1867). *L'Optique*.



<도판 4> 환등기 구조

早稲田大学坪内博士記念演劇博物館 編(2015). 『幻燈スライドの博物誌 プロジェクション・メディアの考古学』, 青弓社 出版, p. 77.



<도판 5> 스테레옵티콘(stereopticon)

Catalogue of stereopticons, dissolving view apparatus, and magic lanterns (1888).



<도판 6> Kodak Camera 광고, 1889년 11월.



<도판 7> 이응울(YI UNG YUL)의 초상사진

William Henry Jackson Papers, 1894-1896, New York Public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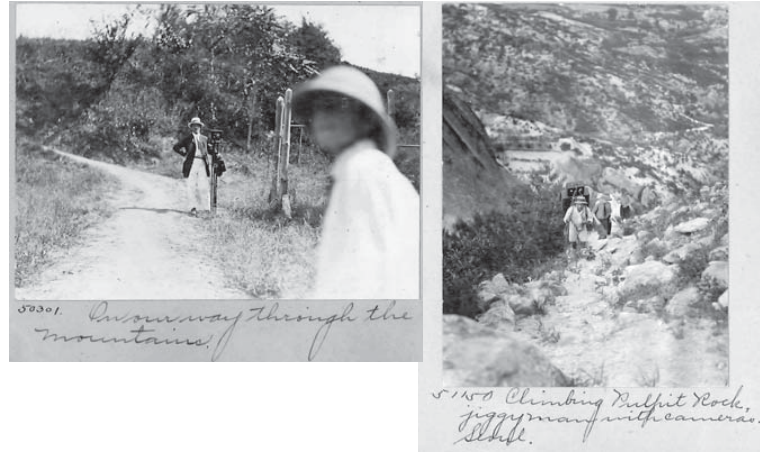


<도판 8> 민영익(좌), 홍영식(우) 초상사진

George Clayton Foulk Papers, New York Public Library.



〈도판 9〉 “Korea” 입체사진 세트 케이스
제작사 Underwood and Underwood 社.



〈도판 10〉 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선교사. 우: 카메라를 지고 바위를 오르는 짐꾼
Mission Photograph Album <Korea # 3>.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도판 11〉 한국 환등 슬라이드
Keystone View Company의 환등슬라이드 “600세트” 중.
Peabody Magic Lantern Collection, San Diego State University



〈도판 11〉 한국 환등 슬라이드 이미지



〈도판 12〉 한국 환등 슬라이드

Keystone View Company의 환등슬라이드 "600세트" 중,
Peabody Magic Lantern Collection, San Diego State University



〈도판 12〉 한국 환등 슬라이드 이미지



〈도판 13〉 후프를 뛰어넘는 개, 1800-1899

출처: <https://collection.sciencemuseum.org.uk/objects/co8228691/dog-jumping-through-a-hoop-lantern-slide>



〈도판 13〉 후프를 뛰어넘는 개, 1800-1899



〈도판 14〉 크로마트로프 슬라이드(chromatrope slide)
출처: <https://collection.sciencemuseum.org.uk/objects/co8205800/magic-lantern-chromatrope-slide-lantern-slide-chromatrope>



〈도판 15〉 우쓰시에 관람 풍경, 1832
早稲田大学坪内博士記念演劇博物館 編(2015), 『幻燈スライドの博物誌 プロジェクション・メディアの考古学』, 青弓社 出版, p.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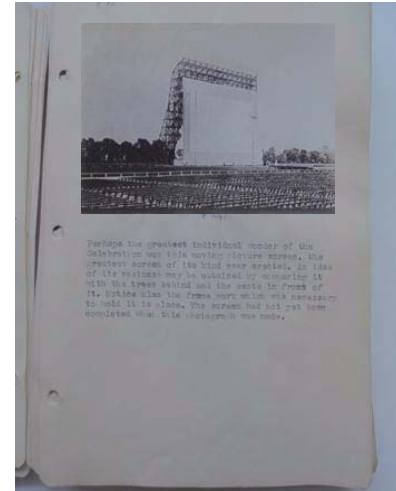
〈도판 16〉 러일전쟁 당시 함장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1848-1934), Terry Borton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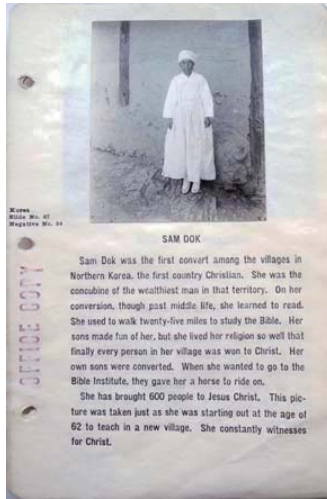
〈도판 17〉 환등슬라이드 세트 케이스 내부
Peabody Magic Lantern Collection, San Diego Stat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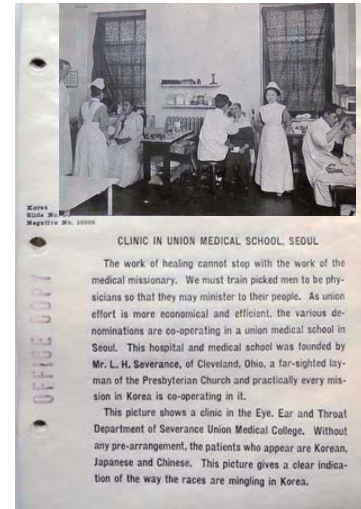
〈도판 17〉 환등슬라이드 세트 케이스 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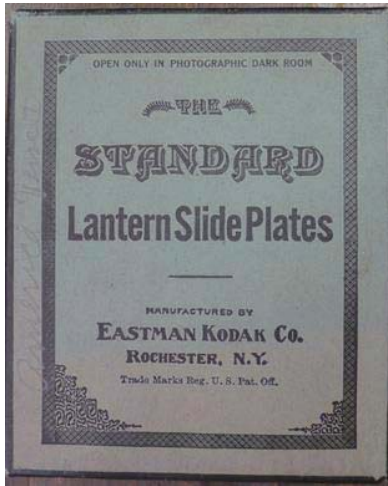
〈도판 18〉 1919년 감리교 세계박람회 환등 스크린
〈Centenary Celebration Lecture〉 환등교본, *Easterbrook Papers*,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도판 19〉 "삼독" 한국인 기독교 개종자, 〈Korea〉 환등교본 중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도판 20〉 "Clinic in Union Medical School, Seoul".
〈Korea〉 환등교본 중,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도판 21> 환등슬라이드 케이스 표지, 고베여자대학교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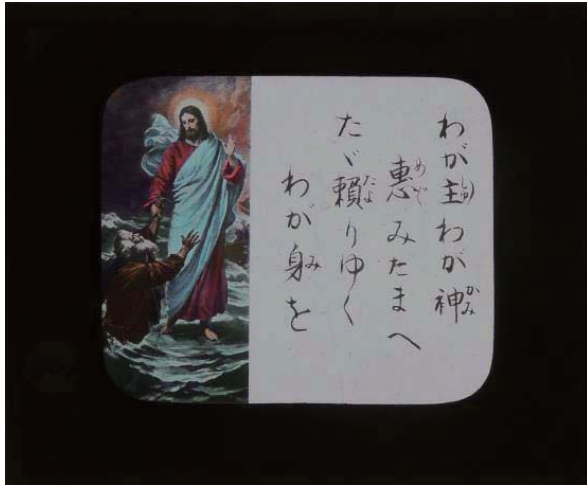
<도판 22> 나의 조국 (My Country Tis of Thee) 《American Voice 1》, 고베여자대학교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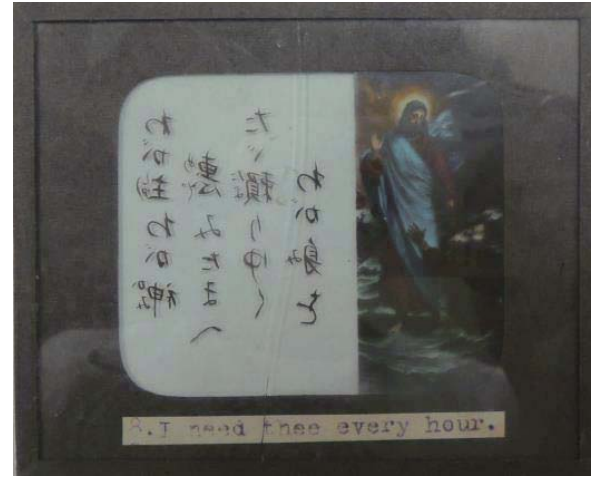
<도판 23> Let Freedom ring!, 《American Voice 1》, 고베여자대학교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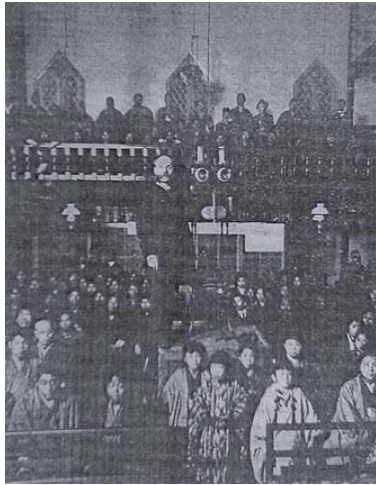
<도판 24> Of thee I sing, 《American Voice 1》, 고베여자대학교 아카이브.



〈도판 25〉 앞면 I need thee every hour, 《American Voice 1》
고베여자대학교 아카이브.



〈도판 25〉 뒷면



〈도판 26〉 조지 올친의 환등회 광경

山本 美紀(2005), 『興行としての宣教-G・オルテンによる幻燈伝道をめぐって』, 『特集 近代東アジア文化とプロテスタント宣教師-その研究と展望』, 日本研究, p. 28



〈도판 27〉 돌아온 탕자. 환등 슬라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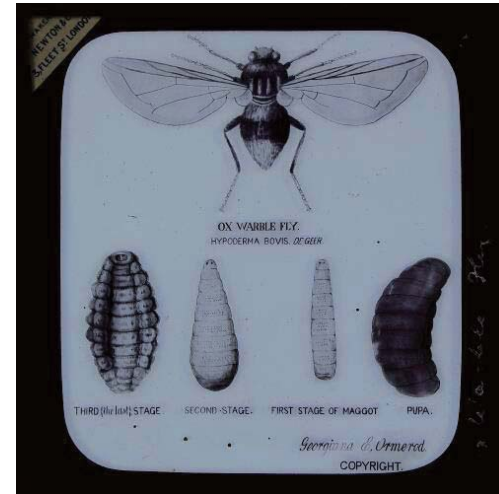
〈도판 28〉 YMCA 건물 1907년 공사 모습
K. Murakami 사진집, 〈Institutions in Seoul〉.
William Elliot Griffis Collection, Rutgers University.



〈도판 29〉 서울YMCA 강당
〈Korea # 1〉 앨범,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도판 30〉 일본의 환등수업(사회과). 하와이대학소장
출처: 早稲田大学坪内博士記念演劇博物館 編, (2015). 『幻燈ス
ライドの博物誌』, p.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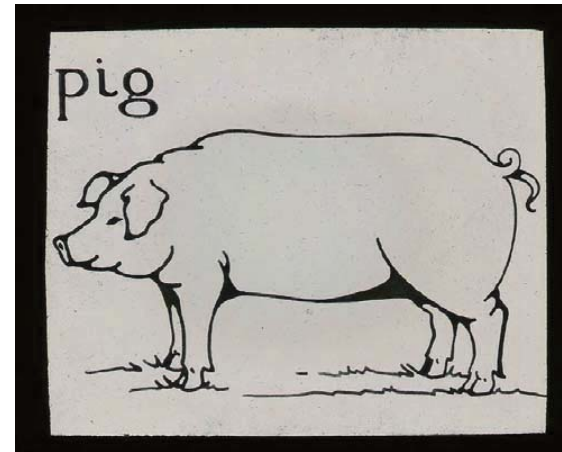


〈도판 31〉 황줄 쇠가죽파리 성충, 유충, 번데기 환등슬라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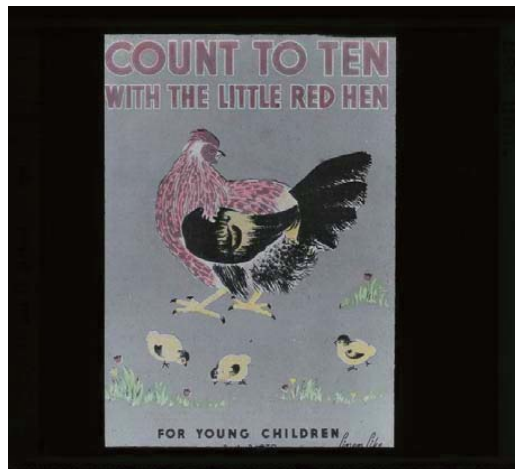
<도판 32> 교과서에 실린 파리와 유충 그림

朝鮮總督府(1923-25). 『普通學校理科書: 兒童用』. 京城: 朝鮮總督府



<도판 33> 글자 공부

제작사: Board of Education, Buffalo, NY Visual Division.



<도판 34> 초등학교 숫자 세기

제작사: Board of Education, Buffalo, NY Visual 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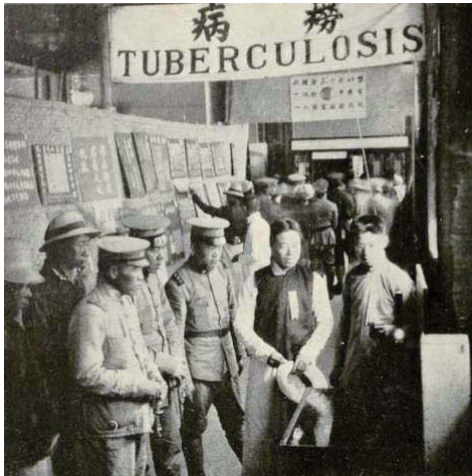
<도판 35> "Mass Education by lantern slides, Shanghai, China", <China>(revised 1928). YMCA환등교본. Harvard Yenching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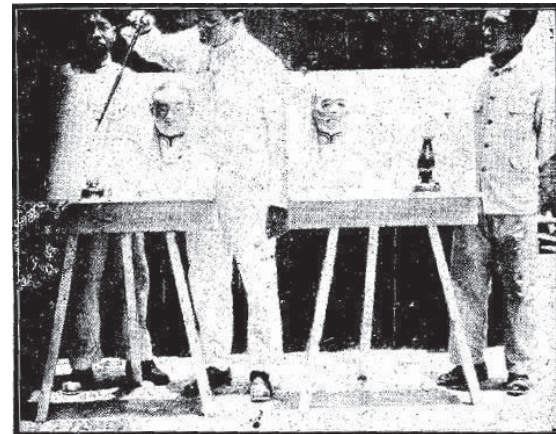
〈도판 36〉 환등기와 영사기 겸용 옆 홀(Sherwood Hall) 의사
Souvenir Album of the School of Hygiene for the Tuberculous-Haiju,
 Korea, 1938.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도판 37〉 피터(W. W. Peter) 박사의 공중보건과 위생 강연 무대
 F. Strother(1918). "An American Physician-diplomat in China". *The World's Work*, New York: Doubleday, Page and Co., p. 546.



〈도판 38〉 북경에서 열린 공중보건 박람회를 관람중인 군인들
 F. Strother(1918). "An American Physician-diplomat in China".
The World's Work, p. 550.



〈도판 39〉 위생 강연 중인 피터 박사. W. W. Peter(1931). A
 Public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China, YMCA Archives.



〈도판 40〉 “Washing Rice and Shoes”,
 〈China〉 YMCA 환등교본, 1928, Harvard Yenching Library.



〈도판 41〉 “Table Carried in Parade”,
 〈China〉 YMCA 환등교본, 1928, Harvard Yenching Library.



〈도판 42〉 에비슨(Dr. Oliver R. Avison) 의사의 세브란스 병
 원에서의 수술장면, 문화재청 소장.



〈도판 43〉 수술 장면, 장로교 아카이브



〈도판 44〉 에디스 마가렛 어린이 병동(Edith Margaret Children Ward). Korea, Medical Work, Mission Education,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도판 45〉 굿하는 장면.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編(1915). 『朝鮮衛生風習錄』. 京城: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p. 1.



〈도판 46〉 콜레라 감염 환자 격리병실의 모습
〈(大正九年)コレラ病防疫誌〉. 조선총독부, 1921



〈도판 47〉 대만의 콜레라 감염 환자 격리병동 모습
Michael Shiyung Liu(2009). *Prescribing colonization: The role of medical practices and policies in Japan-ruled Taiwan, 1895-1945*, p. 89.



〈도판 48〉 위생 환등회 모습

Michael Shiyung Liu(2009). *Prescribing colonization: The role of medical practices and policies in Japan-ruled Taiwan, 1895-1945*, p. 123.



〈도판 49〉 콜레라 예방 집중

〈(大正九年)コレラ病防疫誌〉, 朝鮮總督府, 1921.



〈도판 50〉 페디스토마 환자 기침가래 검사상황

〈朝鮮衛生要覽〉, 朝鮮總督府, 1929.



〈도판 51〉 일본의 전염병 예방 환등슬라이드

早稲田大学坪内博士記念演劇博物館 編(2015). 앞의 책, p. 90.



〈도판 52〉 일본의 전염병 예방 환등슬라이드
早稲田大学坪内博士記念演劇博物館 編(2015). 앞의 책, p. 90.



〈도판 53〉 <위생 펀치 衛生ポンチ> 풍자만화 시리즈,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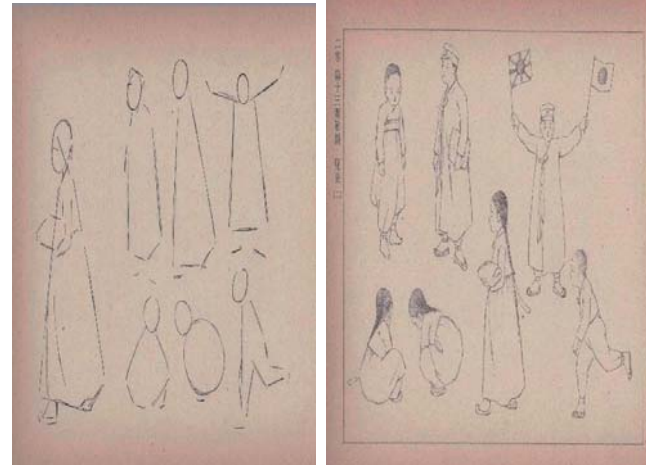
〈도판 54〉 <위생 펀치 衛生ポンチ>라는 제목의 풍자만화 시리즈, 일본



〈도판 55〉 쥐 먹는 남자, c. 1870



〈도판 56〉 취 먹는 남자 연속 이미지, c. 1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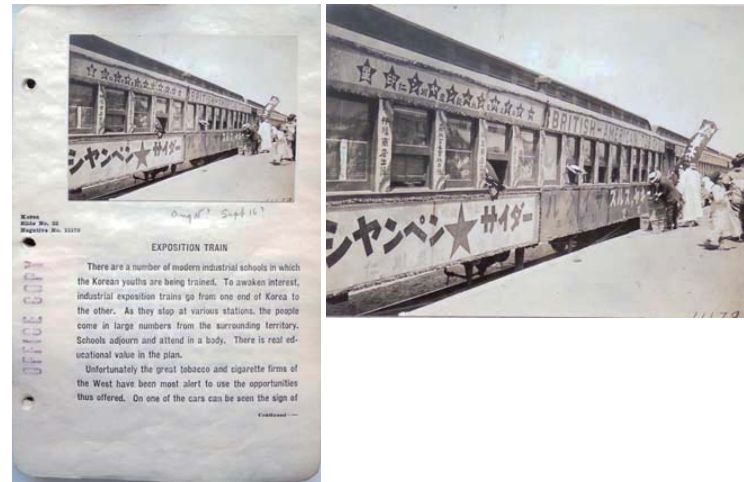
〈도판 57〉 교과서 삽화

朝鮮總督府(1926). 『普通學校圖畫帖 教師用, 第2學年』. 朝鮮總督府.



〈도판 58〉 교과서 삽화

朝鮮總督府(1938-39). 『國史地理』上, 下, 京城朝鮮書籍印刷



〈도판 59〉 기차박물관

〈Korea〉 환등교본 중,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



〈도판 60〉 신안주 역에 정차 중인 기차박람회
〈Korea # 1〉 앨범, p. 178. The United Methodist Archives.